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과거 천년, 미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동참 문의
02) 6273-0108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65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11월 20일) 2024년 1월 1일 월요일



“새해에도 부처님 법 전합시다”

상월결사를 이끌던 자승 대종사는 적멸의 길로 나아갔지만 ‘성불하자’는 인사 대신 ‘부처님 법 전하자’는 대종사의 유지는 계묘년을 지나 갑진년에도 계속된다. 청년 · 대학생 포교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가 최근 창단을 도운 경동대 불교학생회를 비롯해 상월청년회, 광동중 · 고교 학생들과 새해에도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총무국장 보관 스님 등 사중스님과 청년들이 봉선사 일주문 앞에 모여 조계종 포교원의 ‘부처님 법 전합시다’ 손팻말을 나눠 들었다.

글 · 사진=윤호섭 기자

지역불교 새 리더 선출 4월 총선, 불자 약진 기대 불교중흥 토대 다져간다

2024년 갑진년, 주목할 불교계 소식은

신중일 · 윤호섭 기자

다사다난했던 2023년 계묘년이 지나고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또 어떤 소식들이 불자들을 찾아갈까. 변화가 예상되는 올 한 해 한국불교 주요 소식을 정리했다.

교구본사 주지 대규모 임기만료

조계종에서는 올해 전국 25개 교구본사 가운데 무려 10개의 본사주지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여러 교구본사에서 선거와 합의추대 형식을 통해 주지가 교체되거나 중임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교구본사주지 임기가 상반기에 몰려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가장 먼저 제4교구본사 월정사는 주지 정념 스님이 6번째 연임을 확정했다. 임기는 1월 중 만료되지만 지난해 12월 산중총회를 통해 정념 스님의 연임이 만장일치로 정해졌다. 교구본사주지가 6번 연임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총림이자 제21교구본사 송광사도 얼마 전 임회에서 차기 주지후보를 창원 길상사 회주 무자 스님으로 확정했다. 임기는 2월 13일부터 4년간. 총림 주지는 임회 동의를 거쳐 방장이 추천하고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오는 3월 주지임기가 만료되는 본사는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제3교구본사 신흥사다. 산중총회를 1월 19일로 확정한 관음사는 현 주지 허운 스님이 2016년부터 두 만기를 지냈다.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1월 7일부터지만 현재까진 경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총림에서 해제된 쌍계사는 이제 총림 방장의 추천이 아닌 산중총회를 거쳐 차기 주지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상반기에만 9개 본사주지 임기만료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변화

4월엔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제5교구본사 법주사, 제9교구본사 동화사가, 6월엔 제17교구본사 금산사의 주지 임기가 만료된다. 금산사의 경우 총림은 아니지만 2021년 7월 원적에 든 조실 태공당 월주 대종사가 오랫동안 선거 없이 주지를 선출하도록 이끌었다는 점에서 올해가 주목된다. 하반기인 9월엔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 밖에 현재 주지 직무대행 체제인 제11교구본사 불국사와 제14교구본사 범어사의 정식 주지 선출 가능성도 있다. 〈A2면에 계속〉



2024년 신년특집호
A·B·C 섹션 80면 발행

데스크 초대석 A7
오대산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



만다라 B1 · 2
창간 50주년 맞은 월간 〈불광〉



신년특집
이젠 브랜딩 시대
A15 · 16 · 17 · 20 · 21



RE:START 대학생 전법
B5 · 6 · 7 · 10 · 11
‘잘파세대’를 주목하라 C1~3
신년법어·신년사 A9~12

사 령

〈승진〉
박 재 완 총괄국장
신 중 일 편집장/편집국 부국장
2024년 1월 1일 부

〈A1면에 이어〉

4월 총선, 불자후보들 성적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0일 치러진다. 정확히 100일 남았다. 4년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선거는 불자후보들의 당선 여부에 불교계 관심이 집중된다. 불자의원 신행단체인 국회정각회 회원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이라는 오명을 쓰며 2020년 7월 개원한 21대 국회는 20대보다 다소 줄어든 불자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당시 21대 국회정각회 창립총회에선 더불어민주당 24명과 미래통합당 13명 총 37명의 불자의원이 회원으로 등록했다. 20대 정각회에 40여 명이 가입했던 것보다는 적은 기록이다.

국회정각회가 전통사찰과 국립공원 등 다양한 불교계 현안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가오는 총선 결과에 여느 때보다 불교계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국가유산 본격화

5월부터는 문화유산 정책이 대거 변경된다. 지난 60여 년간 '문화재'로 관리되던 시스템이 '국가유산' 체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국가유산은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했던 문화재 용어 대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적용한 체계다. 문화재 개념은 지난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과 함께 60여 년 동안 사용돼 왔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 내 △문화유산(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자연유산(명승, 천연기념물) △무형유산으로 분류돼 보존 관리된다.

새해 종단 초월한 대축전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1월 30일 서울서 개최키로

정관계 등 각계 인사 초청해
국운융창 기원·문화공연도
신임 사무총장엔 진호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국내 30개 주요 불교종단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을 초청해 국운융창을 기원하는 불교 대축전을 개최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이하 종단협)는 12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기2567(2023)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새해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 대축전'은 1월 30일 오후 4시 서울 강남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800명을 초청해 열린다. 초청 대상은 각 종단 임원과 주요사찰 주지, 정관계 및 사회 각계 인사, 재가대표 등이다. 1부 불교문화공연과 2부 법회 및 신년하례, 3부 공양 순으로 진행되며 세부 프로그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종단협은 또 지난 2014년 실시한 회원종단 현황 파악사업을 10년째 되는 내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 전국적 질병 발생 시 사회 안전망 확보에 필요한 협회 회원종단의 변화된 사항을 정리하는 의미도 담겼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추진 논의를 일본불교계와 재개한다. 유족 입장 등 봉환에 문제가 없는 무연고 유골을 우선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대외적으로 해외불교계와의 교류 정상화에 맞춰 해외불교인사 연등회 초청, 한국불교지도자 해외성지 순례, 제6차 중국세계불교포럼, 제24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일본대회 등 다수의 해외 교류행사가 추진된다.

임기 만료를 앞둔 종단협 사무총장 도각 스님 후임으로는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이 투표를 거쳐 당선됐다. 임기는 내년 2월 18일부터 3년간이다. 진호 스님은 "하심하는 마음으로 회원스님들을 잘 모시고 호평받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신임 감사는 삼론종 총무부장 근혜 스님, 대승종 총무부장 진공 스님, 법화종 총무부장 현묵 스님이 임명됐으며,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10억1760만원, 특별회계 6억900만원으로 확정했다. 협의회는 또 6년간 사무처장을 맡았던 진경 스님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은 "협의회가 여러 안건을 소화해내고 무탈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며 "불교중흥의 토대를 마련해 내년도 역사에 남을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태고종 전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대종사 법계증을 종정 운경 스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모습.

태고종 최고 법계 '대종사' 18명 탄생

전 총무원장 호명 스님 등 품서
운경 스님 "적자종단 긍지 갖자"

태고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에 18명의 스님이 새로 탄생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은 12월 19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법륜사 대불보전에서 '대종사 특별법계고시 품서식'을 봉행했다. 태고종 종정 운경 스님을 증명으로 봉행된 품서식에서는 총 18명의 대종사가 탄생했다. 운경 스님은 전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비롯해 18명의 대종사에게 각각 가사고리와 불자를 선물하며 법계증을 수여했다.

운경 스님은 법문에서 주장자를 내려친 후 "한 번의 주장자 소리가 삼천대천세계를 무너뜨리고 중생의 무명업장을 다 녹여버린다. 이 소식을 알겠는가"라고 일갈하며 "종단 최고 지도자 반열에 올라 선 스님들께서 새로운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종단의 발전을 기하는 데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자리에 전직 원장 부원장 등이 모두 계시다. 태고보우 국사의 법통을 잇는 적자종단의 긍지를 갖고 일로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축하인사말을 통해 "새로 종정에 추대된 운경 큰스님을 모시고 대종사 법계품서식을 갖게 돼 너무 기쁘다"면서 "이는 전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만들어 놓은 안정된 기반 위에서, 또 오늘로 임기가 만료된 고시위원장 재홍 스님이 탄탄히 법계고시 기틀을 다져놓은 덕분"이라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사찰 문화재관람료 감면 예산 554억원

문화재청, 확정 결과 발표
총 예산 1조3659억원 확정
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증액

국가 문화유산 정책·관리 예산 규모가 약 1조3600억원에 이르게 됐다. 이중 사찰 문화재 관람료 감면에 따른 예산은 554억원으로 확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024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3489억원보다 170억원(1.3%) 증액된 1조365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지난해 12월 21일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된 주요 사항은 세계유산보존관리 지원(58억원), 역사문화권 정비(18억원),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운영(15억원), 국가유산 광역 활용기반 구축(6억원), 국가유산 경관 개선(5억원),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5억원) 등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사찰 문화재관람료 감면 정책에 따른 예산은 554억원이 확정됐다. 이는 1월부터 12월까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사찰 65곳의 참배객 규모를 조사해 결정한 것이다. 2023년 예산은 421억원으로 이는 4월부터 12월까지를 조사해 정한 것이었다.

올해 5월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의 비전을 새로 수립했다. 국민의 삶과 조화를 이루는 국가유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미래가치를 적극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체계(패러다임)를 대폭 전환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은 이러한 비전과 방향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회계·기금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1조2067억원으로 올해(1조1899억원)보다 168억원(1.4%) 증액됐고, 문화재보호기금은 1592억원으로 올해(1609억원)에 비해 17억원(1.1%) 감액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보호 8253억원(문화재 보존관리 6036억원·문화재 보호 928억원·궁능원 관리 1289억원), 문화재 활용 984억원, 문화재 국제교류 622억원, 문화유산 교육연구 793억원,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 18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매장문화재 진단조사 비용 지원(50억원) △사회적 약자 디지털 기반 조성(27억원) △창덕궁 돈화문 보수(20억원)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지원금 지원(17억원) △K-공유유산 활용기반 구축(15억원) △국가유산 광역 활용기반 구축(6억원) △국가유산 경관 개선(5억원) 등이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과 국민들의 공존과 상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호방안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유산이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경제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철저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출가 장려 콘텐츠 조계종이 지원한다

미래본부 예산 4000만원 확보
교재·방송자료·애니메이션 등
수집해 출가홍보에 활용키로

지속적인 출가자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조계종이 출가 확대를 위한 콘텐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조계종 미래본부 출가장려위원회(위원장 혜일)는 12월 19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출가 관련 각 기관·부서 사업 계획 및 출가장려 방안을 논의했다. 출가장려위는 내년 출가자 감소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 사례와 각 출가 정책별 발전방안을 다루면서 출가를 주제로 한 종책토론회를 2회 개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출가 관련 사례, 경전 문구, 어록 등을 수집해 교육교재와 홍보 및 방송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출가인연 사례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과 동영상 콘텐츠 생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집된 사례를 출가홍보에 사용한다.

종단 외부적으로는 출가를 주제로 한 부처님오신날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도 검토했다.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면 출가인구 절벽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 출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 MZ세대 스님들의 출가 이야기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전망이다.

위원장 혜일 스님은 "포살에 참여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스님 숫자가 많지만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출가장려위원회가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교육원은 현재 운영 중인 출가상담사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출가상담으로 상담 건수를 높여 잠재적 예비출가자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온·오프라인 추가 홍보 확대, 교구본사 출가홍보 현수막 설치, 종립학교 및 포교원 산하단체 연합행사 시 영상상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수교육에서는 '발심, 출가 어떻게 이끌 것인가' 강의를 진행하고, 교법사와 군법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를 위한 출가장려 강의도 마련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2024 갑진년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생은 전법 부처님법 전합시다

갑진년,
조계사가 전법의 길로 들어섭니다

조계사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 02.768.8500 / www.jogyesa.kr

‘청년포교’ 이끌 봉선사 상월청년회 창단

산하기관서 청년 75명 뜻 모아
지도법사 사회국장 법륜 스님
호산 스님 기금 500만원 지원
창단 예정 수미산합창단 소개도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과 포교원장 선업 스님, 봉선사 상월청년회원들이 청풍루 앞에서 전법 의지를 다지고 있다.

남양주 봉선사=윤호섭 기자

교종본찰 남양주 봉선사가 또 하나의 청년포교 결실을 맺었다. 앞서 기존 상월청년회와 상월청년합창단, 경동대 불교학생회, 광동학원 등의 청년을 모아 정기적인 청년연합법회를 마련한 데 이어 이번엔 봉선사 산하 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청년회를 꾸린 것.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는 지난해 12월 17일 경내 청풍루에서 ‘봉선사 상월청년회 창단법회’를 봉행했다. 봉선사 상월청년회는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남양주시노인복지관,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남양주시일시청소년쉼터, 구리실버인력뱅크, 인창경로식당, 연꽃유치원에서 모인 75명의 20~30대 청년들이 주인공이다. 지도법사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자 봉선사 사회국장인 법륜 스님이 맡았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청년회 임원진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하고 단주를 선물했다. 이어 청년포교가 보다 확산돼 자승 대종사의 유지인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청년회 발전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호산 스님은 “일요일이나 초하루 법회를 보면 여러분의 어머니, 할머니뻘 되는 분들이 95%고, 가뭄에 콩 나는 것처럼 거사님 몇 분이 전부다. 20대는 찾아볼 수 없어서 문제를 느끼고 고민해왔다”며 “앞서 입적하신 자승 큰스님의 가장 큰 유지가 대학생·청년 전법이다. 앞으로 불교의 미래인 여러분이 더 활기차게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치사를 통해 봉선사를 기점으로 전국 모든 사찰에서 청소년의 법향이 피어나길 기원했다. 스님은 “지난달 경동대 불교동아리를 창단해 활동을 시작한 것과 더불어 봉선사 상월청년회를 조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포교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아낌없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봉선사 상월청년회를 이끌 서찬수 회장은 “불교복지 실천이 곧 자비행이고 전법이라는 걸 잊지 않으며 진심으로 이웃을 맞이해 신심으로 전법하겠다”면서 “큰 그릇에 나눔과 행복을 함께 부으며 작은 힘을 모아 큰 뜻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이어 수국사 주지 보관 스님은 봉선사 상월청년회 임원진에게 각각 자승 대종사의 ‘부처님 법 전합시다’ 친필 액자를 전달하며 청년회 활동을 격려했다.

봉선사 상월청년회 창단법회에선 3월 창단 예정인 수미산합창단 소개와 단원 모집도 이뤄졌다. 수미산합창단은 현재 50세 미만 광동학원 3개교 불교학부모회와 봉선사 불교대학 입문반 31명으로 구성돼 있다. 권준희 지도법사는 “2월까지 단원을 계속 모집해서 활동할 계획”이라며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받아 노래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알리는 문화포교예술단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단장은 광동고 마야회 박경희 씨가 맡았다. 주지 호산 스님은 수미산합창단에도 운영기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 밖에도 체육인전법단장을 맡고 있는 호산 스님은 최원석, 김희정, 한예슬, 조혜린 학생에게 청소년 체육인 장학금 각 100만원을 지원했다. 장학금은 포교원장 선업 스님이 수여했으며, 장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년 지원된다.

조계종 9기 환경위원장에 화평 스님

진우 스님, 위촉장 수여·격려
화평 스님 “사찰림 관리 최선”



불교계 환경 정책을 모색하고, 사회 환경문제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조계종 9기 환경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화평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위원 16명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제2차 회의’를 갖고 신임 위원장에 중앙종회의원 화평 스님을 만장일치 선출했다. 임기는 2025년 6월 15일까지다.

새로 선출된 화평 스님은 “선배스님들이 지키고 가꿔온 사찰림과 불교문화유산이 유지·보존되고 후대까지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자”며 “필요한 부분은 종단에 건의하고,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숲가꾸기 및 재선충 사업,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을 이유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사찰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 사업을 진행, 중장기적 로드맵 구축 계획도 논의했다.

종단의 친환경적 운영과 생활, 문화, 생태, 환경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올해 활동 계획도 세웠다. 환경위는 △종단 및 사찰의 환경 현안에 관한 활동 총괄 △사회적 환경 이슈 및 사찰환경 분쟁에 관한 대응 및 자문 △불교 제도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 △환경 정책의 연구·조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해 환경 이슈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의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화평 스님에게 제9기 환경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고 1700여 년 동안 가람이 유지되고, 산림이 잘 조성된 데는 환경을 보호하고자 노력해온 스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대에는 쓰레기, 공기 오염, 탄소 배출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불교의 환경 보존 의식이 사회, 국가로 퍼져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교계가 환경보존 활동을 선도할 수 있도록 환경위원회가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연화원 창립 20년…불심으로 하나 된 축제 한마당

수어사랑 음악회 및 자비축제
가수 홍경민, 송우주 등 공연
점자 경전 · 장학금 전달 이어져



연화원 20주년을 맞아 진행된 수화사랑 음악회에서는 연화직업재활원 이용자와 해성 스님이 함께 무대에 올라 큰 박수를 받았다.

자비의 손짓이 천리만리 울려퍼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세상을 열어가길 발원하며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사장 해성 스님)이 자비나눔 음악회를 개최했다.

연화원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20회 수어사랑 음악회 자비나눔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연화원 창립 20주년을 맞아 진행돼 더욱 의미를 더했다.

해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20년을 함께해준 고마운 이들 한 명 한명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신심 하나로 뛰다보니 번듯한 시설도 없고 부끄러운 마음 감출 길이 없지만 앞으로도 서로 손잡고 하나 되는 세상 살맛 나는 세상을 앞당길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본격적인 음악회가 시작됐다. 공연은 연화직업재활원 이용자와 해성 스님이 함께 무대에 올라 큰 박수를 받았다. 먼저 발달장애인 학부모와 해성 스님이 함께한 난타 공연에 객석에서는 환호성과 흥겨운 박수가 쏟아졌다. 연화직업재활원 이용자 및 마하연모회의 공연에는 아낌없는 응원이 이어졌다.

2부는 가수 홍경민이 무대에 오르며 막이 올랐다. 이 밖에도 불자가수 이소우, 연극배우 이정성, 불자가수 송우주, 국악인 남상일, 마하무용단, 수어사랑합창단 등의 공연으로 동참자들은 흥겨운 오후 시간을 보냈다.

이날 연화원은 광림사 청각장애인불자회, 시각장애인불자회, 서울시 농아농이협회, 지체장애인단체 등에 자비의 쌀 백미 3000kg를 전했다. 또 장애인 부모의 자녀 가운데 대학생 1명, 고등학생 2명, 중학생 1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원했다. 점자 불전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해성 스님은 한국시각장애인불자회에 점자를 통해 경전을 읽을 수 있게 만든 〈불교성전〉 3편을 전달했다. 임은호 기자

사찰음식 조리사 자격 취득자 24명 배출

사업단, 제13회 자격증 수여식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스님)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화엄실에서 ‘제13회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 수여식’을 갖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24명에게 전문조리사 자격증을 수여했다.〈사진〉 이번 전문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24명 가운데는 스님 7명과 재가자 17명이 포함됐다. 3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했다.

사찰음식의 전통 보전 및 계승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사찰음식 전문조리사’는 문화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사찰음식 교육관의 사찰음식 정규과정(초급·중급·고급 각 3개월 과정)과 인증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필기 및 실기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 전문자격을 도입,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시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최초 2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60명을 배출했다.

문화사업단장 원명 스님은 “사찰음식 정규강좌를 확대 운영하고 배출된 전문조리사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적극 제공해 전문조리사들이 활동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창립 30돌 현대불교신문, 이렇게 바뀝니다

VISION Ⅰ 확 달라진 서체로 읽기 편하게

2024년 〈현대불교〉 본문체는 조선일보가 2020년 창간 100주년을 기념해 배포한 조선일보 전용 서체 '조선일보명조'를 적용합니다. 2007년 배포한 기존 서체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기존 명조체를 계승하되 획을 단순화해 현대적 미감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대불교〉는 독자 여러분께서 새로운 서체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대중화된 서체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기사 제목에는 기존 서체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조선굵은명조'를 적용했습니다. 이 서체는 정통 명조체 느낌에 조형미를 더해 굵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본문 글씨는 남녀노소 누구나 읽기 편한 크기로 바꿨습니다. 기존 10.25pt에서 11pt로 글씨를 키우고, 간결함이 돋보이도록 자간과 행간도 일부 조정했습니다. 보다 굵고 선명해진 글꼴은 가독성을 높여 독자의 신문 읽기를 돕게 됩니다.

	구 서체	신 서체
제목	불	불
본문	현대불교	현대불교



VISION Ⅱ 다시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1994년 대행 선사께서 창간한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사시로 출발했습니다. 시대 언어를 통해 불교를 전하고, 불법(佛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세계 속으로 한국불교를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근간에는 '전법'이 있습니다. 이제 30살을 맞이한 현대불교신문은 사시이자 창간 정신이기도 한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한국불교에 구현하는 데 매진하려 합니다.

30주년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은 전국의 선지식들에게 법을 청해 듣는 '지상백고좌'를 다음 호부터 시작합니다. 불교 전문 작가인 유응오 소설가, 문윤정 작가, 유철주 작가가 필진으로 참여해 선지식들의 고준한 가르침을 지면으로 전할 예정입니다.

불교 전법의 뿌리는 '세대전승'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개종이 어려워지는 '가족 중심 신앙' 형태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불교는 '가족 간 세대전승'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에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3대'라는 신행공동체를 모범적으로 이뤄낸 불자 가족들을 발굴해 소개하는 '우리는 불교 3대'를 연재할 계획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세계 선명상 대회'가 열립니다. 이에 맞춰 명상수행 중요성과 현황,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기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리랑카 오지 학교 설립, 노숙자 배식 봉사 사업을 진행 중인 (사)다나와 연계해 다양한 대사회 캠페인 사업을 전개하려 합니다.



〈현대불교〉 창간호 1면

VISION Ⅲ 오피니언 강화…읽을거리를 늘렸습니다

30살이 된 현대불교신문은 지면 개편을 통해 읽을거리를 확대했습니다. 개편 방향은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대중성과 함께 전문 칼럼들을 확대해 전문성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장 먼저, 오피니언 지면을 2개면으로 늘렸습니다. 기존 1개로 운영되던 오피니언 칼럼도 2개로 확대했습니다. 기존 칼럼 '현불논단'은 불교계의 현안들을 중점으로 다루게 될 예정이며, 신설되는 칼럼 '세간과 출세간'은 정치·사회·문화 등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논설위원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불교 미학과 명상을 대중에게 전하는 명법 스님을 비롯해 저자거리 포교 법현 스님, 위덕대 불교문화학과장 성제 정사, 성소수자 법회를 이끄는 효록 스님, 불교의례전문가 이성운 동방대학원대학 교수, 국내 유일 불교종무행정 전문가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최원형 생태칼럼니스트,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등이 논설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공일 스님


김권태


김형중

또한, 전문가 칼럼도 오피니언 지면에 배치합니다. 출가 전 수의학을 전공해 수의사 면허가 있는 이색 이력의 소유자 봉은사 포교국장 공일 스님은 바이오테크놀로지(BT) 시대에 불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모색하는 칼럼을 쓸 예정입니다.

김형중 문학평론가는 깨달음의 진수를 언어로 벼려낸 선시와 게송들을 대중에게 소개하며, 김권태 동대부중 교사는 일선 교육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불교적 교육법을 전합니다. '포교일기'를 통해서는 일선 포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건강 지면에는 마음건강을 위한 '김영애의 안심뜰', '하성미의 心心talktalk'과 신체 건강에 초점을 둔 '관절건강 365', '홍재화의 걷기 삼매경', '건강사용설명서'가 연재됩니다.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韓國佛教太古宗
총무원장 수봉 상진 스님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	홍보부장	탄묵 스님	동방대 교학처장	철오 스님
재경부원장	고담 스님	사회부장	도휘 스님	총무국장	정각 스님
기획실장	영범 스님	규정부장	진화 스님	교무국장	진광 스님
총무부장	도성 스님	비구니부장	현담 스님	사회국장	명지 스님
교무부장	정안 스님	전법사부장	심원 스님	규정국장	도우 스님
재경부장	일공 스님	사서실장	원오 스님	재경과장	시암 스님
문화부장	선광 스님	사서국장	일묵 스님	홍보과장	일서 스님

종도일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전화 02) 739-3450, 팩스 02) 739-3470

2024 신년 필진들

현대불교신문이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필진을 강화했다. 오피니언 지면을 강화하고 논설위원을 대거 보강했으며, 불교문화 유산·인문학·사찰음식 기행 등 대중성에 기반한 신규연재들을 새로 선보인다. 신년 신규 필진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무진 스님의 '불국토 경주 남산에 오르다'



경주 남산은 산 전체가 불국정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곳에는 150여 곳의 절터가 있고, 불상은 130여 구가 있으며, 100여 기의 불탑과 22기의 석등 그리고 19점의 연화대가 있다. 전체 문화유산으로는 국보 1점, 보물 14점, 사적 15개소가 있다. 말 그래로 경주 남산은 불교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사찰이다. 오랫동안 경주 남산을 답사하며 불교문화유산들을 살펴온 경기 광주 빛고운절 회주인 무진 스님이 한국 불자들이 지키고 가꿔야 할 경주 남산의 면면을 조명한다.

목경찬의 '사찰 설화 탐사대'



사찰엔 옛이야기가 숨어있다. 큰스님이 땅에 꽂은 지팡이는 사찰을 수호하는 나무로 자라나고, 자신의 몸을 불속에 내던져 부처님께 공양한 원숭이 이야기도 전해진다. 일주문이나 염주알 개수, 타종하는 횟수까지 숫자마저도 이야기가 되는 불교. 곳곳에 숨겨진 불교설화를 찾아간다. 순례 전문 이야기꾼 목경찬 강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유식불교를 전공해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동국역경원 번역사업에 참여하고, 현재 여러 불교대학에서 교리와 불교문화를 강의하고 있다.

이미령의 '스토리텔링 경전에세이'



부처님 말씀을 담은 경전은 팔만사천 경전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또한 중국을 거쳐 경전이 전해졌기에 한문으로 이뤄져 현대인들이 읽고 그 뜻을 이해하기엔 어렵다. 그렇기에 일반 불자들은 넓고도 넓은 경전의 숲 입구에서 어디로 갈지 헤매기 일쑤다. 경전이야기꾼을 자처하는 이미령 작가가 부처님 경전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한다. 담백하고 잔잔한 이미령 작가의 글맛은 보너스.

장보배의 '사찰 국수 기행-스님이 웃는다'



산사의 먹을거리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이름 국수. 스님들을 미소짓게 만든다는 뜻에서 '승소'라 한다. 사찰 국수 기행 '스님이 웃는다'는 스님들의 검박한 삶과 수행 이야기를 한 그릇에 담아 독자들에게 전한다. 사찰 국수 기행을 이끌어갈 장보배 작가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템플스테이 실무 경험을 쌓은 후, 한국의 불교 문화유산과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등 우리 시대의 다양한 산사 풍경을 발견하고 기록하고 있다.

박동춘의 '차 이야기'



명대 하수방(1551~1635)이 저술한 〈다동〉은 4자로 구성된 차의 고사집(故事集)이다. 특히 〈다동〉은 초의 선사가 〈동다송〉을 저술하면서 차 문화의 고사를 참고했던 문헌이어서 중요하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은 〈다동〉 번역과 해설을 통해 한국 차의 문예적 가치나 차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44년 동안 차를 만들고, 즐기면서 경험하고 고민했던 내용들도 산문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구성할 계획이다.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하늘의 뭉게구름처럼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몽글몽글한 얼굴과 마음을 가진 뭉밀이 캐릭터가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행복 메시지를 전한다. 뭉밀이의 일상을 그려나갈 현밀 스님은 2023년 운문승가대를 졸업하고, 제7기 조계종 교육원 전문습의사로 활동 중이다. 불교크리에이터 4기로 활동하며 뭉밀이 캐릭터를 활용, 일러스트뿐 아니라 굿즈 등 다양한 불교 콘텐츠를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김영애의 '안심뜰'



29년째 불교를 만나 마음공부를 하고, 여러 사람과 대화하며 상담해온 안심(安心)전문가 김영애 법사가 누구나 안심하는 법을 전한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주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며느리, 문사수법회 법사이면서 성장커뮤니티 '퓨처스쿨' 리더인 김영애 법사가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며 나눈 이야기를 통해 내 마음의 상처를 하나씩 치유해보자. 김영애 법사는 온라인에서 〈금강경법문〉 윤독과 감사의 108배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문사수법회에서 법문과 강의를 하고 있다.

하성미의 '心心talktalk'



부처님의 심리상담 지혜를 전한다. 하성미 기자는 상담현장에서 우울증, 신체화, 공황장애, 성폭력, 강박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내담자를 만나 치료해왔다. 하성미 기자는 마음이 궁금해 불교를 만났고 20년 전 부처님께 귀의했다. 기독교에서 방황하며 혼란스러웠던 청년기를 마무리하고 글과 사진을 도구 삼아 불법의 현장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2급),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2급) 자격을 갖고 있다.

오피니언 논설위원들


법장 스님


법현 스님


명법 스님


정운 스님


성제 정사


이성운


조기룡


석길암


효록 스님


최명숙


박수호


지승도


최원형


이상근


이화행


방영준

2024년부터 오피니언 지면을 확대함에 따라 논설위원 칼럼을 불교계 현안을 다루는 '현불논단'과 세간의 현안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세간과 출세간'으로 나눠 운영한다. 이에 따라 논설위원들도 대거 확대했다.

'현불논단' 신임 논설위원인 명법 스님은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미학과에서 석·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해인사 국일암으로 출가한 스님은 현재 각 교육기관 등서 미학과 명상, 불교교리를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선종과 송대 사대부의 예술정신〉 〈미국부처님은 몇 살입니까?〉 〈미술관에 간 붓다〉 〈은유와 마음〉 등이 있다. 현재, 해인사 국일암 감원으로 주석 중이다.

저자거리 포교로 잘 알려진 법현 스님은 열린선원장을 비롯해 평택 보국사·일본 나가노 금강사 주지로 활동하며 한국과 일본 대중에게 불교를 전하고 있다.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법현 스님과 함께 하는 법구경〉 등의 저서를 썼다.

진각종 교화자인 성제 정사는 일본 다이쇼 대학(大正大學)에서 불교학 박사를 받았다. 진각종 교법연구실 상임연구원,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과 교수(학과장), 한국밀교학회 이사,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는 동국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조계종 의례위원회 실무위원, 불교의례문화연구소 연구실장을 지냈다. 현재 세계불학원(붓다아카데미) 연구소장, 서울시무형문화재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불교의 행위와 문법에 관심을 가지고 영산·수륙재 등 의례와 실천 관련 논문 수십 편을 썼다.

종무행정 전문가로 잘 알려진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박사를 받았다. 불교종무행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불교리더십과 사찰운영〉 〈종무행정론〉 〈사찰경영, 부처님 법대로 하면 잘된다〉를 저술·발간했다.

'세간과 출세간' 신임 논설위원 효록 스님은 청암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자아초월상담학으로 상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다르마심리상담명상센터 대표로서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전문가(수퍼바이저), 한국불교상담학회 수퍼바이저 등으로 활동 중이다.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가 주관하는 성소수자 법회를 앞장서 이끌고 있다.

불자 장애예술인 모임 보리수아래를 이끄는 최명숙 대표는 〈시와 비평〉으로 등단한 불자 시인이다. 자신도 뇌성마비를 앓았던 최 대표는 불교 장애인 복지와 전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공로로 장애인의 날 유공자 포상 대통령 표창(2002), 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2015), 서울복지상 우수상(2016),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국무총리상(2018) 등을 수상했다.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는 동양사회사상학회, 한국이론사회학회, 불교학연구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한국문화경제학회, 지역사회학회 등에서 이사 및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불교와 관련된 사회학적 연구 주제를 발굴함으로써 불교사회학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포스트휴먼 사회와 불교, 불교의 사회적 책임 등으로 연구 관심을 넓히고 있다.

지승도 한국항공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교수는 저서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로 불자들에게 잘 알려진 과학자다. 사람을 이익 되게 하는 진정한 인공지능은 과학, 철학, 종교, 인문을 통섭하는 초과학에 실마리가 있다는 신념으로, 붓다의 철학과 과학을 이용한 인공지혜 신기술 이슈에 전념하고 있다.

생태 환경 저널리스트인 최원형 작가는 잡지사 기자와 EBS, KBS 방송작가로 활동했다. 현재는 생태·에너지·기후변화와 관련해 여러 매체에 글을 쓰고 강의를 하며 시민 교육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 〈착한 소비는 없다〉 〈환경과 생태 쫌 아는 10대〉 〈사계절 기억책〉 등이 있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은 조계종 중앙신도회 문화재환수위원회를 시작으로 문화재환수국제연대를 거쳐 현재까지 국외 소재 문화재 출처 조사와 환수작업, 정책 제안, 문화유산 보전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문화유산 환수 전문가다. 저서로는 〈돌아온, 돌아와야 할 우리 문화유산〉(공저), 〈문화재 전쟁〉(공저)이 있다.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謹賀新年

大韓佛教天台宗

종정 김 도 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박덕수
총무부장 강시용
교무부장 정도웅
교육부장 구성해
재무부장 지설혜
사회부장 김진철
규정부장 윤갈웅

종의회
종의회의장 김세운
종의회부의장 김경천
황세열
총무분과위원장 김월도
법제분과위원장 방경혜
재무분과위원장 이보광

원로원
원로원장 주정산
원로간사 김도산

감사원
감사원장 조진덕
감사위원 곽수산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73 총본산 구인사
전화 043-423-7100 | 전송 043-420-7399 | www.cheontae.org

갑진년 새해

"청룡"의 웅비하는 기상과 같이
더욱 정진 하겠습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사부대중 일동



불교총지종 불교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한국 정통밀교 종단입니다.

종령 법공 대종사
통리원장 우인 정사 종의회의장 법상인 전수 사감원장 법일 정사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전화 02)552-1080~3 www.chongji.or.kr

건강과 행복이 깃드는 새해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만 청

사부대중 일동

소원성취도량 쌀바위 부여 미암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성충로 미암길128
전화 041)832-1188 www.miamsa.com

(사)대한불교 원융종

圓融宗 四大綱領

圓融無碍 一O相 眞理體得
우리종도는 원융무애한 일원상의 진리를 스스로 체득한다.

圓滿融通 人格完成
우리종도는 원만 융통한 대인상의 인격을 수련 성취한다.

圓通融和 道義社會建設
우리종도는 원통융화한 이상 사회의 실현에 적극 헌신한다.

圓融會通 理想世界實現
우리종도는 원융회통의 참된 평화 세계건설에 이바지한다.

원융종 종도일동

총무원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180-6 (구로동)
총본산 : 원융사 전화 02)853-0430~1 팩스 02)857-5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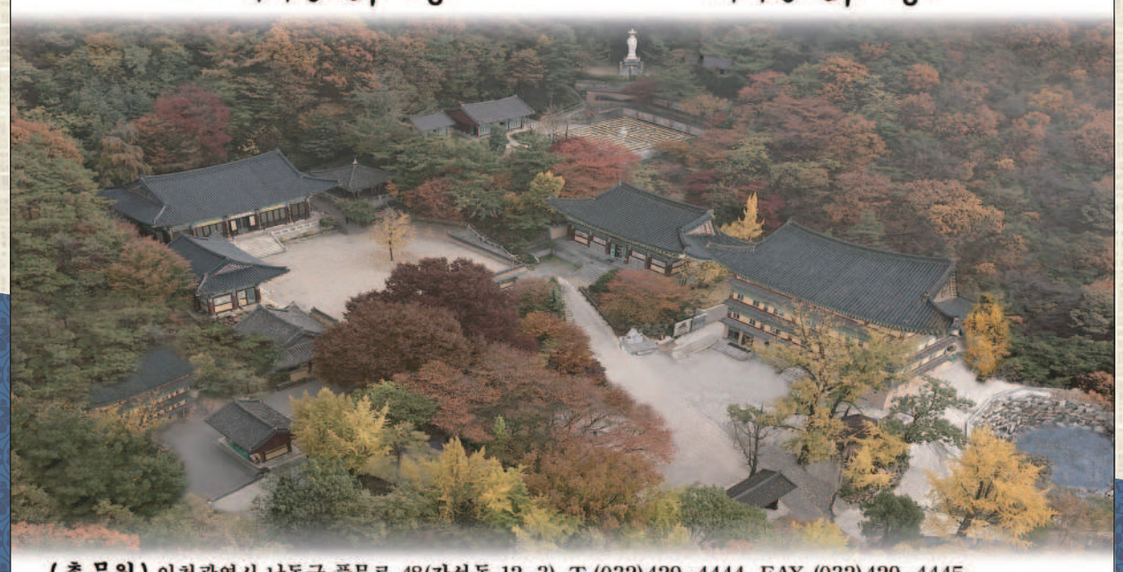
※원융종 종도 여러분 사.암 등록증과 임명장, 신분증에 유효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등록증, 임명장, 승려증은 필히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 응 중앙종회의장 대 휴
종무처장 양위찬(원당)

대본산 약사사(추모관운영)
재단법인 화엄승가장학재단
이사장 화 응

희망다문화협동조합
공익법인 화엄종약사사장학회
이사장 화 응



(총무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48(간석동 12-3) T.(032)429-4444 FAX (032)429-4445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32-5(청진동 삼선빌딩 406호) T.(02)730-0798 FAX (02)730-0799

“명상 수행, ‘시민보살’로 나아가는 정진의 길”

데스크 초대석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

강원도 평창=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정념 스님은…만화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5월 월정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5년 9월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80년 5월 월정사 수선안거 이래 58안거를 성만했다. 조계종 제11~13대 중앙종회의원과 재단법인 나눔의집 이사, 지구촌공생회 이사,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고, 2004년부터 월정사 주지를 맡고 있다.

다섯 봉우리가 연꽃무늬를 만든다는 강원도 오대산은 불교 문수신앙의 성지다. 〈삼국유사〉에는 자장 율사가 중국 우타이산(五臺山)에서 수행하던 중 신라에도 문수보살이 머무는 성지가 있으니 찾아보라는 계시를 받았고, 그 성지가 강원도 오대산이라는 기록이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동대 만월산(滿月山)에는 1만 관세음보살, 남대 기린산(麒麟山)에는 8대 보살과 1만 지장보살, 서대 장령산(長嶺山)에는 무량수여래(아미타불)와 1만 대세지보살, 북대 상왕산(象王山)에는 석가여래와 500 아라한, 중앙 풍로산(風爐山)에는 비로자나불과 1만 문수보살이 항상 머문다.

이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에는 산이 피워낸 고찰, 월정사(조계종 제4교구본사)가 있다. 천년을 이어온 불교 성지는 이젠 ‘역사·인문학의 성지’이자 ‘명상 치유 문화의 성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 개관하며 ‘화룡점정’을 한 박물관 마을에는 월정사성보박물관, 한강시원지체험관 등 3곳의 박물관이 모여있다.

박물관 마을 맞은편에는 국내 최고 명상 힐링 공간으로 평가받는 ‘오대산 자연명상마을(Odaesan Meditation Village, 이하 옴뷔)’이 있다. 2018년 개관한 옴뷔는 100실 규모의 거대 명상마을로 참선뿐만 아니라 선요가, 경청명상, 걷기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월정사 사격의 일신을 이룬 주인공이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이다. 정념 스님은 지난해 12월 12일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열린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주지후보에 선출됐다. 이에 따라 정념 스님은 2004년 첫 주지 소임을 맡은 이래 6번째 연임을 기록하게 됐다.

전법 · 포교, 시대 눈높이 맞춰야

강원도 오대산이 하얀 옷으로 바꿔 입은 지난해 12월 19일 월정사에서 정념 스님을 만났다. 먼저, 통상적인 질문 “6번째 연임에 대한 소감”을 던졌다. 스님은 “6번을 연임하다보니 특별한 소감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종법 상 마지막 임기다 보니 잘 마무리하려 한다. 시대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불사와 차세대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산중에 형성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밑그림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완성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냐”며 오로지 “쉼 없이 혁신해야 되고 쉼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념 스님이 말한 ‘혁신’은 ‘시대에 부응하는 불교’가 되는 것이고, 스님은 20년 동안 월정사 주지로 살아가며 이를 스스로 증명했다.

실제, 정념 스님은 2004년 주지 부임 이후 다양한 문화 포교 프로그램과 수행 프로그램들을 쏟아내듯 대중에게 선보였다. 정념 스님이 20년 전 선보인 단기출가학교는 월정사를 대중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학교에 입학했다. 그간 3500명이 출가학교에 입학해 수행했으며, 이중 350명은 사문(沙門)의 길로 나아갔다.

2004년 시작한 오대산문화축전은 이제 평창지역을 대표하는 가을 문화 축제가 됐다. 월정사부터 상원사까지 10㎞에 달하는 선재길을 복원하고 이를 걷는 ‘오대산 선재길 걷기명상축제’와 세계청소년명상축제, 탄허 대종사 휘호대회 등도 월정사를 대표하는 문화·수행 프로그램이다. 정념 스님이 보인 혁신의 여정들은 앞서 기술한 ‘역사·인문학 성지’ ‘명상 치유 문화 성지’로서의 인프라 구축·확대로 이어졌다.

“전통적인 불교 성지, 기도처의 개념들이 현대사회에서는 ‘명상 치유’ 중심으로 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월정사는 ‘명상 치유 문화의 성지’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 명상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대산이 보유한 전통·자연 유산을 활용한 문화축전 등의 행사들도 치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이뤄진 출가학교, 문화축전, 옴뷔 등은 모두 월정사의 자랑스러운 브랜드가 됐습니다.”

월정사가 보이는 혁신의 특징에는 ‘유연함’도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응이었다. 2020년 개설된 ‘오대산 월정사’ 유튜브 채널은 초기부터 스트리밍을 활용한 일일 신행프로그램을 기획했고, 매일 실시간으로 사시불공, 금강경 기도, 명상프로그램을 내보내며 불자들과 소통했다. 이 같은 시도는 사찰 유튜브 중 최초로 구독자 8만 명을 달성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는 조계사와 봉은사 등 대형 도심 사찰도 이루지 못한 구독자 수치다. 2021년 월정사는 한국 사찰 최초로 자체 메타버스 명상 플랫폼을 개발해 ‘세계청소년명상축전’에서 선보였다.

“〈금강경〉에 ‘과거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재에 안주하거나 과도하게 미래에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통찰하면서 어떻게 나아갈지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 같은 방향 모색에는 유연한 사고가 바탕이 돼야 합니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죠. 우리 불교는 가상공간으로 이어질 라이프스타일에 어떻게 적응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전법과 포교도 이 공간에서 이뤄질 것이고요. 유튜브나 메타버스는 이제 시작입니다.”

“명상, 사회적 실천과 함께 가야”

월정사를 ‘명상 치유 문화의 성지’로 가꾸고 있는 정념 스님은 불교를 이미지화 할 수 있는 현대적 키워드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그 키워드로 ‘명상수행’을 꼽았다.

“불교는 교리, 수행, 의례 등 여러 방면의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현대사회의 대중에게 전하려면 조금 가지를 치고 심플해져야 해요. 무엇보다 현학적으로 이해되는 불교를 대중에게 명료하게 전하려면 ‘명상수행’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불교 명상수행 대중화를 위해 종단 표준 명상수행법을 개발하는 것은 고무적이고 의미가 있는 불사입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불교의 명상수행이 사회적 병리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임을 강조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도박·마약·알코올 중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병리현상을 치유하는 수단으로써 불교의 명상수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깊숙이 빠져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이는 명상수행으로 가능합니다. 불교 명상에서 지향하는 집중과 통찰은 병리적 중독을 해소하는 기재로써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4년부터 월정사 주지 6번 연임
명상·박물관 마을 조성, 사격 ‘일신’
출가학교, 각종 문화축전 브랜드化
“시대에 부응하는 콘텐츠 고민해야”

월정사 ‘명상 치유 문화 성지’ 목표
몸·마음 수련… 통합 명상법 구상
수행 궁극엔 보살도 실천 바탕돼야
“시민보살 양성, 문명전환의 시작”

중독사회엔 몰입있는 ‘명상’이 해법
선거의 해, “不爭하라” 단박한 조언
2024년 불자들 위한 경구 ‘화중생연’
“희망 잃지 말고 연꽃을 피워내시길”

그렇기에 정념 스님이 월정사에서 개발·보급하는 명상수행 프로그램은 월정사만의 색깔이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월정사 선명상요가학교다. 이곳에서 대중은 선명상과 요가를 동시에 수행하며 몸과 마음을 수련할 수 있다.

“과거에는 명상이 마음 치유나 깨달음의 관점에서 이야기돼 왔지만, 현대에는 뇌과학, 생물학적 관점에서 명상에 대한 해석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명상도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님’을 표방하는 ‘통합명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몸에 나타나는 여러 기능들이 대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장은 소화기관이면서 신경세포가 1억개에 이릅니다. 인간의 행복과 애정을 결정짓는 도파민의 50%와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합성된다고 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함께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통합명상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도 이 같은 트렌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월정사의 명상은 ‘사회적 실천’과도 연결된다. 이는 월정사가 진행하는 ‘환경’ 주제 명상프로그램들에서 잘 나타난다. 월정사는 ESG경영 등 생태환경에 대한 전환적 사고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오대산 ESG명상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뭇 생명과 함께 조금 느린 하루’를 주제로 ‘그린 명상대화’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 같은 프로그램들은 “불교의 명상 수행은 궁극에는 보살도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정념 스님의 수행관이 바탕돼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만상이 다 관계 지어지고 연결돼 있구나’를 아신 것이고, 그 속에서 모든 대상은 무아(無我)임을 명료히 깨달으셨습니다. 이 같은 가르침에 기반한 불교 명상은 자기 마음 하나 평온하고 치유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과 연결된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그렇기에 불교 명상은 이젠 실천 운동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이 수행을 통해 기후위기나 평화의 문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시민보살’로 거듭나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대승보살도를 실현하는 시민보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명상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됩니다.”

일을 도모해도 다투지 않는다

사회 현안에 대한 불교적 지혜도 궁금했다. 2024년은 총선이 있는 선거의 해이다. 어느 해보다도 혼란하고 시끄러울 것은 자명하다. 정념 스님의 말을 빌리면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은 향상됐는데, 정작 정치계가 그 수준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다.

2024년 갑진년을 맞는 정치인들에게 정념 스님은 〈도덕경〉의 경구인 ‘성인의 도는 일을 도모하지만 다투지 않는다(聖人之道 爲而不爭)’를 전했다. 이 중 ‘부쟁’은 무위자연과 평화 등이 응축되어 있는 〈도덕경〉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다. 자연은 무위하기에 다투지 않듯 인간사도 욕심을 비우면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이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설득과 합의를 통해 컨센서스(Consensus, 어떤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 간의 일치된 의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의 상당한 부분도 합의에 의한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부쟁’을 통한 컨센서스가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작용하려면 정치인들의 과도한 권력욕이 없어야겠죠. 권력에 대한 집착은 정치를 파행으로 모는 일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는 다시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겠죠. 정치인들이 2024년에는 권력을 쟁취하겠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부쟁’의 정치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번뇌 속에서 연꽃을 피어내라

인터뷰 말미, 정념 스님에게 불자들이 1년 동안 품고 살았으면 하는 경구 한 가지를 일러달라고 부탁드렸다. 이에 스님은 ‘화중생연(火中生蓮)’을 불자들에게 제시했다. ‘화중생연’은 당나라 고승 영가 현각 선사의 ‘증도가’에 ‘재욕행선지견력 화중생연불종괴(在欲行禪知見力 火中生蓮終不壞, 욕망 속에서 참선하는 지견의 힘이여 불 속에서 연꽃 피니 끝내 시들지 않는다)’라는 구절에서 기인한 경구다.

“‘화중생연’은 ‘불꽃 속에서 연꽃을 피운다’는 의미입니다. 욕망이 분출되는 세상사 속에서 우리가 수행하면서 얻는 힘이야말로 불꽃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무너지거나 시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현대사회가 무한한 경쟁과 욕망 속에 있어도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 영원히 시들지 않는 연꽃을 피워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정념 스님은 서산 대사가 저술한 〈선가귀감〉의 선시 한 구절도 소개했다.

“서산 대사의 선시 중에 ‘올연무사좌 춘래초자청(兀然無事坐 春來草自靑)’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올연히 일 없이 앉았더니 봄이 오고 풀은 저절로 푸르러졌다’는 의미입니다. 소한과 대한을 거치며 추위가 절정에 달으면 이제 입춘이 됩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것은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고 일상을 잘 영위하십시오. 어두운 터널 끝에는 밝은 입구가 있듯이 모든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삼계화택(三界火宅)’의 비유가 있다. ‘세상이 불타는 집과 같다’는 의미다. 번뇌의 불길은 오늘도 중생 세계를 한 시도 쉬지 않고 불태우고 있다. 정념 스님의 말처럼 번뇌의 불길을 잠재우는 힘은 삼독심에 끄달리지 않고 마음자리를 지키는 정진에 있을 것이다. 그 정진의 끝에는 보살도를 실현하는 불교적 인간상 ‘시민보살’이 있다.

“부단한 정진으로 ‘시민보살’이라는 연꽃으로 화현하라.” 지금의 오대산인(五臺山人)이 우리에게 전하는 당부이자 화두다.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삼론종

종 정 **혜승**

전계화상 **혜공** 승정원장 **진봉**

총무원장 **해불** 종회의장 **지경** 교육원장 **법지**
종회부의장 **혜인** 교육부원장 **묘현**

총무부장 **근혜** 포교원장 **해인**
교무부장 **자원** 교리연구원장 **남륜** 포교부원장 **지연**
사회부장 **도일** 수선원장 **응진** 문화원장 **혜관**
규정부장 **조영** 사정부원장 **성우** 문화부원장 **마애**

각 교구 종무원장

서울·경기 종무원장 **묘현** 충남 종무원장 **성현**
경남·울산 종무원장 **해산** 충북 종무원장 **정연**
경북·대구 종무원장 **지화** 강원 종무원장 **도광**
전라·남북 종무원장 **도암**

종도일동

총무원 주소 : 충남 서천군 문산면 문고길203번길 103 천용사 전화 043)878-0109

(사)대한불교 금강종

종 정 **무학당 송 천**
총무원장 **법산당 영 봉**

종정예하 예경실장 **정 해** 총무원장 사서실장 **정 휴**

원로원장 **월서** 원로원부원장 **일각**
교육원장 **정산** 포교원장 **덕산**
사정원장 **혜광** 문화원장 **혜일**
호법원장 **관호** 고시원장 **혜신**
수선원장 **해륜** 복지원장 **법영**
보건원장 **정일** 비구니원장 **법신**
비구니원 상임고문 **지연** 비구니원 수석고문 **해안**
비구니부원장 **능현**

중앙종회의장 **법화** 중앙종회부의장 **현우**
중앙종회사무총장 **정견**

[각 지역 교구원장]
서울특별시 교구원장 **정심(서원암)**
부산광역시 교구원장 **해안(법정사)**
대전광역시 교구원장 **정휴(일성사)**
대구광역시 교구원장 **정일(광원사)**
울산광역시 교구원장 **능현(옥련암)**
창원시 교구원장 **하연(만월정사)**
당진시 교구원장 **법성(유향사)**
경기북부 교구원장 **현수(여래사)**
충청남도 교구원장 **혜진(천본사)**
충청북도 교구원장 **자오(덕성암)**
경상남도 교구원장 **관호(관호사)**
경상북도 교구원장 **정암(정암사)**
전라북도 교구원장 **월서(삼불사)**
전라남도 교구원장 **혜신(남해사)**

(사) 대한불교 금강종 입종 안내문

◇ 구비서류:법복(가사+장삼) 착용한 사진 3매(여권사진), 주민등록등본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수행이력서 1통, 소정의 입종비
◇ 교부서류:사찰 운영자는 주지 임명장,사찰 등록증,승려증, 사단법인 등록 허가증,신도 년말정산 기부증서

총무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99-74(일성사) 전화 (042)935-2279 fax (042)935-2279
HP 010-3550-5153(총무원장 직통), 010-7547-2149(총무원 사무국장)

(財)韓國佛教 如來宗

총무원장 **명안**(총본산 회주)

원로원장 **석산** 종회의장 **일연**
행정원장 **혜안**(성남 약사사 주지)
포교원장 **무극**(용인 구만사 주지)
교육원장 **혜광**(제천 도원사 주지)
호법원장 **도혜**(횡성 여래사 주지)

전국 인왕 문도회장 **묘선**(영월 천운사사 주지)

총무원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로 1길 28-1 총무원 :043-731-2261

(사)전통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월운스님**

종도일동

(사)전통불교 태고종 총무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183-101
전화 031)847-9338 / **팩스** 031)842-9337
총무원장실 직통 010-6242-6664

대한불교수미산문조동총림

안성 **영평사**

세계법왕일붕문도중앙회 회장
영평사 주지 정림



주소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길 79-42
전화 031-676-3960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불성평등 자유의지의 천부적 권리 우리불자들이 지켜 나갑시다.

(사) 현대불교조계종

종 정 **벽운 해광** 대종사
부종정 **성주** 부종정 **혜원**

총무원장 **동화** 종회의장 **법진**
교육원장 **해인** 포교원장 **도선**

각지역 종무원, 종회의원 및 종도 일동

◈ 입종서류 ◈

· 주민등록등본 사본 · 반명함판 사진 · 신행 이력서

현대불교조계종 종단입종 환영합니다.

입종시 :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발행

총무원 보광사 신도일동

총무원 :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86-100 식장산 보광사 / 전화 042)284-3929
총무원장 동화 010-8552-7108

세상사 아픔 보듬는 치유의 희망 피우자

무풍한송의 맑은 바람 사바를 청정케 하네

성파 스님
조계종 종정



影閣(영각) 앞 慈藏梅(자장매)가 잎을 떨구고 겨울을 지내는 것은 향긋한 봄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며, 금강계단 앞을 흐르는 계곡물은 산중의 소식을 세간에 전함이로다.

대중이 모여서 삼동결제를 하고 理事(이사)가 화합하며 정진하는 일은 출격장부를 배출하여 火宅(화택)의 뜨거운 불길을 식혀주며, 갈증으로 신음하는 중생들에게 甘露(감로)를 베풀기 위함이니라.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면 예토가 바로 정토요, 모두에게 구족한 自性淸淨心(자성청정심)이 드러나니 질병은 저절로 소멸되며, 위기는 기회가 되도다. 대립과 갈등이 自他(자타)가 본래 한 몸임을 자각하면 세상 모두가 참으로 소중한 인연임을 알게 되었도다. 번뇌 그친 곳에 한계를 극복하는 지혜가 現前(현전)하고, 모든 이들이 행복할 터전이 마련되도다.

細思乃不然(세사내불연)하고
眞巧非幻影(진교비환영)이로다.
欲令法語妙(욕령법어묘)인데
不厭空且靜(부염공차정)이로다.
靜故了群動(정고료군동)하고
空故納萬境(공고납만경)이로다.

자세히 생각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진정한 고요함은 환영이 아니라네.
오묘하고 묘한 법어를 만들려면
공과 정을 싫어하지 않아야 하네.
고요하기에 모든 움직임을 이해하고
공하기에 모든 경계를 포용한다네.

초심 잃지 않고 사부대중과 정진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갑진년(甲辰年)에도 몸과 마음이 평안하시고 뜻한 바를 이루는 푸른 용의 해가 되길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 드립니다.

허나 환희로운 하늘 세계와는 달리 발 디딘 대지에서 만나야 하는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복잡다단한 세간사(世間事)로 인하여 갈등과 번뇌가 쌓이고 겹쳐지면서 국민전체의 정신건강까지 심대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불교조계종은 제(諸)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존 조직의 전면적 개편을 통하여 종단에 부여된 사명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부대중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 하는 불교'가 되기 위하여 시대변화에 따른 사회와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또 기대에 부응하는 갑진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지계로 삼독심 떨쳐내자

덕수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푸른 용의 기상이 솟구치는 갑진(甲辰)년은 모든 불제자가 계를 잘 지켜 삼독심을 떨쳐내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계(持戒)는 불제자가 반드시 지녀야 할 수행 덕목입니다. 계율이 바로 서지 못한 종교는 종교로 성립하기 어렵고, 신도들이 계를 준수하지 않는 종교는 오랜 세월 존립하기 어렵습니다.

지계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받아들여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선업(善業)을 쌓아가는 복된 길입니다.

청룡의 기운이 솟는 갑진년, 우리 불자들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유혹에도 현혹되지 말고, 지계의 힘으로 이 거센 비바람을 이겨내야 합니다.

한반도 항구적 평화에 힘 모으자

도진 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불기 2568년, 올해는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의 상서로운 기운, 신비로운 기상, 가없는 지혜와 통찰의 기개를 닮아 새로운 한 해의 시작과 동시에 변화와 성장을 통해 활력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60년 전 갑진년, 종단은 진각백년, 나아가 진각천년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종단은 이 반석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진리세계가 세워져 있으면 현실세계도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이원자주의 종교와 심성진리의 정신문화를 발전시켜 생명을 헤치고 문명을 파괴하는 전쟁을 멈추게 하고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은 풍요와 안락을 누리며 국내의 정치와 경제적 안정,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인공지능 시대와 부처님 가르침

법명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지난 2016년에 바둑으로 학습된 인공지능이 이세돌 9단을 이기더니 요즘은 더욱 새로워진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맛있는 김치를 만들지는 모르지만, 맛있는 김치를 나누는 회향의 지혜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후불식 하시며 탁발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시주자에게 작은 시주의 공덕으로도 무량복덕을 쌓게 하려는 커다란 지혜를 숨겨두신 것입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인공지능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의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갑시다. 그리고 그 부처님 법 전합시다.

동체대비 가르침 목표로 정진

상진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신년의 태양을 품고 박차오르는 힘찬 청룡의 기운이 모든 악운을 깨고 국민들의 마음과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갑진년 한 해 동안 한국불교태고종은 육부대중이 진력합심하여 가는 곳마다 우리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고취하면서 종교 본래의 책무인 사회 그늘진 곳에 대한 관심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번영하는 민족의 기상을 드높이는 전통문화의 육성과 미래 인재에 대한 지원으로 한국불교 정통종단의 위상을 정립하고 사회와의 소통으로 진정한 동체대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호지묘력으로 온 나라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자비실천으로 온 세상에 자비광명을

우인 정사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법신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부처님 법이라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들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원력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신행과 수행 정진을 할 때 비로소 불국정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이웃과 사회, 국가 더 나아가 세계 인류를 위한 대승적인 서원을 세워 봅시다.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에 대한 굳건한 신심과 덕행으로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자비실천으로 온 세상에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작은 善 포기하지 않으면 거룩한 부처님 미소 보리라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중생의 마음에 불성이 빛나고 부처님 품에는 중생이 있으니 모든 생명이 존귀하여라.

고통 받고 슬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작은 선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순간 거룩한 부처님의 미소를 보리라.

어려움 속에도 한줄기 희망이 비추리니 불보살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어 늘 새롭고 새로운 시절을 만나리.

인류의 평화와 국태민안을 염원하며 오직 깊은 신심으로 일심청정 수행에 힘써 무량 공덕의 보배 탑을 쌓으며 성불의 길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은혜와 회향이 희망입니다

경정 정사
진각종 총인



태양은 여전히 광명을 놓아 새해를 열고 군생은 새날의 희망을 소담하게 다짐합니다. 하늘과 땅에 상서러운 기운이 가득 서리니 선남선녀 마음 여미고 맑은 서원 세웁시다.

과학문명 혜택에도 갈등과 분쟁은 늘어가고 물질발전 풍요 속에 빈곤과 차별이 깊어져도 물질문명 다스리는 본연(本然)의 마음 되찾으면 이곳이 평화세계라고 심인진리 일깨워줍니다. 세간사 여기저기 미움과 다툼이 끝없어도 은혜의 이치 깨치면 화해의 기운 우러나서 나라거나 사회마다 함께 사는 동네가 되고 우리가 머무는 곳곳이 웃음꽃 터전 됩니다.

근본을 앞세우면 지말(枝末)은 절로 따라가니 제각기 고마운 마음을 지금 먼저 돌려주고 정치와 경제도 바른 길 본받아 걷게 하여 은혜 누리며 회향(廻向)의 세상을 열어봅시다.

새해에는 청량한 기운이 세상사의 아픔을 보듬고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은혜의 큰 품으로 감싸서 갑남을녀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희망을 피워봅시다.

평화 나누는 길잡이 됩시다

홍파 스님
관음종 종정



갑진년 밝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온 산하대지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밝은 태양은 지혜와 깨달음을 열어주는 문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이 인드라망이며, 지구라는 한배를 탄 동체대비의 한 몸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인지 모르기에 싸움을 하고 투쟁을 하며,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기적 존재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듦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다른 이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이웃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임을 깨쳐야 합니다.

지구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평화롭지 않으면 내가 평화롭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과 평화를 나누는 길잡이가 됩시다.

마음부터 정화하고 다스리자

운경 스님
태고종 종정



세속은 날을 헤아리고 달을 보내며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옛 선인들은 일일호일(日日好日) 월월선명월(月月善明月) 년년대호년(年年大好年)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날이 우리가 바르고 참답게 살면 하루하루가 모여 한 달 한 달이 역시 더 좋은 달(月)이 되고 그 좋은 달들이 모여서 더 좋은 해(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잘 사는 것이 한 해를 잘 사는 것이고 나아가 평생을 바르게 잘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일 인간의 마음이 깨끗하고 착해지면 그들이 사는 세계도 아름답게 장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돈독한 신심으로 세상을 보다 밝게 만들고 메마르지 않고 인정이 도는 훈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부터 정화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과(因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남을 훼방하고 괴롭히면 그 결과는 화가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남의 등을 밀고 남을 속이면 결국 그 손해는 나에게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신심이 돈독한 참 불제자로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의 원력으로 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잘못을 참회하고 잘못된 의식과 행동을 과감히 버려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한 사회와 세계가 바로 불국정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돈독한 신심으로 부처님이 됩시다. 그럴 때 년년대호년(年年大好年) 갑진년 좋은 한 해의 기틀이 될 것입니다.

화합·상생의 희망이 가득하네

배려의 보살도를 실천합시다

만청 스님
대한불교대각종 종정대행



2024년 푸른 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검고 푸른 것은 우리의 기준일 뿐 진리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갑니다.

이런 부처님 이치 속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바로 흑백논리(黑白論理)의 아집(我執)을 씻어 버리는 것입니다. 남의 입장으로 돌아가 서로를 배려하는 자리이타(自利利他)가 바로 보살도(菩薩道)의 실천이 아닐까요.

너와 내가 다름이 없음을 깨닫고 함께 해나가면 우리의 삶 곳곳이 행복으로 가득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충실하고 이웃을 돌보는 만선동귀(萬善同歸)를 새해 실천 덕목(德目)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옳고 그르다와 분별과 성냄은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변 이웃들에게 배려의 한마디가 서로의 행복을 만듭니다. 한마디 좋은 말 속에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갑진년 새해에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두루 하시길 지극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탐진치 삼독심 버리고 원융화합 갑진년 맞으며

진호 스님 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청룡의 기운이 널리 퍼지는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에는 모두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원융화합의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법화경 비유품에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번뇌가 마치 화염(火焰)이 타고 있는 집과 같다고 말씀하셨고, 탐, 진, 치 삼독심과 모든 집착을 놓고 거짓된 나로부터 깨어나 참나를 찾는 것이 삼계 화택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일러주셨습니다. 대한불교 원융종은 원융무애한 일원상의 진리를 스스로 체득하고 원통융화한 사회 실현을 위해 앞장서는 것을 종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서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종단간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고 화합과 소통으로 상생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아만과 아상을 없애고 하심하는 마음으로 어두운 세상이 광명의 빛으로 밝아지기를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하심으로 중생 등불 됩시다

목탁 스님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대승정



원력과 노력의 결실을 맺을 뜻깊고 보람된 축복의 새해입니다.

새 해에는 번지르한 미사여구보다 몸소 실천에 옮기는 불제자가 됩시다.

실천하는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부처님 세상을 이루기 위해선 수천마디의 말보다 단 한번이라도 실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전세계 각국 불교들이 모두 모여 하나되는 노력과 이해심을 발휘하여 포용력으로 서로가 서로를 감싸는 마음과 행이 절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좌부불교와 대승불교 그리고 밀교와의 두터운 벽을 허무는 고통과 시련을 뛰어 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구촌에 불교의 위상을 드높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더욱 분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부대중이 한마음이 되어 다시한번 자중하고 겸손하며 하심으로 중생들의 등불이 됩시다. 앞에 계신 스님이 바로 세계불교를 이끌 지도자이십니다.

지혜의 등불을 밝힙시다

혜일 스님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깨달음과 지혜를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 속에 부처님의 지혜 등불이 환히 밝혀지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계, 정, 혜 삼학을 잘 닦아 탐욕과 어리석음과 성냄에 가려진 무명을 밝히면 모두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들이 부처의 성품을 지닌 존귀한 존재임을 일깨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익혀서 깨달음의 지혜를 증득하여야 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모두 청룡의 기운을 받아 마음 속에 불성의 등불을 환히 밝히고 성불하기길 축원합니다.

선악이 함께 공한 곳이니라

혜승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善惡 兩 俱空 卽往 極樂國
覺悟善惡之本因
不是善不是惡故
此是善惡俱空處

착한 행은 천당에 올라가고 악한 행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느니라. 그러나 선과 악이 함께 공(空)하였다면 곧 극락세계로 곧바로 가리라. 선과 악의 근본 원인을 깨달으면 착한 것도 아니요, 악한 것도 아니니, 이 것이 곧 선과 악이 함께 공(空)한 곳이니라.

一心欲見佛 不自惜身命)

관효 스님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일심으로 부처님을 친견하고자 한다면 신명을 아끼지 말라. - 묘법연화경 여래수량품 中

갑진년 새해에는 불자들이 바른 분별력을 발휘하길 기원하며 상서로운 용의 해를 맞이합시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이 참된 자아를 찾아서 세상을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몸소 수행하는 모습, 보살행을 행하는 선한 모습으로 중생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을 행하여 부처님 법을 전해서 불국정토 건설에 정진하는 불자됩시다. 새해 불자 여러분의 각 가정에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공존 공영의 시대를 열어가자

월인 스님
종정협의회 회장
(승가종 종정)



희망찬 갑진년 새해에는 지역, 세대,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온 인류가 공존 공영의 안목으로 대화합의 정신 하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많은 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갈등과 각자의 이해에 따른 갈등으로 사회는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불자들은 참다운 인간상과 이상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각자가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 행과 말을 합시다. 진정으로 어디로 가야 할 지를 성찰하고 본래의 자리에서 결코 둘이 아님을 깨쳐야 할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세계, 모두가 고통없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새해에는 많은 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해 갑시다.

동체대비 실천, 무량지혜 가득하길

화응 스님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희망과 기대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희망의 청룡이 승천한다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과 불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한불교화엄종은 원효대사를 종조로 가르침의 요체인 심법(心法)을 내세워 중생구제의 서원을 실천하고 있는 종단입니다. 전쟁 방지와 지구환경 보존은 당장 해결해야 할 인류의 시급한 과제로 다가섰습니다. 불기 2568년 갑진년 한 해는 우리 불교가 동체대비의 넓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전쟁이 없는 세상, 재해가 없는 자연, 고통받지 않는 지구촌 건설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와 복덕이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자비는 무량의 선근(善根)을 낳는다

伊藤 眞聰
眞如苑 원주 眞澄寺
수좌 대승정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지금, 세계 각 곳에서 발생하는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 질병, 빈곤등이 세계를 뒤덮는 괴로움과 슬픔...돌이켜보면 신뇨엔 개조·영조는 1967년 제 3차 중동전쟁 직후에 유럽과 이스라엘을 방문 당시 "굴하지 않는 마음 하나로 오직 평화를 위해 나아간다"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대승열반경에 "자비는 분노를 가라앉힌다. 자비심을 갖고 행하면 무량의 선근을 낳는다"고 설하시듯, 이럴 때일수록 악인악과(惡因惡果)의 고리를 끊고 자비행을 넓혀갑시다.

종교를 구하는 우리들은 결코 절망하지 말고 선(善)의 힘을 결속하여 화락(和樂)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루 하루 행복한 나날

해불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푸른 룡의 기운이 서리는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묘년의 마지막 날과 갑진년의 첫 날은 전혀 다른 날일까요?

하루 하루가 다른 듯 같으니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입니다. 마음이 여여한 이에게는 하루 하루가 즐거움이자 행복입니다. 분별을 떠난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이 곧 행복이니 함께 정진합시다.

새해에는 보다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행복을 전하기 위하여 불자들이 서로 노력합시다. 마음 하나 일으켜 주변을 돌아보면 그 것이 바로 행복이고, 행복한 마음이 건강을 불러 옵니다.

한국사회는 2024년 많은 변곡점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고, 세대갈등, 지역갈등이 사라지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갑진년 새해 각 가정에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화합하면 모두가 부처다

송천 스님
대한불교금강종 종정



一心淸淨 萬心淸淨
圓融會通 自他成佛

친애하는 불자 여러분, 갑진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 청정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청정하며, 서로 다른 쟁론을 화합하여 하나로 소통하게 되면, 모두가 한없는 행복한 부처를 이룬다."

우리는 고통과 시련을 잘 극복하고 비상(飛上)과 전진(前進)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만 됩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묘년이 지나고 이제 새해 푸른 용이 꿈틀거리며 하늘로 비상, 정진하는 갑진년이 되었습니다.

경제, 안보,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우뚝 서는 선진국이 되길 진심으로 빕니다.

친애하는 불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세계일화(世界一花)의 정신으로 봉사와 대승(大乘)의 마음으로 자리이타(自利利他)하여 모두 성불합시다.

마음 일구는 새해를 기원합니다

명안 스님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우리의 마음은 머물지 않고 물처럼 쉼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물 같은 마음에 끄달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마음이 우리의 참마음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가 지닌 본성, 여래불성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갑진년에는 내 안의 마음을 돌아보고 정진으로 함께 일궈 나갑시다. 또한 함께 힘들고 아파하는 주변의 이웃들을 살펴 모두가 하나 되어 밝게 미소지을 수 있도록 합시다. 갑진년 새해 부처님의 크신 광명이 두루 나투고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2024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마음씀 하나에 하루 하루가 즐거운 나날

本性은 佛性이다

세계불교교황청
청장 대승통 능인 스님



우리의 본성은 바다와 같은 것이다. 단지 인연따라 바람이 불어 파도가 칠때 하얀거품이 발생하듯이 우리도 인연따라 사람 몸으로 태어나고 거품이 꺼지듯이 우리 육신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육신은 거품과 같은 것이지만 우리 본성은 바다와 같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불성인 것이다. 불성이 노도와 같은 힘으로 거품과 같은 육신을 삼킨다면 누구나 육신성불이 되는 도다.

물과 같이 마음을 쓰자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갑진년 새해를 맞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합시다. 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흐르면 흐를수록 맑아집니다. 마음도 물과 같습니다.

주변을 향해 따뜻함을 전하면 전할수록, 주변과 나누면 나눌수록 깨끗해집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를 기반으로 생각하는 아상을 버리면 저절로 나누게 되고 깨끗하게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몸도 저절로 생기가 돌고, 건강해지니 이것이 장수무병의 근원이고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전한 가르침의 근간은 결국 마음을 쓰는 법입니다. 새해 불자들 각자가 자비심으로 나서고 함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국민화합의 신명 펼치자

수미산문조동총림
종정 정림 스님



밝은 희망과 상극의 어두움이 교차했던 지난해를 보내고 새롭게 맞이하는 갑진년 새해에는 온 세상에 모든 계층의 국민이 화합과 상생의 잔치 마당이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갈등과 분열의 증폭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어울려 신명을 펼치는 축제가 되고, 나라와 겨레의 미래를 밝게 설계하는 희망을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년 새해에는 더욱더 온 누리에 대자비와 공덕을 베풀어 모든 이들이 저마다의 희망을 갖고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자연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관심을 기울입시다. 새로운 태양을 보며 희망의 씨앗이 싹틈을 함께 느낍시다.

함께 상생하는 사회 이루자

대한불교해인종
종정 만허 혜지 스님



나를 낮추는 곳에 평화와 평등이 있습니다. 상대를 높이면 상생과 화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만과 이기심의 산물로 하심과 공경만이 이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류의 평화는 나를 돌아보는데서 시작하고, 주변을 살피는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수많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한방울의 물이 모여 시내를 이루고 바다를 이룹니다. 바다로 이르는 이러한 이치를 모두가 깨달아 함께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분별 떨치는 한해로 삼자

한국불교선교종
종정 경보 혜만 스님



부처님께서는 선악을 초월하라는 큰 가르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선악의 구분은 바로 분별심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여본성의 자리에서 보지 않고, 중생의 입장에서 보니 분별이 나옵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분별심을 버리는 한해를 만들어 봅시다.

이미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인 도리를 부처님께서 설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하나인데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곳곳, 그리고 사회 곳곳이 힘들 때 불자들은 본래의 자리에서 차분하고 지혜로운 자세로 자신의 본분에 맞추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생활 속 진리 찾는 한해로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스님



수많은 공덕이라도 마음에 불을 한번 일으키게 되면 그동안 닦은 공덕은 모두 타버린다고 했습니다. 정말 보살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불이 일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 성내는 마음을 낼 때 백만 가지 장애의 문이 성내는 마음을 통해 열린다고 했습니다.

마음도 불안하고 몸도 상처를 입는다는 말입니다.

새해에는 생활 속에서 마음에 한번 불이 일어날 때 차분히 가라앉히고, 부처님께서 전하신 자비심을 내는 기회로 삼아봅시다. 새해 마음의 평안과 몸의 건강을 함께 얻기를 기원합니다.

시비 끊는 마음정진을

전통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월운 스님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아침, 묵은 때를 벗고 청정한 기운으로 주변과 행복을 나눕시다. 한 생각이 잘못되게 일어나면 다른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생각이 날 때 끊는 수행을 해봅시다.

번뇌 망상이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그 것을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아차리는 수행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양보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어떤 시비도 없을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의지하며 올곧게 정진한다면 주변이 평안해지고 세계가 평화로워 질 것입니다.

중생 고통을 소멸하리라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종정 연화 스님



大慈大悲 佛身明
(대자대비 불신명)
色相無邊 極淸淨
(색상무변 극청정)
光明所照 感歡喜
(광명소조 감환희)
衆生有苦 悉除滅
(중생유고 실제멸)

본래 부처님 법신은 밝고 대자대비하시므로
색도 형상도 없고 끝없이 청정하니,
그 빛은 처처에 차별없이 비추니 곳곳마다 기뻐하고
따르는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소멸해 주리라.

겸손과 하심의 공덕 쌓자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청운 스님



愚心不學增憍慢(우심불학증교만)
癡意無修長我人(치의무수장아인)
空腹高心如餓虎(공복고심여아호)
無知放逸似顚猿(무지방일사전원)
所願成就(소원성취)이니라

미련해서 배우지 않으면 교만심만 늘어나고 어리석어서 닦지 않으면 잘난 척만 하게 된다.

속은 비고 마음만 높으면 주린 호랑이와 같고, 아는 것 없어 놀기만 하면 넘어진 원숭이와 같으니 겸손과 하심이 곧 소원성취이다.

삼라만상 깨는 기쁨 함께하리

대한국불교조계종승가회
총무원장 성보 스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마음 속에는 모두 불성이 있고, 그 자체로 부처입니다. 이러한 불성을 삼라만상이 깨어나는 기쁨을 찬란한 황금빛 붉은 해가 동녘 하늘을 물들이고 천지를 개벽할 때 느껴봅시다.

내 안의 부처가 느껴지고 세상에 큰 웃음소리 울리니 만상이 한없는 기쁨을 맛봅니다.

새해는 청룡의 해라고 불립니다. 용이 솟아오르는 빛나고 뜨거운 열정으로 한 해를 맞이합시다. 영원하신 부처님의 가피가 온 가정에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마음 살피는 서원 올립니다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일봉 스님



무명이 가시고 진리를 밝히는 갑진년 새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탐욕과 무명의 허망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를 아는 것 자체가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의 초입입니다.

나를 알고 내 마음이 작동하는 것을 보면 타인의 마음도 살피게 됩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이치가 바로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로 서로가 화합하고 상생한다면 새해에는 희망만이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여 서로를 밝히는 서원을 해나갑시다. 갑진년 불자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인생의 대광명을 얻기를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종정대행 법장 스님



한 불자가 사업 실패로 죽음을 각오하고 계곡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을 보는 순간 청아한 물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위 밑에 떨어진 물에 맴도는 하얀 물거품을 보고 그는 '인생은 물거품과 같구나'고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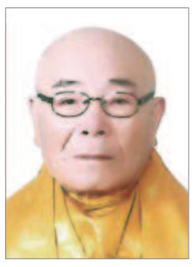
불자들이여!

當觀水上泡(당관수상포) 亦觀幻野馬(역관홍야마)
如是不觀世(여시불관세) 亦不見死王(역불견사왕)

물거품 같이 인생을 보며 아지랭이 같이 세상을 보라. 이렇게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보지 않고 대광명이 열리게 됩니다. 갑진년 푸른용의 새해에는 불자님의 꿈과 소망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베풀며 살아갑시다

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수암 스님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온 국민과 더불어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서로 베푸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루에도 한량없이 찾아오는 망념에 사로잡혀 무시습숙(無始習熟)한 숙업의 선율이 여지없고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로 갈 곳 하나 모르는 뜬구름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에 끄달리는 것이 바로 번뇌 집착의 시작입니다. 새해에는 허망된 욕망과 아집을 버리고 서로 복덕을 쌓아 희망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안내자 이실뿐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종정대행 혜봉 스님



훌륭한 의사가 병을 알아서 약을 주었는데도 먹지 않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은 좋은 길로 인도하였는데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부처님의 허물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독감이 극성입니다.

불자님 가정과 함께 전 세계가 그늘진 곳에서 고통의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가 두루 하시고 갑진년 밝은 안목으로 발돋움하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서원합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나서자

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스님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진리는 자신을 바로보는 성불입니다.

오직 마음 속의 갖춰진 자기 자신을 찾고 이를 강성하는 것이 해탈과 열반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 양극화와 정치 양극화로 갈등이 확산되는 국면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바로 집착입니다. 번뇌와 집착을 끊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것을 바로 알고 스스로 그러한 고리를 끊어 봅시다. 여기에 보살도 정신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법을 전해봅시다.

불자 모두가 자성을 밝혀 상구보리 하화중행 정진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영원의 등불 함께 하길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未了心源度數春(미요심원도수춘)
翻嗟浮世譾逡巡(번차부세만준순)
幾人得道空門裡(기인득도공문리)
獨我淹留在世塵(독아엄류재세진)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기를 몇 해를 보냈는가. 도리어 세상에 부질없이 머뭇거린 것을 슬퍼하고, 여러 사람이 공문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었거늘.

유독 나만이 세상 티끌 속에 오롯동안 머물렀다는 것이다. 세세 년년 밝게 비추니 영원의 등불이어라.

마음법 익히면 날마다 좋은날 입니다. 일체 중생에 갑진년 한해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웃에 영감·위로 되도록 진력

일면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은 중국의 전통적인 용(龍)으로 힘과 권위, 행운을 상징하고 푸른색을 띄어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용감하고 강인한 동물인 용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용처럼 용감하게 도전하고, 강인한 의지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며,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갑시다. 모든 존재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갖추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과 위로가 되도록 진력합시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눔에 참여하고,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며, 푸른 용의 힘과 권위를 빌려 이번 갑진년을 통해 우리의 꿈을 이루고, 행복과 번영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용 해의 큰 힘이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 내기를 기대합니다.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에는 모두가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시길 바라며, 부처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시길 발원합니다.

참여와 도약 그리고 미래로!

광용 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올해는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용은 용맹과 지혜를 상징하며, 실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친근합니다. 특히 〈율장〉에서는 석존이 깨달음의 기쁨을 향수할 때에 용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하며, 훗날 〈불전문학〉에서도 부처님의 탄생 시에 용이 물을 뿌리며 찬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 곳곳에서 참혹한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올해는 전쟁이 사라져 존엄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희 비구니 승가는 국제적 샤카디타 행사를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수행결사를 통하여 승가공동체의 정신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주어사지 역사바로세우기운동도 지속적으로 확산해갈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불교,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동국발전 통해 불교중흥 이끌겠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



"불교중흥이 동국발전이요, 동국발전이 곧 불교중흥"이란 일념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원력의 첫걸음을 떼셨던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대종사의 뜻을 받들어 동국대학교는 밝은 내일을 향해 더욱 정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2023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8위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톱10에 진입,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혁신적 상상력'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재가불자 원력·지혜 모아 불교중흥 앞장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최근 갑작스러운 해봉당 자승 대종사님의 원적은 아직도 큰 상실감과 슬픔으로 남아있지만, 새해에는 보다 정진하여 모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어느 때보다 재가불자들의 원력과 지혜가 더욱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종정예하의 교시에 따라 종단의 안정과 화합에 힘쓰며 총무원장 스님을 중심으로 보다 단합하여 신도의 본분을 다하고 불교 중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차세대 여성인재 발굴 힘쓰겠다

김의정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장



한국불교의 주춧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딛은 전국여성불자회는 갑진년 새해에는 차세대 여성인재 발굴, 지원과 함께 세상을 이끌어온 역사 속 여성불자들을 찾아 종도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전법과 포교활동이 사회적 실천 속에 녹아들어 불교의 위상과 역할이 불교의 중흥과 사회윤리를 대변하는 한국사회의 지도적 종교로서의 위치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외연 확대로 사회정책적 기능 만들겠다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



불교리더스포럼은 6기의 출범으로 그동안 활동을 통해 새롭게 모셔진 분들과 함께 외연을 확대하여 더 다양한 종교의 사회정책적 기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룡운우(蛟龍雲雨), 용이 비구름을 얻어 승천하다. 즉, 영웅이 기회를 얻어 크게 활약한다는 뜻입니다. 불교리더스포럼 역시 종단을 외호하고 불교문화를 수호하는 진일보한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개개인 모두가 영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층 현장 신행·포교활동 실천

김영석 조계종 포교사단장



혹한의 날씨에도 수목은 새싹을 준비하듯,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은 많지만 2024년을 맞이하는 현대불교 신문 구독자와 불자 분들이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불기 2568년을 맞이하여 포교사단은 올해 사회적 담론으로 모아질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종단의 종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리플레이교육사업을 정착시키며 사찰 및 계층현장에서 신행 및 포교활동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교사단은 사회 각계층 구성원 모두가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는 법연에 기여하길 기원합니다.

부처님 말씀 따라 국민 권익 보호

정승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지난해 우리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는 코로나19로 흐트러진 조직을 재정비하고 활성화를 다짐하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한국공무원연합회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루빨리 기관별 조직을 재건하고 불자 공무원 수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종단과 힘을 합쳐 우리 사회의 기둥이 되는 공직사회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불자 한 분 한 분이 국민과 나라의 일꾼으로 거듭나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침체된 청년포교 마중물 될 것"

장정화 KYBA대한불교청년회 회장



부처님 법을 전하며, 자발적인 봉사와 나눔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새해에도 대한불교청년회는 사회에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세계불교우의도(WFBY)에서 주관하는 불교리더자 양성프로그램 중 국제불교청소년교환캠프(IBYE)가 대한불교청년회 주최로 한국에서 연등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으로 한번 더 세계로 한국불교를 알리는 계기를 만들고, 침체되어 있는 청년포교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젊고 활기찬 포교로 불교 장벽 낮추겠다

주현우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하면 무슨 일이든 마침내 이루어진다' 라는 법구경의 말씀처럼 저희 대불련은 2024년 새해에도 전국 캠퍼스 곳곳에서 젊고 활기찬 포교로 대학생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전하고 불교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부처님의 제자로서 깨어진 마음을 이루어가기를 서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도반이 되어 의지하며 어둠 속에 떠오르는 등불처럼 서로에게 지혜와 빛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성 일깨우는 원년 되길 발원

이기향 불교여성개발원장



2024년 갑진년, 미르(용)로 표현되는 우주의 생명력이 인류의 본성을 일깨우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우리 불제자들은 자생적 생명력을 일깨워 저마다의 성품과 해후하는 원년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부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연기 실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본래 성품을 깨닫는 것임을 알고 더욱 정진해 나겠습니다. 새해에는 본성을 찾아 구도 정진하는 모든 분들께 본래 성품이 발현되는 기쁜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 주 밀운부림
교구장 호산
어산어장 인묵 학장 정원

총무국장 보관 종책실장 덕암 기획국장 도일
교무국장 향성 재무국장 성우 사회국장 법륜
포교국장 혜교 호법국장 현묵 복지국장 혜각
전법국장 혜명 연수국장 청효

문화특보 혜공 사회특보 도심 정무특보 혜성
복지특보 무일/최종환 전법특보 묘수

부처님 법 전합시다 시사

천년고찰, 부처님 법 전법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1200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 32(부평리) / 홈페이지 : www.bongsunsa.net
사무실 : 031-527-1951~2 / 팩스 : 031-527-8568 / 종무실 : 031-527-1956

봉선사 산하기관 학교법인 광동학원(광동중학교, 광동고등학교,의정부 광동고등학교)/연꽃유치원/남양주시 노인복지관/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남양주시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보호작업장/ 남양주시 일시청소년쉼터/남양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구리 실버인력뱅크/구리 인창경로식당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德崇叢林 修德寺

方丈 達河 愚松

叢林大衆一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www.sudeoksa.com
  전화 041)330-7700 팩스 330-7702
- 선 수행 템플스테이 전화 041)330-7789
  (sudeoksa@daum.net)
- 수덕사노인요양원 전화 041)338-7711
- 사회복지법인 修德
- 재단법인 호원문화재단



참여와 도약으로 불교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전국비구니회 13대 회장 광용 · 소임자 일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1길 56 전화 02)3411-8103~4 www.kbhiksuni.org

구국성사 용성진종대종사
대각사상으로 수행·포교하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무심 보광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임원 일동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0길 87
목동 사무국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71
전화 (02) 765-2701 팩스 (02) 741-1385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교 구 장 법 원

대한민국 육 · 해 · 공 군 군 승 일동
대한민국 국 군 불 교 총 신 도 회 일동
대한민국 국 군 예 비 역 불 자 연 합 회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興天寺

사부대중일동

삼각산 흥천사에서 기도하시면
꿈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주소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29(돈암동) 전화 02)929-6611~2 팩스 02)921-1626

기도와 나눔으로 함께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화계사

화계사 사부대중 일동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수유동)
전화 02)902-2663 팩스 02)990-1885 | www.hwagyesa.org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회주 계 호

주지 법 해

사부대중일동



부설 기관
- ㈜진관사수륙재보존회
- 코끼리 유치원
- 진관사 불교대학. 대학원
- 진관사 템플스테이
-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 한문화체험관
- 사.복) 진관무위원
- 불광노인복지관
- 불광데이케어센터
- 진관지역아동센터
- 구파발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73 전화 02)359-8410 www.jinkwansa.org

대한불교조계종

봉 녕 사

봉녕사승가대학 ·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주지 진 상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6-54 전화 031)256-4127 www.bongnyeongsa.org

Now & here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International Seon Center

국제선센터 사부대중 일동



한국불교 기도수행의 중심

서울 서남권 포교 거점 도량

배움의 기쁨 불교대학 운영

템플스테이 운영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사찰

도심 속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동로167 TEL 02)2650-2200 www.seoncenter.or.kr

수행과 포교의 전당

법련사 개원 50주년 기념 법회

송광사 서울 분원 법련사에서는 개원 50주년을 맞아 기념 법회를 봉행 합니다.
반세기 역사속에 참된 불교 문화의 현대적 가치를 추구해온 법련사를 되돌아 보는 자리를 마련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4년 1월 5일 금요일 •장소 : 법련사 3층 대웅보전 •문의 : 02)733-5322

주 지 진 경

사부대중일동



- 법련사 불교대학 3월 개강
- 광우스님과 함께하는 불교입문
- 경전반(유마경)
- 사경반 (금강경)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회 주 대궁 종상

주 지 성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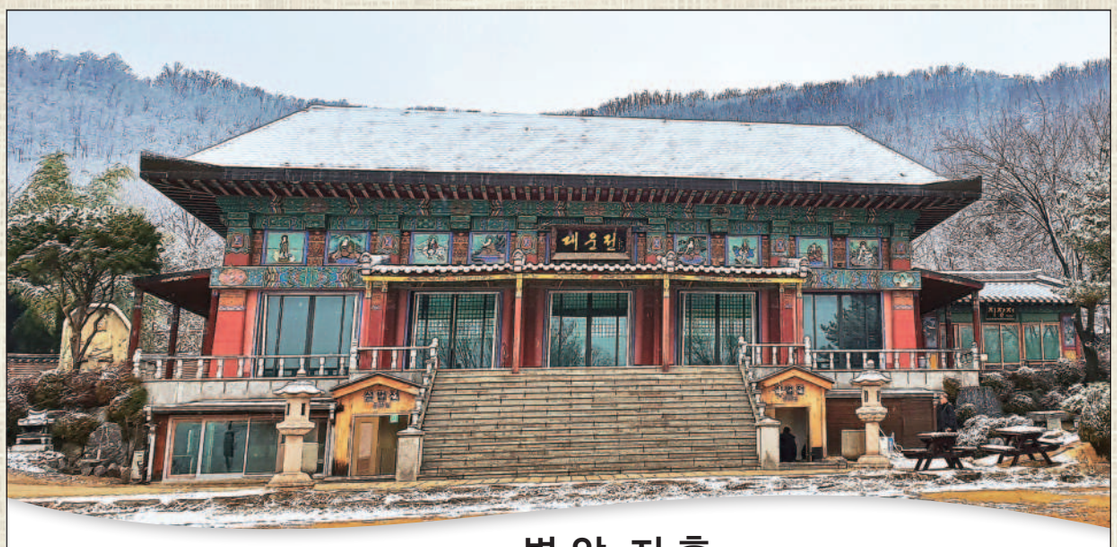
신도회장 자연

사부대중일동



부설 의왕시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 거주시설 녹향원/ 청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대궁 어린이집

경기도 의왕시 청계로 475 (청계동) 전화 031)426-2348, 2221 / Fax 031)426-3666



벽 암 지 홍

신도회장 환희지 이란희

법회 및 기도 안내

일요법회	매주(일)10:30
호법법회	매월 첫째주(수) 10:30
초하루신중기도	매월 음력 초하루 10:30
지장재일기도	매월 음력 18일 10:30
다라니기도	매월 넷째주(금) 19:00

유관기관 안내
- 행원 사회적협동조합
- 보리수 지역아동센터
- 시립 철산종합사회복지관
- 시립 하안누리어린이집
- 시립 새론어린이집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YouTube 금강정사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정사 주소 경기도 광명시 설월로58(소하동) | www.sejon.org 전화 02)898-8200 | 팩스 02)898-1844











사찰 경쟁력 높이려면 '브랜딩'에 주목하라!

프롤로그 불교도 브랜딩 시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종교가 웬 브랜딩?"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는 전통적으로 신성한 것이고, 세속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없는 영역으로 간주돼 왔다. 그래서 종교를 브랜딩의 대상으로 보려는 시도가 일찍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성한 종교를 비교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가!

소위 브랜딩이라 하면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상대방에게 주는 느낌과 이미지, 선입견 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광고, 홍보, 마케팅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브랜딩은 기업과 상품, 그리고 공적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많은 요소들이 개입되고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추상적이지만 우리가 브랜드를 외치는 이유는 그가 가진 힘 때문이다. 잘 만들어진 브랜드는 해석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인식의 틀을 형성한다.

세계는 거대한 종교시장이다. 전 세계 인구 70억명 중 88%, 약 62억명이 종교를 갖고 있다. 10명 중 9명이 종교인이라는 것. 이는 삶과 죽음을 다루는 종교가 인류에게 얼마나 절실하고 필수적인가를 보여준다.

전 세계 인류에게는 종교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몇몇 공산 독재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헌법으로 국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종교의 자유란 개인이 어느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자유와 갖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개종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하는 일종의 인권을 의미한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종교 선택을 강요당했던 과거와 달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종교를 선택하는 '종교자유시대'가 온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종교자유시대와 더불어 세계는 서로 다른 종교브랜드들이 각자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내세워 서로 경쟁하고 있는 종교브랜드 전쟁터가 돼가고 있다.

문제는 종교에 대해 냉정하고 무관심해지는 비율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신도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불교의 정체성과 이웃종교와의 차별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일까? 또 사찰마다 신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무형의 서비스'는 무엇일까? 미래의 사찰은 그 사찰의 사상과 가치를 담은 정체성과 타 사찰과의 차별성으로 마케팅돼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브랜딩이다. 잠재신도들이 사찰 브랜드를 비교 선택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개원한 '저스트비(JustBe) 홍대선원'의 급부상은 사찰을 넘어 불교 브랜딩의 전형을 보여준다. 홍대선원은 다른 사찰과 경쟁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다. 청년과 외국인이 쉽게 방문, 불교를 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홍대선원이 다른 사찰들과 구분되는 점은 아주 온화하고 공동체의 느낌이 매우 강력하다는 점이다. 또 폭넓은 방문자층에게 매력적인 다양한 선택들을 제공한다. 강요가 없는 아침 예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차담 시간, 채식 식단,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홍대선원은 '불교 활동'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새로운 브랜드가 돼가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의 신년특집 〈이젠 브랜드 시대〉는 불교, 그리고 사찰 브랜딩의 의미와 필요성과 더불어 성공적인 브랜딩으로 끌리는 사찰을 만들어낸 장소에는 어떤 비법이 숨어있는지, 성공하는 사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선택한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세상 힙한' 청년과 예술의 성지 서울 홍대 중심가에서 새로운 성지가 된 'JustBe 홍대선원', 지역과 상생하는 '화엄사', 오대산하면 떠오를 만큼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월정사' 등이 바로 그곳이다.

이번 신년특집에서는 '끌리는 사찰'을 만들어낸 장소에는 어떤 비법이 숨어있는지, 성공하는 사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각각의 사찰들이 선택한 전략을 살펴보고 각 사찰에 대입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알아본다.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大韓佛敎 曹溪宗 第14敎區 本寺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방 장 여산 정여 대종사
주지 직무대행 산해 정오
총림대중 일동


www.beomeo.kr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 종무소 ☎ (051)508-3122

Temple& Brand



삽화 · 김상규

잘된 브랜딩, 사찰뿐 아니라 지역까지 살린다

사찰 브랜딩 왜 필요할까?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동네의 작은 상점부터 시작해 거리, 도시, 국가에 이르기까지 장소에 있어서도 브랜딩은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좋은 인식이 형성된 국가나 도시로 사람들은 여행을 가고 싶고, 살고 싶고, 사업하고 싶어 한다. 1975년 석유파동으로 시작된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아이러브뉴욕(I♥NY) 브랜드 캠페인으로 뉴욕의 부흥기가 찾아오고 구글과 아마존이 탄생한 실리콘밸리가 전 세계 스타트업의 성지가 되었듯이 말이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장소 브랜딩이라고 한다면 서울시 브랜드가 있을 것이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사용된 'I.SEOUL.U'가 그것이다. 올해 여름 발표된 'SEOUL MY SOUL'은 시민은 물론 세계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서울만의 다양한 매력과 서울의 정체성 '서울다움'을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각 도시들은 세계적으로 어필하는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됐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 또한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브랜딩이 필요했다. 시민의 참여로 탄생한 서울 브랜드는 현재 서울 곳곳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체를 가리지 않고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한 번 브랜딩에 성공하면 해당 장소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장소는 살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반면 사람들이 외면하는 장소는 반대의 상황에 직면해 쇠퇴의 길을 걷는다. 지금 잘나가는 도시들의 미래 모습은 현재를 어떻게 진단하고 브랜드화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줄 것인가에 달려 있다.

장소를 '사찰'로 좁혀보자.

잘 구축된 장소 브랜딩은 인식 속 긍정적 이미지로 사람 끌어당기는 촉매제

탈종교 지역소멸 위기서 지속 가능한 사찰 되려면 수행 전법 기능 중심 두고 사회 소통하는 실천 필요

한국불교는 전례없는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신도 노화와 젊은 신도 유입 감소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탈종교 현상과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는 불교만이 아닌 모든 종교에 커다란 해결과제로 등장했다. 그간 많은 이들이 불교와 사찰의 앞날을 걱정하고 이에 대해 해법을 내놓으려 노력해왔으나 현실적 상황은 더욱 악화된 상태다.

달라진 지역 환경 아래 사찰들이 신도 이탈을 줄이고 새로운 신도들을 모집하며 특정 신도, 예를 들면 젊은 계층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한 때다. '지역사찰의 지속가능성 방안'을 보다 면밀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불교계 내에서 사찰 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각 사찰 활성화 연구들은 일정 부분 한계를 가졌다. 문화, 경관적 유산을 가지고 '전통사찰' 활성화만을 논했다던지 자치단체들의 주요 정책이었던 '지역공동체' 측면만 부각해 다룬 경향이 주를 이뤘다.

중요한 것은 전통사찰이라는 불교의 중요한 자산을 활용, 지역 및 대중과 소통하며 사찰의 지속가능성과 영향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각 사찰별 소유한 자원과 역량을 고려해 사찰만의 차별화된 핵심 전략을 구사하고, 이에 따라 '사찰 브랜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상하는 것. 또 성공적인 사찰 브랜딩 사례를 적극 밴치마킹해 향후 유사한 모델이 확대·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브랜드의 존재 이유는 항상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구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특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데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브랜드는 곧 정체성이고 브랜드는 정체성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현대 브랜드 경영 전략〉(2009, 교보문고, 김성제)에서는 "브랜드는 정체성이다. 정체성이 뚜렷해야 좋은 브랜드가 된다. 좋은 브랜드는 기업과 국가에 부를 가져다 준다"고 말했다.

잘된 사찰 브랜딩은 사찰뿐 아니라 지역까지, 넓게는 불교를 살릴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수행과 전법이라는 종교적 기능을 다하는 사찰 본연의 역할에 중심을 두되 개별적인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사찰 브랜딩을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 및 대중과 소통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한 때다.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新興寺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전화 033)636-7044, 7393 팩스 033)636-7556 www.sinheungsa.kr













저스티비 홍대선원은 이름과 공간, 콘텐츠 3박자를 고루 갖춘 사찰 브랜딩의 교본으로 손꼽힌다. 시심마에서 따온 이름과 홍대라는 공간,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함으로써 일상 속 수행이 될 수 있게 구성됐다.

시작도 끝도 도심 속 글로벌 수행 놀이터 꿈꾼다

사찰 브랜딩 성공사례 "우린 이렇게 했어요"

1. 저스트비 홍대선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시심마' 화두서 따온 '저스트비'
사찰 브랜딩의 핵심은 '경험'
다양한 프로그램 방문객 저격
도심 속 명상 게스트하우스로
청년·외국인에 성지 등극 목표
"교류·평등·친절해야 포교 가능"

저스트비(JustBe) 홍대선원. 선원이라고 하는걸 보니 사찰이다. 그러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면 "어랏? 여기 뭐지?". 머리카락 깎고 승복 입은 스님이 차를 내려주며 예약을 받고 있다. 한쪽에서는 드로잉 수업이 한창이다. 이곳은 게스트하우스인가, 카페인가, 아님 문화센터인가?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저스트비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다. 저스트비 홍대선원은 최근 1년 사이 불교계에서 가장 힙(Hip)한 공간이자 힙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입소문이 났다.

저스티비 홍대선원은 이름과 공간, 콘텐츠 3박자를 고루 갖춘 사찰 브랜딩의 교본이라고 해도 무방하리만큼 정교하게 브랜딩됐다.

홍대선원은 시작부터 '선불교 참선 도량'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 '저스트(Just)'는 선원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공안(公案)을 이르는 시심마(是甚麽)의 '시(是)'에서 따왔다. 처음부터 포커스가 외국인과 청년에 잡혔기에, 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영어로 작명됐다.

'저스트(Just)'는 '이게 무엇이냐'라는 '시(是)'의 화두이자 질문이기에 '비(Be)' 이후에 오는 모든 것은 이에 대한 대답이다. 오직 지금 이순간. 때문에 '저스트비(JustBe)'라는 문구 뒤에 무엇이 오든 답이 된다. '~할 뿐'인 것이다. '是'는 홍대선원의 로고이기도 하다.

이렇게 홍대선원은 시심마의 화두를 활용해 젊은이들과 외국인들에게 상징적인 곳인 홍대를 브랜드화시켰다. 청년들과 외국인들이 홍대하면 떠올리는 클럽이 난무한 쾌락의 장소가 아닌, 그곳이 명상의 성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름을 브랜드화하면서 공간도 브랜드화하고자 한 것. 청년들과 외국인들의 로망과도 같은 게스트하우스를 탄생시켰다. 도심 속 명상 게스트하우스다. 당연히 절이지만 겉모습은 게스트하우스다.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브랜딩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콘텐츠를 넣었다. 흔히들 사찰하면 보수적이고, 근엄한 큰스님들이 계신 곳을 떠올린다. 그러나 일상생활, 삶 자체가 선이고 무엇이든 수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냈다. 기본적인 좌선과 절, 다도뿐만이 아니다. 명상 댄스나 드로잉, 요가, 태극권, 채식 등 다양한 문화를 활용해 청년들과 외국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했다. 수행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모양이나 방법이 고정돼 있지 않은 선불교의 핵심 교리를 자연스럽게 풀어냈다.

홍대선원은 벌써부터 청년 포교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2년 10월 문을 열었으니 이제 개원 1년 3개월. 그 사이 전 세계에서 6000명이 홍대선원을 다녀갔다. 주말에는 모든 방이 꽉 찰 정도로 높은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다. 처음에는 게스트하우스로 알고 온 청년들도 이제는 불교를 알아가고 싶어 매일 드나드는 국제포교도량이 됐다. 홍대 거리문화의 일부로 스며들며 자신만의 색깔을 지닌 공동체의 탄생이다.

'저스트비'라는 이름과 '홍대'라는 공간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가 '글로벌 수행 놀이터'라는 목표 속에 통일된 방향성을 가지고 굴러가고 있는 홍대선원의 앞으로의 행보에 불교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교류, 평등, 친절함이 포교 이끌 포인트"

저스트비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은 저스트비 홍대선원의 목표는 처음부터 뚜렷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수행 놀이터'가 되기까지 그 중심에는 바로 청년이 있다.

"사찰 구성원인 사부대중과 같은 50여 명의 크루(활동가)가 모였으니 승가의 모습을 똑 닮았죠. 함께 살면서 만들어가는 도량이기에 홍대선원은 평등한 운영방식에 따라 주체적으로 움직입니다. 어느 선방에나 각자의 소임이 있듯이, 청소와 빨래는 물론이고 차담과 예약 상담, 프로그램 진행 등 각자 자리에서 주어진 소임에 충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대선원의 주인은 청년들이라는 기본 운영방침에 따른 것이죠."

준한 스님은 이 시대에 맞춰 포교하려면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대의 흐름은 바로 '교류, 평등 그리고 친절'이다. 스님은 "교류, 평등, 친절함 이 세 단어에 홍대선원이 지향하는 가치가 담겨있다"면서 "청년들의 놀이터인 홍대선원에서 스님은 나침반이자 서포터"라고 설명했다.

준한 스님의 하나의 브랜드로 안착한 홍대선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포교활동을 구상 중이다. 2~3호 개원에 대한 계획도 있고 순례와 명상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있다. 얼마 전부터는 사찰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자 불교공부 강좌도 개설했다. 숭산 스님 법문집인 '선의 나침반'을 교재로 한 교리 강의다. 처음에는 가볍게 방문했지만, 불교를 알아가며 심도있는 불교 공부를 원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생긴 변화다.

최근에는 '저스트비 후원회'를 시작했다. 후원회에 가입하면 후원자이자 회원이 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준한 스님은 "고령의 불자들도 자식이나 손주들을 위한 도량이 활발하게 운영된다면 기쁘지 않겠느냐"면서 청년들을 위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홍대선원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Temple & Brand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종정예하 중봉 성파
수석수좌 명신
주 지 현덕

유 나 영일
강 주 인해
노 전 영수
율 원 장 도암
염불원장 영산

보살선원장 노암
총 무 국 장 청우
기 획 국 장 정대
교 무 국 장 보원
재 무 국 장 도영

사회국장 현범
포교국장 신경
호법국장 정원
박물관장 진응
원 주 성엄
농 감 서일

영축총림 통도사 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謹賀新年

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처럼 지혜롭고 용기있게 정진하며
심신 가득한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신 도 대 중 일 동

대한불교조계종

광명선원

자기 근본을 믿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마음의 샘물을 먹을 수 있다.
- 대행선사법어 -

사부대중일동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전화 043)877-5000 팩스043)877-2900

달빛이 운치를 더하는 소박하고 편안한 절

대한불교조계종

만월산 현덕사

주 지 현 종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싸리골길 170
전화 033)661-5878 팩스 033)662-1080
www.hyundeoksa.or.kr

108평화기도도량

수락산 도 안 사

새해 각 가정의 평안과 건강, 세계 평화를 기원합니다.

주지 선묵 혜자

사부대중일동



주소 서울시 덕릉로129길 전화 02)936-5936

마하반야바라밀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사

주 지 동 명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9길 35 Tel.413-6060 www.bulkwangsa.org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선사합시다

(사)천호월서희망재단



https://cwhope.tistory.com/1 [천호월서희망재단]
서울 마포구 효창목길 27, ㉾04185 전화 02)713-4100 팩스 02)701-1705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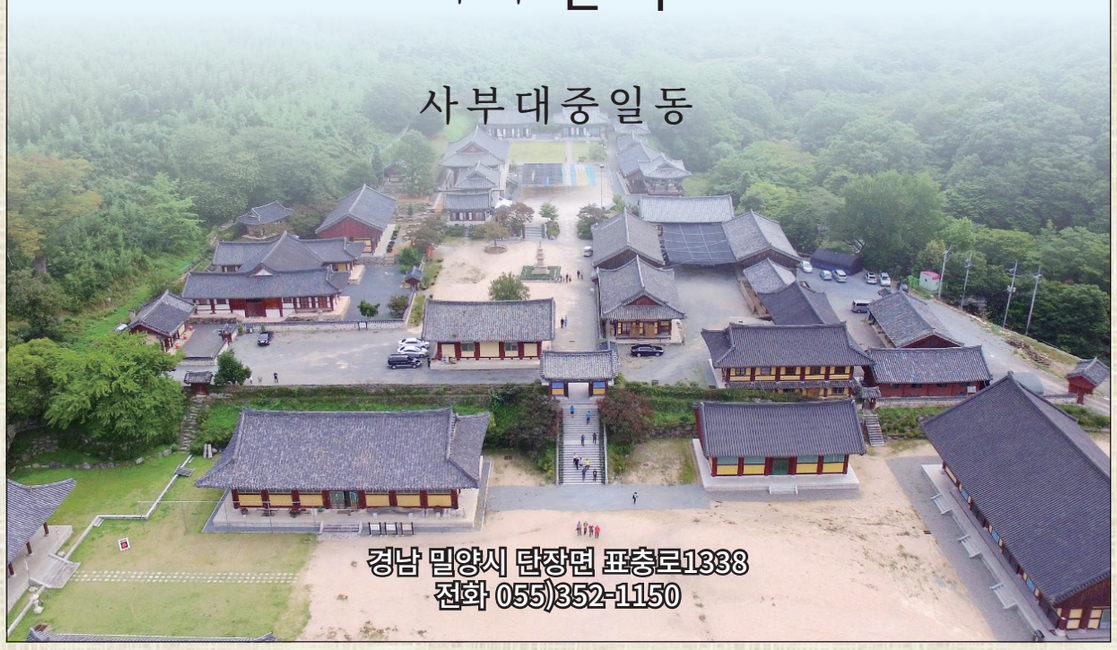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표충사

주지 진 각

사부대중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1338
전화 055)352-1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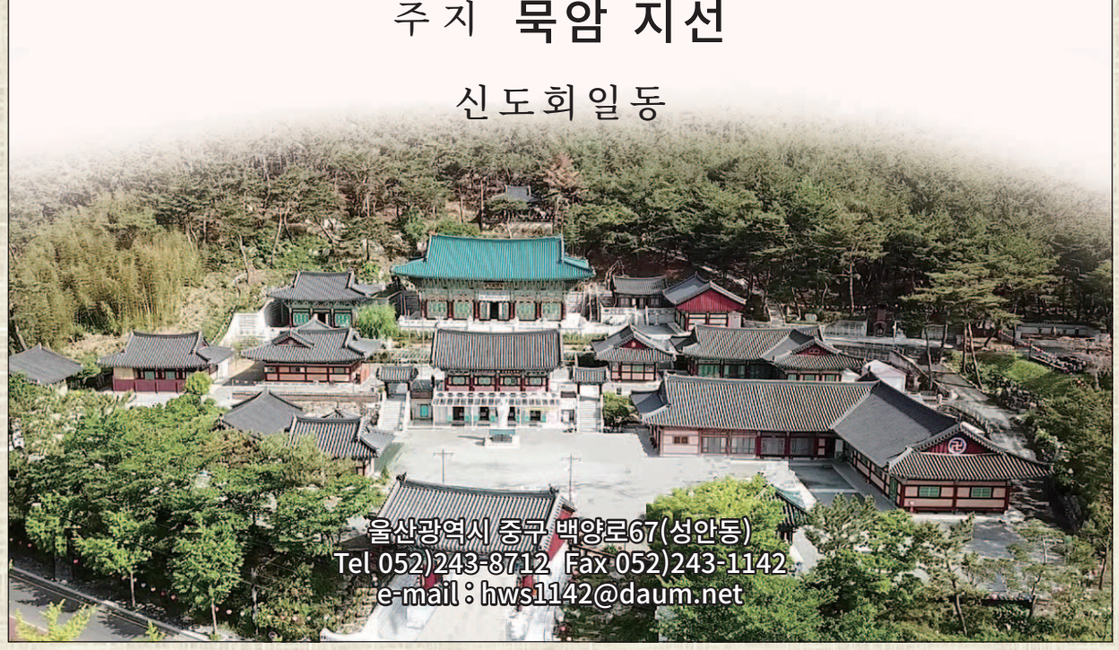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함월산 **백양사**

갑진년 청룡의 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주지 묵암 지선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67(성안동)
Tel 052)243-8712 Fax 052)243-1142
e-mail : hws1142@daum.net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Jungbupsa Temple



마산포교당 정법사 원통보전 33응신

주지 우현 광우
사부대중 일동

- 영축불교대학 운영
- 현존 최고의 역사와 전통의 어린이 교육기관 대자유치원 운영
- 보현의 집 무료급식 시설 운영

www.jungbupsa.or.kr

유투브채널 정법사TV 바로가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몽고정길 46 (추산동) 전화 055) 246-8393

대한불교조계종

민족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이어가는 성철스님 기념관

산청 **겁외사**

전쟁이 없는 세계평화와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불국정토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회주 원택스님
주지 일학스님

겁외사
사부대중일동



경남 산청군 단성면 성철로125
전화 055)973-1615

대한불교 법화종

신라고찰
비음산 **불곡사**

주지 서암 도홍

소장문화재
- 보물 제436호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
- 지방유형 문화재 제133호 불곡사 일주문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55
전화 055)282-7402

마음으로 함께하는 **참다운 기도도량**

화개산 **반야사**

주지 종오 혜명

신도회일동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134-354
전화 055)231-0994, 221-1072 팩스 055)242-1072

Temple&Brand

자체 브랜드 개발로 국민 핫플레이스 등극

사찰 브랜딩 성공사례
"우린 이렇게 했어요"

2. 지리산 화엄사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는 요즘 불자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핫하다.

지난해 12월 한국관광공사가 집계한 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화엄사 방문객이 21만3000여 명에 달한다. 전남을 찾은 관광객들 중 여수 케이블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찾은 곳이다.

조용했던 절이 시끌벅적해진 것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겪으면서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힐링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는 주지 덕문 스님은 "절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런저런 변화를 시도했다. 먼저 홍보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인 마리엘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매화 사진찍기 축제를 시작으로 화엄문화제, 모기장영화음악회, 요가 대회, 굿즈 제작에 이어 야간개방까지 보통 절에서는 보기 힘든 '파격변신'이 쉴새 없이 일어나면서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6070세대에게는 추억의 소풍장소로, MZ세대에게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것.


화엄사가 2023년 실시한 홍매화 사진찍기 콘테스트 최우수 수상작 '안개가 휘도는 산사' (김진관 作).

다양한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화엄사는 별도의 상표등록도 마쳤다. 사찰도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어 화엄사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자체상품 개발에 나섰다. 비건 햄버거인 '화엄버거'와 사기업과의 콜라보 제품인 '화엄사 자일리톨 스톤'을 연이어 출시했다. 또 버려지는 커피 원두 마대를 활용해 가방과 컵 홀더 등 친환경 자체 굿즈를 제작, 화엄사만의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각종 언론매체에 화엄사 브랜드가 노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화엄사의 브랜드 가치는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감도 높아졌다. 2022년 한 해 동안 화엄사로 인해 지역사회에 46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생겼다는 평가다.

덕문 스님은 "사찰이 불교의 가치를 유지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젠 사찰이 스님들만의 독점적 공간이 아닌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할 때"라면서 "우리가 변해야 불교에 대한 호감과 이미지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엄사만의 브랜드 상품으로 국민들에게 신뢰와 건강을 나눠드리고자 한다"면서 "전문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완성도 높은 자체 브랜드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K-콘텐츠의 한축으로서 글로벌 문화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화엄사가 자체 브랜드로 개발한 비건 햄버거 '화엄버거'. 직영 전문점 및 밀키트 형태로 판매될 예정이다.


화엄사 홍보대사 마리엘씨가 기업과 콜라보로 탄생한 '화엄사 자일리톨 스톤'을 소개하고 있다.

치유·상생·문화 공간으로 산중 브랜드 견고히

3. 오대산 월정사

불교계에서 '출가학교'만큼 성공적인 브랜드가 또 있을까?

정념 스님 월정사 주지 취임 첫 해인 2004년, 1개월 과정으로 처음 신설된 '출가학교'는 불교계뿐 아니라 세상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지금까지 35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거쳐 갔고 이 가운데 출가자도 550여 명이나 배출됐다. 출가문화와 출자가 양성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는 고유명사처럼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가학교'하면 오대산 월정사를 떠올릴 만큼 그 정체성이 확고하다.

월정사의 산중 브랜드는 명상, 치유, 문화에 포커스가 있다. 일명 '명상 치유 문화의 성지(聖地)'다. 오대산국립공원 초입에서부터 친자연적인 감성공간들이 늘어서 있다. 전나무 숲길을 따라 왼편에는 자연명상마을 옴뷔가, 오른편에는 왕조실록의궤박물관과 월정사성보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명상마을과 박물관마을이 공존하는 역사문화의 성역을 구축한 것이다.


◀불교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브랜드로 평가받는 '출가학교'는 고유명사처럼 활용되며 그 정체성을 확고히 했다.

▶월정사는 오대산 전나무 숲길을 중심으로 명상, 치유, 문화를 아우르는 산중 브랜드를 견고히 하고 있다.

월정사가 '명상 치유 문화의 성지'로 브랜딩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에는 2018년 개관한 자연명상마을 옴뷔(OMV, Odasan Meditation Village)가 있다. 현대인에게 종교를 초월한 마음 쉼터를 제공하고자 개관한 옴뷔는 명상을 하는 수행공간으로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각 방사가 자연감성 속 현대 감각의 세련된 공간으로 꾸며졌으며 전통과 현대의 자연이 어우러져 오롯이 힐링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최근 월정사는 110년 만에 귀향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브랜드화, 관광자원화를 위해 평창군과 다양한 논의에 들어갔다. '명상 치유 문화의 성지'를 타이틀로 미래 천년을 지속할 새로운 브랜드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智異山大華嚴寺

문 장 은산 종국
회 주 송천 종열
주 지 초암 덕문

신도회&사부대중일동

주소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전화 종무소 061)783-7600 기도접수처 061)782-0011 www.hwaeomsa.com



시대 변해도 본질 그대로…불교 본연 콘텐츠에 방점을

사찰 활성화 위한 브랜드 구축 방안

모든 사찰 브랜딩 할 필요 없으나
정체성은 사찰 이용 결정 주요인
그 사찰 하면 떠오르는 무엇 중요
특정 스님 · 보유 문화재 뛰어넘는
사업 · 역할 · 기능 요소로 전환 필요
방향성 설정 후 보완 강화해가며
시대변화 따른 현실적 전략 펼쳐야



사찰 브랜딩의 교본이라고 해도 무방하리만큼 정교하게 브랜딩된 '저스트비 홍대선원'의 5층 법당 모습. 법당에서는 명상, 절 수행뿐 아니라 요가와 태극권, 댄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진행, 청년들과 외국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불교, 사찰의 브랜드 전략 필요성

불교 포교, 사찰 운영에 '브랜드를 활용해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는 논의는 오래되었고, 여러 곳에서 크고 작은 실천과 시도가 있었다. 사찰 운영에도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제는 사실 '사찰'에 있지 않고, '이용자'에 그 방점이 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본질'이 아닌 '허구 된 인식'에 가까운 브랜드를 논하고 활용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 볼 수 있지만, 사찰의 이용자나 잠재적 대중들이 사찰을 찾고 신도가 되어가는 활동은 인간의 인지행동학적 특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굳이 불교계의 브랜드 전략을 불교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잠재 이용자들에게 '허구'적일 수도 있는 인식을 제공하여 불교를 접하게 한 후, '본질'을 탐구하는 경험을 제공하자는 전략" 정도이겠다.

보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탈종교의 시대가 도래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 역시 신도 이탈, 신규 신도 유입 감소라는 냉정한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본래 종교 기능의 강화, 새로운 수행 체계 마련, 종단의 개혁 등 여러 해결책이 필요하겠지만 사찰 내부에서는 '우리 절이 대중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사람들(특히 젊은 계층)이 찾아올까?'라는 고민에 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절을 찾고, 수행 생활을 시작하고, 신도가 되는 이유와 과정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다. 대중이 특정 절과 인연을 맺는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변인이 작동하는데, 심리적 필요, 접근성, 추천인, 이미지, 경험(독서 등), 접촉 콘텐츠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일 것이다.

사람들은 언제 불교를 알고, 어떻게 사찰을 찾고, 어떤 이유로 사찰을 찾을까, 그리고 누구는 왜 신도가 되고, 어떤 이는 중단하고 무슨 이유로 이탈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들의 답을 찾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신규 신도의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사찰 브랜딩의 개념

사찰 브랜딩은 사찰의 고유한 특성과 장점, 자산을 토대로 형성된 '자기다움'과 이용자, 이해관계자들이 인정하는 '00스러움'의 혼합 인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어느 사찰 하면 '아! 거기! 0000 한 곳이잖아'의 '0000 한 곳'이 바로 브랜드가 구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찰이 외부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사찰을 '활용'할 수 있는지, 사찰에 어떤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지에 대한 개념이랄 수 있으므로 결국 사찰들이 가지는 특성을 잘 정리하여 이를 외부인에게 공개하고, 이를 각인시켜 가는 작업 자체가 '브랜딩'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사찰 입장에서는 사찰의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여 그들에게 해당 사찰의 개성과 특성을 각인시켜 궁극적으로는 해당 사찰에 대해 목표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참여(포교, 구매, 이용, 방문 등)를 증진하는 모든 과정을 브랜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사찰이 브랜딩 작업을 해야 하거나, 모든 브랜드 요소를 개발할 필요는 없으나 대중들의 인식 속에서는 사찰의 '브랜드(정체성)'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사찰의 이용 또는 무관심의 결정을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사찰 관계자들이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브랜드를 말할 때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 "브랜드는 로고가 아니다", "브랜딩은 디자인(환경 미화 작업)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찰 브랜딩 작업은 로고와 디자인에 머무른다. 이유가 뭘까. 이는 상당한 조사와 정교한 기획이 필요한 '사찰 정체성 구축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찰 브랜드 작업의 성과 확보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사찰 운영자들의 변경과 변심 때문일 것이다. 어떤 스님의 고민으로 시작된 브랜딩 작업이지만 의사결정권자(주지스님 등)가 바뀌면 전부 다시 하거나, 이전의 내용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찰 브랜드를 '스님 브랜드' 위주로 작업해 놓을 경우 해당 스님이 사찰을 떠나거나 입적하신다면 이 브랜드 역시 그 효용을 다한다. 이런 모든 변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사찰 브랜딩 작업은 녹록지 않다.

사찰 브랜드는 '그 사찰 하면 딱 떠오르는 무엇'이며, 이는 이용자들에게 사찰을 방문하거나 신도가 되고 싶어 하거나 사찰을 이용하는 '인식,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어야 한다. 사찰이 가장 잘하는 것이자 대중이 인정해주는 것의 교집합이 바로 브랜딩을 위한 핵심 콘텐츠가 될 것이고, 이를 대중이 잘 인식하고 이용(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바로 사찰의 브랜딩 전략이다. 〈표1 참조〉

이전 사찰의 주요 브랜딩 요소가 '특정 스님'이나 '자산(절, 탑, 문화재 등)'이었다면, 앞으로는 사찰의 사업이나 역할 혹은 기능(수행프로그램, 복지/환경 등 지역사업, 지역사회 영향력 등)이 브랜딩 요소로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특정 사찰=특정 스님'이라는 브랜딩 전략은 여전히 일부 유효하지만 이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사찰 운영을 시스템화하여 '핵심 스님'의 브랜드를 '사찰'의 브랜드로 전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표1〉 사찰 브랜딩 작업 항목

구분	브랜드 항목	설명	표현
기획 요소	사찰의 핵심 가치 (브랜드 콘셉트)	사찰이 대상자들에게 내세우고자(제공하고자 하는) 하는 핵심 편익이자 가치	"이런 속성들이 우리 사찰이 다른 곳과 다른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찰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중요 키워드야." =특성화 구분 체계와 유사
	사찰 정체성 (브랜드 아이덴티티)	대상자가 타 사찰과 다르게 인식하는 우리 사찰만의 차별성	"우리 사찰은 이런 곳이다." "우리 사찰은 이런 점이 달라."
	브랜드 개성,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연상, 제공 가치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주는 인상과 대상자가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편익	"우리 사찰은 이런 느낌이야. 우호적이고, 편안하고, 쉽고, 깔끔해." "이럴 때 이용하면 아주 좋아."
체크 요소	브랜드 자산(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선호도,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에 의해 형성되는 부가적인 가치 수준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매력이 제대로 잘 전달되어 원하는 효과를 얻어내고 있나?" "정말 신도들과 이용자들, 지역민들은 우리 사찰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많이 참여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을까?"
개발 요소	브랜드 요소(네임, 로고, 심벌, 슬로건, 징글, 캐릭터, 패턴, URL, 스토리)	브랜드의 보이는 모습들 (정보의 상징화)	"이런 것들을 사찰 내외부 사람들이 접한다면 우리가 어떤 곳인지 더 잘 알 거고, 우리를 더 매력적으로 볼 거야."

사찰 브랜딩의 추진

사찰의 브랜드를 만들 때의 기본적인 구조는 사찰이 가지는 자원과 자산을 조사/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이 기존에 사찰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를 확인하며, 이를 토대로 사찰이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에 '적합하고 바람직한' 이미지나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이다.

브랜드는 한 번 만들고 끝나는 단선적 작업이 아니다. 방향성이 설정되면 그 방향성에 맞게 콘텐츠와 속성들을 보완, 강화해가야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사찰에서 브랜드 전략을 추진할 때 관리 계획을 세워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 강화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브랜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과 조건에 따라, 사찰의 목표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 충분한 명분과 올바른 전략 선택이 중요할 것이다. 다만, 잦은 변경은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브랜드가 인식되는 최소한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시대가 변하여도 본질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즉, 불교가 원래 가진 콘텐츠와 지향에 충실한다면 사찰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며, 부처님 이래 수많은 역사에서 검증된 깨달음과 중생 교화의 방법론 역시 시대의 변화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다만, 전례없이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그들의 생활이 변하는 당대의 시점에서 적어도 방편은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현실적인 지혜일 것이다. 사찰의 브랜드 전략 역시 그 중의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다.

※ 본 기고문은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에서 기획, 발간한 〈지역사찰 활성화 연구 및 운영 매뉴얼〉(김재춘 저, 2023년 10월)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장



정토회 단기 행자 출신으로 보리수선원 위빠사나 수행자다. 조계종 승려연수 과정 강사, 월간 해인에 불교 모연과 수익사업 관련 기고 등 포교활동에 대한 강연과 컨설팅을 진행한다. 대학,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에서 자원봉사, 모금 및 자원개발, 사회적 경제, 브랜드 전략 등과 관련해 연간 300여회 강의 및 코칭,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인삼매 속에 펼쳐지는 바로 지금 여기 이곳 원각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법보종찰 해인사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
주지 혜일 대화상

사부대중 일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www.haeinsa.or.kr
☎(055)934-3000 Fax 934-3010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재)대각문화원
밀양 영산정사

주지 영봉 법웅

신도회장 송한기
관음회장 전옥이
지장회장 신순덕
신도회총무 조혜진
사 무 장 능인행

세계최대 황금와불



경남 밀양시 무안면 가례로 233(서가정)
전화 055-356-0181, 010-3417-5008

세계법화수행법음협회
법화전법도진 성불도량 **기청사**

주지 묘혜공

법화원도회
법화경 독송회

사부대중일동

부산 동래구 상륜덕화사
부산 사상구 법만묘화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삼덕로77
전화 055)383-1256, 1292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호국도량 **신흥사**

주지 인 경

사부대중일동

1649년 조성 아미타부처님 봉안 사찰
(보물 제2149호 국가지정문화재)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4길 280(대안동 739번지)
종무소 Tel 052)295-7522 www.sinheungsa.co.kr

대한불교조계종

참선 수행 도량
가지산 **석남사**

주지 천 조

바라밀공덕행으로 복된 새해되시길…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석남로 557
전화 052)264-8900 팩스 052)264-8908 E-mail : seoknamsa@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보덕사

주지 효암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 석리길 21-6
052-267-0108.팩스052-267-0184

대한불교조계종

법륜사

회주 눌암 지정
주지 향원 남수

신도회일동



울산시 동구 녹수 5길 50
전화 052)234-1188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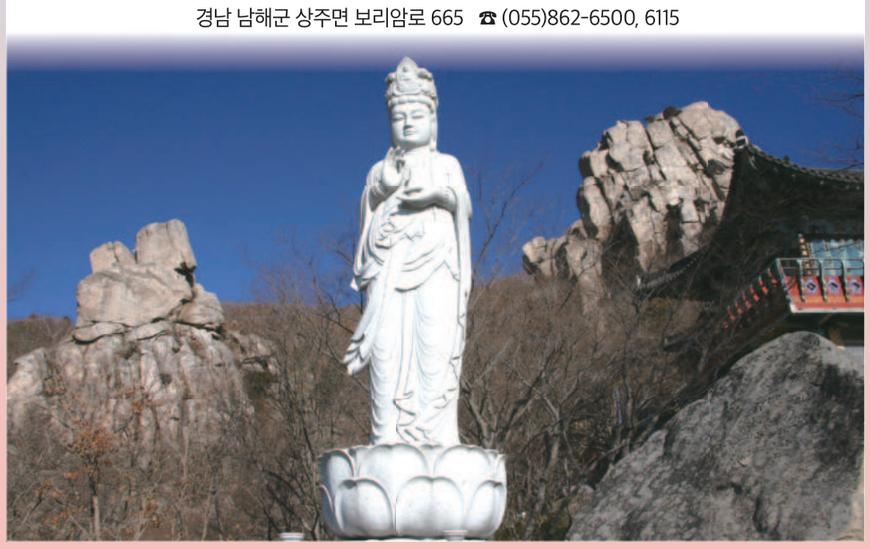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성지 금산 **보 리 암**

사부대중일동

경남 남해군 상주면 보리암로 665 ☎(055)862-6500, 6115



대한불교조계종

울산 **용 화 사**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천전길 54
전화 052-262-0518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울산포교당

울산 **해 남 사**

주 지 **혜원**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중구 기상대로길13,
헨드폰 010-7450-3340 / 전화 052)211-3340

(주)보광석재

(주)보광석재는 1983년 창립한 이래로 우리 불교의 우수한
전통 석조 문화를 계승·발전하고자 기획에서부터 설계, 제작, 설치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매순간 최고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찰 및 문화재 전문의 석조회사입니다.

대표이사 **김한열** 합장



본사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석재단지길 38 전시장 : 경북 고령군 운수면 운용로 523
전화 : 054-955-8888~9 팩스 : 054-955-8890 E-mail : bkstone601@naver.com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원 당 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사부대중일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41-23 http://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창원시 무료급식(점심) 단체 지정사찰

사단법인 **樹山慈悲禪院**



이사장 **法 相**

하나는 여럿을 위하여!
여럿은 하나를 위하여!

의료생협 자비요양병원

주 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50번길 5-4
전 화 055)277-7626, 010-6586-3088
팩 스 055)277-9101

요양급여 1,2,3등급 수용
복지시설(중풍,치매,노인성질환)

사단법인 자비마을
- 보건복지부 인가시설 -

주 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50번길 5-4
전 화 055)277-7626, 010-6586-3088
팩 스 055)277-9101

부다가야서 승가 포럼…2000명 운집

12월 20~23일, 33개국에서 참여
'현대 세계 부처님 가르침' 주제
달라이라마 "보리심 닦자" 강조
현봉 스님 내빈 · 금강 스님 발제

박영빈 객원기자


부다가야에서 개최된 국제 승가 포럼의 모습. 사진출처=달라이라마 사무국

부처님의 성도성지인 인도 부다가야에서 국제 승가 포럼이 개최됐다. 4일간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전 세계에서 2000명 이상의 사부대중이 운집하여 서로 다른 불교 전통간의 이해와 21세기의 불교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부다가야의 마야사로바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국제 승가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와 같은 테라와다 전통의 불교국가들과, 한국, 대만, 일본, 티베트, 베트남 등 대승불교 전통의 국가들이 모두 모여 총 33개국에서 2000명이 넘는 사부대중이 운집했다.

이 포럼은 지난 2021년 온라인으로 진행된 팔리-산스크리트 불교공동체 포럼에서 시작됐다. 당시 달라이라마를 비롯해 전 세계의 다양한 출재가 석학들이 모여 진행된 포럼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해 열띤 토론과 발표가 진행됐다. 코로나19가 소강에 접어들면서 온라인이 아닌 직접적인 교류와 만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부처님이 성도하신 부다가야에서 제1회 국제 승가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전통간의 연결과 현대성의 포용: 현대 세계에서의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대주제로 개최됐다. 토론 주제로는 율장, 37조도품, 21세기 불교의 역할, 사무량심과 상호연기의 네 가지가 토론됐으며 11개국 58명의 연사가 사흘에 걸쳐 연일 발표에 나섰다. 개회식 기조연설을 맡은 달라이라마는 "각국의 다양한 불교전통에서 가르치는 본질은 바로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리심을 닦는 것"이라면서 "다른 모든 존재들을 자비롭게 도와야 한다. 그들을 위하여 부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함양함으로써 세계평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모든 존재에 자비를 가지고 수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국 측 대표로는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이 주요내빈으로 초청됐고, 조계종 교육위원회 회장 금강 스님 외 11명의 스님들이 참가했다. 금강 스님은 〈21세기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가졌다. 금강 스님은 "불교의 근본 가르침은 진실을 중시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인간관계에서의 이해와 연대를 강조한다"면서 "이를 통해 불교는 현대사회의 위기에 심층적이고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치와 지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외에 동국대학교 선학과 박사과정의 자홍 스님은 〈불교 포교에서의 현대 기술과 미디어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조계종 포교원의 최신 미디어를 활용한 포교 콘텐츠 제작 현황과 특히 포교원 불교 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의 성과와 작품을 소개했다. 여기서는 불교크리에이터 3기 혜장 스님의 '스튜디오 메타몽크'의 불교 3D 애니메이션이 특히 각국 스님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포럼은 23일 오전, 참가대중이 모여 마하보디 대탑의 보리수 아래에서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기도를 봉행하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회향됐다.

중국 청년들, 불교에 빠지다

사찰자원봉사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


중국에서 최근 사찰자원봉사가 트렌드로 급부상중이다. 사진출처=씽크 차이나

최근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사찰자원봉사가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청년들이 불교문화를 접하면서 중국불교의 새로운 부흥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씽크 차이나'는 중국 청년들이 불교에 친숙해져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의 저널리스트 데릴 림은 "중국 청년들 사이에 사찰자원봉사가 트렌드로 떠오른 것은 지난 5년 동안의 일"이라면서 "사회생활 속에서 일과 삶의 압박에 직면했을 때 불교의 지혜를 배우고 적용하는 '부처의 길'을 선택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만족하는 생활방식으로 전환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중국에서 불교문화의 인기가 높아진 또 다른 사례라고 분석했다.

여행 플랫폼 씨트립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초 중국 사찰 관련 티켓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10% 증가했다. 그 중 절반이 90년대생 이후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젊은이들의 트렌드인 사찰자원봉사는 행자생활과 비슷하다. 젊은이들은 하루 최대 6시간 사찰에서 육체노동을 하며 조석예불은 물론 독경, 사경, 불교강의 등에 참여한다. 2주간 사찰자원봉사에 참여한 리우 씨는 "퇴직 후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엄격한 규율도 힘들고, 조석예불의 내용이나 매일 읽는 경전의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곳에 온 이후 삶이 전반적으로 더 긍적적으로 변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데릴 림은 "젊은이들이 사찰을 찾는 것에는 일상의 탈출이라는 이유가 크다"고 평가했다. 심리상담사 웨이즈종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많은 젊은이들은 불교를 접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교의 주요한 가르침인 자비를 자원봉사를 통해 익히고 마음의 균형을 통해 성장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며 사찰자원봉사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네팔 '람그람 진신사리탑' 공원 설계도 공개

이탈리아 유명 건축가 스테파노 보에리 참여
70종 8만 그루 식물 심어서
생물 다양성 · 공존 의미 담아


네팔 람그람 진신사리탑 일대에 건설되는 보호 공원 설계도. 사진출처=아키데일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네팔의 람그람 진신사리탑(Ramagrama Stupa) 일대에 건설되는 보호 공원의 설계도가 마침내 공개됐다.

건축 관련 매체인 아키데일리의 지난해 12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탈리아의 유명 건축가 스테파노 보에리 건축설계소가 설계한 네팔 파라시 지역 람그람 진신사리탑 보호 공원의 설계도가 베일을 벗었다. 건축설계에서 지속가능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테파노 보에리는 나무와 식물을 심어 건물 자체가 숲을 이루게 한다는 수직 숲 도시 개념인 밀라노의 보스코 베르티칼레 프로젝트로 유명하다.

람그람 진신사리탑은 유네스코 잠정 목록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물이 훼손되지 않은 채 보존된 유일한 원형 그대로의 사리탑'으로 표현될 만큼 높은 보존력을 자랑한다. 용신이 탑을 지키고 있다는 전설이 있어 아쇼카왕도 근본8탑 중 람그람을 제외한 7개 탑을 해체해 사리를 나눠 8만4000개 탑을 건립했다.

스테파노 보에리는 람그람의 역사적 의미와 자연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보리수를 중심으로 원형 정원이 에워싸는 형태로 설계했다. 특히 이 원형 정원은 생물 다양성과 공존의 의미도 담겼다.

공원의 중심은 단연 보리수와 진신사리탑이다. 이를 중심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명상 및 기도 공간을 포함한 중앙 공원을 꾸렸다. 전체 면적에는 약 70종 8만 그루의 식물을 심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전통 건축 양식과 현지에서 생산된 자재를 주로 사용했다.

스테파노 보에리는 "불교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에 기도, 명상 및 평화를 위한 센터를 건립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불교 경전에 담긴 매우 다양하고도 풍부한 가르침을 상징화해 람그람 주변에 여러 생명체가 공존하는 대규모의 원형 정원을 조성했다"며 "문화와 국가를 초월한 진정한 보편적 가치를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파키스탄서 기원전 4C 불교 유적 발견

신당이 사원으로 전환 시기 평가
향로 잔재…법당 · 명상 공간 추정


파키스탄서 발견된 기원전 4세기경 조성된 불교유적. 사진출처=던

파키스탄 스와트 지역에서 불교가 성행하기 이전인 기원전 4세기 유적이 발견됐다.

파키스탄 언론 던은 지난해 12월 18일 "국제 및 국내 고고학자들이 최근 스와트 내 바지라 바리코트지역 일대 발굴 작업 중 알렉산더 대왕(Alexander the Great, B.C 356~323)이 스와트를 침공했던 기원전 4세기 무렵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을 발굴했다"고 보도했다.

발굴단장인 루카 마리아 올리비에리 박사는 "아직 구조물의 정확한 용도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성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뱀을 상징하는 나가(Naga)신과 관련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아쇼카왕 시대에 불교가 막 유입되면서 이 구조물도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며 "신당이 불교 사원으로 전환된 시기"라고 평가했다.

사원터 입구 쪽에서는 인도식 사리탑도 발견됐다. 루카 박사는 "법당 또는 명상 공간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서 발견된 테라코타 조각과 향로의 잔재들이 그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다라의 종교적, 건축적 진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조계종 원로의원 · 관장 종상
원 장 덕민 주 지 종천
선원장 종우 교 무 정수
재 무 성심 포 교 성제
사 서 성주 호 법 명강
신도회장 이영숙
■부설기관■
사회복지법인 불국사복지재단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불국 유치원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분당 포교당 석가사
불국사 문화회관
성림 어린이집
불국사 템플스테이
대 중 일 동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 (진현동) 전화 054)746-9912~4 / 팩스 054)746-1476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태화문화센터 건립불사 원만성취

제10회

자비도량참법 5일기도법회

2024. 불기 2568년

1.18.(목) ~1.22.(월)

KBS 울산홀 5일간 매일 오후 2시~5시

신심과 원력으로 함께하는 법열의 자리!
이웃과 사회에 이바지하는 신행공동체!
울산불교를 이끌어 갈 자비도량에
신심 깊은 원력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울산광역시사암연합회

주 관 | (사)울산광역시불교신도회, 포교사단울산지역단, 울산불교여성회 공무원불자회, 울산불교대학동문회, 개인택시법륜회

후 원 | BBS울산불교방송, (사)울산광역시불교종단연합회

사)대한불교승가종

복천암

주지 **삼화 무착**

사부대중일동



釋迦如來大法 78世 摩台雲峰大禪師 年譜



법　　명 : 安開道眼
법　　호 : 摩台釋雲峰
속　　명 : 朴在根 禪王
사 찰 명 : 개안 성덕사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금계로6길 16
출 가 일 : 1990.5.15.
득 도 일 : 1991.2.8.
은　　사 : 광화당 석정암
계　　사 : 정암화상
건 당 사 : 혜강당 석능인대종사
법　　계 : 대종사
소속종단명 : 대승불교재단법왕종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釋迦如來付囑法 78世 摩台雲峰大禪師
第79世 門下弟子에게 法을 傳하는 傳法偈 頌曰

忽見水全体現 홀견수전체현 홀연히 물을 보니 전체가 드러나고
淨一心成正覺 정일심성정각 맑은 한마음이 정각을 이루니
色身法身無瞋 색신법신무진 법신색신 법은 화가 없도다.
萬理致如流水 만이치여류수 만물의 이치는 흐르는 물과 같구나.

悟道頌
天上天下宇宙法界 해는 다섯이 있고 달은 하나며 부처님은 한분이고나도 하나이고 마음도 하나이다.

정토마을 간월사 / 자재병원

법화경 철야독송 21일 장좌기도



입재 : 2024년 2월 4일(일) / 회향 : 2024년 2월 24일(토)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정토마을

문 의 : 052-255-8588 / 010-2926-8500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승정원장 **월해**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감찰원장 **성호**　종회의장 **법륜**　호법원장 **해월**
포교원장 **덕해**　교육원장 **영호**
감찰부장 **경오**　호법부장 **문경**　포교부장 **장문**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경북교구원장 **천호**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각 원장 및 부장의 공란은 이중승적으로 제적 되었음을 알립니다.

한마음 108종도 일동

종도모집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서울총무원 : 전화 02)739-4780, 010-3870-0021

(사) 대승불교조계종

The Mahayana Buddhist Jogye Order

이사장 **현 담**

이 사 **인각 법광 만법 도각 법공**
감 사 **대성 혜원**

각 교구장 및 대의원 일동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사찰등록신청서, 기본증명서, 신상명세서, 증명사진 2매 등

법인사무국 : 경남 사천시 백천길 234-34 백룡사
전화 055)832-8367 / 팩스 055)832-8368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 정 **법두 수암**

승조원원장 **법호 서호**
총 무 원 장 **법웅 정관**

원로원장 **용정 일월**
교육원장 **월화 법봉**
포교원장 **금화 백담**
문화원장 **법경 월명**
복지원장 **범수 청운**
기획실장 **진명**

고시원장 **보화 원도**
총무국장 **무화 무경**
사회부장 **용화 해월**
교육부장 **법타**
부산교구종무원장 **보화 원도**
경남동부종무원장 **법정 월명**
경남서부종무원장 **진명**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총무원장 법웅 정관

총무원 : 경남창녕군 창녕읍 조산1길 58-6
전화 (055)532-4414 휴대전화 010-3507-2837

◈ 불.법.승 ◈

(宗) 대한불교 삼보종

1세종정 滅空대종사 법주 正覺대종사

원로원장 **금산** 부 종 정 **회천** 원로부원 **정공. 정민**
호법원장 **호신** 총무원장 **법장** 종회의장 **법융**
고시원장 **해룡** 부 원 장 문화원장 **법등**
감찰원장 **법도** 교육원장 **홍인** 염불원장 **원명**
사무총장 **평산**

종회의원 **법융,법성,평산,호신,홍인,법종,보각,도오,지일, 법우,수산,도연,해곤,해봉,법전,도율**

총무부장 **지일** 교육부장 **도오** 규정부장
호법부장 **청파** 교무부장 **청암** 포교부장 **혜수**
문화부장 **진각** 재무부장 **도능** 교화부장
총무국장 포교국장 **도원** 홍보국장 **강천**
전산실장 **진행** 기획국장 **청붕** 사서국장 **도율**
사회국장 예술국장 **보인** 사 무 장 **신연화성**

교구원장 **수산,법인,보산,불광,도연,용현,법송,지원,청광,정륵**
(전국 16개 교구)

학 인 모 집
불교의례·범패·어산·바라·작법무 종립기관 승가대학 교육원·염불원

■ 삼보조계종:
총무원 경남김해시 호계로499번길4
전화 055-338-0089 / 팩스 055-333-1880

사단법인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송 청파**

교육원장 동담 백천
감찰원장 동암 원효
문화원장 덕일 금산
고시원장 도진 동영
사회원장 덕진 도광

기획실장 대비
사서실장 동판
총무부장 동봉 태공
복지원장 동법 혜조
수선원장 동성 혜각

종 회 의장
사 무 국 장 동석 우석
창원교구원장 동백 지원
의 전 원 장 동민 경오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등본 3통, 사진(3×4) 3장, 이력서 3통

종 회 위 원 일 동



총무원 50809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7번길 83-17 시례마을
TEL : 055-336-0108, 335-0178 FAX : 055-336-7070 / H·P : 010-3595-6522, 010-8939-6522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대한국불교조계종 총연합회

자문위원 **(은덕사)종천 (성덕암)법신 (해원암)지우(본각사)법우**

총무원장 **호산 성보**

서울종무원장 **(본각사)법우**
경기종무원장 **(반야사)지연**
마산종무원장 **(삼선암)정안**
대구종무원장 **(무상사)일불**
울산종무원장 **(감로암)대련**
진주종무원장 **상원**
창녕종무원장 **(성불사)무덕**
부산종무원장 **(용음사)명주**

김천종무원장 **(약수암)자원**
밀양종무원장 **(약사암)연화**
호법원장 **(구천사)상원**
감찰원장 **(화엄사)무심**
문화원장 **(문수암)승태**
포교원장 **(양명사)법성**
비구니원장 **(묘음정사)덕운**
총무원신도회장 **(보리심)**
교육원장 **(성불사)무덕**

무연고자 장례 및 선천성어린이 심장병돕기 종단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대한국불교조계종 사부대중 일동

대한국불교조계종(총연합회)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입종시 : 사암등록증 · 주지임명장 · 승려증 발행

창원시 마산회원구 광려천북로208 총본산 불광사
전화 055)232-7819, 010-8540-8209

한국불교 전통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혜 봉** (흥해 연봉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지엄큰스님**
중앙연수원장 **도광큰스님**
원 로 의 원 **원영큰스님**
재주교구원장 **해법스님**
호 법 부 장 **무상스님**
문 화 부 장 **선광스님**
홍 보 국 장 **적광스님**

홍 보 부 장 **해안스님**
비 구 니 원 장 **도견스님**
비구니부원장 **혜명스님**
비 구 니 의 원 **지덕스님**
포 교 원 장 **묘정스님**
포 교 단 장 **연후스님**
포 교 국 장 **보리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흥로 540-17
전화 054)262-5060

사)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회 장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송 청파**

고 문
대한불교 해동종 총무원장 **송산**
중앙불교 조계종 종 정 **우담**
한국불교 대불종 총무원장 **만주**



소속명단
대한불교 통일조계종 총무원장 **무각**
한국근본불교 해동종 종 정 **정일**
대한불교 법보 조계종 종 정 **향운**
사)함 께 가 는 길 이 사 장 **혜상**
생활실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광**
해 동 자 비 원 원 장 **만호**
한국불교 법상조계종 종회의장 **법장**
한국불교 법안조계종 교육원장 **도문**
한국불교 미륵선종 종 정 **해일**
대만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일 산 자 비 원 원 장 **도일**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감찰원장 **동암**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고시원장 **동영**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경기종무원장 **동일**

◉각 종단 총무원장님 : 종단 입종을 환영합니다.

종단연합회 :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7번길 83-17 우)50809
전화 055)336-0108. 335-0178, 323-0108 팩스 055)996-7070
HP : 010-3595-6522, 010-8939-6522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참사람 수행도량

白巖山 白羊寺

주지 걸안 무공

사부대중일동



주소 :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http://baekyangsa.templestay.com/
전화 061)392-7502 기도접수처 061)392-0100 팩스 061)392-2081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

빛고을포교원

주지 연 성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봉로 113번길 11
전화 062)961-1080

대한불교조계종 남해 제일 관음기도 도량

금오산 향일암

주지 연 규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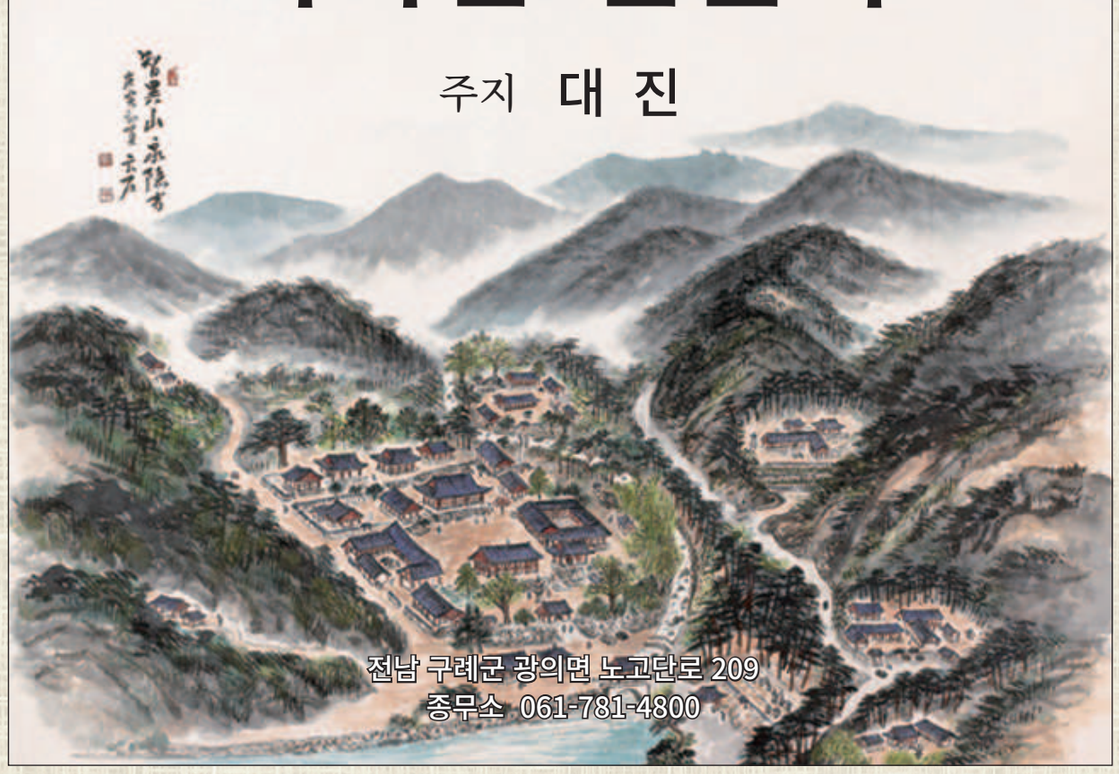


전남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60
☎ 061)644-4742 www.hyangiram.org

대한불교조계종

지리산 천은사

주지 대 진



전남 구례군 광의면 노고단로 209
종무소 061-781-4800

대한불교조계종

사성암

사부대중일동



전남 구례군 문척면 사성암길 303 전화 061)781-4544

광주·전남교구종무원

승정 금 용

중앙원로회
의원 금 용
의원 남 파
의원 설 봉

중앙종회
의원지원 공 광
의원 일 광
의원 지원법 진
의원 연 혜
의원 승 보
의원 법 도
의원 덕 도
의원 영 휴
의원 공 일
의원지원 진 봉
의원 양 휘
의원 현 용
의원 봉 산
의원 허 휴

종무원
종무원장 인 월
총무국장 일 주
교무국장 선 명
재무국장 도 진
규정국장 심 비
종무주임 자 심

지방종회
의장 도 안
수석부의장 여 허
차석부의장 도 우

지방원로회
의장 금 명(태평사)
부의장 금 용(장원사)
의원 원 명(학림사)
의원 도 수(봉정사)
의원 성 천(흥국사)
의원 설 봉(관음사)
의원 남 파(오봉사)
의원 현 오(학천사)
의원 수 진(용화사)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길 85-15 전화 062)375 - 1820 팩스 062)381 – 0944

팥죽으로 情 나눈 부산불교계

부산 각지서 동지 '팥죽 나눔'
광명사 · 삼광사 · 천불정사 등
번화가 · 대학가서 팥죽 나누며
전통문화 소개 · 전법의 장 활용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계는 동지를 맞아 도심 곳곳에서 팥죽을 나누며 전법활동을 펼쳤다. 사진은 천태종 광명사 주지 춘광 스님이 시민들에게 팥죽을 전달하는 모습.

동지를 맞아 부산에 있는 각 사찰과 신행단체가 팥죽 대중공양을 올리며 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했다. 특히 사찰에서만 진행해오던 동지행사를 대학가와 전통시장, 번화가에서 펼쳐 시민과 호흡하는 전법의 일환으로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스님과 불자들은 부산 곳곳에서 진행된 동지 팥죽 나눔의 장에서 사찰명이 붙은 팥죽 도시락을 전하거나 주최하는 사찰명을 시민에게 안내하며 포교 방편으로 적극 활용했다.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 스님)는 지난해 12월 22일 부산 동래 홈플러스 인근 도로변에서 '광명사 동지 맞이 팥죽 나눔'을 개최했다. 광명사는 경내 지관전에서 동지불공을 올린 뒤 이동해 7000인분의 팥죽과 달력을 시민에게 나눴다. 광명사는 행복한 새해를 기원하면서 시민에게 전법활동을 펼쳤다. 시민들은 팥죽을 받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줄을 서 기다리며 감사를 전했다. 한파가 몰아치는 날씨에도 광명합창단과 다도회원들이 동참해 훈훈함을 더하고, 건강을 기원하며 만든 생강대추차도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주지 춘광 스님은 "동지를 맞아 지극한 마음으로 팥죽을 끓였다. 시민들이 한 해 마무리를 잘하시길 바라며 내년에는 더 건강하고 바라는 일 모두 원만성취하시길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천태종 삼광사(주지 영제 스님)도 서면 중심가인 영광도서 앞 광장에서 팥죽을 나누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삼광사 동지팥죽 나눔은 큰 규모를 자랑하며 오랜 기간 진행해 선구자적 역할을 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나눔을 위해 삼광사는 12월 21일 오전부터 새알을 빚고 팥물을 내리며 팥죽을 준비했고, 당일 새벽 1시부터 팥죽을 끓이는 정성을 더해 시민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기울였다. 삼광사는 팥죽 1만1200인분을 마련했으며, 봉사를 위해 5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영제 스님은 "동지 팥죽을 나누며 부산시민의 행복을 기원한다"며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밝고 힘차게 새해를 맞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천불정사(회주 고담 스님)는 12월 21일 부산대 정문 일원에서 '동지 팥죽 자비나눔'을 개최했다. 천불정사는 매년 시민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팥죽을 나누며 다가올 새로운 한 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진행된 팥죽 나눔이 반가운 듯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팥죽을 받았으며, 동지문화가 생소한 대학생들도 의자에 앉아 팥죽을 맛보고 감사를 전했다. 행사에는 회주 고담 스님, 주지 법경 스님, 신희숙 고담나누미 봉사회 회장을 비롯한 봉사회원 20여 명이 동참했다.

조계종 직할포교원 부산 진여원(원장 남순덕)은 12월 21일 북구 구포시장 쌈지공원 일대에서 제24회 동지맞이 팥죽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진여원은 2500개의 팥죽도시락을 준비해 구포시장을 방문한 시민과 상가주인들에게 나눠주며 따뜻한 새해를 맞이하길 기원했다. 행사에는 남순덕 진여원 원장과 봉사자와 오태원 북구청장, 박용순 구포상인회장 등이 함께했다.


부산포교사단 전진대회에서 발원문을 합송하는 포교사들.

부산포교사단 전진대회 "포교가 곧 수행"

범어사 선문화 교육관서 개최…300여 포교사 참가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 이하 부산포교사단)이 지난해 12월 16일 범어사 선문화 교육관에서 전진대회를 개최하며 2023년 한 해의 포교활동을 되돌아보고 새해에는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행사에는 범어사 주지 직무대행 정오 스님,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문종 스님, 범어사 재무국장 법귀 스님, 포교국장 도림 스님, 홍보국장 벽해 스님을 비롯해 송재린 부산포교사단 지역단장, 강의수 수석부단장 등 330여 명이 동참했다.

송재린 부산지역단장은 "우리는 행복한 포교사가 되기 위해 동안거, 하안거 동안에 34개 팀이 하루도 빠짐없이 〈법화경〉을 독송하고 사찰순례, 열암곡 부처님 바로 세우기 〈금강경〉 독송 기도 등을 실시했다"며 "갑진년에도 수행과 전법, 포교 등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적극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범어사 주지 직무대행 정오 스님은 "일선 포교의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뛰는 포교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 찬탄의 박수를 보낸다"며 "포교역량을 결집해 원력과 신심으로 새로운 해를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법문했다.

한편 부산포교사단은 12월 23일 부산 개금3동 철로변 마을에서 '2023년 자비의 쌀 나눔전달식'을 개최했다. 부산포교사단은 기부금 300만원을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으며 백미 1100㎏을 마련했다. 백미는 개금3동 철로변 인근 거주자 34세대와 경로당에 회향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쿠무다 미래 비전 '경주 국제명상센터' 건립

개원 10주년 기념식에서 발표
불교명상 세계로 알리기 위해
심장병 어린이 후원금 전달도


쿠무다 개원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사부대중이 함께 축원을 올리고 있다.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이사장 주석 스님)가 국제명상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쿠무다는 지난해 12월 19일 명상문화센터 콘서트홀에서 '쿠무다 개원 10주년 및 명상문화센터 개원 2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기념식에서 경주에 국제명상센터를 건립해 불교명상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해 이목을 끌었다.

주석 스님은 "쿠무다의 또 다른 원력이자 새로운 비전으로 경주에 국제명상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 국제명상센터를 위해 정진하는 모습으로 인사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석 스님은 이어 "문화 포교를 해오면서도 마음으로 고심했던 것은 이에 대한 조율과 수행이었다"고 10주년을 회고한 뒤 "앞으로도 쿠무다는 불교와 문화로 행복한 삶을 선물하는 수행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무다는 이날 심장병 어린이 돕기 후원금 1000만원을 한국심장재단에 전달했다. 기금은 매주 수요일에 진행한 이-음 콘세트 수익금과 기관 후원금 등으로 마련했다. 쿠무다는 또 후원을 아끼지 않은 불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별공로패는 최삼섭 대원플러스그룹 회장이 받았으며, 감사패는 안경희 개미집 회장,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 에드워드 권 랩24 바이 쿠무다 셰프, 오세룡 담앤북스 대표, 오미숙 경동레미콘 대표, 박창용·김우경·최주영 불자가 받았다.

행사 이후 부산대 졸업생과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국악연주자들의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쿠무다는 부산대 문화예술분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인재양성에 앞장서왔다.

기념식에는 내빈이 대거 참석해 환영사와 축사로 개원 10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장 심산 스님,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 부산전법도량 의장 만초 스님, 문경 봉암사 주지 진범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석산 스님, 미타선원 선원장 하림 스님,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 홍대선원 선원장 준한 스님, 법주사 수정암 한주 성정 스님, 신명환 대운사 신도회장, 서병수·서범수 국회의원,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단법인 안국,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수탁

부산진구청과 계약 5년간 운영…"적극 지원" 약속



사단법인 안국(대표이사 수불 스님)과 부산진구청(구청장 김영욱)이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15일부터 5년간 운영에 나섰다. 사단법인 안국은 12월 19일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임시총회와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복지관 운영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결의했다.〈사진〉

대표이사 수불 스님은 "개금종합사회복지관과 사단법인 안국 구성원 모두 합심해 서원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이 되겠다"며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과 직원 여러분이 힘들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1994년 12월 개관했으며 개관 당시 안국선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시작됐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개관 당시 고 박영태 초대관장이 안국선원 신도부 회장으로 신행 생활을 해 인연을 이어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WWW.JONGJEONG.COM

본회는 불타의 회삼귀일의 가르침과 원효대사의 화쟁 사상을 바탕으로하여 한국불교종단 최고 지도자인 각종단 스님들의 모임으로서 불교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며, 광도중생과 안심입명으로 세계인류평화와 국가 사회의 이바지 하고자함을 목적으로 1995년 4월 15일 창립되었습니다. 그동안 본회는 국가와 겨레를 위한 기원대법회(롯데호텔 크리스탈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위령천도대법회, 일본 관동대지진 한국인희생자 위령대법회(일본관음사),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장병위문 및 보살수계식(논산), 불우이웃돕기 등 수백회의 각종 법회를 국내외에서 봉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교계뿐만 아니라 어둡고 그늘진 사회각층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 할 것입니다.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고문단

대장로 : 석정각 대종사 대한불교선교종(전)종정
석삼중 대종사 대한불교자비종 종정
석의천 대종사 대한불교선희종종정
석혜우 대종사 일광조계종 종정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법인이사진

대표이사 겸 회장 : 석월인 대종사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수석이사 부회장 : 청봉 대종사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기획이사 부회장 : 월성 대종사 (사)대한불교교종 종정
재무이사 부회장 : 도우 대종사 대한반야불교조계종 종정
상임이사 부회장 : 정일 대종사 한국불교근본해동종 종정
호법이사 부회장 : 지엄 대종사 통불교화엄종 종정
전법이사 부회장 : 영월 대종사 대한불교법사조계종 종정
섭외이사 부회장 : 보검 대종사 세계불교미륵이안종 종정
행정이사 부회장 : 호암 대종사 대한불교총원효종 종정
종규이사 부회장 : 동봉 대종사 세계불교육조조계종 종정
유나이사 부회장 : 도연 대종사 대한불교성덕종 종정
호계이사 부회장 : 법흥 대종사 (재)세계불교미륵대종 종정
국외이사 부회장 : 월단 명사 용화세계미륵종 종정
차석이사 부회장 : 보안 명사 대한불교일붕조계종 종정
법규이사 부회장 : 정림 대종사 대한불교수미산문조동정종 종정
외호이사 부회장 : 법혜 대종사 금강조계종 종정
외호이사 부회장 : 고산 대종사 세계불교 법사조계종 종정
외호이사 부회장 : 고석 대종사 한국불교 법보조계종 종정
이사 : 혜승 대종사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이사 : 청운 대종사 대한불교원각조계종 종정
이사 : 해곡 대종사 대한불교열반종 종정
이사 : 일응 대종사 국제불교조계종 종정
이사 : 무각 대종사 대한불교통일조계종 종정
이사 : 지환 대종사 국제불교금륜종 종정
이사 : 혜원 대종사 한국불교선조조계종 종정
이사 : 법휴 대종사 대한불교보리달마종 종정
이사 : 도오 대종사 대한불교묘법연화조계종 종정
이사 : 명암 대종사 대한불교관법조계종 종정
이사 : 옥당 명사 국제상좌부조계종 종정
이사 : 혜능 대종사 대한불교법황종 종정
이사 : 법하 대종사 대한불교신계종 종정
이사 : 도원 대종사 (사)한국불교법사종 종정
이사 : 혜원대종사 한국불교법화종 종정
이사 : 동해 대종사 세계불교일붕종 종정
회장 사서실장 : 삼하 무착
사무총장 : 이붕 서병열 법사
기획실장 : 전성배 법사
사 무 장 : 상광 배영희

■ 법인회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748번길 45, 216호 전화 : (042)285-1227
■ 서울사무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6안길 27 미근빌딩 4층 전화 : (02)756-1227 ■ 부경사무처 : 불광사(경남 양산시 주진로 205) 전화 : (055)364-4747

통도사, 노천당 월하 대종사 추모다례재

열반 20주기 맞아 봉행
12월 23일, 경내 설법전
영축문화대상 시상식과
장학증서 전달식도 열려

성낙두 경남지사장


영축문화대상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전달됐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노천당 월하 대종사 열반 20주기를 맞아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제11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과 장학증서 전달식도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지난해 12월 23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된 추모다례재와 영축문화대상 시상식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 영축문화재단 이사장 현문 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 전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교육원장 범해 스님, 포교원장 선업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노천당 월하 대종사 열반 20주기 추모다례재는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를 비롯한 문도스님들의 헌다에 이어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 교육원장 범해 스님, 포교원장 선업 스님, 총무부장 성화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불교신문사 사장 삼조 스님, 중앙종회의원 진각 스님의 헌다와 헌화, 추모 입정, 대중 삼배의 순으로 진행됐다.

문도를 대표해 성파 대종사는 "총림의 동안거 결제 중에도 이렇게 많은 스님과 신도들이 찾아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월하 스님 열반 20주기를 맞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스님이 더 그리워지고 아쉬워진다. 대종사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 사중과 종단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제11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는 정진원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교수가 '자장율사와 통도사' 등 각종 불교 서적을 발간한 공로로 학술문화부문을 수상했다.

봉사실천부문에는 지상파방송 최장수 환자돕기 프로그램인 BBS불교방송 '거룩한 만남'이 선정돼 불교방송 이사장 덕문 스님이 대표로 수상했다. 포교원력부문은 30여 년간 불교만화와 동화를 발행해온 출판사 솔바람 대표 동출 스님이 수상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 각 1000만원이 전달됐다.

이날 장학증서 전달식도 열렸다. 영축문화재단에서는 매년 2회씩 해동고등학교 우수 모범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해동고등학교 2학년 김동완 학생 등 10명의 모범학생에게는 각각 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장학증서가 전달됐다.

전북불교 미래본부, 사부대중 원탁회의

17교구 발전방안 논의 자리
공동체 문화 활성화 등 제안



전북불교 미래본부(공동본부장 일원 스님)가 지난해 12월 16일 금산사 혁신도시 포교당 수현사 4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사부대중 원탁회의(의장 도법 스님, 금산사 회주)를 개최했다.〈사진〉 원탁회의는 수현사 주지 응묵 스님의 사회로 17교구 역량진단 및 위기대응 실천전략 연구보고와 연등축제 운영방안 토론, 토론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그동안 전북불교와 17교구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준 사부대중께 감사드린다"라며 "새해에도 전북불교 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방안들이 도출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의장 도법 스님은 "올 한 해 사부대중 원탁회의를 진행해오면서 많은 변화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부대중이 자주 만나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문수지혜가 발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정호 전북불교 미래본부 정책위원은 17교구 역량진단 및 위기대응 실천전략 연구보고를 통해 불교가 직면한 위기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정책위원은 "현대사회에서는 탈종교화 현상으로 모든 종교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앞으로 닥칠 위기가 아니라 이미 도래한 심각한 위기다. 전북불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원은 위기 극복방안으로 △교구행정 보완 △전략단위로 조직력 강화 △권위주의에서 탈피한 사부대중의 힘과 원력을 모아가는 공동체 문화 창조 △전북 사회문제를 다른 사회영역과 풀어가는 지역 공동체 활동 동참 △미래불교 아카데미를 통한 실천 프로그램 시행 등을 제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빛고을포교원, 불교대학 2회 졸업식

12월 17일, 총 53명 졸업
우수 학생 시상도 이어져



도심 포교를 위해 건립한 화엄사 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 스님)이 운영하는 빛고을불교대학이 지난해 12월 17일 빛고을포교원 2층 대웅전에서 2번째 졸업식을 개최했다.〈사진〉

졸업식에는 이사장인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학장 연성 스님을 비롯해 전병호 신도회장, 이동배 교학처장, 서재현 불교대학 1기 회장, 불교대학 졸업생, 경전반, 신도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졸업을 축하했다.

빛고을불교대학은 불교대학 40명, 경전반(대학원) 13명 총 53명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우수 학생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이사장상에는 강성지 불자가, 학장상에는 나혜심 불자가, 원력상에는 박숙아, 이인혜, 이현식, 정재봉 불자가, 공로상에 임익재, 류정수, 오동일, 노선영 불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전반 공로상은 차경숙 불자, 경전반 원력상은 이수길, 황현순 불자 등이 수상했다.

이사장 덕문 스님은 "빛고을불교대학은 늘 가족처럼 공부하는 분위기가 좋다"며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자비를 실천해 모든 중생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화엄사빛고을불교대학 학장 연성 스님은 "1년간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 것은 무엇을 배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조금 더 안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것을 이용해서 실천하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바뀌고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비행을 통한 실천을 강조했다.

한편 빛고을포교원은 내년 1년 과정의 불교대학과 경전반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전남불교, 영유아어린이 수계산림



미래의 꿈나무이자 희망인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의 수계법회가 열렸다.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불자연합(대표 동천 스님)은 지난해 12월 16일 광주 관음사 대웅전에서 '제10회 영유아어린이청소년 수계산림'을 개최했다.〈사진〉

수계법회는 전계아사리 도계 스님, 갈마아사리 효공 스님, 교수아사리 지선 스님를 비롯해 소운 스님, 도제 스님, 해청 스님, 연성 스님, 성묵 스님, 명석 스님이 증명 계사로 참여했으며, 전체 21명의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가족들에게 삼귀의계와 어린이오계를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보덕사 동지 맞이 광우 스님 초청법회



울주군 보덕사(주지 효암 스님)가 지난해 12월 22일 경내 설법전에서 동지 기도를 회향하며 광우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보덕사 주지 효암 스님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건강하고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기 바란다"고 인사했다.

광우 스님은 젊은 시절 산악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당했으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출가까지 하게 된 스님의 이야기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설명하며 "내 수행의 힘과 공덕의 힘은 나를 맑고 깨끗한 세계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태고종 전북종무원, 동지팥죽 나눔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 스님, 탑사 주지)이 지역주민들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동지팥죽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지난해 12월 20일 (사)붓다복지관에서 열린 동지팥죽 나눔 행사는 매월 첫째와 셋째 주 수요일에 진행하는 국수 나눔을 대신해 진행됐다.

이날 나눔에는 인근 직장인들과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찾았다. 또 요양원과 진북동, 평화동 등 전주시 독거어르신 가정 500가구에도 동지팥죽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창원 성주사 릴레이 장학금 전달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 스님)와 (재)한가람문화재단(이사장 이재웅)이 청소년들을 위한 2023 행복나눔 릴레이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지난해 12월 22일 동지법회에서 전달된 장학금은 창원시 성산구 창원여고 손예문 학생 등 관내 청소년 20명에게 각 20만원씩 총 400만원이 전달됐다. 스마트워치 20개(600만 원 상당)도 함께 선물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대표이사 · 종정대행 석도선 종단고문 석암도

승정원 승정원장 석벽봉
원로원 원로원고문 석법령 위원 석일우, 석도명, 석청산, 석체법, 석일두, 석혜천, 석보각, 석진공

총무원
총무원장 석도선 / 교육원장 석동은 / 기획원장 석담허 / 종회의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종허 / 의전원장 석법도 / 어산장 석도암 / 감찰원장 석원허
비구니회장 석보성
부원장 석대공 / 총무부장 석성덕 / 감찰부장 석성현 /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성보 / 사회부장 석자광 / 사서부장 석성우 /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성광 / 문화부장 석성원 / 포교부장 석보현 / 연수부장 석원희
총무국장 석성민 / 지원국장 석해인 / 봉사국장 석성광 / 포교국장 석혜진
포교국장 석법정 / 포교국장 석성원 / 의전국장 석균중 / 수행국장 석성조
종무국장 석성안 / 문화국장 석원종 / 의식국장 석성타 / 사서국장 석성오

비구니회 부회장 석효성 / 부장 석지현 / 국장 석충효 / 비구니회장 석보성

종무원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함 /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도명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 천안중앙종무원장 석진월 /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지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 제천중앙종무원장 석공진

법인 3단체 임원
대표이사 석도선 등기이사 체법 일두 성만 성우 (학산)(도명)(성원)(성안)
운영이사 성덕 일현 청암 혜천 의공 감사 성조 성민
법률자문위원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 16층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 이경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조계종
대표이사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장 학산(이종길) / 부회장 진불심(이순임) / 총무 대각심(김경숙) / 임원 혜명심(박현숙) / 임원 보덕심(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장 묘각(이재인) / 부원장 혜정(이영숙) / 국장 불심화(정형숙) / 무용 무애심(박순애) / 연출 원각심(도지연)

법사승단임원
울산원장 법광 / 포교국장 청운 / 구미부장 혜진
종무원장 성종 / 통영국장 덕인 / 부산부장 혜성
홍보원장 원명 / 화순국장 보정 / 경기부장 자운
포교국장 덕운 / 포교국장 혜경 / 전남부장 혜명
종무국장 도연 / 영천국장 원명 / 대구부장 혜련
서울국장 명덕 / 창원국장 혜운 / 충북부장 상학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총본산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54-39, 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총무원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전화 02)303-5612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기도와 수행, 복지와 문화공동체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
- 승려노후수행마을
- 고창 푸드마켓
- 선운기초푸드뱅크
- 고창군 건강 ·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선운사 템플스테이
-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 고창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 고창군 노인복지관
- 선운사 불교체험관
- 고창군 노인복지센터
- 선운교육문화회관
  - 고창 시니어클럽
  - 갤러리 리유
  - 명상학교 '보리수 아래'
  - 공동육아나눔터
  - 고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반야스터디 카페
  - 담마 북까페

주지 경우

사부대중일동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

유가종찰·미륵성지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본사

모악산 금산사

조 실	금산도영	총 무	화평	사 회	우림
회 주	취산도법	교 무	석초	포 교	응묵
주 지	월강일원	재무	제환	호 법	덕림
부주지	시산원혜				

신도회장 한광수

17교구 사부대중 일동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Tel. 063)548-4440~2 Fax. 063)548-1390
www.geumsansa.org

부설 전북불교회관 | 서원노인복지관 | 룸비니 어린이집
전주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나의 참맘을 붓다, 사랑을 붓다, 행복을 붓다, 나눔을 붓다, 부처님 법을 붓다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회주 청파 진성 스님

주 지 정원 스님

원	주	연심화	홍보국장	정 이	탑밴드 음악 봉사단장	천순희 천수행	사) 붓다 복지센터
재	무	유보인	관리국장	정 아	소년원 어머니회 위원장	김도은 청운행	사)한지등 교육센터
재무국장		현진스님	조직관리	최경수	소년원 어머니회 지원회장	정해자 혜안행	재) 갑룡장학회
교무국장		보문스님	월간붓다	허남근	교도소 교정 봉사단장	박성균 진실행	사) 전북문화관광연구소
사회국장		대련스님	업무총괄	남상준	군부대 봉사단장	변상경 청진	사) 문화법인 한지등 장엄
포교국장		추파스님	전국신도회장	윤금상	붓다무료급식소 봉사단장	김경은	사) 전북베트남교류증진협의회
문화국장		정진스님	부 회 장	박선자	국내구호 지원단장	김동우 청우	사) 다문화지원센터 착한벗들
템플국장		정운스님	총 무	김경은	해외구호 봉사단장	황동현 청야	사) 진안자원봉사센터
복지국장		마정스님	봉사단장	이재현	해외구호 관리실장	노은지	사) 전북녹색환경연합
							사) 겨레하나



마이산탑사: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 남로 367 | 붓다복지센터: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260
홈페이지: www.maisantapsa.com | 이메일: maitapsa@hanmail.net
Fax: 050-4775-7807 | 공유폰: 010-4335-7807
대표전화 063)433-0012

영산작법보존회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

회 장	혜 안(작법보유자)
부 회 장	도 홍(지화장엄보유자)
교육원장	정 호
조 교 수	법 정
사무처장	법 진
재 무	지 오
감 사	법 원 원 경

전북 영산 작법 보존회
회 원 일 동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인봉1길 11
전화 063)285-9700 팩스 063)282-1536

전북불교회관



조 실	금산도영
회 주	취산도법
교구장	월강일원
주 지	제 환

부 설
화엄불교대학
룸비니어린이집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42-13 / 063-277-3497
홈페이지 : https://www.jbbulgyo.org/

대한불교조계종

능가산 내소사

주 지 진 성

사부대중일동

내소사 고려동종 국보 승격



주소 전북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전화 063)583-7281 www.naesosa.kr
내소사 템플스테이 063)583-3035



코리아기술종합대학교

한국어학과 양곤 제2캠퍼스

미얀마 양곤 한국어학당 개원





미얀마 양곤시 나인따이야에 위치한 코리아기술종합대학(이사장 금당 목탁스님)에서는 **양곤시 남부 지역에한국어학과 양곤제2 컴퍼스를 개원**하고 한국어학당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미얀마연방정부 종교성 장관 (U Tin Oo Lwin, Union Minister)과 협의하고 OAK ZAWTINDPRP 교수를 제2캠퍼스 학장 및 한국어학과 교수로 임명하였다.

일정중에 차기 미얀마 연방승가회 회장 물망에 오르고 계신 민쩡 사야도와 짜익티오성 사야도와의 좌담에서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의 추진되고 있는 제2대 불교법왕 추대 건에 의견을 나누며 2004년도에 새계불교 각국대표인 승왕정상회의 개최안에 더 깊은 연구와 계획을 교환 하기로 하였다.

짜익티성 사야도의 발언중에 2024-2025년중 짜익티오에서 각국 승왕 및 대표자를 모시고 미얀마승려와 제가불자3만명이 참여하는 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하는 계획안을 놓고 여러건의 안을 설명하는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2024년 5월 20일, 몽골정부에서 기증받은 5만여평의 대지에 세계불교법왕청중앙정부와 몽골불교협회에서는 5만구루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그 준비작업에 착수하였고 묘목 확보에 들어갔다. 5월22일(음력4월15일)에는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게 홍법 행사의 일환으로 몽골 시청대광장에서 부처님진신사리 친견 및 마정수기를 봉행하기로 하였으며 행사이후 몽골불교협회 회장 Dr.바트볼드의 사원에 사리이운 봉안의식을 봉행하기로 했다.

나무심기행사에 나무묘목기증및 동참하고자하는 불가 사부대중은 **2024년 3월안 선착순 접수**받기로 했다.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중앙정부.**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03158 Jongno-gu, sambong-lo 68 shinyoung B/D 3F (chungjin-dong) Seoul, Korea
大韓民國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대표전화 **02-733-5665** H.P **010-3618-6061**
도메인: **세계 불교 법왕청** .kr E-mail : **moktak1**@naver.com

후 원 모 집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와 몽골불교협회는 몽골정부로부터 희사받은 5만여평에 녹색운동 희망의 나무심기 운동에 동참해 주실 보시공덕자를 모십니다. 불자님들이 보시하신 나무는 사막의 땅에 숲을 이루어 지구 사막화를 막고 한국으로 몰려오는 황사를 막는 시발점이 될것이며 기후 변화를 늦추는 녹색운동이 될 것입니다. 후원계좌 : 세계불교법왕청 국민은행 023501-04-214874

2024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일강 엔지니어링(주)

SUNRIVER ENGINEERING

건설감리전문엔지니어링
기업부설연구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8번길 7-1, 3층
Tel 8017-1010 Fax 8017-1011



대행 스님

슬픔도 괴로움도 아닌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을 발현해서 자유스럽게 사세요

올 새해에는 여러분께서 한마음의 도리에 더욱 정진하셔서 가정에 병고 액난이 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자면 좋은 일도 있고 언짢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간뿐이 아니라 만물의 살림살이가 다 그러합니다. 우리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도 그렇고, 기어 다니는 벌레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역시 그렇고, 고통이라는 것은 언제나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아닌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을 발현해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게 돼야겠죠.

하여튼 제가, 아마도 말을 많이 했다면 많이 했고 안 했다면 안 한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없어져 버리면서 다시 생하고, 다시 생하면서 또 없어지곤 합니다.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이 반복 속에서 인간이 됐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문제의 해답을 꼭 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꾸 말을 해 드리는 것보다도, 질문들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와 같이 도반으로서 열심히 서로서로 토론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마음의 사랑을 베풀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배출되길 바랍니다.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제가 큰스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러 형제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을 요약해서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섭 존자님께 전한 불법이 중국 육조 혜능에 이르러서는 아주 우뚝 섰습니다. 그로부터 혜능의 법이 융성하더니 세월이 흐르면서 불법이 번다해지고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큰스님께서 보시기에 혜능의 밝은 법등은 미래에는 어떻게 전법이 되어 갈지 그 인연법에 대해 가르침을 주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큰스님 항상 말씀해 드렸듯이, 이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분들이 깨쳤다 하더라도 찰나찰나에 돌아가는 이 자체가 나 아님이 없다는 그런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닌 것이 부처님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으로써 육조 혜능 선사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배출되고 그랬지만 지금은 왜 이러냐고 하신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나 이때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두 한 번도 마음을 기울여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길잡이로서 이렇게 일러 드리는 것은 바로 역대 선사가 일러 드리는 말이나 육조 선사가 일러 드린 말이나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서 자기를 자기가 알라고, 깨치라고 그때 육조 선사도 역시 말씀하신 겁니다. 역대 조사들도 그렇고 부처님들 보살들이 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사대 성인도 "너부터 알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탓이지 왜 그분들의 탓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죽는다 하더라도 풀 한 포기만 살아 있으면 불법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1(남)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주인공에 믿고 맡기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보리심을 통해야만 도를 이룬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에서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 경의 수승한 공덕이 칠보로 수미산을 장식한 것보다 크다'고 하고, '이 경의 사구게 하나만 일념으로 염송해도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염불문을 세우는 것이겠죠. 또 다른 절에서는 백팔배, 삼천배를 시키면서 말하기를 '예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배를 빌어 타고 저 언덕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제 손으로 배를 만들기가 힘들어 아미타불 등 부처님과 제불 보살님의 배를 빌어 타고 싶은 게 중생심인데, 이런 경우에 타력에 의지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요? 염불문이나 예불도 결국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이해되도록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스님 그 말을 나무로 비유하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 잎새가 헤아릴 수 없죠? 나무뿌리는 하나인데 가지들은 많고 그 잎새는 더 말할 거 없이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을 읽는다 하면 잎새를 세는 거와 같고, 또 백팔배를 한다면 바로 나무를 만져 주는 거와 같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무와 가지와 잎새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면 거기에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일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잎새를 아무리 세어도 센 사이가 없을 테고, 가지를 아무리 더듬어 줘도 더듬어 준 사이가 없을 겁니다. 공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 이전에 역대 부처님과 조사들은 다 가르치시길 "얘야! 나뭇가지도 아니고 잎새도 아니니라. 뿌리에다 돌리거라. 마음을 일심으로 뿌리에 두어라. 가을이 되면 떨어지고, 봄이 되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그 과정은 뿌리로부터이니라. 그러니 들이고 내는 모든 것을 뿌리에서 들이고 내는 것이니라. 뿌리가 없다면 나무는 모두 죽어 버리고 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무에 비유한다면 무엇이든 뿌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바로 뿌리에 물을 촉촉하게 주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지를 쓰다듬지 않아도, 이파리를 세지 않아도 그 나무는 아주 싱싱하고 푸르르게 자랄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나무 잎새나 나뭇가지나 나무 둥치나 이런 걸 무시한 게 아닙니다. "뿌리부터 알고 뿌리에서 나온 거라는 거를 알아라. 그럼으로써 경을 읽되, 경이 나를 보지 않고 내가 경을 보지 않는 이치가 나오느니라. 절을 하되 절을 하는 사이가 없이 할 수 있느니라. 또 경을 보되 귀로 보고 모든 만물만생의 소리를 듣되 바로 눈으로 듣는다. 그 도리를 알게 되면 눈으로 듣는다도 없고 또 귀로 본다는 것도 없이, 바로 하나가 불끈, 하늘을 끼고 돌아가느니라." 이런 뜻에 속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 속에 수십억의 의식을 두고, 생명을 두고, 모습을 두고 있는 이 몸이 그 나무와 같이 아주 크다면…, 나무라는 것은 나무로 볼 수도 있지만 나무는 아주 크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없이 거듭거듭 태어나고 멸하고 이러는데 사람만이 이런 고초를 겪고 이런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행복이 엇갈린 세상 속에서 모

☞ A34면으로 계속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마음선원은
불법의 궁극적 목표인 한마음을 깨닫게 하는 도량으로서
모든 중생이 본래로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성불하도록 인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www.bs.hanmaum.org | 051)403-7077
부설 한마음유치원
www.한마음유치원.kr

고통과 행복이 엇갈린 세상 속에서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데 목적이 있다

☞ A33면에서 계속

든 것에서 벗어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행복도 아니요, 고통도 아닌 그 작용 속에서 바로 한생각 일어나는 것이 법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한데로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 법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으면서, 대천세계 모두 돌아가게 하는 이 하나의 마음을 탁 포착하는 그런 계기가 되라 이런 얘깁니다. 안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그러면서도 역력하게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 마음 내기 이전 불성 말입니다.

그거를 일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누가 들이고 내느냐. 마음이 들이고 내는 거다. 그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끌고 가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끌고 가니, 그 양면을 다 작용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 조심해서 선(善)의 공덕 길로 끌어들여라." 하구요.

이 세상에는 악도 있고 선도 있습니다. 그건 왜냐. 천차만별로 돌아가는 모든 물질, 개성, 마음들이 전부 우리가 있기 이전에도, 지수화풍이 있기 이전에도 개별적으로 자기 개성을 톡톡히 두고 돌아갔던 시절이 있었겠죠. 개별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개성이 한데 합쳐서 지수화풍을 이루었고, 지수화풍을 이루었기 때문에 바로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 통신력이 이루어진 반면에 인간, 이 생물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니 모든…, 내가 자꾸 얘기를 해서 안됐군요. 질문하세요. 하하하.

질문자1(남) 제가 다음 질문 할 것을 미리 법문을 하셔서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삼매경』에 보면 무주보살이 세존께 드리는 질문 가운데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한생각의 움직임이라 하리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세존께서 대답하시기를 "한생각 움직이면 오음(五陰)이 걷혀 나가니 오음 가운데는 오십 악이 갖춰져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오로지 심신을 가라앉혀 무심이 되라 하신 것으로 느끼게 되는데, 한생각을 낸다는 것의 경지는 무엇인지, 또 한생각을 내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한생각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포괄적인 생각입니다. 한 그릇 할 때 한 그릇, '한'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부처님이요, 생각을 해서 말을 했다 하면 보살이거든요. 자기 마음이 부처인 자기한테 물었겠다! 하하하. 그러니까 "한생각을 어찌 생각하느냐?" 할 때, 일체 만생이 다 마음을 들이고 내는 데에 모든 생각, 이걸 한마음이라고 그럽니다, 한마음! 그 한마음 속에는 오십 악이 들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선의 생각이 오십이라면 악의 생각도 오십이다. 이 오십 악이라는 것을 볼 때, 생각하는 대로 물질적으로 관습이 돼서 찾는 거, 욕심부리는 거, 애착, 애욕 또는 편견, 아상, 아만 모든 거를 종합해 보면, 보세요. 거기에서 풀리는 그 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음 속에는 오십 악이 들어 있으니 악도 오음도 양면에서 같이 작용을 해서 둘이 아닌 작용을 한다면, 내 마음이 이 세상 천지에 자유스럽게 밝게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즉 말하자면 칠보활궁공법으로 들어가느니라 이런 거죠. 그냥 찍는 대로 법이 돼야 이게 활궁입니다. 활궁공법심으로서의 평화를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전체, 자유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용입니다. 죽은 세상 산 세상을 동시에 작용하면서 활용하는 게 중용입니다. 그걸 일러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무주보살이 말을 했느냐. 그 '무(無)' 자가 들어간 것은 바로 형체가 아닌 보살이 물은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만 생각하고 색(色)으로 보는 사람의 질문이 아닙니다. 색으로 보지 않고 또는 무심으로도 보지 않고, 양면을 다 작용하는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편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경에다가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경을 모조리 읽었다 하더라도 경을 보지 않고 경을 봐야만이 경의 진의가, 뜻이 나온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지 말고 보고, 듣지 말고 듣고 이런 뜻을 알아야 경의 뜻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전깃줄과 전깃줄을 한데 합쳐서 작용을 해야만이 불이 들어오듯이 말이죠.

질문자1(남)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큰스님 법에 따라서 수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부 겸해서 자기가 하는 일, 또는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공부가 많이 된 분은 그 확률이 더 많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소원이 이루어졌다든가 그런 과(果)를 얻었을 적에 그것을 다시 회향을 하는 공덕이 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시시각각으로 회향을 하는데 회향이 무슨 따로 있나요? 아니, 밥을 먹고 끝나면 회향이요, 똥을 누고 일어나면 회향이요, 말을 하고 끝을 마치면 회향이요, 모든 게 회향 아님이 없어요. 시초가 있고 회향이 있어서, 우리 살림살이 어떤 거 하나도 떠나지 않는 것이 회향입니다. 그러니 돌아가는 이 이치를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근본을 진짜로만 믿는다면 모든 게 회향입니다. 그것을 진짜로 믿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애석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말을 강조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애한테 뜀박질을 해서 천 리를 뛰라고 하는 격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어린애더러 사회에 나가서 벌이해 오라고 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 어떠한 애로점이 내 앞에 닥쳤는데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는가를 수없이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갖다가 주기까지 하면서 일러 드렸는데도 모두들 받아먹지를 못합니다. 먹는 거는 자신이 먹어야지 되겠죠. 대부분 세 층으로 나누어지는데 처음에 오신 분도 있고, 오셔서 좀 희미하게라도 아는 분이 있고, 이해를 완전히 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한 마음 소식을 얻었다 하는 분도 있고, 그 여러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처님께서 어린애들이 집에서 노는데 불이 났으니까 사탕을 줘서 끌어내려고 "너 장난감 이런 거를 줄 테니까 얼른 나오너라." 이렇게 해서 그 어린애들을 건지듯이, 여러분에게서 괴로움과 정말 견디지 못할 문제들을 볼 때 사탕을 주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 괴로움도 없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나 여러분이 울면 내가 울음이 나오고, 또 여러분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은 인연의 줄 없는 줄이 얽혀 가설이 돼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울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저절로 언짢아지고 눈물이 나죠? 안 그렇습니까? 남이 울면 덩달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불쌍한 사람을 볼 때는 가슴이 아프고, 그것이 바로 줄 없는 인연 줄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다가 말았죠? 어디로 이렇게 싹 돌아가 버렸어. 하하하,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하다가….

> 제일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 커버를 못 할 때
> 모든 걸 그냥 탁!
> 모든 걸 죽든지 살든지 그냥 놔버리고
> 자기 근본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모진 비바람이 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커버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요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애석하게도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럽니다. 마음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도 나옵니다. 마음이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좀 믿음을 가지고 간다 하는 사람 앞에 오장육부 속에서 모든 인과로 인해서 모인 중생들이 제가끔들 일어납니다. 그것은 과거에 인과를 지은 인연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악의 조건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또 내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몸속에 있는 수십억의 의식들이 좋고 나쁜 거, 자비, 사랑이런 걸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통솔하면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만큼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늘이 무너지고 깨지고 땅이 솟고 찢어지고, 온통 금방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는다 하더라도 거기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고, 거기서만이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굳건히 갖고 놔야 되는 건데 그걸 놓지를 않고 딱! 마음으로 잡고선 발발 발발 발발 뛰니다. 어떠십니까, 생각에? 아무리 안 그러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양심으로 아는 분들은 부처님께서 다 아는 겁니다. 아니,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이 소인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하하.

그러니 저는 한시 반시도 안타까운 것이 떠날 사이가 없습니다. 이거 솔직한 얘깁니다. 여기서 왈가당하면 저기서 왈가당하고, 저기서 왈가당하면 여기서 왈가당하는데, 만약에 내가 조촘병이 들은 사람, 즉 기복으로 나가는 사람 같으면 뭐,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할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해 줄 생각도 못 할 것이고, 자기 몸도 추려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행복할 때는 행복하다고 하고, 웃을 때는 웃으면서, 고가 닥칠 때는 고가 닥치는 그 잠시 잠깐을 그냥 죽겠다고 하니,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말라 죽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하하. 그런데 하는 사이가 없이 하니까 이만이라도 하죠.

또 우리 신도님들만이 아닙니다. 기어다니는 거나 날아다니는 거나, 저 무정물이나 식물이나 살림살이에서 고통받는 거는 저에게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지렁이가 기어가다가 사람에게 밟혀서 허리가 끊어지듯 해서 엉금엉금 기어가는 그 아픔이나, 사람이 차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입원을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경우입니다. 어느 거든지 그 아픔을, 쓰라림을 겪지 않는 생물은 없으니까요.

그뿐입니까?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도 살아 있을 때의 그 차원대로 죽어서도 똑같이 있으니까요. 더하고 덜함이 없거든요. 산 사람은 더했다 덜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죽은 사람은 부딪침이 없으니까 더하고 덜함이 없죠. 한 그릇의 차원이라면 그대로죠. 그래서 천도가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나는 지금 아주 가슴이 아파서 얘기해 드린 겁니다. 제일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 커버를 못 할 때 무조건 그냥 그냥 탁! 모든 걸 죽든지 살든지 그냥 놔 버리고 거기 집중하는 거….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1월 5일 법형제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 합창단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은 한마음의 도리를 이르신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선법가로 전하는 음성 포교단입니다.
음성공양을 통하여 스스로를 닦고 밝히며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활 선법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단장 010-6223-4375 거사합창단 단장 010-3860-4258





新年隨想

희망도 절망도 내가 만든다

주경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하루의 시작이 어떠하면 좋을까! 어떤 몸짓과 말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좋은 것일까! 매일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잠에서 깨어난다. 일상의 아침은 때로 나른하지만 평온하고, 여행지에서의 아침은 약간의 피로와 새로운 설렘으로 시작된다. 늘 가슴에 품고 있는 생각이 '여행'이다. 어디든 떠나고 새로움으로 날을 시작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다. '한 나무 아래서 사흘 이상 머물지 말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은 정말 수행자들의 지침이 되는 말이다. 사람들이 물어볼 때 모토(motto)라고 하는 말이 '호기심과 도전'인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늘 가슴속에 호기심과 도전의 생각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깨달음과 수행은 출가자에게 호기심과 도전의 대상이다. 깨달음과 수행의 의지가 가슴에 남아있지 않다면 수행자로서의 생명은 이미 끝난 것이다. 세속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자신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가족과 직장 및 세상에 대한 사랑과 희망이 없다면 그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과 말이 그날의 자신을 이끌고 만들어간다.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과 같이 마음과 말이 그날의 방향과 운세를 이끄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도록 노력하고 길을 들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이나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타인이나 환경의 영향을 스스로 녹여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이 자기중심을 잃어버리고 타인과 세상의 영향에 휘둘리게 되면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발전한다고 가졌던 생각은 이제 버렸다. 1980~90년대까지는 세상이 그런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상에 대한 그런 생각에 변화가 생겼다. 오랜 세월 쉼 없는 노력으로 얻어낸 민주주의는 충분히 발전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독재자들과 극단주의자들이 각국의 지도자로 떠오르며 세상은 점점 경직되어가고 있다. 2년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이제 만성화되어 뉴스조차 다루지 않고 있으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뉴스의 전면을 장식하고 있다. 미국의 총기난사 사건은 꼬리를 물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테러와 폭력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끝을 보이며 자유로워진 세계여행도 테러나 폭력, 범죄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하는 시절이 되었다.

물질적 풍요와 민주주의의 발달로 사람들의 삶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세상은 더 평화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현대 한국인의 물질적 풍요는 조선시대 임금님의 10배가 넘는다고 한다. 현대 기술문명의 발전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상대적 차별감'이다. 흔히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빈곤의 기준선을 넘어선 사회에서 더욱 심화되어 가는 사회적 병리현상이다. 삶에 있어서 절대적 빈곤이나 부족은 면했지만 나보다 나은 것으로 보이는 타인을 바라보며 빈곤감과 박탈감을 가지는 것이다. 인간의 성품이 이런 것인가? 부처님께서 일찍이 설파하셨던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제일 부자'라는 말에 대비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상대적 차별감이 세상을 점점 더 나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보인다. 분규와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 지도자들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극단적인 좌파나 우파들이 선거에서 이기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옛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 상대적 차별감이 이웃과 타인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현대에는 극단적인 현상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보인다.

불교는 일체의 중생이 모두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모든 사람과 생명이 부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동등하다는 평등과 무차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마다 생김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며, 취향도 능력도 다르다. 이게 세상이다.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재미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모두가 똑같다면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들과 다를 것이 없지 않겠는가. 너무도 당연하게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상대적 빈곤감이나 박탈감을 스스로 녹여낼 수 있어야 한다. 나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따라하지 못하는 어떤 재능이 있을 것이다. 세상은 각양각색(各樣各色)이다. 모든 존재가 각각 모양과 색깔이 다른 것이다. 쌍둥이조차도 비슷하지만 같지 않다. 다양하고 다름이 많은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각각 자신의 철학과 인생관이 필요한 것이다.

산사에서는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말을 하지 않고 묵언(默言)한다. 묵언은 수행자의 일상이고 근본바탕이다. 매일 처음 입에서 나오는 음성은 불보살님을 찬탄하고 진리를 외는 염불소리이다. 수행자의 그날그날과 일생의 방향을 정립하고 확인하는 시간인 것이다. 삶에서 가장 많은 번뇌가 생기는 것이 말이다. 말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근심을 제거하기도 하지만 자신과 타인의 근심과 걱정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보다도 심한 고통과 절망을 주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 '세상은 쉼 없이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노력하라'고 하셨다. 나의 마음과 신체도 쉼 없이 변하고 세상도 쉼 없이 변한다. 그 변화를 희망으로 만드는 것도 절망으로 만드는 것도 다 내 마음과 내가 하는 일이다. 서로 다른 각각의 나와 나가 모여서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며 세계가 된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희망으로 향하는 나를 굳게 잘 지키면 절망은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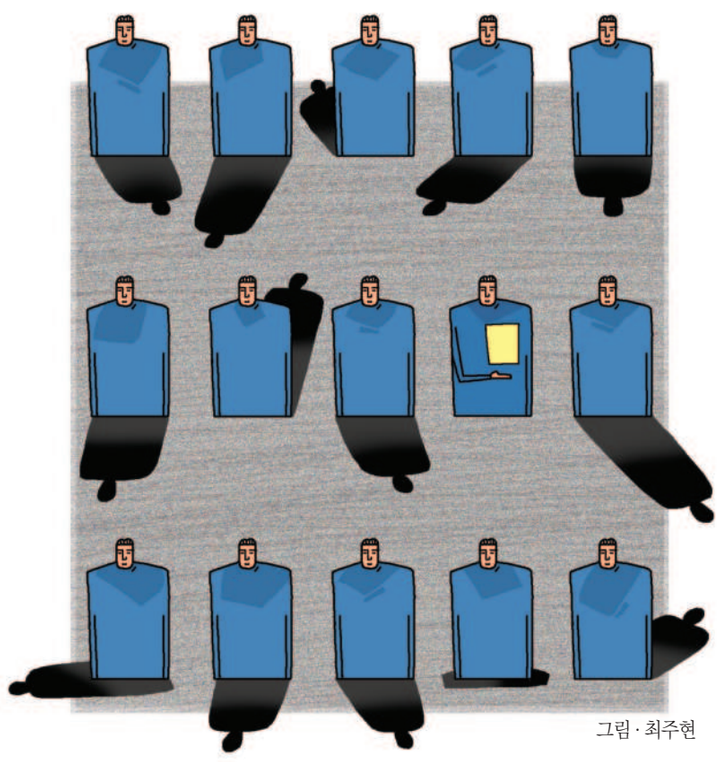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빈곤 면한 세상에 상대적 차별감은 커져**
> **시기와 질투가 극단적인 현상으로 표출**
> **희망을 만드는 말과 마음으로 살아가자**

社 說

변화의 갑진년, 불교중흥으로 나아가자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불교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가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다.

당장 조계종의 경우 올해 25곳 교구본사 중 10곳의 주지 임기가 만료된다. 여러 교구본사에서 선거와 합의추대 형식을 통해 주지가 교체되거나 중임될 전망이다.

가장 먼저 제4교구본사 월정사는 주지 정념 스님이 6번째 연임을 확정했다. 임기는 1월 중 만료되지만 지난해 12월 산중총회를 통해 정념 스님의 연임이 만장일치로 정해졌다. 교구본사 주지가 6번 연임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총림 송광사도 최근 임회에서 차기 주지후보를 창원 길상사 회주 무자 스님으로 확정했다고 한다.

교구본사 10곳서 지역불교 새 리더 선출
4월엔 총선 예정… 불자 후보 약진 기대
하반기 결집대회, 한국불교 역량 한자리
당겨진 전법의 불씨, 들불 같이 번지길

오는 3월 주지임기가 만료되는 본사는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제3교구본사 신흥사다. 4월엔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제5교구본사 법주사, 제9교구본사 동화사가, 6월엔 제17교구본사 금산사의 주지 임기가 만료된다. 9월엔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의 임기가 만료된다.

지역불교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 과정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심과 원력이 있는 리더의 선출이 이뤄져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진다. 4년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불자 후보들의 당선 여부가 관심사다. 국회 정각회의 규모와도 연결되어서다. 그렇기에 불자 후보들의 약진을 불교계는 기대할 수밖에 없다.

2023년 당겨진 전법의 불씨가 올해에는 들불처럼 번져나가야 한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유지를 이어가기 위해 사단법인 상월결사는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학생 전법 불사 등의 사업들을 차질없이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상월결사는 △교구별 신규 동아리 설립 △기존 대불련 소속 불교동아리 활성화 △대학생 불교 음악 축제 △전국 대학생 불자대회(대학생 영 캠프) △상월불교포럼 설립 등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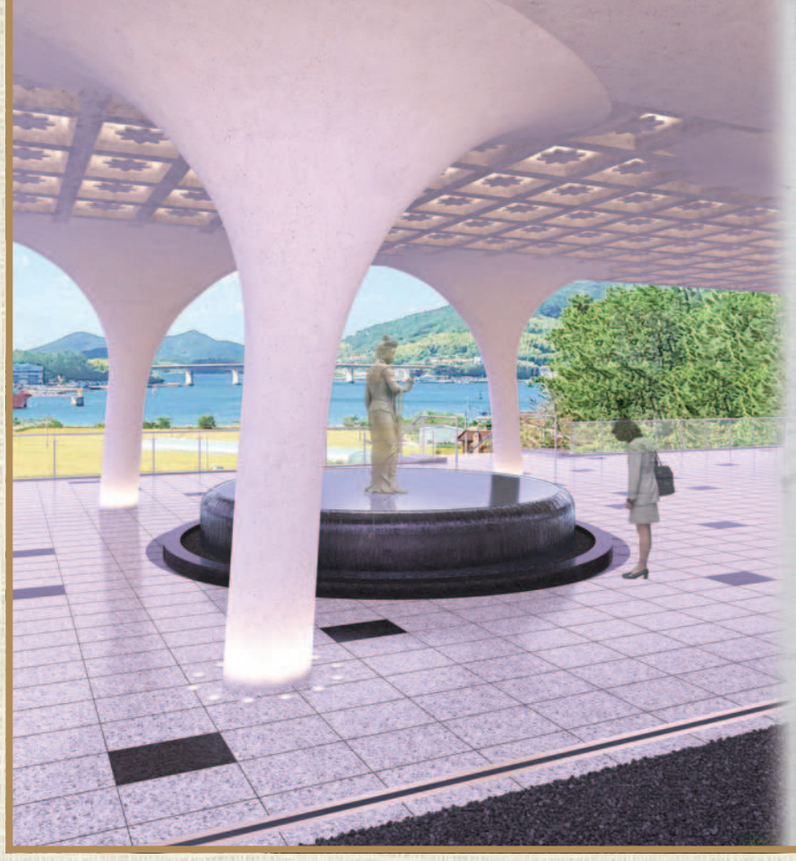
하반기에 예정된 '2024 불교도 결집대회'도 기대를 모은다. 세부적인 계획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전국 불교도의 수계를 비롯해 선 명상을 주제로 한 국제대회를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다단한 세간사(世間事)로 인하여 국민전체의 정신건강이 위협을 받는 때에 국민전체의 마음평화를 위해 세계 선명상 대회와 대한민국 불교도 대법회 봉행 등 선(禪)명상법의 대중화에 필요한 갖가지 종책(宗策)들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2024년은 어느 해보다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 같이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숫타니파타〉의 경구처럼 일희일비하지 말고, 평상심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불교중흥을 위해 나아가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전에 입각한 블교우주관을 담아 세계적인 건축가의
초현대적 불교 창작예술공간 "더븀비전센터"
건립을 여러 불자들의 염원을 모아 이루고자 합니다.
나를 비워 나를 찾는 붓다로드에
나의 손길이 가미된 "나의 원불"도자기
불상 불사에 수희 동참을 원합니다.
원 불 108만원
계좌번호 | 부산은행 101-2083-6727-07
문 의
010-5514-1002 (오오!일사천리)
거제 더븀비전센터 평천 범혜 합장





謹賀新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FOUNDATION

불교중흥 동국발전

불기 2568(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부처님 법 전하며 힘차게 정진하는 동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 사 장 돈 관

WISE캠퍼스총장 이 영 경　　동국대학교총장 윤 재 웅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채 석 래





WISE캠퍼스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융합인재 양성



서울캠퍼스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인류사회에 공헌



의료원 자비인술과 약사여래의 원력 실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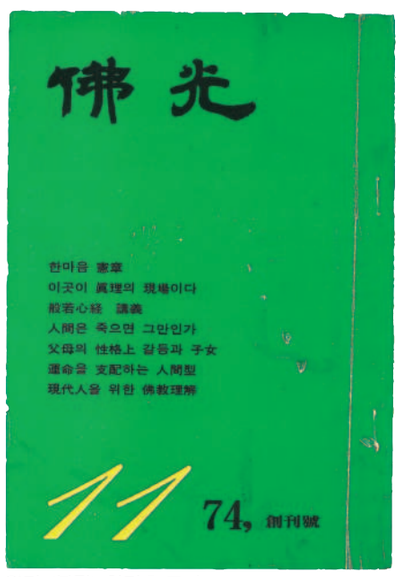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금산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영석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선화여자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흥제중학교 / 은석초등학교 /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 / 동국대학교 DUICA

반세기 전법의 역군…브랜드가 된 佛光



2024년 11월에 창간 50주년을 맞이하는 월간 〈불광〉. 출판사를 거쳐 미디어사로 거듭난 불광미디어는 '콘텐츠로 사람을 연결하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 는 사명으로 운영된다. 류지호 대표(사진 왼쪽 첫 번째)와 불광미디어 임직원들이 한 해 동안 펴낸 〈불광〉을 각각 손에 들었다.

Interview 창간 50주년 맞는 월간 〈불광〉, 그리고 불광미디어



월간 〈불광〉 창간호 표지.

이에 本誌(본지) 〈佛光(불광)〉은 감히 우리 역사와 생활 속에 부처님의 威光(위광)을 전달하는 使命(사명)을 自擔(자담)하고 나선다. 이로써 조국의 발전이 기초할 정신적 基盤(기반)과 動力(동력)을 공여하기를 기도하며 前進(전진)하는 민족사의 方向(방향)과 底力(저력)을 부여함에 보탬이 되기를 기약한다.

–1974년 11월 월간 〈불광〉 창간호 발행인 광덕 스님 창간사 '순수불교선언' 중에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무려 반세기 전이다. 월간 〈불광〉이 사바세계에 뛰어든 날. 50년 전 광덕 스님은 월간 〈불광〉을 창간하며 그 존재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세상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사명을 당당히 짊어지겠다고. 스스로의 전법선언이자 마주할 이들을 일깨우는 사자후였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2024년, 〈불광〉은 여전하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의 의식구조도 바뀌었지만 〈불광〉 제1의 정신인 '전법'은 그대로다. 흑백사진이 컬러로, 작은 판형이 커졌을 뿐 창간 당시의 존재 이유는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전성기에는 문서포교 선구자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최근엔 종이매체의 위기라는 질곡을 견뎌낸 지천명(知天命)의 〈불광〉. 그리고 잡지와 단행본을 내던 불광출판사를 넘어 이제는 하나의 미디어사로 변모한 불광미디어. '불광'의 반세기 역사를 듣기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위치한 불광미디어 사무실에서 류지호 대표를 만났다.

광덕 스님이 남긴 창간정신

1974년 11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50주년을 맞이한 〈불광〉. 대한민국 잡지 역사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라 소회부터 물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2007년 2월부터 주간을 맡아 일을 시작해 17년째 불광미디어를 이끄는 류 대표에게서 기념비적인 일에 대한 감격보다는 리더로서 짊어진 사명감이 느껴졌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5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사회 의식구조나 환경은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뤘습니다. 그럼에도 전법의 소명은 끝없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늘 고민했습니다. 지금은 잘하고 있는 건지, 미래 지속가능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역할과 전망은 어떤지 창간정신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있습니다."

불광미디어의 시작은 월간 〈불광〉이다. 광덕 스님이 창간했다는 사실도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 하지만 1975년 불광법회 창립보다도 잡지 발간이 한 해 빨랐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많다. 물론 둘 다 같은 시기에 추진되긴 했지만 그만큼 잡지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달은 광덕 스님이었다. 무엇이 스님을 움직이게 했을까.

"사찰과 신도 숫자도 중요하지만 광덕 스님께서는 무엇보다 인간의 정신·사상적인 면을 강조하셨습니다. 불광운동이 무엇이고 무엇을 지향하느냐를 분명히 하고 싶으셔서 잡지를 만드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터넷은 물론이고 컬러TV조차 없던 시절에 신문과 잡지는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였으니까요. 스님의 탁월한 혜안을 느낍니다."

불광출판사는 월간 〈불광〉 발행과 함께 〈육조단경〉 〈지장보살경〉 등의 경전, 불광선문총서 시리즈를 발간하며 조금씩 출판사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기 전 인문서를 기획하기 위한 도서출판 한강수 브랜드를 등록하고, 이동식·이중표 교수 등 저명학자의 책 발간을 비롯해 신진 필자를 발굴하며 불교출판을 선도하는 매체로 거듭났다.

2000년대에는 달라이라마와 틱낫한 스님 등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의 저서, 존 카밧진과 잭 콘필드 등 명상 지도자의 책을 펴내며 종합출판사로 성장했다. 매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우수교양도서에 빼놓지 않고 출판물 이름을 올렸고, 불교출판문화협회의 '올해의 불서 10'에 꼽히는 단골손님이 됐다. 학술서들은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명상이나 수행 이야기는 한국출판문화협회 올해의 청소년 도서로 선정됐다. '불광'이라는 이름은 어느새 불교를 넘어 일반사회에서도 이른바 '먹히는' 브랜드가 됐다.

'종이매체 위기'에 미디어社 전환

출판물의 호황을 누리던 불광출판사는 2010년대 뉴미디어 시대에 접어들며 등장한 '종이매체 위기론'을 실감했다. 2016년 개최한 〈불광〉 500호 발간 기념 세미나에선 부정적인 지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불교출판의 마이너스 성장률, 법륜·혜민 스님 등 저명인사에 의존하는 저자 쏠림 현상까지. 게다가 스마트폰의 혁신과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SNS) 확대로 종이매체를 향한 대중의 관심은 점차 낮아졌다.

분야를 막론한 여러 잡지의 폐간도 이어졌다. 가장 큰 반향을 불러왔던 건 2019년 재정난으로 인한 월간 〈샘터〉의 무기한 휴간 검토였다. 〈불광〉의 선배 격으로 1970년 창간한 〈샘터〉가 5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폐간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많은 이들이 우려했다. 다행히 보도 이후 후원이 늘어나 발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월간지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런 종이매체의 위기는 〈불광〉도 피해갈 수 없었다. 더구나 불교라는 전문분야를 다루는 입장에선 보다 혹독한 환경이었다. 월간 〈법시〉 〈법륜〉 등 20세기를 함께한 동종업계 잡지 대부분은 이보다 훨씬 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대중의 눈은 높아지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선 더 많은 투자가 필요했다.

B2면에 계속



최근 펴낸 월간 〈불광〉들.

50년 세월 지나 세상 변해도
'전법'의 소명은 변하지 않아
컬러TV 없던 1970년대 지나
뉴미디어 시대 발맞춰 변화해
사회서도 통하는 브랜드 입지
"미래 내다본 광덕 스님 혜안"

“콘텐츠 봐야할 이유 만드는 게 화두”



불광미디어 사무실에서 단행본과 월간지 제작이 한창이다.



불광미디어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2만5000명을 넘어섰다.



2016년 6월, 월간 〈불광〉 500호 발간을 기념하며 선보인 전시.

불광미디어는?

1974년 광덕 스님이 설립한 불광출판사가 전신이다. 50년간 700종이 넘는 단행본을 출간하고, 불교의 온전한 가르침과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불교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 젊은 불교학자의 학술서, 저명한 스님들의 논서를 중심으로 불교출판을 이끌었으며, 2000년대 들어 미디어의 변화에 발맞춰 보다 전문화된 안목으로 독자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합미디어 출판사로 거듭났다.

B1면에 이어

결국 불광출판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민 끝에 2016년 주식회사 불광미디어로 전환했다. 사실상 개인사업자에서 공신력을 갖춘 법인체로 변화를 도모한 것. 이와 동시에 종이매체에 국한하지 않고 전자책, 오디오북, 강연, 여행, 영상 등 다방면의 활동을 전개했다. 회사 수익은 새로운 파트에 과감히 투자해 현재 20여 명의 직원을 둔 미디어 사가 됐다.

그 결과 출판이 주력사업임에도 불광미디어 유튜브 채널은 어느덧 구독자 12만5000명을 넘어섰다. 저자 인터뷰, 인문학 강연, 명상 등을 주제로 한 수준 높은 영상이 밑바탕이 됐다.

특히 2019년 여름, 일본 불매운동 ‘노 재팬(No Japan)’이 확산되던 당시 경제학자인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한일 경제전쟁 긴급진단’ 영상은 5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뿐만 아니라 월간 〈불광〉 500호를 기념해 시작한 유명 연사들의 강연 ‘붓다 빅 퀘스천’은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얻어 올해부터 월간 행사로 발전했다.

“종이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줄어들어도 본질을 생각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뜻은 시대변화를 막론하고 존재합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게 불광미디어의 역할 중 하나죠. 기존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콘텐츠를 봐야할 이유를 만드는 일, 그게 늘 화두입니다.”

출판사 호황 누리던 시기 지나
‘종이매체 위기’ 속에 고민 거듭
주식회사·종합미디어사로 전환
‘원 테마’ 잡지는 시판 점차 늘어
올 10월엔 〈불광〉 600호 발간도

‘원 테마’ 적용…〈불광〉 600호 앞둬

불광미디어의 모태인 〈불광〉은 2021년 1월호부터 ‘원 테마(One Theme)’를 적용했다. 인물·역사·문화·인문·교리·라이프스타일 등 여러 분야에서 선정한 하나의 주제를 전체 콘텐츠 가운데 70%이상 비중으로 집중 조명한 것. 대형사찰의 사보들도 높은 퀄리티를 보이는 요즘, 차별성을 두고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한 도전이었다. 하지만 대중으로부터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구독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서점 판매량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한 호에 하나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과월호에 관심 갖는 사람들도 생겼다. 한 권을 살 때 시중 구매가가 정기구독보다 비싸더라도 읽고 싶은 주제가 담겼다면 그만한 지출을 하는 현대 소비 트렌드에 맞아떨어진 셈이다.

“원 테마로 잡지를 만들면서 지역 불교의 위상이 높아지는 효과도 생겼습니다. 특정 사찰 홍보보다는 지역의 역사적 맥락을 담아내고, 여러 지식정보도 담겨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심 갖는 경우도 있었죠. 때론 콘텐츠를 만들며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불광〉의 시판은 매년 두 배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 기세가 이어진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발행할 수 있을 겁니다.”

2016년 6월호 발간으로 500호라는 역사를 쓴 〈불광〉은 이제 600호를 앞두고 있다. 창간 이후 한 호도 휴간 없이 써내려온 역사다. 2024년 10월호가 600호, 창간 50주년을 맞는 11월호가 601호가 된다. 500호 발간 당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그동안 펴낸 〈불광〉으로 부처님 형상을 표현한 기념전을 선보였던 불광미디어. 600호 발간에는 어떤 이벤트로 대중을 찾아갈지 기대를 모은다.

“본질 잊은 생존경쟁은 무의미”

2024년 창간 30주년을 맞아 서른이 된 〈현대불교〉와 쉰의 〈불광〉. 매체는 다르지만 같은 문서포교를 하는 입장에서 조언을 구하고 싶었다. 탈종교화 시대에 불교를 기반으로 한 종이매체가 살아가는 길, 불광은 그 길을 걸으며 무엇을 느꼈는지 궁금했다. 류 대표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대답했다.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다고 해도 본질을 놓쳐선 안 됩니다. 생존을 위해 존재 의미를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위들이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매체는 왜 존재해야 하는지 다시 돌아봐야겠죠. 제가 창간정신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존재 이유를 뒤로 하고 생존만 우선시한다면 너무 서글프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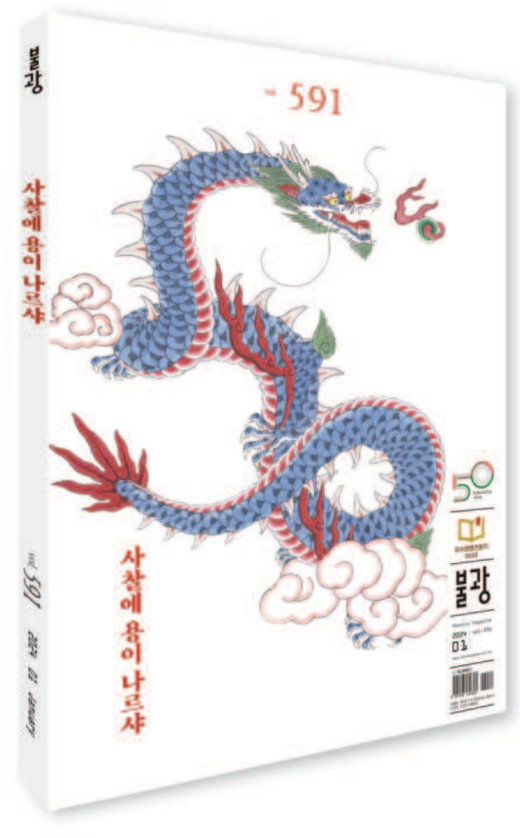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할 때도 신문이나 잡지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 경쟁력이 있어도 종이매체로서 살아남기란 만만치 않은 일이다. 〈불광〉은 위기상황에서 가격을 올리고 그만큼 질을 높이는 길을 택했다.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시장논리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고민을 매순간 담아내기 위해서다. 류 대표는 ‘5천원 더 비싸더라도 좋게 만들어달라는 시장 요구’에 귀를 기울였다. 〈불광〉의 월간 구독료 9000원, 시중에선 한 권에 1만2000원이다. 그럼에도 시판이 늘어난다는 건 가격 대비 소비 가치가 충분하다는 뜻이다.

“불광미디어의 시작은 광덕 스님이었고 오랜 세월 불광사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간으로 부임할 때부터는 자립이 전제였죠. 출판, 잡지, 미디어사로서 불교를 대표한다는 건 귀중한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더 많았으면 하고요. 물론 그에 따르는 책임감도 막중합니다.”

대한민국 현대불교사에서 전법의 역사를 새로 써온 전법운동의 선두주자 〈불광〉, 그리고 불광미디어.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에도 보현행원을 닦아 세상을 아름답게,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는 ‘불광’의 걸음에서 피어나고 있다.

Bulkwang 1974
우수콘텐츠잡지 2023

1974~
2024년 갑진(甲辰)년은
월간 「불광」 창간 50주년 신년호로
힘차게 시작해보세요!
2024~



김희진 외 지음 | 176쪽 | 올컬러 | 12,000원

since 1974 불교인문교양 매거진
591호

청룡의 해, 불교와 용龍은 어떤 관계일까?

사찰에 용이 나르샤

수신水神 신앙과 용 글. 김희진
용, 부처님을 외호하다 글. 강희정
용, 경전을 수호하다 글. 이승희
용, 사찰을 수호하다 글. 노승대
관음보살이 탄 용 글. 주수완
육룡이 ᄂᆞᄅᆞ샤 글. 유현주
용왕과 용신 글. 이경덕
백제 금동대향로의 용 글. 조경철

정기 구독 및 구매 안내
정기구독(1년) ~~144,000~~ → 108,000원(25%할인)
정기구독문의 02-420-3200
단권 구매 안내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온라인 서점이나 네이버 ‘월간 불광 스마트스토어’
불광미디어 홈페이지 www.bulkwang.co.kr
페이스북 @m.bulkwang
인스타그램 @monthly_bulkwang
네이버 쇼핑 monthlybulkwangshop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여여선원

갑진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도심속에 큰법당 여여선원에서는 불기2568(2024)년 2월12일(음1.3.)부터 2월 24일(음1.15)까지
가정의 행복을 위해 화엄신중 기도를 봉행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모든 소원 이루소서.

선원장 정여(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사부대중일동



051-853-548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420번길 18
(양정시장안 꽃 상가 5층)

기도법회
초하루법회
지장재일법회
관음재일법회
광명진언천일기도법회

대한불교조계종 여여정사

국내 최대 동굴법당 경남 밀양 삼랑진 여여정사 약사전에서
기도하셔서 건강성취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회주 정여(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주지 도명

사부대중일동



055-355-9290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1길 180-158 **팩스** 055) 355-9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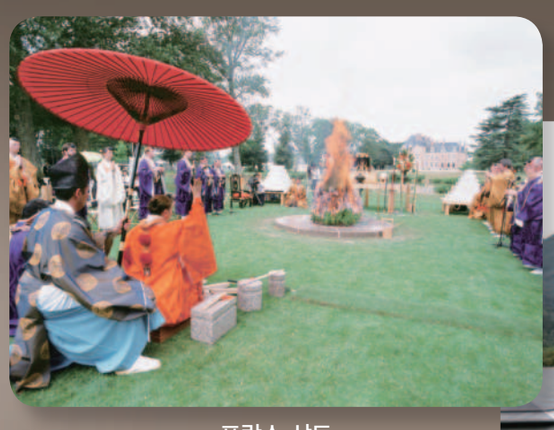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TEL 051)746-2256, 744-481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송로 245-7 성담사 TEL 055)867-9999

신뇨엔 제등호마, 세계평화를 기원하다



프랑스 샤토

'신뇨엔의 제등호마 (齊燈護摩)'
전통을 바탕으로 창시된 신뇨엔의 독자적인 호마



야마나시 신쇼지(眞澄寺) 별원

眞如苑 신뇨엔

▶ 해외정사 및 포교소 : 24개국 48개 ▶ 집회소 : 51개국 930여개
▶ 한국정사 : 서울·부산·제주·창원 ▶ e-mail : shinnyoen@hanmail.net

▶ 서울정사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7길 46 TEL (02)719-6998
▶ 부산정사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47 TEL (051)892-6998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네 불성이 본불이니 마음을 통하여 달하 이를지니라

황매산법연사 055.932.8811
경남 합천군 가회면 황매산 공원길 62-1

부산본원 연정사 051.868.7734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로 50

서울1교구 무량사 02.3462.3337
서울2교구 미묘사 02.2619.7733
강원교구 덕수사 033.256.2480
경기교구 정수사 031.213.1935
충청교구 계룡사 042.486.9971

경북교구 대덕사 054.452.8166
대구교구 법황사 053.253.7733
부산2교구 법륜사 051.203.8833
경남교구 김해사 055.326.7050
호남교구 연성사 062.223.0351

대한불교법연종

청년불교, 재중불교, 한글불교
사단법인 재한불교 해인종
www.haiinjong.org

종 정 만허 혜지
종정사서실장 법 인 종정사서부실장 정 오, 송 담

원로위원 : 금광 금강 덕산 공덕 보리 청담 승공 선광 담원 혜철

원로원장 : 법 공 종회의장 : 도 원 총무원장 : 대 호
사정원장 : 혜 담 포교원장 : 정 오 유천도원장 : 지 완
교육원장 : 금 봉 비구니회장 : 보 원 불무도원장 : 보 각
법사단장 : 대 공 학술원장 : 운 곡 사무총장 : 자 륜

총무부장 : 송 담 총무국장 : 지 명 교무부장 : 동 진 교무국장 : 덕 일
재무부장 : 도 경 재무국장 : 도 현 교육부장 : 인 봉 교육국장 : 도 운
기획부장 : 청 봉 기획국장 : 법 봉 사회부장 : 송 인 사회국장 : 혜 안
규정부장 : 해 원 규정국장 : 중 광 포교부장 : 보 광 포교국장 : 용 성
홍보부장 : 송 하 홍보국장 : 대 향 문화부장 : 지 홍 문화국장 : 서 진
의전부장 : 은 산 의전국장 : 선 재 봉사부장 : 법 수 봉사국장 : 명 진

총무원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433번 가길 82-3(주례동 낙은사) 전화 051)322-5918, 312-3777
이메일 jalun2545@daum.net 홈페이지 한글도메인 대한불교 해인종, 해인종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2023년 8월 6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개최한 '영 부디스트 캠프'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참석해 대학생 불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학생 전법 성패, 불교 미래 좌우한다

RE:START
대학생 전법
1. 왜 대학생 전법인가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노인층 많은 불자 연령 구조
청년 세대 '무종교인' 확대돼
대학생, 세대포교의 연결고리
'미래 불교 인재 양성' 의미도
지금 전법 안하면 불교 '枯死'
자승 대종사 전법 원력 유지인
'대학생 전법' 범불교적 동참을

"대학생 전법은 한국불교의 생존 문제와 직결됩니다. 사찰에 가보면 나이든 신도들은 있지만, 젊은 세대를 볼 수 없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10~20년 뒤에는 정말 문제가 큽니다. 한국불교 생존을 생각하며 전법포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29일 원적에 든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그해 8월 24일 열린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예비워크숍'에서 발표한 인사말 중 일부다.

자승 대종사가 "대학생 전법이 한국불교의 생존 문제"라고 경고한 것은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노정된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적 수치와도 맞물린다.

초고령화 직격 예상되는 불교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센서스 조사에서 종교를 가진 국민 가운데 10대 이하(356만3208명)는 개신교가 60.1%로 가장 높았으며 불교 20.7%, 가톨릭 17.9%였다. 20대(209만3394명)는 개신교 50.2%, 불교 27.3%, 가톨릭 20.9%였고, 30대(281만9434명)는 개신교 48.3%, 불교 30.2%, 가톨릭 20.0%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015년 발간한 〈한국인의 종교-1984~2014〉에서도 10~30대 불교 인구는 크게 반등되지 못했다. 도리어 2004~2014년, 30대 불자 인구 분포는 21%에서 11%로 줄었다.

최근 상황은 무종교인의 비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국리서치가 2023년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29세의 종교 인구 비율은 불교는 8%였고, 개신교는 15%, 가톨릭은 6%였다. 69%의 청년들은 '무종교'라고 응답했다.

여론기관의 종교인식조사에서 호감도는 불교가 항상 1위를 차지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불교가 가진 전통·자연유산을 거부감 없이 향유하는 것에 그친다. 실제로 불교에 귀의해 신도가 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현재 문제가 되는 초고령화의 직격탄은 한국사회보다 한국불교가 먼저 맞을 수 있다. 이범수 동국대 생사문화산업학과 교수는 2016년 〈불교평론〉 겨울호 특집에 발표한 '불자 노령화에 따른 교단적 대안 모색'에서 2035년 불교인구의 고령화율을 36.3%로 내다봤다. 이는 당시 통계청이 예상한 2025년 한국사회 고령화율 29.4%보다 7%나 높았다.

이 교수는 "2025년까지 젊은 재가자가 유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35년에는 고령화율이 54%에 달하는 승가와 비슷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학생 전법은 미래 인재에 투자

사실 한국불교의 신도 연령 구조가 역피라미드 형태가 된 것은 한국불교 스스로가 가져온 자충수다. 이를 알려면 어린이·청소년 포교사를 되짚어봐야 한다.

한국불교는 1923년 중앙포교소인 각황사(현재 조계사)에 '각황일요불교학교'를 개설하며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시작했다. 이후 전국 사찰과 포교소에는 일요불교학교가 봇물처럼 개설됐고, 한때 그 수가 4000곳에 달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해방 후 6·25전쟁 등을 거치며 일요불교학교는 자취를 감추다가 1960년대 들어와서 다시 어린이포교가 시작됐다. 1960~70년대에는 청소년교화연합회 등 여려 어린이청소년 단체가 창립되며 한국불교의 어린이청소년 포교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맡았다.

1980년대는 어린이·청소년법회의 전성시대였다. 어린이법회 교재 〈연꽃〉이 창간되고 어린이교사대학이 창설되며 법회는 더욱 체계·전문화됐다. 1980년대 말에는 어린이·청소년법회 수가 전국 600여 곳에 달했고, 여기에 참여한 인원도 6만여 명에 달한다. 이 같이 성공적인 전법이 가능했던 것은 1960~70년대 중·고등학교 불교학생회와 대학생불교연합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청년불자들이 1980년대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로 대거 참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 한국불교는 어린이·청소년 등 세대 포교에 손을 놓았고, 전법·포교 방법도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나마 2000년대 들어서 잃어버린 10년을 복원하기 위한 여러 종책들이 시행됐지만, 앞선 공백들의 메워지지는 못했다.

이상의 한국불교 어린이·청소년 포교사를 살펴보면, 중요한 전환점은 두 가지다. 전법·포교 선지식의 원력 발원과 청년불자들의 포교현장 활동이다. 특히 대학생 불자들의 역할이 세대포교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우수하게 교육되고 조직화된 대학생 불자들은 사회로 진출해서는 불자 인재로서 활동할 것이고, 결혼해 가정을 꾸리게 되면 불교 세대 전승의 뿌리가 된다. 또한 선배 불자로서 각종 불교학생회 지도와 후배를 이끄는 멘토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대학생 불자는 세대 포교 복원을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다.

대학생 전법 원력 '불씨' 이어가야

2023년 한국불교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자승 대종사가 이끌었던 상월결사는 지난해 인도순례 이후 대학생 전법을 지상과제로 삼고 그해 7월 6일 대학생 전법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9월 5~6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는 400여 사부대중이 결집해 대학생 전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11월 11일에는 사부대중 결집대회를 열어 대학생 전법기금 151억여 원을 모연하기도 했다. 대학생 전법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이뤄진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영산대, 경상국립대 등에서 불교동아리가 창립되거나 재창립되는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는 아프리카의 속담은 양육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재 육성에도 해당되는 명제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라는 '동기부여'는 지도법사의 '발심'으로 이어졌고, 불자 교수와 지역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는 대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에 맞는 방편으로 불교가 다가야 한다. 그 방안은 다양할 것이다. 불교가 대학생들의 아지트나 플랫폼이 되거나(이상훈),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등을 제공(유정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자존감을 고취하고 인스타그램 등에 성취감을 드러내는 사진과 글을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 현 세대에 특성에 맞는 방안을 활용하는 것(연담 스님)도 좋다. 이제 전법의 길로 나설 때다.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대한불교법화종·대한불교법화종
종정 청암도선 대종사
원로원
의장 보명 (의원 일동)
총무원
원장 관효 (부·국장 일동)
중앙종의회
의장 서안 (의원 일동)
포교원
원장 일우 (부·국장 일동)
전국교구종무원장
부산교구종무원장 법경
경주교구종무원장 혜문
김창교구종무원장 송열
경북교구종무원장 해월
강원교구종무원장 승일
창녕교구종무원장 법상
마산교구종무원장 현진
충북교구종무원장 지성
전라교구종무원장 정각
전국 사암 주지 및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92번길 17(성남동) 전화 02)762-2678 팩스 042)627-5044

RE:START
대학생 전법
2. 대학생 전법 어떻게 해야 하나

벼랑 끝이라는 우려와 걱정 속에서도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한 발씩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대학생 불교학생회를 이끄는 지도법사, 지도교수, 불교학생회장이다. 위기 앞에서도 불교학생회 활성화를 이뤄낸 이들에게 학생회 운영 노하우와 대학생 전법·포교 방안, 향후 과제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2022년 8월 22일 경남 진주 미륵암에서 열린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 창립법회.


2023년 6월 고성 옥천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대전대 불교학생회.


2023년 1월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마곡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공주대 불교학생회.

“불교학생회, 신설보단 유지·관리에 집중을”



담산 스님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 지도법사

재미있는 활동에 불교 스며들길
학생들과 함께하는 자체 ‘포교’
15명 회원 1년 만에 50명 확대

“대학생 전법 불사가 불교학생회 신설에만 집중돼선 안 됩니다. 신설도 물론 필요하지만 현재 각 지역 거점에서 운영 중인 불교학생회가 더 잘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진주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 지도법사 담산 스님이 대학생 전법 불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각 지역 거점 불교학생회의 어려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질 높은 대학생 전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구 절벽시대로, 각 대학 신입생 수가 급감하면서 지방 소규모 사립대학이 통합 또는 폐교의 위기에 서 있기 때문이다. 진주 지역에 있으면서 경상국립대를 중심으로 합병되는 대학들을 지켜본 담산 스님이 고민 끝에 내놓은 현실적 돌파구인 셈이다.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는 1967년 창립된 이후 수행과 정진을 이어오다 점차 학생들의 참여가 줄면서 2018년 활동을 중단했다. 5년간의 공백기를 거치고 2022년 진주 지역 사찰 스님들과 동문, 교수님들이 대학생 전법에 다시금 원력을 모았고 성공적인 재창립을 이뤄냈다. 이후 불교학생회는 활발한 불교 활동을 전개, 대학생 포교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았다.

불교학생회가 안정적으로 활동하게 된 데에는 지도법사 담산 스님의 역할이 컸다. 스님은 더욱 재미있는 불교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학생들이 종교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편안한 학생회 활동 가운데 자연스럽게 불교에 스며들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월 1회 정기법회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고, 학생들의 안녕과 건강을 발원하는 기도와 축원도 매회 빠짐없이 진행했다. 담산 스님은 “바쁜 학교생활 속에서도 정기법회를 찾아와준 학생들이 대견하다”며 “짧은 시간 좋은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간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방학 기간에도 끊임없이 이어진 불교 활동은 불교학생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대부분 대학의 경우 방학이 되면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든 활동이 중단되는 곳이 많다. 반면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 회원들은 대부분 진주와 근교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방학 때도 법회와 템플스테이, 삼사순례, 특강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했다. 지속적인 활동은 학생들에게 소속감과 유대감을 심어줬고, 학교 외에서나 졸업 이후에도 불교와 인연을 이어가는 이점으로 작용했다.

스님은 학생회 활동 외에도 구성원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친밀감을 쌓았다. 학생들이 가진 고민에 솔직한 조언을 건넸고, 한 달에 한 번 영화관람으로 특별한 시간도 보냈다.

“색다른 프로그램이다 보니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습니다. 더 신기한 건 주변의 반응입니다. 스님과 20~3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의 조합이 신기한가 봅니다. 더러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모습 자체가 포교의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스님의 진심 어린 애정과 노력 덕분에 재창립 당시 15명이던 회원은 현재 50여 명까지 확대됐다. 2023년 12월 10일엔 정식 동아리로 승인이라는 결실도 맺었다.

“이타행 실천 교육, 대학생 전법 목표”



이상훈
대전대 불교학생회 지도교수

폐부 위기 재도약 이끈 장본인
자기주도 이끌어 연속성 유지

대전대 불교학생회 ‘유심회’의 신년 목표는 해외성지 순례다.

불교 성지를 방문해 식견을 넓히고, 불교가 가진 사회적 역할을 일깨우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상훈 대전대 불교학생회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해외성지 순례를 통해 진정한 이타행을 체득하고, 몸소 실천하길 기원했다.

“자기 수행은 물론 보살행을 함께 하는 불교가 ‘현대불교’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모두를 복되게 하려는 수행과 그 목적인 이타행을 우리 학생들이 대학 시절에 익히도록 하는 게 대학생 전법의 중요한 목표가 돼야 합니다.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고 함께 한다면 부처님 세상을 열어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상훈 교수는 폐부 위기에 처한 ‘유심회’를 되살려 재도약을 이끈 장본인이다. 2018년 당시 유심회 회장이 갑작스레 군에 입대하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동아리방 사용신청도 하지 않고 휴학한 탓에 다른 동아리가 이미 동아리방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교수는 급히 학생처장과 동아리연합회장 등을 만나 사정을 설명했고, 20명 회원 모집 등 학생처가 요구하는 정동아리에 필요한 요건들을 만들어갔다. 하마터면 준동아리로 강등돼 동아리방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낼 뻔했다. 이 교수의 발 빠른 대처로 고비를 넘겼고, 1981년 개교와 함께 창립돼 30여 년을 훌쩍 넘긴 유심회의 명맥을 다시금 이어갈 수 있었다.

현재 유심회에는 50여 명의 회원이 이름을 올렸다. 매번 모든 인원이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매주 월요법회와 연꽃 만들기나 차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꾸준한 신행생활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이 교수는 MZ세대의 특성에 맞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짜고 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분위기를 잡아주는 데 초점을 뒀다.

“요즘 MZ세대는 본인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줄 수 있는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원합니다. 어떤 구성이 좋을지 본인들 스스로 고민하고 구성하면서 전법의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지도법사 스님과 지도교수가 강의하듯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 스스로 불교에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자기주도’ 정서를 확산할 때 불교학생회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템플스테이 등 불교문화로 친숙한 교감”



김현효
공주대 불교학생회 지도교수

편하게 불교에 다가설 매개체
곁에서 올바른 신행활동 지도

“불교가 딱딱하고 어렵다고 느껴져 불교학생회 가입을 주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선 명상이나 템플스테이처럼 친근한 불교문화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흔히 ‘불교’라고 하면 ‘할머니의 종교’라는 선입견이 많다. 교리는 배울수록 난해하고, 깨달음은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 같이 가물거린다. 그렇기에 김현효 공주대 불교학생회 지도교수는 부담 없이 휴식을 즐기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실제적 체험활동에 주목했다. 단 한 번의 경험이 가져다준 편안함은 일상이 지칠 때마다 불교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공주대 불교학생회도 마찬가지다. 템플스테이와 명상으로 재창립을 이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작은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의 대학생 포교 원력에서 비롯됐다. 원경 스님은 공주대 불교학생회 설립을 서원했고, 2022년 마곡사 교무국장 대륜 스님을 필두로 회원 모집에 나섰다. 무작정 공주대를 찾아 염주를 나눠줬고, 템플스테이와 명상을 하자고 홍보했다.

점차 몇몇 학생들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고 싶다며 관심을 가졌고 마곡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염주 꿰기, 요가, 타종 체험 등을 하면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들 가운데는 명상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대륜 스님과 학교 잔디밭에서 걷기 명상을 진행했다. 문화 체험으로 방향성을 잡으니 학생들로부터 반응이 좋았다. 김현효 교수가 지도교수로 합류하면서 차근차근 토대를 다져가니 어느새 입소문을 타 회원 수가 늘어났다. 김 교수는 학생들의 곁에서 신행 활동이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했고, 동아리 활동과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불교적 예법을 일러주기도 했고, 학생들 스스로 불교학생회 내에서 주체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왔다.

각고의 노력 끝에 공주대 불교학생회는 2022년 9월 준동아리로 첫발을 내딛었고 2023년 10월 정동아리로 등록할 수 있었다. 1년 6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현재 55명의 학생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공주대에 등록된 동아리는 총 83개. 그중 종교 동아리가 10개인데, 불교 동아리는 이곳이 유일하다. 김 교수는 대학생 포교가 위기라지만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부지런히 불교학생회를 알리고 활동을 지속하면 조금씩 변화도 일어날 것이라 믿는다.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습득
전 종도 일동 합장
총본산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리 만수산 승가사 총무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곡로 15번길 5(서래암) 전화 051)552-8554, 556-0278~9 팩스 556-8551 seunggajong.co.kr

“학생들 적극성이 동아리 활성화 이끈다”



시현 스님
성신여대
불교학생회 지도법사

프로그램 구성 · 회원 모집 ‘척척’
장점 활용해 주체적 성장 도와야
믿고 기다려 주는 시간 꼭 필요

1973년 창립돼 50여 년의 전통을 지닌 성신여대 불교학생회(이하 성불회). 성불회를 지금껏 지탱해온 근간에는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학생들이 있었다. 시키지 않아도 구성원들과 함께할 프로그램을 척척 만들었고, 너나 할 것 없이 신입회원 모집에 앞장섰다. 진심으로 동아리를 생각하는 열정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모습들이다.

2023년 성불회 지도법사를 맡은 시현 스님도 현재 임원진 학생들의 적극성을 높이 샀다. 스님은 그저 곁에서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울 뿐, 성불회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건 오로지 학생들의 몫이라 여겼다. 학생들도 성불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정말 즐기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중간 점검 정도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불교학생회는 학생이 주도해야 하고 스님은 보조가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 덕분에 많은 경험을 했고, 큰 어려움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네요.”

스님에 따르면 이채연 전 성불회장의 경우는 회원 모집에 특화됐다. 동아리 홍보활동 당시 동자승 인형탈을 쓰고 목탁을 쳐 학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인품마저 좋아 같은 과 친구들도 이 전 회장을 따라 불교학생회에 줄줄이 가입했다. 학교생활과 동아리 활동이 어색한 신입생들도 이 전 회장의 꼼꼼한 보살핌에 점차 성불회 활동에 정을 붙였다.

유선재 부회장은 회장 소임을 맡았던 경험으로 임원진들이 무리 없이 학생회를 이끌어 가도록 지원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소임도 같이 보고 있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원주연 부회장은 성불회 맏언니로, 학생들의 의지처가 되어주고 있다. 고민 상담 채팅창을 별도로 개설해 학생들이 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고, 죽음 명상, 비건 음식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계획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학생 전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대학생들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같이 생각하고, 믿고 기다려 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대 무언가를 급하게 해결해 주려는 권위적인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스님은 학생들이 장점을 활용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덕분일까. 성불회에는 현재 55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매주 열리는 정기법회에는 20명 정도가 고정으로 참여할 만큼 참여율이 높다.

특히 2023년 11월, 성불회 학생들의 주도로 개최된 ‘원: 돌아가는 날을 그리다’ 전시회는 학생들의 손으로 이뤄낸 뜻깊은 결과물이다.

2024년은 이연서 신임회장이 새로운 성불회를 이끈다. 이 신임회장은 요가법회, 임종법회, 불교 영화와 책 모임, 글램핑 명상, 성불회 체육대회, 목제 식기 만들기 등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다. 시현 스님은 또다시 이연서 법우 곁을 지키며 공약들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또 도울 것이다.

RE:START
대학생 전법
2. 대학생 전법 어떻게 해야 하나



성신여대 불교학생회 지도법사 시현 스님이 학생들과 성북천에서 걷기명상을 하고 있다.



경북대 불교학생회가 2023년 5월 13일 석불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인하대 불교학생회지도 법사 혜한 스님이 동아리방을 방문해 법문을 하며 학생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선배들 지원 불교학생회 이어갈 버팀목”



주현우
전 경북대 불교학생회장

운영비 지원으로 재정 여유
선후배 끈끈한 유대감 얻어

경북대 불교학생회(경불회)는 1960년에 결성된 유서 깊은 불교 동아리다. 63년간 불교계 안팎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올해 상반기 한국불교대학생불교연합회 최우수 지회로 선정되기도 했다. 주현우 전 경북대 불교학생회장이 꼽은 모범적인 경불회 활동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동문 선배들의 관심과 지원’이다.

동문 선배들은 경불회 운영비나 활동비에 모자람이 없도록 물심양면 도왔고, 불교학생회 구성원들이 다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줬다.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매학기 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삶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혜로 멘토 역할도 자처했다. 마음을 열고 소통하다 보니 선후배 간에는 끈끈한 유대감을 얻었고 동문 선배들의 자긍심과 결속력도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어떤 조직이건 오랜 시간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한두 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20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교를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는 선배들이 있었기에 경불회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선배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재정적인 여유가 갖춰지자 경불회 활동도 안정을 찾아갔다. 회원 모집도 차질 없이 이뤄져 현재 170여 명이 활동하고 있고 매년 정기법회, 사찰탐방, 템플스테이, 명상 등 다양한 신행활동을 통해 불교를 배워가고 있다.

주 전 회장은 각 대학 불교학생회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불교계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바탕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불교가 무엇인지 몰라 멀어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에 사찰에서는 또래들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그 공간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 전 회장은 “사찰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원하던 답을 구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사찰을 찾을 것”이라며 “한국 불교계가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사찰이 아니라 직접 뛰어나가 불교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제 한국불교대학생불교연합회 62년차 중앙회장으로서 새로운 전법의 길을 준비 중인 주 전 회장은 불교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불교를 선택한다면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갖고 불교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소중한 인연들을 만난 감사한 시간”



박재영
전 인하대 불교학생회장

선후배 꾸준히 만나 소통
즉문즉설 양방향 소통 제안

박재영 전 인하대 불교학생회장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얻었다. 늘 과거에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니 모든 순간이 새롭게 다가왔다. 삶의 원동력이 되어준 소중한 인연들 덕분이었다.

“챙겨주는 선배님들, 아끼고 사랑하는 동기들과 후배들까지. 제가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힘이 돼 줍니다. 인생의 도반들을 만날 수 있었던 불교학생회에 감사합니다.”

인하대는 인천 지역 대학 가운데 불교학생회가 있는 유일한 곳이다. 1970년에 설립된 인하대 불교학생회는 53년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누구든 편하게 들어와 쉬어 갈 수 있는 넓은 동아리 방과 공부 공간을 겸한 선방을 갖추고 있다.

지금이야 활기찬 동아리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박 전 회장이 가입할 당시만 해도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대학 생활의 낭만’인 동아리 활동을 즐기고자 야심차게 불교학생회에 가입했는데, 학생회 총 회원이 10명밖에 되지 않아 법회를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었다. 군종병으로 복무했던 경험을 살려 목탁을 치고 법회를 집전했다. 절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불교 기초 교리도 같이 공부하면서 점차 불교학생회의 정체성을 찾아갔다. 동아리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지도교수와 동문 선배들의 도움도 더해졌다.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적인 지원으로 여법한 활동 여건을 조성했다. 무엇보다 71학번 선배부터 23학번 신입생까지 꾸준한 만남을 통해 인하대 불교학생회만의 소속감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불교학생회장 소임을 내려놓고 대학생활의 끝을 달려가고 있는 박 전 회장. 그는 지금까지 선배들에게 받아온 사랑을 후배들에게 회향하고 싶다며 불교학생회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불교학생회 활성화 방안 몇 가지를 제시했다.

△대학생 전법 거점으로 활동할 권역별 불교학생회 장학금·운영비 지원 △캠퍼스 내 스님이 운영하는 상담 공간 마련 △방학 기간 앞두고 주요 교통지에 템플스테이·명상·역사기행 등 사찰 프로그램 홍보 △대학생 대상 사경 경필대회, 시, 수필, 소설, 그림 공모전 개최 △각 지역별 전법센터 건립 △스님과 즉문즉설 법회로 양방향 소통 등이 있다.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종정 경보 혜만 대종사



사서실장	도각	총무원장		대풍
승정원장	성도	총무부장		성우
승정부원장	도현	교무부장		덕광
원로원장	법우	재무부장		덕원
사정원장	도경	사회부장		덕법
중앙종회의장	도정	호법부장		도형
중앙교육원장	덕운	종승위원회	위원장	도신
중앙포교원장	도청	교육위원회	위원장	법우
불교문화예술원장	월수	고시위원회	위원장	도성
정수원장	덕우	법규위원회	위원장	도현
연수원장	덕각	정책위원회	위원장	범수



중앙총무원 : 경남 밀양시 산내면 산내용전4길 29-67
대 표 전 화 : 055)352-3104

법인등록번호 191321-0002345
사단법인 한국불교선교종 · 사단법인 대한불교선교종 화엄회

부산총무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3로 1 선프라자 417호
대 표 전 화 : 051)892-5000, 462-6181 Fax : 051)462-6652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팔공총림동화사 방장 임담 의현

주 지 능 종

동화사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1(도학동 35) / www.donghwasa.net
전화 053)980-7900 / 팩스 053)985-4405

대한불교조계종

운 문 사

회 주 명 성

주 지 진 성

운문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전화 054)372-8800 사리암 054-372-8811 www.unmu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모두를 자기와 같이 본다면 그 마음의 향기 에너지가 상대까지 밝아지게 한다.
– 대행 선사 법어 –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중동) | 전화 053)767-3100 | 팩스 053)765-1600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본사

황악산 직 지 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www.jikjisa.or.kr
전화 (054)429-1700~3, 429-1713~15 팩스 (054)436-3174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銀 海 寺

사부대중일동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치일리 479)
전화 054)335-3318 팩스 054)335-0293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동 명 사

종정 법 운

종도 사부대중 일동
종도를 모집합니다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전화 054)974-2605 팩스 054)974-2705

30 창간 30주년
1994~2024

2024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봉원사
주지 지 태
사부대중일동
경남 마산합포구 현동305
전화 055)241-5333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창포교당 원 구룡사
주지 무 성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56번길 31-1(소답동 909)
전화 055)294-3279



대한불교조계종
산청 덕산사
주지 동 조
사부대중일동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 내원로256
전화 055)973-6799

한국불교조계종
밀양 삼봉사
주 지 대휴당 녹원
신도회장 김종인, 손경례
신도회일동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단장로379-8.
전화 055)356-0124 부산포교원 051)516-3000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불교대학·극락원 납골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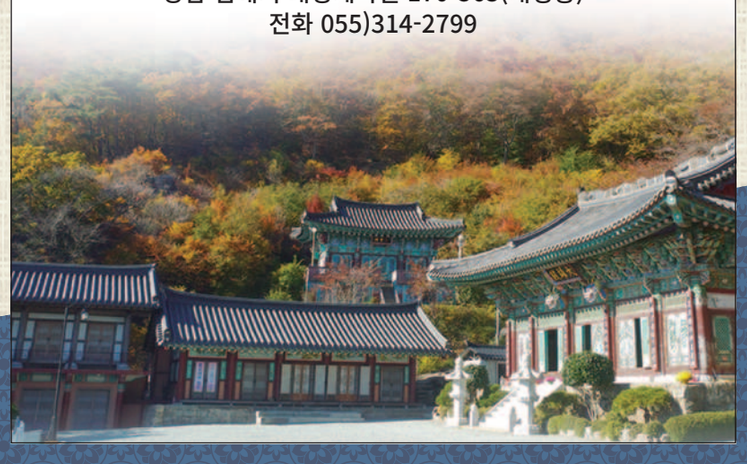


◉ 울산 도심권 영구봉안 납골당 극락원 ☎ 212-7000
- 시내에 위치, 왕래와 참배 용이
- 쾌적한 최신시설
- 사전 예약자 봉안비 할인 혜택

◉ 정토사 불교대학 및 대학원 ☎ 052) 274-3800
- 97년 개교, 1년 과정, 주·야간반, 절 하는 법부터
- 경전반 : 주·야간반, 1년 1경전

남구 문수로 217번길15(옥동) YouTube '울산정토사'

대한불교조계종
가락고찰 불모산 장유사
불교대학 졸업생 및
사부대중일동
경남 김해시 대청계곡길 170-563(대청동)
전화 055)314-2799



대한불교조계종 13교구 쌍계총림 말사
남해 제석산 낙가사
사부대중일동
경남 남해군 남해읍 당넘로 82번길 14-16
전화 055)864-4298



대한불교조계종
신어산 은하사
조실 서림 대성
주지 만제 혜수
사부대중일동



경남 김해시 신어산길167
전화 055)337-0101~2

선후배 불심으로 다져온 52년…"대학 전법 구심점 역할"

RE:START 대학생 전법

3. 잘 되는 불교학생회–한양대 불교학생회



매주 수요일 정기법회에는 20명 이상의 학생들이 고정적으로 참여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법회 후 기념 촬영 모습.



부처님오신날 연등행렬에 동참한 한불회.



선후배가 함께한 통도사 · 묘관음사 템플스테이.



한불회 동문 · 재학생들이 2023년 12월 23일 양재 엘타워에서 송년법회를 열고 화합을 도모했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현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KBUF, 대불련)에는 18개 지부, 129개 지회(가등록 지회 제외)가 등록돼 활동하고 있다. 각 대학 지도법사, 지도교수, 학생들의 원력으로 불법 홍포에 매진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과 회원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교학생회 활성화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불황에도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듯, 대학생 전법·포교가 위기라지만 그 가운데도 잘되는 불교학생회가 있기 마련이다. 선후배 간 관계가 돈독하고, 활발한 전법 활동이 이뤄지는 곳, 바로 '한양대 불교학생회'다.

한양대 불교학생회(이하 한불회)는 70~71학번 법우들이 중심이 돼 1972년 공식 창립했다. 1963년과 1968년에도 한불회가 만들어졌으나, 주도적 역할을 했던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이 중단됐다.

두 차례 태동기를 거쳐 72년 한불회가 재창립됐다. 한불회 1기 전보삼 만해기념관장의 회고에 따르면 대불련 서울지부에서 각각 활동하던 한양대 학생들이 교내 불교학생회 설립을 위해 의기투합했고, '선지식 모임'으로 이름을 정해 활동에 나섰다. 70학번 전보삼(화학공학) 관장이 초대 회장을, 71학번 박혜숙(교육학과) 씨가 부회장을 맡아 회칙을 제정하고 조직을 정비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신입회원 모집에도 박차를 가했다. 교양학부 건물 앞에 책상을 가져다 두고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전단지를 건넸다. 각고의 노력 끝에 한 달 만에 97명의 회원이 가입하면서 한불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학생들은 매일 8시에 등교해 아침 예불에 동참했고, 수업 중간 빈 시간마다 동아리방에 모여 활동에 대한 역할 분담을 논의했다. 매주 금요일이면 지도법사, 지도교수, 저명인사 등을 초빙해 정기법회를 열었고, 방학이나 주말에는 전국 사찰을 방문해 신행 활동을 체험했다. 자기 생각이나 느낌, 시대 상황에 대한 글에 다른 회원들이 댓글을 다는 '법흔록'은 1974년부터 지금까지 동아리방에 소장돼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또 다양한 자료집과 소식지를 발간해 그간의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활동 방향성을 모색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내기도 했다.

한불회의 진가는 부처님오신날 연등행렬에서 더 빛났다. 회원 중 공대생이 많은 한불회는 1973년 탑등, 석등을 과학적으로 실측·설계해 제등행렬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1976년 선보인 불상모양 대형 장엄등은 한불회의 상징이 됐다. 학생들은 서울역 뒤 동자동에서 대나무를 구해 시내버스로 옮겨왔고, 각종 공사현장을 돌며 각목을 얻어와 뼈대를 구축했다. 그 위에 한지를 바르고 니스와 금분을 섞어 칠했다. 스티로폼으로 육계와 나발을 만들었고, 자동차 배터리를 전원으로 3초간 켜지고 1초간 꺼지는 점등 장치를 부착해 백호에 효과를 더했다. 학생들 여럿이 어깨에 대형 장엄등을 둘러메고 행진했는데 주변에선 박수와 환호를 터져 나왔고, 각종 일간지에 사진이 실릴 만큼 주목 받았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만해 한용운 스님과도 인연이 깊다. '한불회는 만해다'라는 수식이 따라다닐 정도다. 한불회 초창

두 차례 태동기 거쳐 1972년 창립

과학적 설계로 제등행렬 대상 수상

든든한 선배들이 재정 지원 뒷받침

멘토링 프로그램 신설해 고민 해결

기부터 시작된 만해 스님 관련 연구와 이해를 위한 노력은 연구발표회, 묘소 참배, 강연, 시화전 등의 활동을 통해 50여 년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한불회가 지금껏 다방면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데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동문 선배들이 있었다. 1974년, 한불회 선배들이 졸업하면서 동문회 창립이 자연스럽게 논의됐다. 이승남, 전보삼, 유승수, 주익현, 이정리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지식 동문회' 결성을 발의했고, 이승남 법우가 동문회장으로 추대됐다. 이 자리에선 자격, 회원, 활동, 회비 등 주요 사항을 의결했고, 재학생 및 동문 간 유대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의 활동은 재학생 지원에 초점을 뒀다. 처음에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형식이었는데, 재학생들과 대화로 가장 필요한 것이 학업을 이어갈 재정적 지원임을 알게 됐고, 이후엔 학생 2명을 선정해 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8년엔 동아리방 PC 세트를, 2009년엔 재학생에 170만원의 보조금을, 2010년엔 150만원의 운영비와 동아리방 전기장판 시설비를 후원했다.

2023년에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 재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반에는 학생들이 어색함과 어려움에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선배들은 그런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친목 도모의 기회를 제공하며 적극적인 아이스브레이킹을 시도했다. 점차 학생들은 진로·진학 등에 대한 걱정을 솔직하게 털어놨고, 선배들은 그에 맞는 실질적인 답변을 해줬다. 특히 졸업한 지 3~5년 된 선배들의 최신 정보로 맞춤형 방안을 제시했고, 한 학기에 1~2번은 꼭 대면으로 소통했다.

남중우 선지식 동문회장은 "인생 선배로서, 한 분야 전문가로서 학생들의 고민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싶다. 한불회 뒤에는 열심히 뒷받침하고 있는 동문들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길 바란다"며 "선배들의 노력만큼 한불회 학생들도 평소에 불교 공부 열심히 하고, 생활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는 불자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선배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재학생들의 노력으로 현재 한불회에는 100명의 학생이 이름을 올려 활동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열리는 정기법회에는 20명 이상의 학생이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지도법사 스님과 명상, 차담 등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방학 때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분교문화를 익히고 지도법사 스님이 준비한 스트레스 해소법, 다이어트법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다.

문찬호 한불회장(24, 원자력공학과)은 "법우들이 지금처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정을 쌓아가고, 건강하게 대학 생활과 신행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대학생 불교학생회가 대학생 전법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만큼 신입회원 모집과 다양한 불교활동으로 한불회 활성화를 이끌고, 한국불교 미래의 초석을 닦아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선봉 스님과 함께 한불회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 수인 스님도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 대학생 전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대학생 전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최적기"라며 "불교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콘텐츠를 개발하고, 불교 안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사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불교학생회 운영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청룡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승려, 법사 입종안내



총무원장
혜일 스님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에서는 불법홍포, 민족평화통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종을 창종하신 일붕 서경보 큰스님의 크신 원력을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본 종단에서는 승려 및 법사님들의 입종을 모집합니다. 불교중흥의 원력을 갖고계신 승려, 법사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또한 승려입문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68(2024)년 새해아침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

재단이사회
명예이사장 경원
이 사 장 일명
부이사장 경담
이 사 혜천
법도화, 자비행

종정 / 총무원
총무원장 혜일

원로회의
원로의원 혜천 대륜
현암 법성
법선 경원
승원

중앙종회
종회의장 도정
종회부의장
종회사무처장 혜광
종회의원 재단이사회
고봉 석경 무착
정암 서현 보은
동철 성운 혜성
백운심 여래자
교구종무원장

종무위원
호계원장 동청
교육원장 지언
포교원장 마덕
문화원장 제법
총무부원장 도허
기획처장 지광
감사원장 법광
고시위원장 원공
선거관리위원장 붕원
호계부원장 지명
문화부원장 해동
포교부원장 덕산
총무부장 지원
교무부장 덕운

교구종무원장
강원동부교구 보 해
경기남부교구 지 안
경기북부교구 지 흘
경 남 교 구 덕 운
대 구 교 구 무상심
울 산 교 구 현 산
전북·전남교구 지 명
제 주 교 구 제 법
충 북 교 구 지 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6길 76-9, 일붕선원 1층 / Tel : 02-991-8175, 8904 / Fax : 02-991-8176 / www.ilbung.org

불모지 대학서 결집된 청년불자 전법의 희망 보여주다

RE:START 대학생 전법

4.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 첫 결실–영산대 불교학생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한국불교 중흥과 미래 불교의 희망을 위해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첫 결실로 탄생한 영산대학교 불교동아리. 창립 당시 등록한 회원이 64명이었다. 2023년 9월 4일 개강 이후 9월 16일까지 단 12일 만에 이룬 성과다. 늦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 캠퍼스 건물을 다니며 전법활동을 펼친 지도법사 덕현 스님의 얼굴은 빨갛게 익었지만 마음은 설렘과 환희심으로 가득했다.

밀짚모자 쓰고 캠퍼스로 간 비구니스님

영산대학교 캠퍼스에 음료수 가판대가 설치됐다. 동아리 회원 모집 현수막 아래 전단지도 가득 쌓였다. 제품 영업 현장 같은 이곳에 밀집모자를 쓴 비구니스님 한 분이 서 있었다. 2023년 9월 6일 가을학기가 시작되고 학생들이 셔틀버스에서 내리며 마주한 풍경이다.

영산대에 전법 가판대를 차린 것은 통도사 포교당 웅장원 주지 덕현 스님이었다. 덕현 스님은 지난해 7월 6일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으로 위촉됐다.

덕현 스님은 막상 대학 포교를 시작하려니 막막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수소문하며 만나는 이에게 묻고 다니기 시작했다.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통도사 불교대학 불자에게 방법을 묻자 그들은 류진원 웅상출장소 전 소장을 소개했다. 류진원 소장의 도움으로 스님은 영산대 불자 교수인 이동성 교수와 만날 수 있었고, 이 교수는 불교동아리 창립을 반색하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학교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부터 대학교 내 전법 활동 절차를 등록하는 것까지 이동성 교수가 나서 해결했다.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자 스님은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교수님이 주신 정보로 전략을 구상할 수 있었어요. 학생들을 만나기 좋은 강의동을 선택할 수 있었고 학교 학생의 특성 및 연령대 등을 알 수 있어 효율적인 방법을 계획할 수 있었죠."

덕현 스님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를 선정해 홍보 부스를 설치했고 캠퍼스 내 현수막을 걸기 좋은 장소를 물색했다. 음료수에 홍보 스티커를 붙여 학생들에게 나눠주었고 전단지를 건넸다.

하지만 개강일 버스에서 내리는 학생들은 스님을 본체만체였고 눈빛은 싸늘했다. 스님의 마음도 불안과 걱정으로 쌓여갔다.

"셔틀버스에서 내려 걸어오는 아이들에게 홍보지를 건네자 눈빛이 대부분 차가웠어요. 전단지는 안 가져가고 음료수도 받지 않으려 했죠. 호응 없는 모습에 기운이 없어지고 마음이 좀 상했어요. 첫날 아이들이 버스에서 내려 금방 지나가서 마음도 다급해졌고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했죠."

스님은 다시 정비하듯 마음을 추스렸다. 이내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시작했고 향과 음악 장비를 챙겨 다음 날 학교로 출발했다.

"가판대를 하나 더 늘리고 음악을 틀었어요. 그리고 향을 곳곳에 피워 향기를 기억하도록 하고 음악으로 주의를 끌었죠. 오감으로 느끼고 알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썼고 공부할 때 음료수 마시면서 하라고 말을 걸기도 했죠."

제1기 불교동아리 64명 회원 모여

현수막 · 전단지 직접 들고 캠퍼스로

지역내 사찰의 관심과 후원 이어져

대학생 눈높이 맞춘 명상법회 인기

학생들은 망설이긴 했지만 음료수와 전단지를 가져가기도 하고 조금씩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였다.

"문의 문자와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불교동아리는 무엇을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물어보더군요.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스님은 여느 날처럼 학교를 돌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취업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학생들이 부처님을 법을 알고 삶의 의미를 찾기를 간절히 발원했다. 그때 스님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영업사원이 나타났다. 스님은 마치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는 것 같았다고 했다. 보험 세일즈처럼 학생들을 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했다.

"20명을 모아 반드시 동아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렸어요. 학생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학생들이 가입을 안 해도 괜찮다며 이곳에 불교동아리 창립을 하려는 움직임 정도만 전달되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바꾸었죠.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학생들의 행복만 기원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

한 시간 만에 24명의 아이들이 찾아왔고 가입 의사를 표명했다. 홍보를 시작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다. 이후 창립 법회를 열기까지 64명의 학생들이 불교동아리 회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불교동아리 탄생…명상으로 마음 수행

지도법사 덕현 스님과 이동성 지도교수 그리고 불자들의 노력이 모여 영산대 불교동아리가 정식으로 창립됐다. 통도사는 2023년 10월 7일 경내 문수법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며 정식으로 출범을 알렸다.

창립법회 현장에서 통도사는 불교동아리 발전기금 500만원을, 양산시불교사암연합회는 300만원을 후원했다.

창립 이후 학생들을 위한 법회를 꾸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영산대불교동아리는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고 정기법회를 시작했다. 첫 법회를 봉행한 후 스님은 바로 학생들에게 맞는 법회를 고심했다.

"세대에 어울리는 법회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첫 법회 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마치 수업을 듣는 것처럼 고리타분해 했습니다. 새로운 법회 방법을 고민하다가 동국대에서 배운 명상을 적용했고 반응은 아주 좋았죠."

학생들은 명상을 하면서 생각이 사라지는 편안함을 경험했고 그 시간을 행복해했다.

김은선(2학년) 학생은 "향기명상 시간이 정말 좋았다"며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고 마음을 비워 홀가분해지는 경험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소감을 묻는 질문에 명상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안준영(2학년) 학생도 "평소 명상을 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마음의 안정이 어떤 것인지 체험을 할 수 있었다"고 했으며, 이해인(2학년) 학생과 심유빈(2학년) 학생도 "명상을 통해 생각을 쉴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영산대 불교동아리 창립은 심각한 침체로 어두웠던 한국불교에 희망을 보여줬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서는 캠퍼스로 직접 찾아간 덕현 스님의 용기가 필요하다. 싸늘한 시선 속에서도 불교를 전하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는 인내도 필수조건이다.

덕현 스님에게 앞으로의 전법 방향을 물었다. 스님은 "방학이 끝나면 2기를 모집해야죠"라고 했다. 지속적인 전법, 이것만이 불교 중흥의 열쇠다.



영산대 불교학생회가 2023년 10월 7일 통도사 문수법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학생들이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염원하고 있다.


정기법회가 끝나고 기념촬영.



창립법회에서 통도사는 영산대 불교학생회 발전기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양산불광사

종 정 정산도정 석청봉 화남

총무원장 덕륜 석법경 화남

종도일동합장

종도모집중 | 가입문의 010-5024-5249 총무원장 스님

총본산:경남양산시 주진로205 천성산 불광사 전화 055-364-4747

30 창간 30주년
1994~2024

2024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정인사
주지 원행

함께하는마음 즐거운세상
사회복지법인 금강
금강어린이집, 정인사불교대학, 금강노인종합복지관,
금강노인문화센터(금강노인종합복지본관),
경상남도 노인보호 전문기관(경남학대피해노인쉼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길 118
전화 055)299-5450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장유전법도량
동림선원
부설 : 동림불교대학·동림선림원
은암 선문화 아카데미
주지 은암 신공
사부대중일동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계곡길 168-14(대청동)
전화 055)325-4008 팩스 055)325-4009
www.dongrim.org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진불선원
禪불교대학 | 시민 선방



사부대중 일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로 112
(구. 도지사관사 사거리)
TEL. 055)275-3222

대한불교조계종
동대산 성불사
회주 만상
주지 혜안
신도회일동

울산시 북구 아랫율동2길 262-70
전화 052)287-7200



대한불교조계종
행복기도도량
지장정사
주지 현우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7번길 28
전화 052)256-3552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말사
울산 덕원사
주지 태여 덕원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중구 성동길 129-10
전화 052)246-8688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불모산 성주사
조실 서해 흥교
주지 법안
신도회장 보리 김이순

불모의 품속에서 피워온 천년의 향기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 191(천선동)
Tel 055)262-0108~10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

원로의원 세명 (관음정사)
원로의원 지현 (해경사)
자문위원 서산 (보광사)
자문위원 월봉 (석봉암)
자문위원 세명 (관음정사)
자문위원 법안 (청량사)
자문위원 옥산 (화엄사)
자문위원 법철 (세심사)
자문위원 석봉 (백운사)
포교위원장 황봉 (관음사)
감사위원장 성각 (기원정사)
교육위원장 석봉 (백운사)
선거관리위원장 만우 (법성사)

18대종무원장당선자 황봉 관음사
종무부원장 도각 선암사
종무국장 자명 석봉암
재경국장 명성 보광사
문사국장 법윤 불정사

종회의장 광해 (자비사)
종회부의장 자운 (여여암)
중앙종회의원 정광 (문수암)
중앙종회의원 혜우 (봉연암)
중앙종회의원 자범 (옥골사)
중앙종회의원 광해 (자비사)
중앙종회의원 환명 (약수암)

중부분원장 혜우 (봉연암)
서부분원장 자운 (여여암)
남부분원장 근해 (무상사)
밀양분원장 지원 (부은사)
김해분원장 법조 (보현사)
중부분원총무 자명 (석봉암)
남부분원총무 청현 (정각사)
밀양분원총무 승현 (지혜사)
김해분원총무 무진 (보현정사)

한국불교태고종 경남 태고 비구니회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19 현대오피스 1201호
전화 055)298-3634 팩스 055)298-3638

30 창간 30주년
1994~2024

2024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불지사
주지 청계 정인
앞서가는 가르침, 부처님 따라하기
사부대중일동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
회장 이영수
회원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양산 내원사
주지 지도스님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내원로207
전화 055.374.6466



대한불교조계종
신라천명고찰 밀양중심사찰 호국불교성지
무舞 봉鳳 사寺
주지 일관(一寬) 천주(天柱)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 원효종
벽 선 암
주지 홍법혜진
벽산암 신도회
사단법인 야단법석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사부대중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 안
사부대중일동
마음공부를 힘들여서 하라는게 아니라
자기근본이 있으니 그대로 믿으라는 것이다.
- 대행선사법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지원장 혜 연
사부대중일동
만 가지 생각을 좋게 하면
만 가지로 좋게 생산이 되어 나온다.
- 대행선사법어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전화 055)643-0643 팩스 055)643-0642



30 창간 30주년
1994~2024

2024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진주 여래사
사부대중일동



경남 진주시 진주성로188번길 29(상봉동)
전화 055)742-6070

대한불교조계종
칠 불 사
사부대중일동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528
전화 055)883-1869

열려있는 불법마당
(사)진주불교회관
이사장 상전 홍수승

가야불교대학
무료급식소 보현의집
법화경독송회
진 불 선 원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117
전화 055) 747 - 0108

대한불교조계종
미륵산 용화사
주지 종 묵

템플스테이

사부대중일동


경남 통영시 봉수로 107-82(봉평동404)
전화 055)645-3060, 649-3060
템플스테이 : ts6463090@templesta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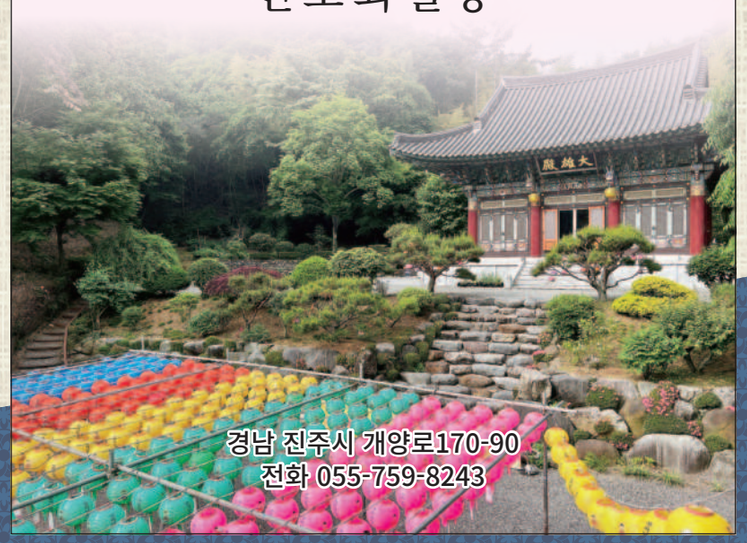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와불산 일출봉
약사여래도량
오도암 적 멸 보 궁
회주 외산 지성

시회대중 합장


경남 고성군 개천면 월곡리446
전화 055)673-1007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범어사말사
행하면 되는 절
진주 미 륵 암
주지 현산

신도회일동



경남 진주시 개양로170-90
전화 055-759-8243

한국불교태고종
보 현 사
회주 혜화 주지 묵원

신도회장 유대암 반야회장 최진광월
관음회장 정반야월

경남 통영시 도리7길 37 전화 055)645-6448

사단법인 나누우리
이사장 만우

사무국 : 경남 통영시 도리7길 37 전화 055)641-7731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사 청 련 암
사부대중일동

보리수동산
정토만일봉사회
53구법성순례단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 1로 430-34
Tel 055)672-0078



30 창간 30주년
1994~2024

2024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울산 **정지심인당**

주교 **정일정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183번길 33
052-271-5212

한국불교태고종

불감 **정관암**

주 지 **대활**

사부대중일동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밭길118(하작마을)
010-4517-0097

대한불교조계종

송 림 사

주 지 **보문 지암**

사부대중일동



경남창원시 진해구 웅동로 121번길 67
전화 055)547.6355

대한불교조계종

양산 **신흥사**

조실 **영 규**

주지 **호 법**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원동로 2282-111
대광전 보물 1120호 / 대광전 벽화 보물 1757호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말사

양산 **미타정사**

주지 **여해**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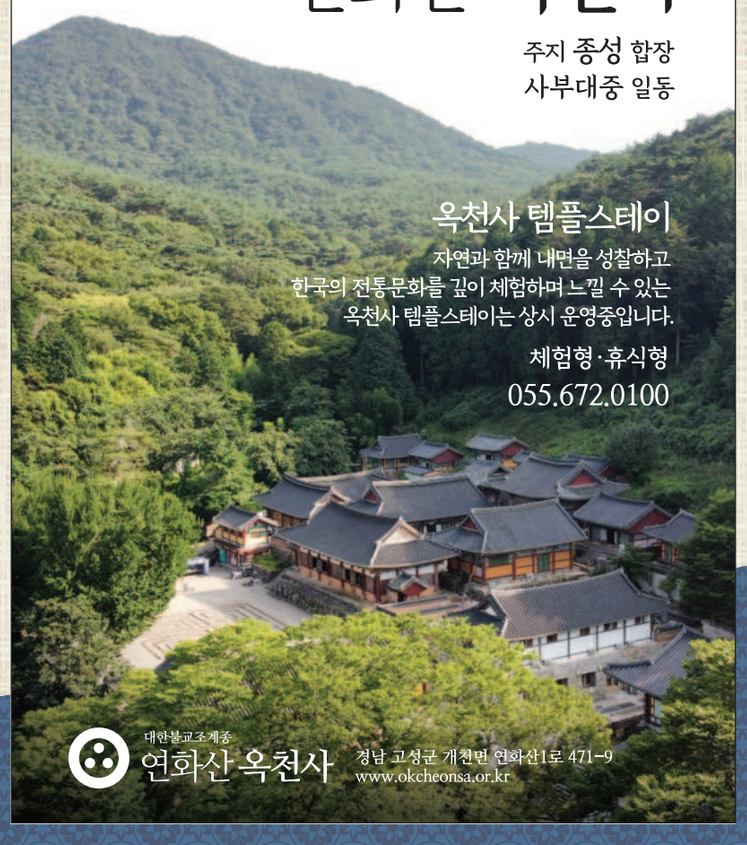


경남 양산시 대평들1길25-9(소주동)
전화 055)388-3280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산 **옥천사**

주지 **종성** 합장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산 옥천사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1로 471-9
www.okcheo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울주 **태화선원**

주 지 **명본**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서향교 1길 76
전화 052)254-0053

함 안
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원 명**
총 무 **영 공**
감 사 **정 광**

신도회회장 **조용찬** 신도회총무 **신현숙**
신도회부회장 **박성하** 신도회차장 **김성곤**

신행단체
공무원불자회 회장 **지희선**
바웃다합창단 단장 **박문자**

경남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778(달전사)
전화 055)587-8419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20~12/3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6	어상:땅과의접촉이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체계불학:신념체계로서의불교학	김성철	오타쿠
3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8	부처님의마지막발자취(초기불전003)대반열반경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4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9	원각경.현담	규봉 종밀 현담/신규탁 역	운당문고
5	중론:산스끄리뜨게송의문법해설을겸한(개정본)	용수 지음/청목 주석	오타쿠	10	속담속에담은불교명쾌하고쉬운불교	김성철	오타쿠

책세상

불교미술로 돌아본 부처님 8대 성지



삶이 고(苦)일 때 붓다, 직설과 미술
강소연 지음
불광출판사
3만5000원

30년간 문화재 연구한 전문가
경전 · 미술로 붓다 가르침 정리
기존과 다른 독특한 성지 안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붓다의 성도지 마하보디 사원과 마하보디 대탑. 현대불교 자료사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인(聖人)의 발자취를 좇는 일은 그를 따르는 후학에게 당연한 일이다. 정신·사상적인 면을 넘어 성인이 살았던 생가와 고향을 찾는 건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발로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붓다의 제자들은 붓다의 삶 80년이 오롯이 담긴 인도로 떠난다. 탄생지부터 성도지를 거쳐 열반지까지 수많은 성지는 전 세계에서 찾아온 불자들로 늘 붐빈다. 한국의 불자들도 겨울이 되면 인도순례를 하며 다시 한 번 발심하는 시간을 보낸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붓다의 성지를 순례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순례를 계획하겠지만 여러 성지를 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일은 드물 수밖에 없다. 여행사를 통한 일반적인 대중순례로는 언감생심이고, 학자들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 탐구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삶이 고(苦)일 때 붓다, 직설과 미술〉이 갖는 의미는 크다. 붓다의 생애 무대기도 한 성지를 돌며 조각상과 대탑, 문양, 그림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미술에서 가르침을 찾았으니.

이 책을 쓴 강소연 중앙승가대 교수는 30여 년간 문화재를 연구해온 학자다. 불교미술 분야에서는 탁월한 식견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론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15년간 해온 수행자다. 그런 그가 붓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지순례를 책으로 펴냈다. '고(苦)'라는 실존적 문제를 풀기 위한 여정이었던 붓다의 발자취를 좇으면서 도성제로 완성한 붓다의 존재 해탈법을 수많은 불교미술에서 찾은 것이다.

붓다가 탄생하고 사유하고 수행하고 득도하고 설법하고 교화한 곳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유적과 유물로 장엄되고, 현재는 세계인의 성지가 됐다. 여기에 맞춰 책은 총 8대 성지(룸비니·보드가야·사르나트·슈라바스티·산카샤·라지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로 구성했다. 각 성지에서 실제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붓다가 하신 말씀과 가르침은 무엇인지 해당 장소의 기념비적인 유물과 함께 생생하게 소개했다.

책에는 다양한 가르침과 성지에 있는 여러 불교미술이 소개되지만 이를 관통하는 것은 붓다가 설한 진리다. 저자는 "진리의 세계를 문자로 표현한 것이 불교경전이고, 미술로 시각화한 것이 불교미술"이라고 규정한다. 둘은 그저 방편의 차이일 뿐 모두 진리의 세계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두 방편을 모두 활용해 '직설'과 '미술'을 제목으로 삼았다.

책의 여정은 붓다의 탄생지 룸비니에서 시작한다. 마야부인이 무수 꽃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무심코 이를 꺾으려고 팔을 들자, 그 옆구리에서 태자가 태어났다는 탄생이야기. 붓다의 탄생을 표현한 부조와 경전을 인용해 수메다를 조명한다. 성도지 보드가야 편에선 6년간의 고행 끝에 "고행으로는 반야를 얻을 수 없다"고 설한 붓다의 말씀과 더불어 불교미술 속 수자타의 공양을 톺아본다. 최고의 성지 마하보디 사원은 성도지로서의 특징을 설명하고, 붓다의 정각을 표현한 대각상을 석굴암 본존과 비교한다.

책에는 각 성지에 있는 불교미술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라호르·페샤와르 박물관, 아프가니스탄 국립박물관,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프랑스 기메 박물관 등 해외 유명 박물관 소장품도 등장한다.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보다 입체적으로 전하기 위한 도우미다. 이렇게 수많은 불교미술과 경전을 방편으로 저자는 붓다의 생애를 재구성한다.

이미 붓다 성지순례를 주제로 한 책은 다양하게 발간됐지만 이와는 다른 결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 책은 조금 더 독특한 성지 안내서다. '존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불교미술로 나타난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 한걸음씩 옮겨보자. 성지의 유물과 쉽게 접하기 힘든 미술작품들이 보다 생생한 붓다의 삶을 전해줄 것이다.

▲저자 **강소연**은?

문화재를 전공한 30년 내공의 학자. 삶을 살다가 '존재의 고(苦)'에 부딪혔다. 이에 불교 수행(사마타 · 위빠사나)을 15년간 한 결과, 수행하면서 만나게 되는 깨달음의 세계가 불교경전과 불교미술로 표현됐다는 것을 체득했다. 불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이론과 미술을 겸비한 명쾌한 해설로 강단에 서고 있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이며, 저서로 〈잃어버린 문화유산을 찾아서〉 〈사찰불과 명작강의〉 〈명화에서 길을 찾다〉 등이 있다.

한국 설화 재해석해 풀어낸 어른 그림책



까만 별
김상규 글 · 그림
스튜디오 무상 / 1만7000원

우리나라 옛이야기 가운데 〈복 타러 간 총각〉이라는 것이 있다. 가난하고 외로운 총각이 박복한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복을 찾으러 하늘님을 찾아 떠나는 여행길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 길에서 처녀, 배나무, 이무기 등 걱정을 안고 사는 인물들을 만나게 된다. 총각은 복을 얻기 위해 하늘을 원망만 했지만 복은 삶의 여행길을 따뜻한 마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때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설화는 표면적으로는 어느 기구한 총각이 배우자와 재물을 얻게 되는 이야기지만 달리 보면 갖고 있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행복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말이다. 때로는 마음가짐을 달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풀리곤 한다. 〈복 타러 간 총각〉에서 그 오래된 지혜를 느낀 김상규 작가는 〈까만 별〉에 그 지혜를 듬뿍 담았다. 실질적인 재물과 복을 얻는다는 결말 대신 더 귀중한 가치를 배우고 오는 여정을 풀어낸 것. 뿔을 버린 사슴과 고치실을 벗어난 긴꼬리산누에나방은 여의주를 버린 이무기의 또 다른 모습이다. 책을 읽는 여우는 〈원천강본풀이〉에 나오는 책 읽는 도령과 낭자의 모습을 담았다.

고요한 수묵화로 그려낸 시적인 풍경과 여정도 눈길을 끈다. 〈까만 별〉의 원화는 한지와 먹으로 그리고, 디지털 채색을 입혔다. 종이 위에 자연스럽게 번지는 먹물은 강물의 고유한 습기를 나타내 줬고, 디지털 채색으로 새로운 느낌의 수묵화가 완성됐다. 동양적이고 시작인 풍경의 그림들과 함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책이 되길 바라는 작가의 뜻이 온전히 담겼다.

글과 그림에 담긴 동양적 사유를 나타내기 위해 책 제본과 형태에도 특별함을 줬다. 책등을 표지로 덮지 않고 드러낸 '사철 노출 제본'으로 제책, 실로 단단히 엮인 색색의 종이들이 그대로 보이는 책등이 동양적인 감성에 꽤 잘 어울린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저자 **김상규**는?

서울대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했다. 한국의 여우 구슬 설화를 소재로 한 그림책 〈달이의 영혼 구슬〉, 십장생도를 소재로 한 그림책 〈오래오래〉, 고려불화의 도상을 연구한 책 〈빛과 바람의 그림, 고려불화〉 등 몇 편의 책을 쓰고 그렸다.





갑진년 새해 읽어볼 佛書들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연말연시에는 자칫하면 분위기에 휩쓸려 흥청망청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불서(佛書)를 읽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어떨까. 정리=신중일 기자

경전 해설·게송 모음…부처님 지혜 담아내다





연관 스님이 남긴 '水淸珠'

〈만선동귀집강의〉상 · 중 · 하/ 영명연수 씀
석성범 강의/ 연관 번역/ 사유수 출판사/
각권 2만5000원

만선동귀집(萬善同歸集)은 북송 시대 영명연수 선사의 대표 저술이다. "모든 선행이 일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영명연수는 광범위한 경론과 선문을 통해 전하고 있다. 이를 대만의 근현대 선지식 석성범 스님이 알기 쉽게 풀어낸 것이 〈만선동귀집강의〉다.

〈만선동귀집강의〉는 부산 관음사 지현 스님이 대만 성지순례 중 석성범 스님의 저서를 보시받아 한글 번역을 발원했고, 화엄학림 학장을 지낸 뒤 봉암사에서 정진하던 연관 스님이 이 뜻에 동참해 번역에 착수했다.

하지만, 연관 스님은 번역 작업 중 병을 얻었고, 봉암사에서 부산 관음사로 내려와 곡기를 끊고 이생을 정리한 뒤 2022년 6월 15일 원적에 들었다. 연관 스님이 생전에 수차 교정했던 원고를 지현 스님과 화엄학림 제자 정묵 스님이 한 번 더 감수해 마침내 출간됐다.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대종사는 글머리에 이렇게 글을 남겼다. "2022년 봄, 급작스럽게 세연을 다한 연관 스님의 마지막 유작이 된 〈만선동귀집강의〉는 혼탁한 우리의 업을 맑히는 수청주(水淸珠)가 되리라."

현재진행형인 '화엄경' 역경불사

〈화엄경소론찬요〉 13~16/ 혜거 엮음
불광출판사/ 각권 3만원

'불교 경전의 꽃'이라 불리는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약칭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는 최상의 경전이다. 하지만 경전의 내용이 워낙 깊고 오묘하고 분량도 방대해 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렵다. 한국불교 대강백 탄허 스님은 〈화엄경〉 번역을 비롯해 중요 화엄학 관련서를 모두 집대성하고 현토역해(懸吐譯解)해 〈신화엄경합론(新華嚴經合論)〉(전 47권)을 1975년 간행했다.

턴허 스님의 〈신화엄경합론〉이 40년이 지났고, 현대인의 안목으로 이를 따라가기 어렵게 됐다. 현대인의 안목에 맞춰 간결하며 명확한 〈화엄경〉 강설이 필요해졌다. 이에 탄허 스님의 제자인 탄허기념박물관장 혜거 스님이 〈화엄경소론찬요(華嚴經疏論纂要)〉 120권을 현토·완역하겠다는 발원을 세우고 역경불사에 들어갔다. 〈화엄경소론찬요〉는 명말청초 때의 도패(1615~1702) 대사가 약술 편저한 책으로서, 청량 국사의 〈화엄경소초〉와 이통현 장자의 〈화엄경론〉의 정요만을 뽑아 편집했다.

혜거 스님은 2016년 〈화엄경소론찬요〉1·2권을 시작으로 매년 역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간행된 13~16권은 〈화엄경〉 80권본 39품 중 '십지품'에 해당하며, 원본 〈화엄경소론찬요〉 120권 중 제60권부터 제73권까지의 분량이다.

철학자가 풀어낸 '능엄경' 강의

〈능엄경 강해〉 Ⅰ · Ⅱ/ 한자경 지음
서광사/ 3만5000원 · 4만3000원

〈능엄경〉은 붓다의 가르침을 완성하기 위해, 보여진 현상세계 전체를 넘어서는 마음 자리를 확고하게 붙잡기 위해 쓰여진 경전이다. 수행하는 불자라면 놓쳐서는 안 되는 그 마음을 '신묘하고 맑고 밝은 마음'인 묘정명심(妙淨明心), '원만하며 묘하고 밝은 마음'인 원묘명심(圓妙明心)으로 밝히면서 그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그 마음에 입각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자아와 세계의 실상을 해명한다. 일체 존재의 방대한 범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수행과정에서 드러나는 신비한 내용들도 논리적으로 해명해 주는 통합적 불교 이론서 내지 수행 안내서다.

한자경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는 오랜 시간을 들여 〈능엄경〉 역본들과 여러 주석서들을 대조하며 번역과 해설을 완성했다. 반라밀제(Paramiti)의 한문역본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원문을 기초로 하여 가능한 한 쉬운 우리말로 풀이하고, 그 내용을 철학적으로 설명했다.

〈능엄경〉의 내용이 붓다가 아난, 파사익왕, 관세음보살 등과 나눈 대화체의 글이기 때문에 생생한 분위기를 살리고자 대화체의 대본 형식으로 풀어 구성하고, 모든 대화를 존댓말로 번역한 점이 큰 특징이다. 구절마다 해설 앞에 간략하게 내용을 도표화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했고, 핵심적인 도표들은 각 권 뒤에 별도로 묶었다. 중요한 개념과 수(數), 인명, 비유 등은 색인에서 찾을 수 있게 했다.

대승보살행 입문 위한 필독서

〈입보리행론 요해〉/ 톡메 상뽀 지음/ 수다지 켄포 한역/ 지엄 한글 편역/ 운주사/ 4만원

〈입보리행론〉은 인도의 샨티데바 논사가 지은 대승보살행의 입문서로서 보리심에 대한 가르침을 자세하고도 광범위하게 담은 가장 뛰어난 논서다. 이번에 발간된 〈요해〉는 〈입보리행론〉에 대한 간단명료한 설명과 요점이 매우 잘 집약된 해설서로, 티베트 역사상 〈입보리행론〉에 제일 정통한 두 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톡메 상뽀가 지은 〈입행론석·선설해〉를 오명불학원의 수다지 켄포가 중국어로 번역해 출판한 것을 다시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불교의 궁극 목적인 해탈도의 수행에 있어 번뇌를 항복받기 위해서는 산란한 마음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리심을 얻고 보리심을 내며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 지혜를 이루어야 하는데, 〈입보리행론 요해〉에서 이를 가장 중요하게 다룬다.

이 책은 모든 수행자들이 해탈도로 나아감에 있어서 일체중생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여기고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게 가르친다. 나아가 자신의 공덕과 이익은 중생에게 주고 중생의 고통과 손해는 자신에게 가져오며, 일체중생을 해탈의 길로 이르게 하고자 하는 보리심을 발하도록 설한다. 새해 대승보살도 수행의 지침서로 삼기 충분하다.

'앙굿따라 니까야' 정수를 풀이하다

〈정선 앙굿따라 니까야〉/ 이중표 역해
불광출판사/ 3만원

한국 불교학계를 대표하는 석학인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의 〈니까야〉 번역 시리즈의 네 번째이자 완결작인 〈정선 앙굿따라 니까야〉가 출간됐다.

2019년 시리즈 제1권 〈정선 디가 니까야〉의 출간 이후, 제2권 〈정선 맛지마 니까야〉(2020년), 제3권 〈정선 쌍윳따 니까야〉(2021년)까지, '정선 니까야 시리즈'는 방대한 니까야 가운데 핵심만을 가려뽑아 현재의 우리가 체계적으로 경전을 읽고 불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앙굿따라 니까야〉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가르침부터 열한 개 가르침까지, 설하고 있는 법의 개수에 따라 장을 나누는 독특한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독특한 구성 방식은 이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이가 교리를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르침에 쉽게 접근하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었다.

이 책은 이러한 〈앙굿따라 니까야〉의 가르침 가운데 189개의 주요 가르침을 가려 뽑아 편성하였다. 이로써 보다 쉽게 깨달음의 체계에 다가갈 수 있고, 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주제별로 만나는 부처님 게송

〈삶의 지혜를 위한 붓다의 노래〉
중산 향적 엮음/ 담앤북스/ 3만3000원

불교 경전은 크게 서술적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압축·요약해 독송하기 쉬운 게송(偈頌)으로 이뤄졌다. 게송은 가르침을 압축해 시의 형태로 쓴 것으로 가히 불교의 진수(眞髓)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래화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삶의 지혜를 위한 붓다의 노래〉는 월간〈해인〉 초대 편집장이자 해인사 주지를 역임한 중산 향적 스님이 대승불교 경전 중에서 부처님 게송만을 발췌해 주제에 맞춰 모은 다음 우리말로 번역하여 엮은 게송집이다.

책은 출가자와 재가자, 일반인들이 수지독송(受持讀誦)하기 좋은 내용 및 수행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한데 모아 8개의 장으로 나누었다. 육바라밀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와 사성제, 그리고 마음에 새겨둘 〈가려 뽑은 선시〉를 한데 묶었다. 각각의 게송은 독송하기 쉽도록 향적 스님의 우리말 번역을 싣고 한역 원문과 경전명을 함께 실어 원문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용구산 용흥사
주 지 덕유
사부대중일동
전남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574
전화 061)382-0574



30 창간 30주년
1994~2024

부산광역시 강서구 불교사암연합회

고 문 **진철** (숭림사)
회 장 **현엽** (청량사)
기획실장 **자인** (길상사)
수석부회장 **청원** (강서예술촌)
상임부회장 **연담** (용화사)
부 회 장 **정광** (문수암)
진종 (대성암)
사업본부장 **산해** (성불암)
감 사 **심행** (수능엄사)
사무총장 **평산** (산양사)
총무국장 **해안** (법정사)

강서구 불교사암연합회 회원사찰 주지 일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29 전화 051)271-2774

2024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자비 실천하는 여성불자회
내가 참여하는 가운데 발전하는 여성불자회

부산여성불자회

총재 혜총

회 장 정분남
고 문 왕선자
류영남
자문위원 정찬스님
홍도스님
백명숙
이성희
감 사 장홍자
박영선

부회장 한순점
정정자
황곡자
김정연
이해숙
이동희
하승우
최성숙
김희경
곽해숙
유영임

재 무 여소현
여미란
회 계 이원희
총 무 김미옥
성희강
봉 사 이명희

부산여성불자회 회원 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양정동, 불교회관 4층 402호)

부산불교여성개발원

원 장 **김수현**
종무부원장 **김종숙**
부 원 장 **이영숙, 김순례, 이향순**
총 무 **강미화** 대 외 **박봉희**
재 무 **이선덕** 문 화 **이춘선**
봉 사 **권춘자** 웰다잉 **김미희**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92 3층

대한불교조계종

부산비구니

금 련 회

회장 **혜 덕**

회원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

화 엄 회

회장 묘 선

화엄회 회원 일동



화엄회는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계불교 여래종

광 덕 선 원

주지 법 진
총무 박윤자

사부대중일동

부산시 강서구 평강로229번길 24 광덕선원
전화 010-4435-5660

마음 편한 절 · 관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

주지 **하 현**

사부대중합장

맑은 마음 밝은 세상

행복 禪 명상센터



부산시 중구 광복로 77번길 5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첫 번째 하차 점
전화 051)253-8687~8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대광명불교대학
지금선명상센터
해운대백병원 불교법당
서울분원 지금선원

YouTube 불바보TV

주지 목종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73
(로데오아울렛 3층)
전화 051)742-7610 팩스 051)742-7606
www.daekangmung.com

30 창간 30주년
1994~2024

2024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부산진구 불교연합회

고 문 월천 혜총
회 장 영제
수석부회장 화산 정현
상임부회장 연산 원타
부 회 장 대유 시광
정목 정사
지명 지원

감 사 태산 보원
재 무 선혜
총 무 해운 도원
의 전 월화 법봉

회 원 백설 인수, 월륜 춘제, 석만 도관,
무심 법지, 승호 원종, 안국,
경록 보원, 송현 대원, 덕봉 법진,
진여, 상보, 보각, 보혜



부산광역시 연제구 불교연합회

고 문 원광스님(정수사)
보당스님(보국사)
자문위원 정산스님(마하사)
회 장 법승스님(화엄사)
부 회 장 동선스님
이 사 법호스님(정토사)
희공스님(봉화사)
지공스님(불이중도사)
사무총장 눌은스님
감 사 혜안스님(선금사)

그 외 회원스님 일동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령산로524번길 16
화엄사內 전화 051) 853-1942

부산광역시 동래구 불교연합회

중명대범주 명해(소림사)
고 문 대원(금불사) 도문(전등사)
월봉(효자암) 월강(금어사)
혜성(금강사) 자관(자비암)
직전회장 효문(효심사)
회 장 용하(용문사)
자 문 혜민(천불암)
부 회 장 해운(용수달마사) 취산(무량선원)
범관(몽불사)
감 사 무상(미타사) 정호(해동암)
사무총장 범천(무량사)
재무국장 성화(용와사)
홍보국장 지훈(영주암)
포교국장 법광(무량정사)
문화국장 혜륜(혜륜정사)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321 용문사

재단법인 부산동명불원 東明佛院

원 장 인월 원순
이사장 김경조
상임이사 박희채

이 사 김성규 이인수 안수근 감 사 황주환 권성열
강석진 이재동 조성두 신도회장 성재곤
정종원 이희태 홍철우 부 회 장 이원옥 이상수
이욱태 김기환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 57(용당동) www.btbf.kr
전화 051)626-4337, 624-7667 팩스 051)626-4330

(사)향기로운문화동행 기장 청량사

이 사 장 보 혜
신도회장 황보승
운영위원장 최인락

부산국제차문화교류회 회장 원영애
기장차문화대학 원장 김진옥
청량선차문화원 장외숙
기장꽃차문화원 이숙자

외 임원진 일동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임밖길 12
(지하철 안평역 4번 출구) / 전화 : 051)723-1851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 장 정종원
상임고문 최주덕
고 문 박영근 박수관 박순곤 허인구 설동근
김재운 김재진 조효식 이윤희 권청길
이시영 장남인 이상수 정홍섭 김수현
부 회 장 배영호 배상진 공정근 최삼섭
양재생 최금식 류재호
감 사 최상곤 정연식
사무총장 장병주 재무총장 이현수
총무이사 안천일 친목이사 배도정
홍보이사 박차수 기획이사 박창근
섭외이사 이헌호 대외협력이사 안병호
자문이사 김상훈
이 사 강갑균 공영석 김선일 김성규 김윤곤
김종한 노종헌 박상호 박효근
회 원 강석진 김선조 방택훈 손만형 신기열
신상해 안경수 양승찬 이경칠 이권주
이근욱 이성원 이오식 이정출 이학우
진남일 최대경 최태식 김기호 이윤희
김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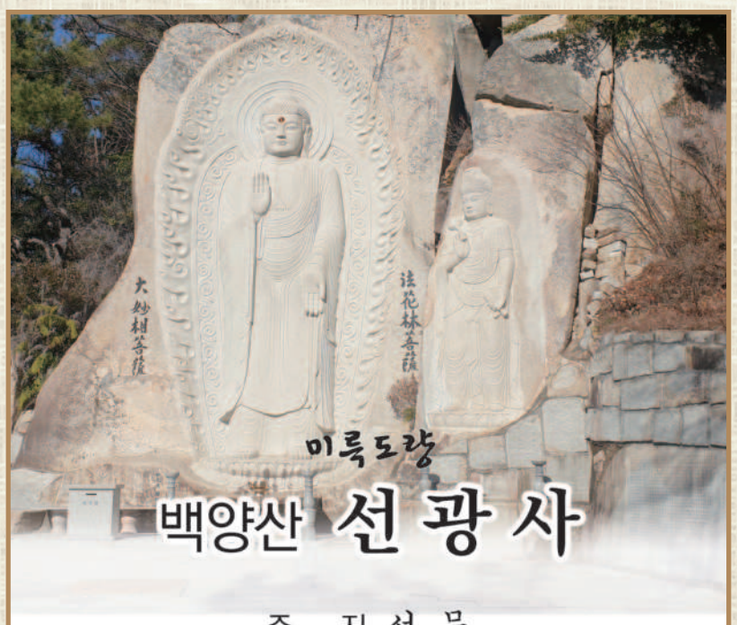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1705호
(부전동, 유원골든타워)
TEL 051)334-0108 FAX 051)867-4397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 장 진우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부 회 장 덕수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도진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법명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주경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우인정사 (총지종 통리원장)
고 문 홍파스님 (관음종 종정)
이 사 장 상진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부이사장 인구스님 (보문종 총무원장)
향운스님 (원효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명안스님 (여래종 총무원장)
감 사 금주스님 (보문종 기획실장)
방정자 (여성부 운영위원)

여성부

회 장 백명숙
부 회 장 박동희 조경순 남영희
총 무 한륜교
재 무 조원숙
운영위원 김경수 방정자 옥영숙
우정해 정지연 최진희
국제협력부장 정영애
감 사 김예영



백양산 선광사

주 지 성 문
신도회장 강귀자

총무 이은영 사무국장 이미희 연화회장 김복자

신도일동

주소 부산 사상구 덕포2동 21-1번지
전화 051)302-5657, 303-4848, 010-3563-5657 팩스 301-4854

30 창간 30주년
1994~2024

2024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소 원 정 사

주지 도 계

연꽃향기자비나눔본부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79-5번지
전화 062)279-3332

생명나눔 문화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보 은 사

주지 도 제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촌반촌길 108
전화 062)954-4407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證心寺

주지 중 현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사길 177
전화 062)226-0108 팩스 062)222-5997
www.jeungsimsa.org

대한불교조계종

신 광 사

회주 경 주
주지 동 현

대중일동 합장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66번길 42-10
전화 062)261-1529

대한불교조계종

불 갑 사

주지 만 당

사부대중일동



전남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
전화 061)352-8097

대한불교조계종

자 성 사

회주 명 지
주지 일 주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55번길 6-1
전화 062)381-0878

무등산 약사기도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약 사 사

회주 범 종
주지 무 진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11번지
전화 062)222-9844

대한불교조계종

향 림 사

회 주 수월 혜향
주 지 상범
신도회장 김보덕행
합창단장 조백련화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복개로150번길 22(치평동)
전화 062-375-7600

“대행 선사 육성법문, 현대적 대기설법 전형”

최원섭 연구원,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서 조명

문답하는 대행 선사의 법문 방식은
석존 대면 설법, 선어록 전통 계승
매체에 기록된 대행 선사의 법어들
말투, 손짓 등 법어집서 생생 표현
“매체들이 아난 역할, 선구적 안목”

안양=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지난해 12월 16일 대행선연구원 제17회 계절발표회에서 ‘묘공대행의 육성(肉聲) 전법’을 발표하고 있다.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법문은 1982년부터 오디오와 비디오로 녹음·녹화됐고, 이 육성과 영상은 〈한마음요전〉과 〈허공을 걷는 길〉 등의 법어집으로 발간됐다. 매체를 통해 기록된 대행 선사의 육성 법문과 법어집이 불교 전법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조명하는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지난해 12월 1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제17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계절발표회에서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묘공대행의 육성(肉聲) 전법’을 통해 대행 선사의 육성법문이 불교적으로 어떤 전통에 기인·계승하고, 전법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조명했다.

먼저, 최 연구원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살폈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부처님의 설법은 상대의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을 가지며, 법을 설함에 있어 다양한 비유와 예화를 통해 대중을 교화했다. 또한 부처님은 말이라는 소리를 넘어 행동으로 교화하는 경우도 있었고, 깨달음의 위의(威儀)를 보여 저절로 감화시키는 방편도 내보였다.

이 같은 석존의 설법 방식과 특징은 중국 선종에서도 발견된다는 게 최 연구원의 설명이다. ‘제접(提接)’이나 ‘입실(入室)’ 같은 선종의 언어에서 보이듯이 선종은 스승과 제자가 얼굴을 대면하며 가르침을 주고 받아왔다. 또한 조사(祖師)를 부처님과 동일하게 보는 것도 선종 설법의 특징이며, 이는 선어록이 등장하게 된 배경 중 하나다.

최 연구원은 “선종의 조사가 부처님과 같은 위치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조사의 어록이 기존의 부처님 말씀인 경전을 대체했다”면서 “이는 단순히 조사를 부처님과 같은 위치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 스승과 제자 모두 새로운 부처임을 보인 것이다. 부처와 부처가 만나는 구도를 구축한 것이 바로 선종의 강력한 힘”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님 대면 설법의 전통을 계승한 선종의 방식을 대행 선사의 육성법문 역시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대행 선사 법문의 특징이다. 화두 ‘시심마(是甚麽)’를 ‘무엇인가’로 번역하지 않고 ‘이뭣꼬’라는 경상도 사투리로 통용할 정도로 경상도 출신 비구스님들을 많이 접하는 현대인에게 서울 사투리를 구사하는 대행 선사의 법문은 낯설면서도 신선하게 다가왔고, 어려운 불교용어 대신 쉬운 용어를 활용한 선사의 생활법문 방식도 대중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최 연구원은 “특히 법회 참가자에게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형식은 석존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설법해주는 응병여약의 일대일 상담과 같은 형식이자, 선종에서 조사를 찾아가 입실해 선문답을 주고받는 모습의 전형”이라며 “대행 선사의 법문은 즉문즉설의 시초이자 대기설법의 현대적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특징을 가진 대행 선사의 육성법문을 문자화한 것이 〈한마음요전〉과 〈허공을 걷는 길〉과 같은 법문집으로, 한마음선원은 선사의 음성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을 편찬의 기조로 삼았다.

최 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법어집이 법회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구어체를 사용하고 어투를 그대로 반영할 뿐 아니라 행동까지도 기록했다는 사실은 석존의 대면 설법 방식과 이를 계승한 선어록의 방식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대행 선사의 육성 법문이 앞에서 거론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육성 법문이 오디오와 비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보관돼 재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석존의 입멸 후 결집할 때 석존의 법문을 기억했다가 재연한 것이 아난의 역할이었다면 대행 선사 법문의 결집은 매체가 아난의 역할을 했다”며 “이는 육성 법문을 매체에 기록하겠다는 대행 선사의 선구적인 안목이 빛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에서 삼귀의를 하는 대중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다만, 최 연구원은 매체에 담긴 선사의 육성을 어떻게 재가공할 것인지를 향후 과제로 꼽았다. 최 연구원은 “1980년대에 시대를 앞선 안목으로 대행 선사의 모든 법문을 매체에 담았을 때와 같은 도전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또한 육성과 문자가 함께 하는 시대를 맞아 문자로 되어 있는 법어집의 역할과 방향 역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정완 스님은 ‘참회와 회과를 통해 본 중국불교’를 통해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는 참회·회과 의례가 어떻게 현세 이익을 가져다주는 요소를 가진 의례로 받아들여졌는지를 조명했다.

정완 스님은 “중국에서는 군주의 무능과 덕 없는 정치가 국가의 재이(災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고, 그 죄과를 없애는 기능을 가진 불교의 참회의례를 수용해 국가를 재이로부터 지키고자 했다”며 “그 후 중국불교에서는 참회·회과의 의칙이 정비되면서, 그 앞에 예찬을 붙이고 뒤에 발원을 더한 참법이 생겨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회 논평자는 정선 스님(동국대), 김영진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 김은영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오진영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참여했다.

또한 지난 제14회 계절발표회부터 시작된 한마음선원 지원·단체 소개는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이 소개됐다. 발표는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이 맡았다.

계절발표회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는 좋은 세상에 태어나 대행 선사의 법문을 영상과 책을 통해 만날 수 있고, 오늘 같은 계절발표회나 학술대회를 통해서 접할 수 있다”면서 “그 옛날 부처님의 제자들과 조사들이 불법을 이어가고자 했던 노력들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졌다.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갈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최 연구원의 발표 논문을 통해 대행 선사의 육성 법문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향을 보았다. 이를 통해 선사의 법문을 공부하는 힘이 됐으면 한다”며 “내년에는 연구원 학술지 〈한마음연구〉가 학진 등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법가’ 쓴 1세대 찬불가 작곡가 60년 불음포교 원력 집대성하다

찬불가 작곡가 이찬우 발표회
1월 9일, 금정문화회관 대강당
15년간 수불스님 문하서 정진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좌에 오르사…”

스님의 법문을 청하며 부르는 청법가 첫 구절이다. 한국 불자라면 누구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청법가를 작곡한 이찬우 작곡가〈사진〉. 평생 동안 찬불가 작곡과 발전에 이바지한 그가 회향의 무대를 갖는다.

1월 9일 오후 2시 30분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강당에서는 ‘제4회 이찬우 작곡발표회’를 개최한다. 누구나 무료로 사전 신청 없이 현장 접수를 통해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장 입장은 당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다.

‘선율에 담은 수행과 전법의 서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찬불가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울러 ‘찬불가 운동’을 발원하며 60여 년 동안 한국불교 찬불가의 정체성을 고심한 이찬우 작곡가의 노력을 치하하고, 전법 정신을 기리는 시간이다.

이찬우 작곡가는 1세대 한국 찬불가 작곡가로 경희대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했다. 대학에서 작곡을 공부하던 당시 서울 대각사 연화어린이합창단 단장 운문 스님과 인연이 되었다. 운문 스님은 거의 하루에 한 곡을 요청했을 정도로 열정이 가득했고 이찬우 작곡가는 스님의 열정을 따라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곡을 선사했다.

이찬우 작곡가는 “운명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당시 기독교인이었던 제가 스님과 인연이 되어 개종을 하고 집에 돌아가지도 않을 정도로 매일 찬불가를 작곡하는 시간이 반복되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때 만들었던 곡이 ‘나는 불교꽃’, ‘청법가’, ‘일천강에 비치는 달’이며 그 외 수많은 곡이 쏟아졌다. 널리 알려진 청법가는 잠시 쉬기 위해 들어간 법당 상단 아래서 단박에 작곡한 곡이다. 그는 상단 아래서 우연히 펼쳐 든 책에서 이광수의 시를 읽고 홀린 듯 작곡을 마무리했다.

이찬우 작곡가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거의 매일 곡을 만들며 절에서 지낼 당시 잠시 혼자 쉴 곳을 찾아 들어간 작은 공간에서 책을 펼쳤다. 그때 눈에 바로 들어온 것이 이광수의 시였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자리에서 작곡을 시작해 곡을 완성했다”며 “그 이후 불교음악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더 좋은 곡을 만들기 위해 평생을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찬우 작곡가는 1964년 봉축기념으로 제1회 불교동요 작곡 발표회를 동국대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불교동요집도 출판해 찬불가 발전의 기초석을 다졌다. 이후 지속적으로 찬불가 작곡 발표회를 이어와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83년 조계종 포교원장 공로패, 2009년 조계종 총무원장 공로패, 2012년 제1회 불교음악대상(조계종), 2013년 묘음불교문화상-작곡(묘음불교문화재단)을 수상했다. 또 불교 합창단을 지휘하며 2001년 세계종교음악합창제 이태리가르다 초청 찬불가 발표 은상, 2002년 세계합창올림픽(부산) 종교음악 동메달 등을 수상해 한국불교 합창단의 위상을 높였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이찬우 작곡가의 곡 21곡이 발표된다. 무대는 정효영(구서여중) 학생의 독창으로 시작해 안국선원 합창단, 붓다보이스콰이어, 테너 임찬우, 천불사 녹야 합창단, 소프라노 이지연이 곡을 선사한다. 특히 이찬우 작곡가는 안국선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15년 동안 수불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은 바를 곡으로 만들어 헌정해왔다. 이찬우 작곡가는 이번 발표회에서 수불 스님의 법문을 곡으로 만든 ‘더는 속지 말 지어다’ 외 4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불교태고종
청 련 사

조 실 해 경
원 로 도 암, 지 홍
회 주 상 진
주지직무대행(재무) 심 곡
총무(원주) 벽 산
교 무 거 진
서 무 효 능
교무보 효 진
대 중 일 겸, 혜 승, 일 면
일 월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

이사장 심 곡
이 사 해 경, 거 진
효 능
최종남, 이종수
감 사 최인귀
법무실장 홍창수

청련사 두도엔지니어링
(종합건설회사)

건설본부장 김호영
상무이사 김유영

청련사 극락원
(추모관)

상 무 장진우
과 장 송 원

종무소 직원

총무과장 정태우(일소)
업무과장 이진미(소봉)
업무계장 최진호(무착)
경리주임 성진희(소담)

청련사 불교문화연구소

소 장 곽승훈(동광)
실 장 인용민(법정)

현장관리직원

소 장 허대형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전화 : 031)836-2439, 1080 팩스 : 031)836-1081 홈페이지 : http://www.bluelotus-temple.co.kr

30 창간 30주년
1994~2024

2024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문 빈 정 사
조 실 **지선**
주 지 **법공**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전화 062)222-2202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 지 **소 운**
- 관음사 신도회
- 관음사 불교대학(원)
- 붓다스마일 합창단
- 연꽃향기 성지순례회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
전화 061) 362-4433

대한불교조계종
연 화 사
주 지 **명 신**
부 설
연화유치원,어린이집
062)227-0173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 2동 448-2번지
전화 062)227-7295

대한불교조계종
보 승 사
사부대중일동

전남 순천시 신흥중1길 39
전화 061)723-3161

대한불교조계종
광 덕 사
주 지 **상 진**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남구 화산로 129
종무소 062-652-6050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 원 효 사
주 지 **해 청**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514-35
전화 062)266-0326

대한불교조계종
만 경 사
주 지 **시공스님**
신도회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557번길 27

한국불교태고종
법 륜 사
주 지 **월 인**
신도일동
광주전통불교영산보존회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3호
작법기능보유자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 53
전화 062) 655-7444

30 창간 30주년
1994~2024

2024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개 천 사
주지 보 원



대한불교조계종
능 가 사
회주 중 현 일 귀
주지 진 허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도 갑 사
주지 수 관



전남 영광군 군서면 도갑사로 306
061-473-5122

대한불교조계종
쌍 봉 사
지금 이 순간 행복도량
회주 영 조
주지 증 현



예공
Total Design 전문회사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카다로그/브로슈어/리플렛/BI,CI제작
시각Design/인테리어/환경Design
실사, 현수막출력/옥외광고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54-1
대표전화 _ 062·352·7474

대한불교조계종
선 덕 사
사부대중 일동



광주 정광중·고등학교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자비를 실천하는
광주·전남 유일의 불교종립학교

학교법인 정광학원
정광중·고등학교 이사장 자공스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비 전 사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 2동 489-22번지
전화 062)951-3562

30 창간 30주년
1994~2024

대한불교 능인종

사부대중일동

총무원 :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905-13(청룡사)
055)585-5300



2024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전북불교 미래본부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주지 직속 기구로서 포교활성화 지원 및 전북불교 희망 만들기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일원·평상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전북불교 미래본부 전북 완주군 이서면 갈산로45
사무총장 **응묵**, 사무국 063-224-4441 jbmirae.com

아름다운 나눔공동체
사단법인 자비신행회

이 사 장 **이화영**
상임이사 **김삼옥**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4

지장도량
미 륵 사

주 지 **혜 법**

사찰음식 전문점
수자타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69-3
전화 062)222-1145

대한불교조계종
복 암 사

주 지 **도 성**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49번길 68-32



‘미혹의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으로’
문명전환 지리산 만일결사
실 상 사

– 사부대중공동체 –

매월 실상사 공동체 학교 운영 참가문의 010-8470-1886

대한불교조계종 **지리산 실상사** | **주소**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길 94-129 **전화** 063)636-3031 | www.silsangsa.or.kr

영남최고의 관음기도도량
천성산
미 타 암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주진로 379-61
전화 055)365-4184

불교인문학살롱

25 매월당 김시습의 불교와 문학



▶ **김대원 작가**는 경기도 장단에서 태어났다. 고려대 경영학과 2학년 마치고 군입대해 베트남전 참전, 맹호사령부에서 군 복무를 마쳤다. JC어패럴을 설립해 운영했다. 〈수필과비평〉을 통해 수필가로 등단하고 〈월간 신문예〉로 시인으로 등단했다. 제34회 현대수필문학상, 제20회 수필과비평문학상, 제11회 김우종문학상, 제3회 월파문학상, 제13회 탐미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수필집 〈백학산의 가을〉 〈먼 산에 달이 오르네〉 〈한 뼘의 볕바라기〉 등이 있다. 현재 하전수필문학아카데미 대표강사, 여행작가로 활동 중이다.

佛·儒 넘나들며 격외법문 보인 선지식

신동, 5세 김시습

매월당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은 조선시대를 살다 간 천재 문인이자, 불교 승려이다. 스스로를 '방외인(方外人)'이라 할 정도로 세상의 격식에 자유로웠으며,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절개를 굽히지 않은 조선의 선비였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능지처참 된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하여 노량진 언덕에 묻었다.

본관은 강릉이며 자는 열경(悅卿)이다. 호는 오세(五歲)·청한자(淸寒子)·동봉(東峯)·벽산청은(碧山淸隱)·췌세옹(贅世翁)·매월당(梅月堂) 등이다. 그는 태어난 지 여덟 달 만에 벌써 글을 알았다고 하며, 최치운(崔致雲)이 기이하게 여겨, '시습'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말은 느리지만 정신은 경민(警敏)하여 글을 보면 입으로는 읽지 못했지만, 그 뜻은 모두 알았으며, 세 살에 시를 지을 줄 알았다.

그는 다섯 살에는 〈중용〉·〈대학〉에 통하였으며, 글짓기도 더한층 진보되었다. 이러한 그의 소문을 들은 정승 허조(許稠)가 그의 집을 방문하여 신동의 실력을 시험해 보았다.

"얘야, 나는 벌써 늙은 사람이라, 노(老)자로 운(韻)을 달아서 시 한 구절을 지어다오."

이에 김시습은 이 같은 시조를 내놓았다. "늙은 나무에 꽃이 피었으나 마음은 늙지 않았구려.(老木開花心不老)"

세종이 그의 소문을 듣고 승정원에 분부를 내려, 시습을 불러서 지신사(知申事) 박이창(朴以昌)으로 하여금 그의 실력을 시험케 했다.

박이창이 '어린아이의 학문이/흰 학이 푸른 소나무 끝에서 춤추는 것 같아라(童子之學白鶴舞靑松之末)'고 운을 떼자, 시습은 '성스런 임금님의 덕은/누런 용이 푸른 바다 가운데서 번득이는 것 같아라(聖主之德黃龍翻碧海之中)'라고 답했다.

이를 전해들은 세종이 비단 쉰 필을 하사하되, 그의 앞에 포개어 두고 스스로 가져가게 했다. 어떻게 하는가 보았더니, 시습은 곧 어렵게 생각지도 않고, 50필을 풀어 끝과 끝을 묶은 뒤 허리춤에 앞 끝을 묶어서 끌고 대궐 문을 나갔다.

21세 때 삼각산 중흥사에서 공부하던 그는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통분(痛忿)하여 나흘 동안이나 두문불출 단식한 뒤, 읽던 책을 모두 불태워버린 뒤 삭발염의하고 법명(法名)을 설잠(雪岑)이라 하고 긴 방랑길에 올랐다. 자신의 방랑을 호탕한 유람, 즉 탕유(宕遊)라 일컬었던 그의 '놀 유(遊)'자를 붙인 네 권의 책이 〈사유록(四遊錄)〉이다.

나그네(有客)
청평사에 찾아든 나그네가 있어
(有客淸平寺)
봄 산을 멋대로 노닌다.(春山任意遊)
산새 우짖는데 외로운 탑은 고요하고
(鳥啼孤塔靜)
꽃잎이 흘러내리는 작은 시내에 떨어지네.(花落小溪流)
보기 좋은 산나물이 때를 알아 부쩍 자라고
(佳菜知時秀)
향기로운 버섯은 비 온 뒤라 보드랍네.
(香菌過雨柸)
시를 읊으며 걷는데 신선의 마을로 들어서니(行吟入仙洞)
내 일생의 시름을 풀어보리라.
(消我百年憂)

김시습, 조선시대 천재 문인이자 스님
세종대왕도 시험할 정도로 '신동' 평가
수양대군 왕위 찬탈에 분노, 불문 귀의
설잠 스님으로 살며 법성게註 등 펴내
〈묘법연화경〉 발문 쓰고 무량사서 원적



매월당 설잠 스님(김시습)의 진영. 설잠 스님이 원적한 부여 무량사에 전해지는 진영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전국 방방곡곡을 방랑하다가 오봉산 청평사에 이르러 쓴 시이다.

그는 자신의 이상인 충의를 지키기 위해 세상을 버렸지만, 결코 현실에 관심을 거둘 수는 없었다. 한 가지 사상에만 빠지지 않았던 김시습은 유교, 불교, 도교를 넘나들며 불교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로 평가되는 〈금오신화〉를 보면 '남염부주지'에서 송유이학(宋儒理學)의 입장에서 세속화된 기복 불교와 제례 중심의 불교를 비판하고 선불교의 높은 수행 단계를 추구했다.

설잠 스님의 법성게(法性偈) 해

설잠 스님은 의상 대사의 '화엄일승법계도'에 주병서(註并序)를 달았다. 화엄종조 의상대사가 〈화엄경〉의 요지를 7언절구 210개의 한자를 회전·굴곡시켜 원융한 법계 하나의 해인(海印) 형태를 완성했다. 그것은 마치 대해(大海) 속에 일체 사물의 모습이 도장을 찍듯 선명하게 투영되어 있듯이 맑고 고요한 삼매 속에 일체의 진상(眞相)이 드러남을 뜻한다. 이 도인(圖印)은 '법성원융무이상'의 법에서 시작하여 '구래부동명위불'의 해인삼매 총상인(總相印)이 된다. 법성(法性)에 의한 해인삼매를 나타내는 시게(詩偈)이기 때문에 이를 법성게(法性偈)라고도 한다.

〈화엄일승법계도주(華嚴一乘法界圖註)〉를 보자.

"깨달음보다 더 나아간(向上) 길은 일천 성인도 전하지 못하니 이미 전하지 못하는 소식이라면 이러한 법계(法界)의 그림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가령 종으로 횡으로 구불구불함과 글자와 점들이 얼룩덜룩한 것이 이 그림인가?(…)의상 법사가 마음을 쓰고 생각을 움직여가며 자비심을 드리워서 중생들을 이롭게 함이 이 그림인가? 가령 조짐이 아직 싹트지 않고 그릇이 미쳐 형상을 이루지 아니하였을 적에 벌써 이 그림인가?"

설잠 스님은 "낚싯바늘 드리운 뜻을 알아차리고, 눈금의 표식을 오인하지 말라"고 했다. "조짐이 싹트지 않고 명기(名器)가 미쳐 형(形)을 이루지 아니하였을 적에 벌써 도(圖)인 것인가"라는 구절에 이르러 이는 미발(未發), 미생전(未生前)의 '부모 미생 전 본래면목(本來面目)'의 자리를 물은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된다. 또한 낚싯바늘 드리운 뜻을 알아차리고 눈금의 표식을 오인하지 말라고 한 구절에서는 설잠 스님이 백담사에서 주(註)를 단 〈십현담(十玄談)〉의 〈열경주(悅卿註)〉와 동안 상찰 스님의 시구를 떠올리게 한다.

묻노니 심인(心印)은 어떻게 생겼기에/심인을 누가 감히 전수한다 하는 거랴.(…)무심無心이 곧 도(道)라고 이르지 말라./무심도 한 겹의 관문, 격(隔)하고 있느니라.

—동안 상찰 스님의 〈1. 심인〉에서

동안 상찰 스님께서 '무심(無心)의 집착을 경계한 것은 설잠 스님이 '눈금의 표식을 오인말라'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노자의 '도가도 비상도(道可道 非常道)'처럼 무심이 본래 도(道)이건만, 도를 도라고 이르는 순간 그것은 머리 위에 머리를 다시 보태는 격이 된다. 모두 본질을 바로 보라는 말씀이다. '십현(十玄)'이란 선(禪)의 오묘한 취지를 10가지 면에서 노래한 것으로 선시의 백미라 할 만하다. 설잠 스님의 높은 안목과 선지(禪旨)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설잠 스님은 59세에 부여 무량사에서 〈묘법연화경〉 발문을 쓰고 그곳에서 원적에 드셨다. 스님은 입적에 들면서 승려들에게 "내가 죽거든 화장하지 말고 땅속에 3년 동안 묻어둬라. 그 후에 정식으로 화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가 원한 대로 시신을 땅에 묻었다가 3년 후에 무덤을 파헤치니, 시신이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았다고 한다.

어느 날, 고즈넉한 절 무량사 일주문 앞에서 나는 합장한 채 걸음을 멈췄다. 천왕문으로 들어가는 계단에서 또 한 번 걸음을 멈추고 문안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처마처럼 가지를 늘어뜨린 소나무 아래로 석등(보물 제233호) 등 국가 지정 보물들이 있지만, 나의 관심은 영정각에 있었다. 서너 번이나 무량사 탐방을 한 나는 늘 그랬었다. 영정각에 모신 초상은 가슴까지 그린 반신상인데, 머리에는 중절모처럼 생긴 검은 모자를 쓰고 있다. 시를 쓰는 사람으로 나는 대시인께 성심으로 합장배례를 드리고 무량사로 오르기 전, 부도(浮屠)들이 서 있는 무진암 쪽으로 갔다. 일제강점기에 폭풍우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부도도 무너졌는데, 그때 나온 사리 1점은 지금 국립부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천왕문 밖 언덕에는 1983년 문인들이 세운 매월당 시비가 서 있다.

시비(詩碑) 앞에 서니 설잠 김시습의 '낙엽'이라는 시 한 수가 떠올랐다.

떨어지는 잎이라고 쓸지를 마오/맑은 밤에 그 소리 듣기 좋다오.
바람이 불어오면 서걱서걱 소리 나고/달이 떠오르면 그림자 어수선해라.
창을 두드려 나그네 꿈 깨우기도 하고/섬돌에 덮여 이끼 무늬도 없애네.
빗줄기 선 듯하면 어찌할 수 없기에/먼 산에 그 모습 한껏 여위었어라.

수척한 노사(老師)의 모습이 공적(空寂)하다. 바람에 서걱거리는 소리, '창을 두드려 나그네 꿈 깨우기도 하고 섬돌에 덮여 이끼 무늬도 없애네' 이 대목에서 나는 꿈 깬 자의 자각과 마음에 이끼 무늬도 없는 무심(無心)을 읽게 된다. 그분의 오도송같이 느껴진다. 청한(淸寒) 비구 설잠 시비 앞에서 그날 나는 쉽게 자리를 떠나올 수 없었다.〈끝〉



대한불교조계종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

조실 설악 무산

기도 석상 본수 지봉 선우
주지 일념
부주지 향성
총무 본일
기획 설호
호법 각일
사회 서원
템플스테이연수원장 선일
템플스테이연수국장 지월
무산문도문장 삼조
홍련암 원주 관진 공산 동현
신도회장 방양호
관음회장 반순덕
바라밀회장 박상혁
합창단장 장필순
의상회장 이순애
불교대학회장 윤여경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 (033)672-2447~8 www.naksans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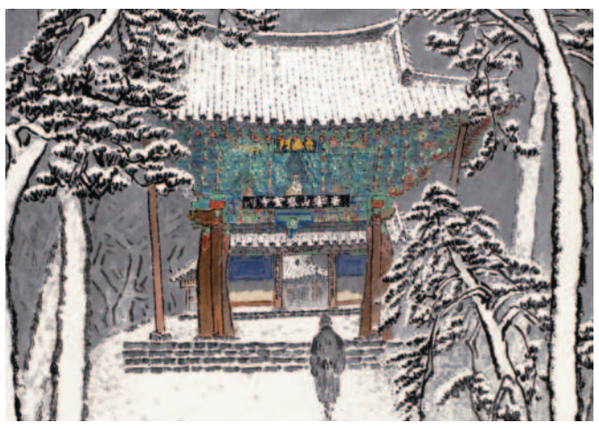
30 창간 30주년
1994~2024

2024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조 실 현봉 근일
회 주 남전 호성
주 지 등운

사부대중 일동



주소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415(구계리1166) www.gounsa.net
대 표 전 화 054)833-2324, 010-5163-2324
템플스테이 054)833-6933, 010-2653-0872

대한불교조계종
봉정사

회주 호 성
주지 두 현

신도회일동

봉황이 머무른 자리
영산암에서의 하룻밤
하루 템플스테이 특별 템플스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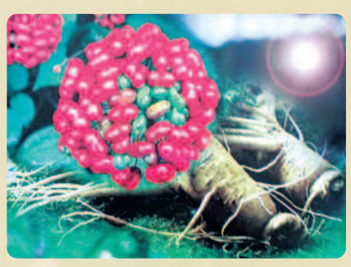
세계유산 봉정사

홈페이지 www.bongjeongsa.org
인스타그램 bongjeongsatemplestay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전화 054)853-4181, 4187 / 팩스 054)853-4185

풍기정품인삼 **풍 삼 정**

홍삼의 샤포닌은 성분과향기를 보유하기 위하여
저온에서 72시간을 숙성발효시켜 만든제품



■ 풍삼 정제품 :
풍기정품홍삼액(명품),
순홍삼액골드,
인삼향기홍삼액(골드),
풍기정품홍삼액(골드),
홍삼먹은사과즙, 풍기홍삼,
풍삼정쥬니어홍삼액,
풍삼정홍삼환, 홍삼진액,
홍삼청국장, 백미삼, 수삼





직접재배 가공하여 양심을 속이지 않고 만든
인삼향기 홍삼액 「골드」
100ml × 60포(한달분) ₩128,000원

전화 : 054-636-2174

대한불교조계종
대 원 사

주지 도륜

사부대중 일동

경북 안동시 서문동로141 전화 054)858-2630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축 서 사

주지 무 여

사부대중일동

보궁기도 · 참선법회
템플스테이 · 불교대학
은빛노인대학



경북 봉화군 물야면 월계길739번길
전화 054)672-7579



침향

(주)선우아이비오에서는 고품질의 침향(Agarwood)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직접 생산, 유통하고 있습니다.
화학향료, 염료, 접착제 등은 일체첨가하지않은 천연의 향입니다.
진정한 침향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주식회사 선우아이비오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41 (쌍문동) | TEL .02)998-7940
선우몰 www.sunwoomall.co.kr | sunwooibo@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사부대중일동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124 (남산동) 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0994 / FAX 051)583-0991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70(가회동)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ngukzen.org



김영애 법사의
안심뜰

① 마음의 응어리를 복 짓는 기회로

세상사람 모두를 부처로 보는 마음

얼마 전 상담을 나누었던 선희(가명) 씨는 여러 병이 겹쳐 15년간을 침대에 누워 살아야만 했다. 오랜 지병으로 명절에 시댁에 가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땐 정성을 담아 전이랑 음식 몇 가지를 만들어 남편 편에 보내곤 했다. 몇 년 전에는 몸의 컨디션이 좋아져서 시댁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차례를 마친 뒤 잠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님께서 멸치볶음을 해서 시누이에게 서둘러 주시는 것을 보고 말았다.

직장 생활을 하는 시누이를 위해 챙겨주시는 엄마의 마음은 백분 이해되지만, 마음 한구석에 속상함이 불쑥 올라왔다.

"저는 그때 밥도 못해 먹을 만큼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간단한 콩나물 무침도 반찬가게에서 사다 먹을 때였으니까요. 저는 안 보이고 딸만 보이셨는지, 그 모습이 서운함을 넘어 너무 밉고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어요. 친정엄마 같았으면 '엄마, 나도 해줘요'라고 했을 텐데, 아무 말 못하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이제는 어머님도 연로하셔서 많이 아프셔요. 저의 몸 상태가 아직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어머님께 며느리의 도리는 해야 한다는 맘이 큽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얘야, 잘 되던 전기밥솥이 안 된다. 쌀이 나빠서 그런가 했더니 김이 옆으로 새는 거 같아. 이걸 어떡하지?"

"바로 옆에 사는 딸도 있는데, 딸에게는 얘기 못하시고 며느리에게 하셔요. 그때 제 마음 속에 명절의 사소했던 서운함이 불쑥 올라왔어요. '내가 10여 년을 아파서 누워 있을 동안 멸치볶음 한 번을 안 해주시고 딸에게만 해주시더니, 정작 아쉬울 때는 나한테 전화를 하시네!'라고요. '어머니, 저 그때 무척 속상했어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서로 마음만 상할 걸 알기에 속으로 꾹꾹 눌러 담았어요. 아팠던 저에게도 마음을 좀 나눠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몇 년이 지나도 그때의 서운함이 저를 괴롭히네요. 숨어 있다가 가끔씩 튀어나오는 이 마음을 어떻게 털어낼까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다. 부처님께서 늘 법문해 주시듯이 내 앞에 벌어진 건 열매요, 결과다. 열매가 익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앗이 필요하다. 사과 씨앗 없이 사과가 열리는 법이 없듯이 멸치볶음이라는 사건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내 앞에 일어난 사건을 계기로, 나를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불자가 지향해야 할 삶의 자세다. 상황을 당장 바꾸기는 어려우니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지름길이다. 그날 선희 씨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어머님이 밥솥이 안 되는 걸 왜 선희 님께 얘기하실까요? 지금은 멸치볶음에만 꽂혀서 '나한테는 멸치볶음 한 번을 안 해주시더니 안 되는 거 있을 때만 나를 찾으시나?' 하면서 서운하신 건데요. 마음의 뿌리가 단단하게 내려져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께는 며느리가 최고구나. 며느리가 제일 든든하신 거구나. 어머니께 나는 참 필요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구나. 나는 신뢰를 받고 있구나' 하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게 돼요.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죠.

'아니 왜 나한테만 이런 걸 해달라는 거야?'가 '저에게 복 지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바뀌게 됩니다. 시부모님께 반찬을 해드리는 건 어른을 봉양하면서 복 지을 기회잖아요. 그런데 속에서 울화가 치밀어 안 좋은 마음으로 멸치를 볶았다면, 그 멸치에 과연 좋은 에너지가 깃들까요? 드시는 분께도 안 좋은 마음이 전달될 테니 나는 진정한 복을 짓는 게 아니겠죠. 재료를 고르는 일부터 다듬고 조리할 때까지 '이걸 드시고 편안하시기를, 건강해지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 때 진정한 공양의 공덕이 됩니다.

그동안 서운한 마음만을 담아둔 채 나도 모르게 거친 결로 음식을 했다면, 이제는 마음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선 복을 지어야 해요. 그러니 '어머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복 짓게 도와주시는구나. 어려울 때 쓰라고 마치 통장에 돈을 넣어주시는 것과 같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벌어져 있는 상황에 마음을 치우지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 내 마음이 긍정의 마음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겉모습은 '멸치볶음'이었고 '시어머님'이셨지만 그 모두는 내 마음을 정화시키라고 오는 신호일 뿐이에요. 은혜를 잊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나'의 아만심을 보게 도와주는 고마운 인연입니다. 그러니 겉모습에 속지 말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직 내 마음을 항복받을 뿐입니다.

한탑 스님의 〈금강경법문〉 114쪽에 나오는 말씀을 새겨봅니다.

"모든 사람의 참생명은 부처님생명이므로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보면, 세상사람 모두를 부처님으로 보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부처님으로 보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을 항복받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문사수법회 법사〉

건강 365

⑦ 최소 침습 척추 수술

피부 절개 최소…내시경으로 문제 병변 제거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퇴행성 요추 질환 환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요추 질환은 허리 통증과 동반하여 다리로 가는 신경이 압박되어 발생하는 하지 방사통의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하지의 근력저하나 보행장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질환이다.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요추 신경이 눌려 다리가 저리고 보행에 지장이 있다는 점에서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서로 비슷하지만,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의 연골인 추간판이 뒤쪽으로 돌출되어 신경을 누르는 것이고 척추관 협착증은 오랜 시간 허리의 무리한 사용으로 인해 뼈나 관절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 신경을 압박하는 질병이다.

증상이 나타나는 양상도 서로 다른데 추간판 탈출증은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척추관 협착증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있을 때 통증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앉아있을 때는 통증이 없거나 경미하고 보행 시 다리가 저리고 아픈 보행 장애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

이러한 척추 질환들의 치료 원칙은 일차적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이다. 하지만 충분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호전 없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와 같은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척추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 중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수술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회피하거나 심장 질환이나 폐질환을 가지고 있어 전신 마취나 수술의 위험성 때문에 수술을 하고 싶어도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들을 진료 현장에서 종종 마주치게 된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한 수술 방법이 바로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이다.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이란 0.5~3㎝ 크기의 최소한의 피부 절개로 근육이나 주변 연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시키고 미세 현미경이나 내시경을 활용하여 신경을 압박하는 뼈나 인대 조직, 추간판 등을 제거하는 수술 방법이다.

과거에는 크게 피부를 절개하고 광범위하게 근육을 박리하는 고식적인 개방형 척추 수술



이 유일한 척추 수술 방법이었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전과 척추 내시경과 같은 의료 기기의 개발로 절개 부위를 최소화 하는 최소 침습 수술이 현재 척추 수술의 최신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반드시 개방하여 시행하여야 했던 척추체간의 유합술이나 나사못 고정술도 최근에는 최소 침습 척추 수술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과거의 개방형 수술은 불가피하게 병변 주위의 정상조직이나 근육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런한 주변 조직의 손상은 수술 후에도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수술 후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회복 기간이 오래 소요되며, 전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은 절개 범위가 작고 수술 시간이 비교적 짧아 환자의 심리적 부담도 적다. 또한 병변 주위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수술의 부작용과 합병증 발생 확률이 낮으며, 기존의 고식적인 수술법보다 허리 근육의 손상이 적어 회복과 재활에 유리하여 빠른 시간내에 일상 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또한 척추 내시경 수술의 경우 병변 가까이에 내시경을 위치시켜 수술 부위의 확대된 영상을 보고 수술하기 때문에 중요한 신경이나 혈관의 손상 위험이 낮고 수술 중 수혈이 거의 필요하지 않아서 심장질환이나 폐기능 저하, 당뇨병이 있거나 고령의 환자들에게도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최소 침습 척추 수술법이 몇몇 특정 질환에만 시행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수술 기법의 발전과 더불어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위증, 척추 불안정증, 척추 측만증과 후만증과 같은 대부분의 척추 질환에서 적용이 가능하여 많은 척추 질환 환자들에게 안전하게 시행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척추 질환의 경우 일차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많은 경우 수술까지 가지 않고 보존적 치료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충분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거나 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되어 있을 때에는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수술을 피할 경우 환자에게 회복되지 않는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 무분별한 척추 수술은 문제가 있지만 현재 의료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은 수술후 합병증 등의 환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이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나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김종열 거인병원
신경외과 척추센터 내시경센터장

거인병원 Geo-in Hospital
051)996.7000
동래사직운동장앞
어깨·관절·척추, 정형외과 중점진료
세분화된 진료로 진단부터 치료까지!
광고심의필:230622-중-155173
현대불교신문과 협약에 따라
구독자 비급여 10% 할인 제공



보호자·간병인 걱정없는
전병동&전병상
24시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2024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제지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진짜 요즘 애들’ 잘파세대가 온다

‘잘파세대’를 주목하라 불교, 세대 트렌드를 살피자

현대사회는 세대 세분화 추세
세대별 공감대·특징 형성돼
세대 트렌드 알아야 공략 가능
MZ는 가고 이젠 ‘잘파’ 도래
변화 트렌드 파악해 포교해야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세대(世代)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은 ‘어린아이가 성장해 부모 일을 계승할 때까지의 30년 정도 되는 기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학적으로는 ‘공통의 체험을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의식이나 풍속을 전개하는 일정 폭(幅)의 연령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 세대론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이제는 고전이 되어버린 X세대(베이붐 세대 이후 출생한 세대)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MZ세대까지 다양한 세대론이 등장했다.

사회 속 개인 간 동질성 찾다

사회 속 개인들의 페르소나를 담고 있는 세대론은 그 시대를 공유하는 동질적인 트렌드와 가치관들이 있다. 예를 들어 X세대의 특징은 본격적인 개인주의의 탄생을 알린 세대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상실의 시대〉가 X세대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이유도 산업화, 민주화의 공동체적 사명과 목표를 상실하고 어른이 된 개인주의자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이후 세대론들은 개인이 점점 더 ‘초개인화’ 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어지는 밀레니엄 세대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들은 세기말 감성과 새 시대의 희망이 공존하는 세대로, 모바일 인터넷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세대다. 디지털 기술을 빠르게 배우고 적응해 나간 것도 이들이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가 Z세대다. 이들부터는 디지털 세상이 디폴트인 세대다. 최근 거론되기 시작한 알파세대는 2010~2025년생으로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으로서 특징을 고스란히 가진다.

요즘 애들은 MZ가 아니라 ‘잘파’

어찌됐든 세대론은 소위 ‘요즘 애들’에 대한 담론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세였던 MZ세대론이 아니라 잘파(Zalpha)세대가 부상하고 있다. 잘파세대는 1990년대 중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Z세대와 2010년대 초반 이후에 태어난 알파세대의 합성어로, 199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세대를 통칭하기도 한다.

애초 40대 중반, 회사 부장으로 성장한 밀레니엄 세대와 사회에 진입한 Z세대를 한데 묶는 것 자체가 모순에 가깝다. 또한 디지털을 배워서 익숙해진 밀레니엄 세대와 애초 ‘디지털 원주민’인 잘파세대는 간극이 존재한다.

사회에서 이 같은 세대론에 민감한 이유는 마케팅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잘파세대는 스마트폰을 삼성 갤럭시가 아닌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려 한다. 이 차이는 삼성은 기능과 기계를 만들고, 애플은 문화와 이미지를 만든다는 분위기에 기인한다. 그렇기에 가성비가 아닌 멋과 디자인에 매료된 잘파세대들이 아이폰을 구매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공격적인 잘파세대 마케팅을 펼치는 것도 주요 구매층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잘파세대를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불교 포교, 세대 니즈 파악을

잘파세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기술과 경제 측면에서 큰 특징을 갖고 있어서다. 이시한 성신여대 겸임교수의 분석처럼 현대사회에서 기술과 경제는 생활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들은 루틴이 된다. 그 루틴은 집단의 사고방식이 되고, 공감을 얻은 생각들은 문화가 된다. 이 같은 변화들은 종교 생활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2015년 통계청 인구센서스가 보여준 가장 큰 특징은 무종교인 인구가 종교 인구을 추월한 데 있다. 사실상 한국사회에 ‘탈종교화’ 현상이 시작됐음을 알린 것이다. 이후 탈종교화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중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한국리서치의 종교인식조사에서 18~29세 참여자 중 ‘믿는 종교 없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9%에 달한다. 소위 잘파세대 21%만이 불교를 비롯한 개신교, 가톨릭을 신앙하고 있었다.

이 같은 잘파세대에 불교를 알리고 포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세대 특성과 니즈를 담은 트렌드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진짜 요즘 애들 잘파세대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들은 디지털 퍼스트를 넘어선 ‘디지털 온리’를 기반으로, 아이가 없는 세상에서 귀하게 자랐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자중감’을 갖고, 성장기에 경제적 위기를 겪었기에 어느 세대보다 ‘현재적’이며, 국경이 큰 의미 없는 ‘세계인’으로 자라났다. 반면, 경쟁사회를 살다보니 만성적 번아웃에 노출돼 있기에 ‘의식적 게으름’도 추구하는 게 잘파세대다. 그렇기에 게임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마음챙김 게이밍’이 떠오르고 있다.

한국불교는 ‘대학생·청년 전법’이란 화두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대론부터 이해해야 한다.



Zalpha Generation



월정사가 개발한 메타버스 명상플랫폼을 체험하는 대중들.



국립중앙박물관이 제페토에 만든 가상박물관 '힐링동산'의 모습.

메타버스 출가·신행 콘텐츠 준비를

잘파 키워드 '디지털 온리'

'디지털'이 기본 값인 잘파세대

비대면 마켓 성장세 주요 고객

메타버스 플랫폼서 다양한 활동

가상공간 거부감 無 불교 긍정적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에 나서야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앞선 밀레니엄세대가 '디지털 퍼스트'를 추구했다면 잘파세대는 디지털 세상이 기본 값인 '디지털 온리'를 추구한다. 밀레니엄세대 이전에는 아날로그 라이프가 주고, 디지털은 보조적인 활용 도구로 삶았다면, 잘파세대는 디지털이 우선이고, 때로는 디지털로만 이뤄진 삶을 산다.

잘파세대를 두고 '문해력이 떨어진다'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는 디지털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반대로 잘파세대는 멀티태킹이 가능하고 영상 이해력이 그 어떤 세대보다도 뛰어나다. 잘파세대를 이해할 때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염두에 둬야 한다"(이시한)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디지털 온리'의 특성을 가진 잘파세대는 모든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기에 비대면 마켓의 성장에 기인한 주요 고객층이다. 종국에는 이 같은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은 가상공간, 메타버스의 이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직은 '진짜 메타버스 같다'는 기술이 구현되지는 않았지만, 초창기 형태의 플랫폼은 서비스 되고 있다. 실제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의 경우 미국 9~12세 어린이 70% 이상이 이용 중이고, 제페토는 이용자 중 10대 비중이 80%를 넘는다.

메타버스에 진심인 불교계

불교계는 교리적으로 가상공간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해인사승가대학장 보일 스님은 저서 〈AI부디즘〉에서 메타버스가 보여주는 다양한 법계를 외면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스님은 "메타버스가 구현하는 매혹적인 색과 형상, 소리, 감촉들도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현실이든 가상세계든 어차피 마음의 분별 작용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에 어떤 가치를 담아낼 것인가'라는 질문"이라고 밝혔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마음이 투사된 것이고 오직 분별일 뿐"이라고 인식하는 불교는 '메타버스'라는 진보된 디지털 기술에 큰 거부감이 없다. 도리어 적극적인 활용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불교계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포교프로그램들을 개발해왔다.

대표적인 곳이 서산 보원사다. 서산 보원사는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를 이용해 보원사지를 복원하는 공모전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교구본사들도 메타버스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자체적으로 메타버스 명상 플랫폼을 개발해 2022년 8월 12일 열린 강원도 세계청소년명상주간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그해 10월 8일 개막한 오대산 문화축전에서는 학생 백일장 등의 행사와 월정사 화엄선문화연구소 제1회 국제명상세미나를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월정사의 메타버스 명상 플랫폼은 뇌파측정기와 HMD(머리 착용 디스플레이)를 착용하고 요가, 명상들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했다.

의성 고운사(주지 등운 스님)는 지난해 3월 제작발표회를 열고 '고운사 메타버스' 구축 사업에 들어갔다. '고운사 메타버스'는 3D 가상공간을 배경으로 다양한 가상현실(AR)·증강현실(VR) 체험이 가능한 콘텐츠가 개발된다. 누구나 고운사 3차원 공간에 들어오면 템플스테이·사찰음식·발우공양·108배·탑돌이 등 불교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이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작 이후 변화하는 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유지·보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잘파세대 출가자가 들어온다면

불교가 준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승가교육도 있다. '디지털 온리'의 특성을 가진 현재의 잘파세대가 출가할 경우 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도 한국불교의 숙제다.

실제 보일 스님은 2021년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AI시대의 승가교육'을 통해 미래시대에 필요한 승가상과 이를 양성하기 위한 승가교육 방향성을 살폈다. 보일 스님은 AI시대 승가상으로 △다양한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통합적 시각을 지닌 사람 △종교·학문·예술 등 여러 영역과 교류가 가능한 사람 △다양한 일상 문제를 성찰하고 나름의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을 꼽았다.

스님은 "4차 산업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앞으로는 한문 경전 번역과 독해도 인공지능이 대신할지 모른다"면서 "막대한 데이터를 축적한 플랫폼이 다수에게 접근 가능해지면서 관건은 많은 지식을 쌓느냐가 아니라 그 지식,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가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앞으로는 많은 경전을 외우고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많은 경전을 언제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지 아는 사람이 요구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보일 스님은 AI시대 승가교육 변화의 키워드로 △커리큘럼에서 프로그램으로 △교실에서 현장으로 △받는 수업에서 하는 수업으로 등을 꼽았다.

보일 스님은 "승가교육의 지향점은 불교'에 대한' 교육이라기보다 불교'적인' 교육"이라며 "수행공동체의 수업은 실제 수행과 중생구제의 이념을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제 세상은 열린 사고와 폭 넓은 사상을 갖고, 여러 가지 불교 개념들을 다양한 상황들에 적용할 수 있는 수행자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정 염불수행도량 현지사
갑진년 새해에는 탑돌이 영험도량 현지사에서
탑돌이하고 소원성취 하시옵소서!
종조 광명 만덕 큰스님
회주 자재 만현 큰스님
장로원 의장 성광 교정원장 일도
감찰원장 범행 포교원장 행원
교육원장 대원 불교대학장 일도
춘천본사 주지 대원 제주제2본산 주지 범행
부산분원 주지 보문 대전분원 주지 행원
고성분원 주지 성범 대구분원 주지 정대
김해분원 주지 성광 일본분원 주지 성도
현지사 사부대중 일동
홈페이지 http://hyonjisa.co.kr
• 춘천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 033-243-1787
• 제2본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 064-783-5355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 15층, B2층 ☎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7 ☎ 033-681-5515
• 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29길 20 ☎ 053-654-5557
• 김해분원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739-157 ☎ 055-327-0055
• 일본분원 일본 야마구찌켄 이와쿠니시 오죠마치 3-3-10 ☎ 81-827-31-1611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서울 남산 일원에서 열린 생명나눔 걷기 명상 축제서 참가학생들이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하고 있다.

Zalpha Generation

존중하고 스며들게…한가함을 제공하라

잘파 키워드 - 자중감·약한 연결·의식적 게으름

가정서 사랑받고 자란 세대
꼰대질에는 에어팟으로 차단
약한 연결에는 강한 아이들
커뮤니티 모임으로 불교 접근

몸 · 마음 건강 중시하는 세대
코로나 이후 美명상산업 강세
멍때리기 인기…불교도 활용을

신중일 기자 moltp79@hyunbul.com

잘파세대를 설명하는 서적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특징은 '자중감'이다. 아이들이 없는 시대에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잘파세대들은 재정적인 부분과 더불어 충분한 애정을 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가족과의 유대감이 유난히 높은 편이다.

또한 X세대 맞벌이 부모를 둔 잘파세대들은 조부모나 외조부모 아래서 자랐기 때문에 노인들과 유대 관계가 나쁘지 않는 특징도 가진다. 앞선 세대인 X세대와 밀레니엄 세대가 노인과의 갈등이 있었다면, 잘파세대들은 이런 세대 갈등을 희석시킬 수 있는 세대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자중감이 높은 잘파세대들은 그 표현을 '크리에이터' 감각으로 나타낸다. 릴스, 틱톡 등에는 댄스 챌린지에 도전하는 잘파세대의 숏폼 영상들이 넘쳐난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슬릭백 챌린지가 이를 보여준다.

〈이제는 잘파세대〉의 저자 이시한 성신여대 겸임교수는 "자중감이 있는 잘파세대는 기회가 오면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인기 많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불교적으로 살펴보면 이 같은 잘파세대의 자중감을 포교의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열린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워크숍에서 제시된 상월결사 캐릭터·엠블럼을 비롯해 웹툰, 메타버스 등 콘텐츠 공모전들은 잘파세대의 자중감과 성취감을 고양할 수 있는 포교 방편이다.

더불어 자중감이 강한 만큼 이에 대한 주의점도 필요하다. 이는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이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워크숍에 강조한 '대학생 전법의 주의점'을 상기할 필요하가 있다. 당시 이 회장은 "법회에서 대학생들에게 '이것밖에 안 왔어'라고 말하는 스님이 계신다. 자존감을 중시하는 현재 대학생들은 자신을 숫자로 평가절하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또한 '나는 말할테니 너는 들어라'식의 꼰대 설법은 에어팟 노이즈 캔슬링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생 법회는 수업이 아니다. 학생들은 휴학, 군입대 등 신변이 변화무쌍하다. 내일도 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대학생 전법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잘파세대는 약한 연결에 강한 면모를 보여준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약한 연결의 커뮤니티 모임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독서나 와인, 골프, 독서, 명상 등의 커뮤니티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편이다. 심지어는 이 같은 커뮤니티 모임은 비즈니스 모델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유대와 공감은 윤리적 소비, 소위 가치로도 이어진다. 디지털 세계를 통해 생각의 단위를 세계로 확장할 수 있던 잘파세대에게 기후 위기는 남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다. 비건 제품을 사용하고 비건에 동참하는 것은 자신이 지향하는 선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기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건강과 함께 지구환경을 함께 지키는 '플로깅(쓰레기 주우며 걷기)'을 활용하는 것도 전법의 방법이다. 아직까지 불교계에서는 수행의 일환으로 걷기명상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친환경과 건강에 관심이 많고, 가치소비를 하는 잘파세대에게 사회기여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것도 잘파세대의 취향과 연결된다. 최근 한국사회에 분 '제로 슈거 열풍'이 이를 반증한다. 실제 제로 슈거 탄산음료는 물론이고 제로 슈거 스낵, 제로 슈거 소주도 등장했고, 불티나게 팔렸다.

이들은 마음 건강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다. 실제 명상 앱인 캄과 헤드스페이스는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캄의 경우 2021년 기준 다운로드 1억회, 300만명 이상의 서브스크리셥 멤버를 보유 중이다. 2022년 매출은 3억3000만 달러(한화 4390억원)를 달성했고, 이는 2021년 대비 66% 증가한 수치다.

헤드스페이스 앱은 2021년 기준 6500만회 다운로드 됐고, 매출은 2021년 기준 2억2000만달러(한화 2930억원)을 이뤘다.

마음수련과 명상은 게임의 영역으로 확장 중이다. 실제 '마음챙김 게이밍'을 표방하며 2022년 탄생한 '딥웰'은 의사와 게임개발자가 참여한 스타트업으로 정신 건강을 위한 치유와 셀프케어 게임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마음과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함께 나타난 것이 '멍때리기 대회'와 같은 '의식적 게으름'이다. 황지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교수는 "아무 생각없이 무언가 하염없이 바라보는 불멍이나 물멍에 열광하는 것이나 조용한 곳을 찾아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캠핑이 붐을 이루는 것도 의식적인 게으름을 원하는 마음이 반영돼 있다"며 "불멍, 물멍 등 의식적 게으름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교의 경우 '의식적 게으름'을 제공함으로써 잘파세대를 불교로 이끌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템플스테이다. 템플스테이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명상을 비롯해 요가, 차담 등 다양하다. 심지어는 불멍이 프로그램인 사찰도 적지 않다.

다만, 잘파세대들에게 템플스테이를 통해 허들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를 신앙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한국불교의 숙제이기도 하다.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단법인 불교 정중종

일죽 망이산성 연 등 사

주지 도 심

- 사회부장
- 안성경찰서 경승회 감사
- 안성불교사암연합회 부회장
- (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일붕문도중앙회 수석부회장
-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
- 총동문회 여성수석부회장
- 최고위과정 생활풍수CEO총동문회 회장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48-37(화봉리 69-1)
TEL (031)674-5765 | FAX (031)674-5769 | Mobile. 010-3714-9351

30 창간 30주년
1994~2024

2024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자비 사랑 행복 나눔을 실천하는 사찰

백양산 참회기도성취도량
견 강 암

주지 향공

(사)부산정각회, 금강회, 보현회, 관음회, 다도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934번길 52-35(모라동)
(모라벽산아파트 107동 뒤편) Tel 051)361-8511 Fax 051)317-7665

기후 변화와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즐거운 불편운동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종이컵, 플라스틱컵 대신 텀블러 사용
물티슈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비닐사용 최대한 줄이기
비닐 봉지 대신 방수망이나
장바구니 사용 생활화 하기

빈그릇 운동 실천하기
발우 공양식으로
음식물 덜어 먹고 남기지 않기

미소원에서도 일회용품 및 비닐 사용 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오실 때 장바구니 꼭 들고 오세요.
드릴 것 없으면 "행복"을
듬뿍 담아 드릴께요^^

사)미소원은 건강한 지구 만들기
부산불교환경연대와 실천을 함께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오 어 사

주지 성 주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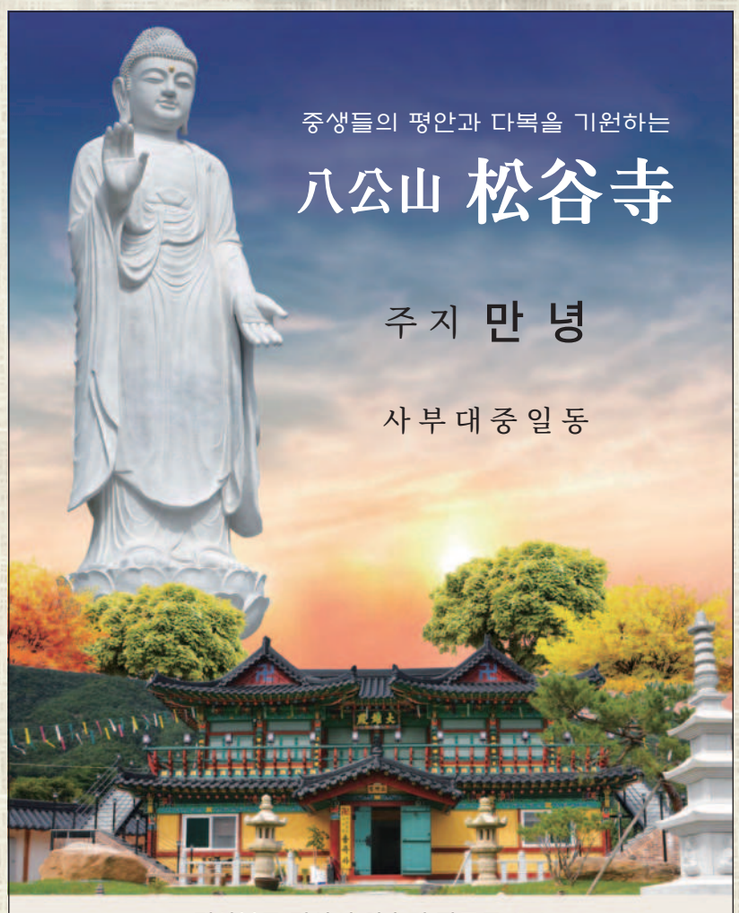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로 1
전화 054)292-2083 팩스 054)291-4190

중생들의 평안과 다복을 기원하는
八公山 松谷寺

주지 만 녕

사부대중일동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팔공로 209
전화 053)657-0108 / 휴대전화 010-3390-2145
https://blog.naver.com/sm20815

대한불교조계종

해 운 정 사

부설 청명노인복지센터

주지 청 명
센터장

육재일 법회안내
(음) 1월 하루 (음) 15일 보름
(음) 7일 아라한재일 (음) 18일 지장재일
(음) 8일 약사재일 (음) 24일 관음재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2길 35
전화 053)621-6237 팩스 053)621-5933
cjdaud6237@naver.com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며 함께하는 불교'
안동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도 륜

회원사찰 일동



경북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전화 054)853-4185

큰 사람을 키우는 민족사학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전법도량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중·고등학교

이 사 장 운봉 법광
능인중학교장 정 영 채
능인고등학교장 홍 은 표
교 법 사 문수·원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7 (지산동800)
전화 053-232-9175 / 053-232-9104 / 053-235-4414
법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한불교조계종

한 마 음 선 원
포 항 지 원

지원장 혜 문

사부대중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우현동)
전화 054)232-3163 팩스 054)241-3503

30 창간 30주년
1994~2024

2024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금정구사암연합회

고 문 정오스님(범어사) 춘광스님(광명사) 계전스님(국청사) 월인스님(승가종 종정) 동원스님(연화종 종정)
자문위원 조연스님(법연원 회주)
회 장 고담스님(천불정사)
수석부회장 지홍스님(보광정사)
상임부회장 홍일스님(법전사)
부 회 장 법일스님(법장사)
사무총장 동암스님(금용사)
감 사 운곡스님(관음사)
기획국장 보산스님(안국선원)
문화국장 지광스님(대운사)
사회국장 혜공스님(구룡사)
포교국장 현수스님(홍법사)
재무국장 박 분 순(달오사)
사서국장 심일스님(천불정사)
회 원 승공스님(칠보사) 진여스님(다보사) 청명스님(분다사) 지훈스님(해동정사)

금정구 사암연합회 회원 사찰 주지 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30-9
천불정사 內 | Tel 051)583-9233

"수행이 곧 포교, 포교가 곧 수행"
포교현장을 찾아가는 포교사
전법의 선원을 실천하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 장 송재린
자문위원 최덕수 심재덕 강수대 이승표 정분남
감 사 강재실 이수임
부 단 장 서영우 이양희 임한규 주태돈
사무국장 강태산
총괄팀장 최정자 황용대 조봉례 김영신 천경덕 김진희 윤영준 외 포교사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 501호
전화 051) 633-3011, 3015 팩스 051) 633-3012
www.pogyosadan.org
http://cafe.daum.net/bgpogyosadan

대한불교조계종
승보종찰조계총림 송광사 부산분원
관 음 사

持戒念佛萬日修行道場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다음카페 cafe.daum.net/gwanumsa1

부산시 사하구 제석로 79번길 33 관음사]
(당리동39-2)
전화 051)294-9300

대한불교조계종
해운대 장산
대 원 각 사

주 지 안 도
신도회장 정재원
수석부회장 이복덕
다 도 김미규
불 무 도 박성우

대중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로 427-291(좌동 1132번지)
전화 051)701-8827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근본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감 로 사

조실 현담 의현 대종사
회주 수봉 세민 대종사
주지 월천 혜총 대종사

부주지 경성
총 무 경원 교 무 경무
재 무 경증 사 회 경동
포 교 경소 복 지 경지
연 수 경상 교 육 경증
군포교 경제, 경진, 법설
해외포교 경적, 경본
사 서 경여

감로사 신도 일동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432(전포동)
전화 051)809-0926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사

회주 법 흥
주지 지 원

신도회장 박화자 외 신도일동

사회복지법인문수복지재단
사단법인 위드아시아
용호 종합사회복지관
용호 어린이집
심청이 문수 노인 복지센터
문현 노인 복지관
못골 다함께돌봄센터

부산시 남구 홍곡로336번길 41 (용당동)
전화 051)624-3754, 7848
팩스 051)623-9253

지장기도도량
한국불교태고종
천 불 정 사

회 주 선 묵 고 담
주 지 법 경
누림주간보호센터장 조민호(범성)
원 주 조정자

신도회회장 이상봉
신도회부회장 백현일 장문정
신도회총무 남현주
거사림회장 이경철
고담나누미 회장 신희숙

사부대중 신도일동
누림주간보호센터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230-9 (장전동)
전화 051)583-9233 팩스 051)583-6362
누림주간보호센터 051)516-2333

사회봉사단체
부산불교 보현회 보 현 정 사

회 장 안성이
재 무 조영희
총 무 전영자 윤점자 최본자성
감 사 배종환
홍보부장 유기선
청년회회장 전진호

회 원 일 동

부산시 동구 좌천동 532-1
전화 051)636-4531

대한불교조계종
광 명 사

주지 무 아

신 도 일 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창로14번길 46
전화 051)646-0843

함께하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 산하시설 및 운영사업 -

공창종합사회복지관
공덕향재가복지센터
북구아이돌봄지원사업

온정의 마음을 전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후원 : 부산은행 255-01-000716-4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68 상가동 204호 (금곡동)
Tel. 051)363-2063 Fax. 051)363-2067
http://www.gongchang.or.kr

30 창간 30주년 1994~2024

2024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부산교수불자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성불합시다.

"대학생불자활성화 108후원"모집

불교인구 감소와 탈종교 시대에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현재이자 미래인 대학교 불자동아리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08후원회'에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부산교수불자연합회 회원일동 합장

자동이체 : 1만원/월
계좌번호 : 농협 301-0169-1519-21
(예금주 : 부산교수불자연합회)
문의 : 010-3544-7500 (회장 권성열 교수)

불교TV 염불공양회

고 문	강명자 김순이
회 장	하정선
수석부회장	정승자
특별임원	임춘지
부 회 장	윤미자 안상희
감 사	강행순 강지원
재 무	윤정희
총 무	송순애
팀 장	최말순 김금옥 박선자 김숙희



회 원 일 동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102번길 16-10
동양빌딩 7층(범일동) | 전화 051)633-4020

보건복지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본 부 장 심산
부본부장 자인, 목종, 해암, 이동권, 이승표, 이욱태
감 사 최상곤, 이영숙
총무이사 성문, 권인자
기획이사 마나, 최성은
재무이사 성관, 김법영
홍보이사 배종권
운영이사 도명, 대각, 법경(광명사), 법경(천불정사), 보련, 성화, 용암, 용하, 주석, 박경례, 복춘희, 서미단, 이경순, 이원규

〈주요사업〉
장기기증 희망등록사업
환자치료비 지원사업
자살예방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63번길 1,2층
(수정동,은정빌딩)
☎ 051-853-0429 Fax 051-853-0439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사

주지 운암 현엽

(재)청미단 운암장학회
(사)청미단 생활문화 학림원
마에뜨리아 불교대학
포교사반(1년) · 입문자반(3개월)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 29 (명지동)
전화 051)271-2774 팩스 051)271-0936

준제보살기도도량

연종학림

명상센터

바즈라야나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15 3층
전화 051)404-5037

(사)부산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총 재 정오스님
부 총 재 무관스님 원타스님
사무총장 도림스님
협 회 장 백명숙
사무처장 정경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문화로27, 1206호
전화 051)513-4306 Fax 051)513-4307

한국불교조계종

황령산 **옥 천 암**

주 지 대각 금산
원 주 월하 도진
연등회 회장 김선숙
보현회 회장 박영자
지장회 회장 김감애
관음회 회장 배기매

사부대중 일 동

부산시 남구 황령대로 90번 나길 23(문현동)
전화 051)634-5689

고려시대 석기왕자 출가사찰

만 덕 사

(부산지방문화재3호 만덕사지)

주지 금산 박혜명

만덕사 신도일동

사단법인 현대불교 금정원

부산광역시 북구 구만덕로 63-13
전화 051)334-3009

대한불교조계종

가 야 사

주지 정 현

✽ 가야사 다도회 모집
(매주 월요일 10시~12시)
: 차의 세계와 문화, 다법과 예절(다례), 차명상과 참선
✽ 금강경 수업반 모집
(매주 1회 19시~21시)
문의 : 051)893-0428

〈 후원기관 〉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보현어린이집,
부산진시니어클럽, 연제시니어클럽

※ 만60세 어르신으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이나 어르신들의 채용을 원하는 단체는 언제든지 문의 전화 부탁드립니다.

부산진시니어클럽 ☎ 051) 893-9060
연제시니어클럽 ☎ 051) 851-2190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원

진여원불교대학
(사)진여사회복지원

회 주 혜 총
원 장 남보타월
봉사단장 정보덕심

신도 일동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664(구포2동) 3-4층
전화 051)338-1008, 337-1080

불국토 경주 남산에 오르다

❶ 경주 남산, 얼마나 아시나요

▶ **무진 스님**은 2003년 충북 제천시 옥천사에서 오명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2006년 직지사에서 영허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2011년 통도사에서 고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서양철학, 한국사상사, 불교학, 문화재학 전공했으며, 불교문화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 화엄사 성보박물관 부관장을 역임했다. 경기 광주 빛고운절과 제천 옥천사 회주로 포교에도 힘쓰고 있다.



경주 남산 곳곳은 부처님 계신 '금당'

혹시 아실까 싶다. 전 세계 유일한 산 전체가 불상이고 불탑이고 절터였던 경주 남산의 신비로움을. 산 전체에 하나하나 셀 수 없을 만큼 곳곳의 바위마다 돌을 다듬어 불상을 모시고 불탑을 세운 곳은 전 세계 불교국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경주 남산은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를 대표하는 산 전체가 불국정토인 사찰이다. 경주 남산의 입구 사방팔방이 일주문이고 구릉지가 사천왕문이며 불상과 마애불 앞은 해탈문이다. 무엇보다 경주 남산 모든 곳은 부처님이 계신 금당이다. 지금부터 신라인이 조성한 신비롭고 경이로운 경주 남산의 부처님 세상 불국정토의 품에 안겨보도록 하겠다.



경주의 왕성인 반월성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남천을 지나면 바로 경주 남산을 만난다.

참고로 남산은 한 나라에 단 한 곳만 존재한다. 어느 나라건 간에 수도 왕성의 바로 밑에 있는 산만이 남산이란 이름을 얻기 때문이다. 경주 남산은 2000년 전부터 신라인들이 자리 잡았던 도성과 왕성을 향해 남쪽에서 길게 뻗어 있다.

경주 남산은 작은 산이다. 바위산이지만 그리 험하지 않고 멀리서 보면 아담하다. 남북으로 8㎞ 정도의 길이이고 동서 4㎞로 동서가 짧다. 높이도 그리 높지 않다. 동서로 등산할 예정으로 마음먹고 오르면 반나절이면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이다. 경주 남산은 두 개의 중심 봉우리를 갖고 있는데 북쪽의 금오산은 높이가 468m이고 남쪽의 고위산은 높이가 494m이다. 면적은 약 30㎢다. 남산의 모습은 위에서 보면 부처님 시무외인의 수인인 오른손 손바닥을 펼친 형상인 타원형이다.

경주 남산에는 64개의 계곡이 있다. 절터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중 60개의 계곡을 따라 295곳에 절터가 있다. 옛날에는 먹을 물이 필요하기에 계곡의 물이 흐르는 곳을 따라 절을 조성하기에 계곡을 따라 절터가 보이는 것이다. 옛날에는 골짜기가 남산을 오르내리는 길의 역할을 했을 것이니 남산에서 골짜기를 따라 절과 불상과 석탑이 모셔진 것은 당연할 것이다.

산악의 비탈면의 평평한 곳마다 전각을 짓거나 했었을 것이기에 모여 있는 곳을 하나로 묶으면 150여 곳의 절터가 확인된다. '사단법인 경주 남산연구소'에서 편집 발간한 〈경주 남산〉을 보면 불상은 130여 구가 있으며 100여기의 불탑과 22기의 석등 그리고 19점의 연화대가 있다. 또한 왕릉도 13곳이 있으며 산성은 4곳이 있다.

전체의 문화유적을 보면 국보 1점, 보물 14점, 사적 15개소 등이 있다. 무엇보다 2000년 12월에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돼 그 가치가 전 세계에 알려졌다. 경주 남산의 국립공원 지정은 1968년이며 사적으로 1985년 지정된 이후 국가 차원의 관리와 보존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무엇보다 뜻깊은 일은 2000년에 들어서며 경주 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전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왕성 바로 밑 산만이 '남산' 칭호
130여 불상, 100여 불탑 등 상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돼
20년 전 용장사지 답사하며 감화
2007년 열암곡 마애불 발견 '기적'
마애불 바로세우기는 민족의 숙제

20여 년 전, 경주 남산을 오른 적이 있다. 신라 답사의 기회가 있었는데 경주 남산이 포함돼 있었다. 신라 문화유적을 답사하는 기회인데 '왜 산을 타지' 싶었다. 서남산에서 오르는 코스였는데 처음 들어서자마자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이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삼존불상이 있구나 싶었다. 그런데 조금 오르니 부처님 머리가 사라진 '냉곡 석조여래좌상'은 '아 이것이 뭐지'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들었다. 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산의 입구에 1.6m 높이의 돌을 깎아 만들 불상이 있나 싶었던 것이다. 그것도 50여 년 전에 앞 계곡에서 발견돼 지금의 자리에 모신 것이라고 전한다. '냉곡 석조여래좌상' 옆으로 난 돌계단을 오르면 어여쁜 관세음보살님이 반겨주신다.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입상'이다. 그런데 답사를 이끌고 해설해주시는 분이 입술에 빨강의 안료가 묻어 있다고 했다. 신라시대엔 야외의 불상에 칠을 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조금만 오르면 만나는 '삼릉계곡 선각육존불상'은 선으로 불상을 표현한 마애불상인데 신라시대엔 모두 채색이 돼 있었다고 한다. 오호라. 신라시대엔 야외의 바위를 깎아 만든 불상에는 채색을 했었다고! 얼마나 화려했을까 상상이 안 됐다. 이때부터 신라의 불교에 빠지기 시작한 것 같다. 신라 불교 뿐만이 아니라 경주 남산에 나 자신을 매료시킨 곳이 있다. 바로 금오산 정산 부근 해발 400m에 있는 용장사 터의 삼층석탑과 삼륜으로 좌대를 만든 석조여래좌상이다.

신라 불교의 위대함을 용장사 터의 삼층석탑과 석조불상으로 보았던 것이다. 보통 신라시대의 삼층석탑은 2층의 기단 위에 삼층의 몸돌과 지붕돌을 올린다. 그런데 용장사 터의 삼층석탑은 남산을 1층 기단으로 놓고 서 있었다. 경주 남산이 용장사 터 삼층석탑이었던 것이다. 또한 삼층석탑에서 바라본 풍경은 일품이었다. 자연이 곧 석탑이었고 석탑이 곧 자연이었다.

이것만이 아니다. 삼륜의 용장사 터 석조불상은 세상을 굽어보고 있었다. 경주 남산을 깔고 앉아 계신 부처님께서 중생을 굽어 살펴주고 계셨다. 경주 남산이 나의 마음에 깃발을 꽂았던 시간이었다. 봉우리에 우뚝 솟은 바위는 신라와 경주 시내를 굽어보고 있기에 봉우리에 우뚝 속은 바위에 불상과 불탑을 모셨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신라시대 부처님께 대자대비의 가피로 신라와 민중을 지켜주기를 기원한 신심과 기원의 정신이 구현된 것임을 알려준다. 지금도 남산의 바위에는 통일신라 시절 바위를 자르던 흔적들이 무수히 남아있다.

이후 매년 몇 번이고 경주 남산을 오르내리며 불국정토의 세상을 향해 깃발을 흩날리고 다니던 2007년이었다. 열암곡에서 신라시대 불상의 모습을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던 불상이 발견된 것이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우연히 열암곡에서 2005년 열암곡 석불좌상의 불두가 발견됐다. 이후 2007년 보수 복원작업이 끝난 석불좌상을 모시고 있었다. 이때 사지의 출입구를 찾던 중 엎드려 있는 열암곡 마애불입상을 원형 그대로 발견한 것이다. 우연이란 이름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2024년 지금까지 부처님은 땅을 향해 35도의 경사로 거꾸로 누워 계신다. 무엇보다 부처님이 나투셨는데 복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반대의 목소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순례하고 참배해야 할 경주 남산의 부처님인 성보 문화재 열암곡 마애석불입상을 일반 문화재의 보존이란 시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주 남산의 불보살상과 불교 유적은 문화재로서 아름다움의 대상이 아닌 불교 신앙의 결정체이다. 〈삼국유사〉를 보면 신라시대 서기 800년 중반 경주에는 약 100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 이러한 신라의 수도 경주의 남산은 부처님 세상 불국정토가 이뤄져 있었다.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인 이후 600년대부터 800년 후반까지 300여 년간 신라의 사람들은 곳곳에 처처의 바위에 부처님을 모셨다. 곳곳에 처처의 봉우리에 부처님의 몸인 불탑을 모셨다. 이 시기 신라의 사부대중은 경주 남산의 부처님 세상 불국정토를 이루었으며 참배를 하며 지극한 기원을 올렸을 것이다.

2024년 열암곡에는 부처님이 누워계신다. 육중한 몸 어디 하나 상하지 않고 조성된 그 모습 그대로 누워계신다. 신라시대 조성된 그 모습 그대로 누워서 오늘 우리 불자 모두가 부처님 세상 불국정토를 일으켜 세우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열암곡 부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이유는 열암곡 부처님이 일어나실 때 경주 남산의 부처님 세상 불국정토가 일어나고 한국불교 신앙이 다시 일어날 것임을 몸소 알려주기 위함은 아닐까.

과연 우리는 경주 남산의 불국토 세상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것을 안다면 누워계신 열암곡 부처님을 일으켜 세우는 것에 누구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지금은 바로 서 계실 것이다. 한번 생각하고 살펴보자. 모든 한국의 불자들이 지키고 가꿔야 할 경주 남산의 부처님 세상을 무관심으로 버려두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 반성하며 연재를 시작한다.

〈경기 광주 빛고운절 회주〉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불교조계종 현존 最古사찰 지장도량

삼랑성 傳燈寺

조실 정암 세연

회주 학농 장윤 주지 여암



정기 법회

초하루 법회 지장재일
– 합동천도재 및 만년위패 봉안식
일요법회, 어린이법회

전등사 유튜브 '전등사TV' 운영

구독과 알림설정으로 어디서든
온라인 법회에 동참이 가능합니다.

불교학당, 불교대학, 합창단 모십니다.

마음의 등불 전등사 대한불교조계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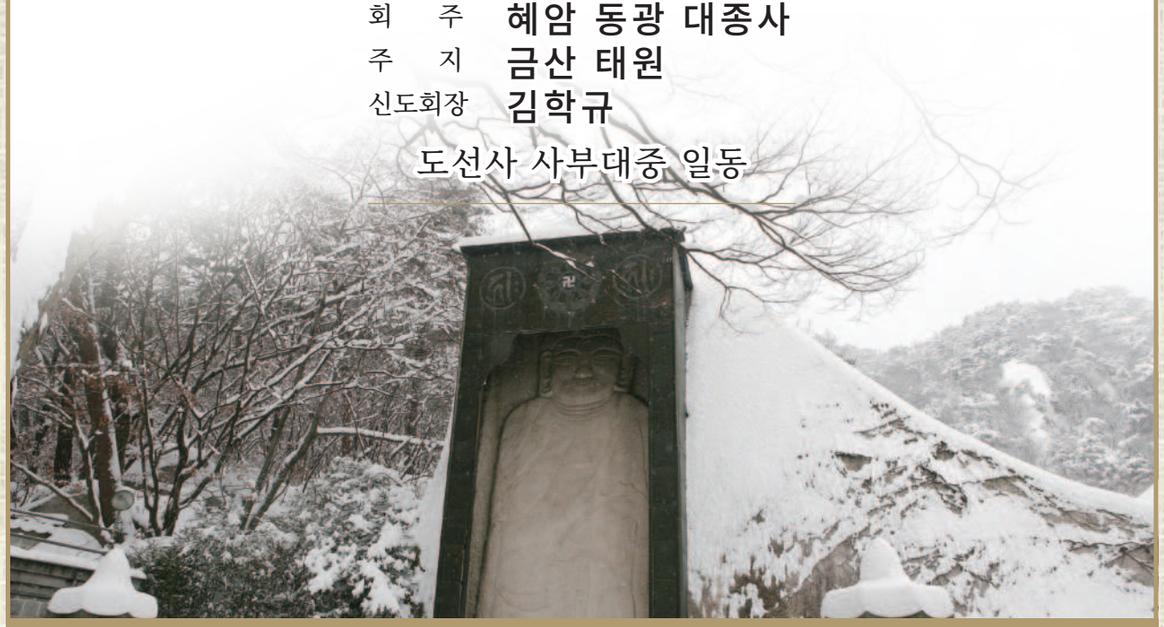
주소: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 홈페이지: jeondeungsa.org
이메일: 9370125@daum.net TEL: 032)937-0125 FAX:032)232-5450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성찰과 치유의 수행기도도량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길 바랍니다

회 주 혜암 동광 대종사
주 지 금산 태원
신도회장 김학규

도선사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강북구 도선사길278 (우 01002) 전화 02-993-3161~3

30 창간 30주년
1994~2024

2024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부산광역시
남구불교연합회

회 장 **회중 지원** 문수사
수석부회장 **원순** 동명불원
부 회 장 **능후** 대연정사
감 사 **대 각** 옥천암
사무총장 **호 명** 무문홍법사
사무부총장 **혜 광** 대연사
사 무 국 장 **대혜법사**

남구불교연합회 회원 사찰 주지 일동
남부경찰서 경승 일동

남구불교연합회 신도회
신도회 회장 **박화자**
수석부회장 **광혜 성재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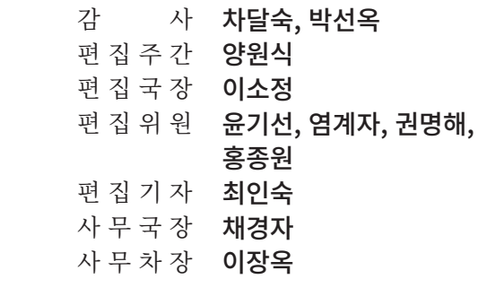
부산시 남구 홍곡로 336번길 41 (용당동)
문수사內 전화 051)623-9253

부산불교복지기관의 상호교류와
불교사회복지 역량강화에
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사)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

Since 1999

회장(대표이사) **정 여**
수석부회장 **범 산**
상임이사 **원 광**
이 사 **명현, 성문, 심산, 정오, 보혜, 김수현**
감 사 **박용하, 이륭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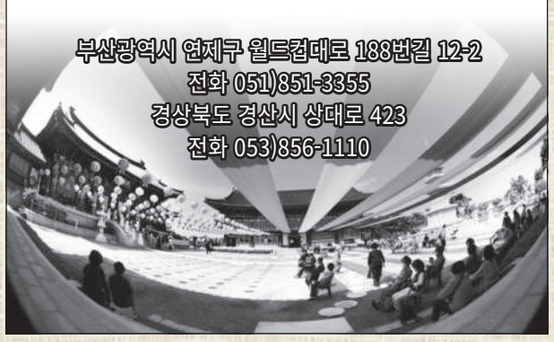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불교회관 3층
전화 051)243-3531 http://www.bswia.org

대한불교조계종
여래선원
경산 **삼성사**

주지 **평중효산**
사부대중 합장

· 여래불교대학 : 매주(수) 주간10시 야간 오후7시
· 경전반 : 매주(화) 주간 10시 야간 오후7시
금요천주관음기도 오후7시
금요자비참법기도 오전10시
· 매월 첫째주 목, 금 다라니기도 오후7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88번길 12-2
전화 051)851-3355
경상북도 경산시 상대로 423
전화 053)856-1110

대한불교조계종
발 원 사

주지 **호 법**

신도회장 **김해림**
화엄회회장 **오부상**
순례단장 **김상욱**
다도회회장 **윤선영**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310-78
Tel 051)405-2326

맑고 향기로움이 머무는
백옥 부처님 천불도량
봉화산 길상사

주지 **자 인**
신도회장 **용담 최금식**

연등회 회원일동
관음회 회원일동
지장회 회원일동
신 도 일 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촌소류지길163-4(송정동)
전화 051)973-0408, 5224
FAX 051)973-3076

부산광역시
부산불교문인협회

실상문학상운영위원장 **혜총 대종사**

회 장 **차정연**
수석부회장 **이석래**
부 회 장 **명은애, 박숙자, 박혜숙, 서경남, 손순이, 양은순, 윤기선, 윤유점, 우아지, 이순선, 이초우. 최선희, 보혜스님**
감 사 **차달숙, 박선옥**
편집주간 **양원식**
편집국장 **이소정**
편집위원 **윤기선, 염계자, 권명해, 홍종원**
편집기자 **최인숙**
사무국장 **채경자**
사무차장 **이장옥**
재무국장 **이형주**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717호
☎ 051)816-4181
http://cafe.daum.net/bulgoy

락 서 암



주지 **수 월**

락서암 신도 일동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227-3
전화 051)254-0820

범내산 관음사

주지 **천웅 도광**

사부대중 일동
매주 일요일 국수 무료급식

Tel 051) 634-2040
H.P 010-8339-5525

남운정사

주지 **민 지 효**

한국불교홍익범패단
단장 **민지효**
회원 일동
천도재, 사십구재, 점안, 이운, 영산재, 수륙재, 생전예수재

부산 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83번길 65
H.P 010-4466-3575

동국한의원

부처님의 가피로
건강과 행복 가득한
한 해 되세요

동국한의원 직원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 56 한나타워 209호
전화 051)413-1155

30 창간 30주년
1994~2024

2024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회 주 지산
주 지 징암
신도일동

관운사 다음카페
YouTube 지금으로 가는 징검다리TV

관운사 가야 복지센터 Tel (054)933-0808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38
전화 054)931-7777 팩스 054)931-3000
www.gwanusa.org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 덕 사
주지 운 성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전화 053)763-0068

대한불교조계종
월 인 사
회주 포전 혜관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로 85길 52
전화 053)767-3971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는
신행 기도 도량
대 원 사
주지 현 정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09길 41(학정동)
전화 053)327-0408

대한불교조계종
적멸보궁 비슬산 대견사
주지 법 희

일제 강제 폐사 100년 만에 중창 불사한 도량
국운융성과 민족 통일을 염원하는 대도량
(금,토 철야 정진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일연선사길 177
전화 053)746-0020

대한불교조계종
대 전 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226
전화 054)873-2908 팩스 054)874-9137

대한불교조계종
불 광 사 경북불교대학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
학 장 운곡 돈관
주 지 지안

www.gbbc.or.kr
(우리나라 두꺼비 최대서식지)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전화 053)792-1353, 1181 팩스 053)791-4951

대한불교조계종
보 리 사 보리불교대학
학 장 증 악
사부대중일동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신묘장군대다라니독송법회(문화강좌안내)
선체조 / 다도 / 어린이 천자문 교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전화 053)522-7611 팩스 053)522-7612

대한불교조계종
원 효 암
'기도와 수행의 천년고찰'
주 지 활 안
사부대중 일동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386-73
전화 053)852-0963

高靈瓦 Goryeong Rooftile Making Tile Indonesia



(주)고령기와가
불교 건축문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주)고령기와는 국내 1위
한식형 그을림기와 전문업체로서
지난 60년간 국내 주요 사찰을 비롯해
궁궐 및 각종 문화재 복원사업과
그 외 주요 건물에
기와를 생산, 공급해 왔습니다

(주)고령기와
Goryeong Rooftile Co., Ltd.
www.rooftile.co.kr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00-1번지
전화 054)954-8008(代) 팩스 054)954-5335

30 창간 30주년
1994~2024

2024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천사

주지 **선지**

『부처님 진신사리 모신 적멸보궁』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아양교옆)
전화 053)941-3503, 053)953-4481

대한불교용화법원미륵종
불종사

종정 **보원 현진**

사부대중일동

경상북도 경산시 남방1길 5-6 (남방동)
전화 053)802-4043

대한불교조계종
부처님진신사리 모신 적멸보궁
비슬산 용연사

주지 **능도**

사부대중일동

포교원 인정 용연사
불교대학 운영
법화경 독송 및 관음 염송 법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882
전화 053)616-8846, 팩스 053)616-0408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파계사

관음기도도량
파계사 원통전 보물 제1850호 지정



조실 **청운 도원**

주지 **허주**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741(중대동)
전화 053)984-4550 팩스 053)985-7118
www.pagyesa.org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구교구청

교구청장 **선덕**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584-1
전화 053)255-1450,1411
팩스 053)292-0751
홈페이지 www.jingak.or.kr

유튜브 불교대학 비유디

17만 구독자가 시청하는 생활법문
한국불교대학 or 유튜브불교대학 or 우학스님 검색

불교의 모든 것! 생활법문, 신행상담
수행 – 금강경 독송, 관음정근, 대다라니 등
경전공부 – 육조단경, 금강경 등
◈ 멤버십을 통한 체계적 불교공부 ◈
(월 2,990원 / 교재 무료 제공)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큰절 (053)474-8228

'효' 종찰 기도도량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도량
까치산 길조암

주지 **보현**

「길따라 …
土樂 토락」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3리 471
전화 054)931-5204

우리불교 우리절
용암산 미륵사

주지 **석청송**

전화 053)981-1199, Fax 053)982-0683

팔공산 갓바위 앞산
용주암

주지 **韓成鶴**

사부대중일동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우리 시대의 힘 인재양성
보광명문화장학재단

"당신과 함께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만원 후원금으로
재단 후원회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 신한 : 562-069-8443-4636
대구 : 505-10-201229-4
예 금 주 : (재)보광명문화장학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4길 39(삼덕동2가)
(갤러리 영도다움 3층)
전화 053)710-3700, 053)523-2886
팩스 053)252-2886

괴물 눈에는 괴물만이 보일 뿐



이안의 Media In Buddha

㉚ 영화 〈괴물〉



고레에다 감독의 영화 '괴물'의 한 장면.

흥행 중인 고레에다 감독 '괴물'
온갖 편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
괴물은 누구인지 관객에게 물어
환자 공양 받은 가섭존자처럼
혐오 벗어나면 부처 마음 알아

마음을 헤아려 뜻이 통하는 일은 지극한 일이다. 오죽하면 깨달음을 얻고 수많은 제자들과 대중에게 둘러싸여 있던 부처님 마음을 아는 이가 단 하나였을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대중에게 설법을 하시다가 가만히 꽃을 들어 보이자 아무도 그 뜻을 몰라 갸우뚱할 때 가섭존자만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고 한다. 말이나 글로 전하지 않은 마음이 고스란히 마음으로 통했기에 가섭존자도 말로 답하지 않고 웃음으로 답했다는 이 일화는 마하가섭이 불제자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게 된 근거이기도 하다.

대중에게 꽃을 들어 보인다는 염화시중(拈花示衆)에서 말이 아닌 마음으로 뜻을 전한다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는 말이 생겼다. 그러나 수많은 불제자 가운데 혼자서만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가섭존자도 여성을 불제자로 들이는 일을 두고는 반대를 했다고 하니 다른 이의 마음은 정말로 어렵고 깊은 심연일 것이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짚어보는 영화다. 누가 누구인지 서로 다 아는 지방 도시, 가족이래야 엄마 아니면 아빠 하나만 있는 한부모 가정, 그래서 어디 불이라도 나면 온 지역이 불구경하며 '누가 불 난 자리에 있었다'라는 시시콜콜 뒷말 나누는 그런 동네. 서로서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이런 배경에서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처님 손바닥' 들여다보듯 왜 그랬는지 바로 알 수 있으려나?

세탁소 일을 하며 초등학생 아들 미나토(구로사와 소야)와 둘이 사는 엄마 사오리(안도 사쿠라)는 아들이 뭔가 다르다 싶으면 바로 알아챌 수 있다. 그런데 달라진 모습은 보자마자 알겠는데 왜 그런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마을 어딘가에 불이 나면 모두가 불난 곳이 어딘지 볼 수 있는데 어째서 불이 났는지 알기는 어려운 것처럼.

영화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갑작스런 화재 사고를 내려 보며 장난치는 미나토와 사오리를 보여주며 시작한다. 소방차가 달려가고, 불난 건물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그 건물에 남성들이 드나드는 유흥업소가 있었다는 것도 알려지고, 거기 누가 드나들었다며 수군거리기도 하는데 그 불이 어쩌다 난 건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아들 미나토 운동화 한 짝이 없어졌다거나, 물을 담아준 텀블러에 흙이며 돌조각이 들어있다거나, 갑자기 혼자 마구잡이로 자른 머리카락이 집안에 흩어져 있다거나, 다쳐서 상처가 났는데 선생님 때문에 그랬다거나, 늦은 시간까지 집에 없는데 연락도 없다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수밖에.

사오리가 아이를 찾으러 차를 몰고 나섰다가 외진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보고, 그 길 안쪽 수풀을 헤치고 가니 기찻길 끊어진 막다른 곳에 있는 터널이 나오고, 그 캄캄한 터널 안으로 들어갔더니 '괴물은 누구일까'라고 읊조리고 있는 아들을 찾았을 때, 다그치며 화내기보다 끌어안고 무사한 지부터 챙긴 엄마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싶은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겨우 찾은 아들이 갑자기 달리는 자동차 문을 열고 휙 몸을 던진다면 아이에게 물어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다. 학교에 가봐야 한다.

그런데 담임선생님인 호리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교장부터 지난해 담임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까지 그저 한결같이 '오해를 일으킨 부분이 있다'는 ARS 응대같은 말만 되풀이 한다. 엄마는 학교에 책임을 묻고, 원인을 밝히려 한다. 다른 학생들 이야기도 듣고, 정황을 살피다 보니 선생님이 수상쩍기 그지없는데 되레 호리 선생님은 한부모 가정의 엄마라서 과잉된 태도를 보이는 게 문제라고 맞선다. 사오리는 학교라는 집단에 맞서 마침내 호리 선생님을 공청회에 세우고 공개사과를 받아낸다. 그 일로 호리는 일도 잃고, 연인도 잃고, 화재가 나던 날 그 건물 유흥업소 출입까지 했다고 기사화 되면서 지역에서 설 곳이 없어졌다. 교사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기 쉽지 않지만 확정되면 가차없다. 선생님, 괴물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사오리의 시점일 뿐, 영화는 다시 이 일들이 일어난 상황을 되짚어 보여준다. 아이들은 얼핏 본 모습만으로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무리지어 한 아이를 집요하게 따돌리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 사실을 감추려는 거짓을 지어내기에 스스럼이 없다. 그 학교, 그 아이들이라서가 아니라 아이들 세계가 워낙 그렇다. 선생님을 괴물로 만든 미나토, 네가 괴물이었어?

선생님이 미나토에게 폭력적이었다고 증언했던 요리(히이라기 히나타)는 외톨이다. 병이 있다고 한다.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는 요리는 얌전하고 상냥하지만 또래 사내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자칫 요리 편을 들어주거나 조금이라도 가까이 지내면 위험하다. 병이 옮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괴롭힘을 같이 당해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친구가 생길 줄 몰랐어"라고 감동하는 요리에게 "친구 맞는데, 다른 아이들한테 티내지 마"라고 말하는 미나토는 그런 자신을 이해해주는 요리 앞에서 스스로가 부끄럽고 괴롭다. 그러면서 둘은 서로의 마음을 묻고 답하는 놀이를 한다. '괴물은 누구게?'

둘 사이는 이제 비밀이 된다. 요리에게 병이 있다고 몰아붙이는 요리의 아버지, 요리를 무리지어 괴롭히는 또래들, 그 문제를 덮어두기 바라는 선생님들, 학교에서 문제만 없으면 아무일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 숲속 터널지나 폐차된 기차 안에서 두 아이는 꿈꾼다. 이 세상 말고 다음 생에 환생한다면 그때는 안전하고 평화롭기를.

내한 기자간담회에서 영화에 나오는 어른 가운데 누가 가장 '괴물'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미나토와 요리를 연기한 쿠로카와 소야와 히이라기 히나타는 "현장에 있는 모두가 괴물 같았다. 모두가 내게 자극을 줬고 대단한 괴물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영화를 거친 다음에 이제 괴물은 피해야 할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긍지와 희망을 담는 말이 된 것이다.

가섭존자가 어느 날 탁발을 나갔는데 거지가 가섭에게 음식을 받겠냐고 물었다. 그 거지는 몸에 피고름이 흐르고 있는 나환자였다. 병들고 주린 처지이면서도 보시로 복을 짓기 바라는 거지의 마음을 헤아린 가섭존자는 기꺼이 음식을 받겠노라고 했다. 그러자 거지가 손으로 음식을 집어 가섭의 탁발 그릇에 담다가 썩어 너덜거리던 손가락 한 마디가 떨어져 음식과 함께 담겼다. 그 음식을 받은 가섭은 떨어진 손가락만 집어서 걷어내고서는 공양 받은 음식물을 말끔히 다 먹었다. 혐오의 벽을 넘어섰기 때문에 가섭은 부처님 마음을 헤아려 웃음으로 답했을 것이다.

미나토와 요리는 상대는 보지 못하는 그림을 보고 질문을 던져 답을 맞히는 놀이를 한다. 환생할 날을 기다리지 않고 태풍을 뚫고 서로를 만나 마음을 나누기로 한다. 비바람이 지나가 쑥대밭이 된 세상을 돌아보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아이들 웃음이 곧 염화시중이고, 괴물은 혐오가 아닌 놀이가 된다. 웃음을 이심전심으로 나누는 관객일 수 있어서 고맙고 행복하다.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1. '종교'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종교는 자력종교와 타력종교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서양의 'religion'이라는 말을 일본 학자들이 '종교'라는 용어로 번역하였다.
③ '종교'라는 용어는 〈성경(聖經:바이블)〉에 나오는 구절에서 인용하여 번역하였다.
④ 모든 세계종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때는 100여 년에 지나지 않는다.
⑤ 원래 '종교'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의미하는 '종(宗)'과 그 깨달음을 설하는 언어의 체계인 '교(敎)'를 의미한다.

해설 : '종교'라는 용어는 기독교 〈성경〉이 아니라 불교경전 〈능가경〉에서 차용되었다.

2. 한국의 종교적 갈등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조화와 관용의 원리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며 다른 종교와도 협력한다.
② 자신의 종교는 완전한 종교이고 다른 종교는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다.
③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믿는다.
④ 자신의 종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다른 종교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⑤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만 단결하고 협력하여 이 땅에 사랑과 자비를 펼친다.

해설 : 한국의 종교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함께 조화됨을 목표로 하고 관용하는 자세 위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협력해야 한다. 다른 종교에 대한 부정적 행동(우월적 태도, 경멸적 시각, 배타적 행위, 무관심)을 해서는 안된다.

3. 다음 글을 읽고, 종교에 대한 이해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 '과학은 현재 있는 그대로의 실재(reality)를 파악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그 실재가 앞으로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당위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반면에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 살고 행동해야 한다는 가치 판단에만 관계하는 것으로서 과학과는 그 영역이 다르다.'
- 현대사회에서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며,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과 같다.' - 아인슈타인

① 과학과 종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② 종교와 과학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③ 과학의 발달은 종교의 발달을 어렵게 한다.
④ 종교는 과학을 초월한 영적(靈的)인 분야이다.
⑤ 과학은 종교적 신념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설 : 과학과 종교는 새의 두 날개처럼 함께 움직일 때 큰 장점을 지닐 수 있다. 한 쪽을 배제하거나 아예 다른 논의로 치부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4. 세계의 다양한 종교현상을 포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종교관은?

① 종교란 아편과 같은 것이다.
② 종교란 신과 인간의 관계이다.
③ 종교란 신이나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④ 종교란 인간의 모든 의무를 신의 명령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⑤ 종교란 인간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문화현상이다.

해설 : 종교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기에 부정적인 판단(아편)만 하여서는 안된다. 종교의 믿음은 신 이외의 믿음(불교, 유교, 도교)이 있는 종교도 있기에 신에 대한 믿음과 개념만으로 모든 종교를 이해할 수 없다. 모든 종교는 인간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믿음을 공유하거나 혹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적 현상이다.

5. 자기 종교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은 종교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이다. 다음 중 청소년들에게 불교가 좋은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불교는 도덕성을 중시하여 전쟁이나 폭력을 용납하지 않고, 평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② 불교는 미신이나 맹신·독선을 거부하며, 보편적 사실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③ 불교는 인간을 존중하면서도 인간 이외의 존재를 정복하거나,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④ 불교는 현실의 보람과 풍요보다는 내세에서의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⑤ 불교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해설 : 불교는 인과법에 따라 내세의 문제를 현세의 삶을 얼마나 보람차게 사는가를 통해 설명하기에 내세의 행복에 현실의 보람과 풍요는 필수적이다.

정답 : 1.③ 2.① 3.① 4.⑤ 5.④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처님 법으로 다시 태어나는
환희 가피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개화산 약사사
주지 범해 스님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7길 261 약사사
(02)2662-2551, 7551

30 창간 30주년 1994~2024

대한불교
조 계 종

포 교 사 단

포교사 일동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5층
전화 02)927-0588 / 팩스 02)927-5390

2024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石佛寺 Seokbulsa Temple
석불사

https://templestay.com
문의전화 02-712-176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 23-6

(재)한국불교총화종 총본산

천마산 수 진 사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115-13(호평동)
전화 031)591-7710, 팩스 031)591-7121

대한불교 미륵정토종

미 륵 정 토 사
초무한참나선원

비대면 설법 〈불교심리법TV〉
YouTube 검색

사부대중일동

미륵정토사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길 19
전화 041)855-3566

초무한참나선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94
전화 02)912-1050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수업형식	수료 1년 과정 (2년 코스)
개 강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 시작
교육시간	매주 금요일 마다 오전 9시
교육내용	아침예불/ 종성/ 사물다루는 법 (목탁, 요령, 북, 태징) 천도재 (49재의식),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게, 다게
수강자격	불교의식에 관심 있는 스님, 포교사 및 재가불자
교육장소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 봉운사
문 의	사무총장 진효스님 휴대폰 010-5306-0856 은행 농협 351-1034-0234-33 송강범음범패전승회

매주 금요일 교육 시간표

오전 9시	49재의식 진효스님	오후 1시	화청연습 정덕스님
오전 10시	49재의식 진효스님	오후 2시	행사연습 진효스님
오전 11시	작법 진효스님 보조 정심법사님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회장 웅천 합장(合掌)
▣수업 시간표는 다가오는 행사 일정 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요행사문의 – 윤달 생전예수재, 수륙재, 방생, 1000기도 회향법회, 점안식
홈페이지 www.송강범음범패전승회.kr
회장 웅천스님 010-2370-2953
부회장 혜덕스님 010-9873-3320 / 강주 진효스님 010-5306-0856

SGBE 魚山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 화 사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 107
전화 02)444-4321, 7215

대한불교조계종

금 선 암

포근하고 넉넉한도량

주지 덕 산

사부대중 일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1길 377
전화 063)221-8486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망 해 사

주지 우 림

사부대중 일동

전북 김제시 진봉면 심포10길 94
전화 063)543-3187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대표 탁 진 규

사부대중일동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전화 054)955-8200 ~ 1
팩스 054)955-8202

운불련 호출택시

호출은 053-766-7777

Google play 에서
운불련을 검색하세요! ▼

회장 조 신 제

한국 운전기사 불자 연합회
대구지역회

30 창간 30주년
1994~2024

2024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18교구 포교당

금음산 불 인 사

주지 송 산

고불학당(불교대학)
불인사 파라미타

신 도 일 동

경남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46번길 3
전화 055)343-1638 팩스 055)343-1637

대한불교총화종

고성 청 수 암

주지 진각

사 부 대 중 일 동

경남 고성군 삼산면 대독1길 85
전화 055)672-6972

대한불교조계종

두 타 사

불 사 회
두 타 회
단 나 회
108산사순례단
가릉빈가합창단
해병대통영전우회

해병 영혼의집

사 부 대 중 일 동

경남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95-1
전화 055)648-1477, 648-1366

대한불교법화종

통영 보 광 사

법화제일도량

주지 연산

사 부 대 중 일 동

경남 통영시 망일길71-20
전화 055)645-9292

가야불교 빗장을 열다

대한불교조계종

김해 여여정사

불교대학 · 경전반



주지 도 명

사부대중일동

주소 경남 김해시 가야로30번길1
전화 055)311-2911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문화재단

이사장 이산 현문

이사 : 상우, 운성, 산옹, 법진
명신, 정우, 재원, 항조
동진, 오심, 만초, 동주,
만초, 항조, 수진행
감사 : 영산, 도광록세무사.
사무국장 : 홍성표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77번지
전화 055)372-3722 팩스 055)372-3723

한국불교태고종

석 봉 암

회주 월 봉
주지 자 명

사 부 대 중 일 동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원곡2길 77-42
전화 055)223-6801

한국불교태고종
(나누우리 이사장)

밀양 법 성 사

주지 만 우

신 도 회 일 동

경남 밀양시 상동면 고정2길 159-11
전화 055)351-0374

밀양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진 각 (표충사 주지)

상임부회장 환명(약수암)
사무총장 정무(용궁사)
재무부장 지공(어룡사)
포교부장 현송(대원암)
사회부장 천주(무봉사)
감 사 성정(수덕사)
교무부장 도청(신명사)
홍보부장 덕향(미덕사)

회 원 사 찰 일 동

경남 밀양시 북성로1길 8-1
전화 055)355-4518 팩스 055)354-5622

대중불교 전법도량

봉화산 정 토 원

원장 법 공

총무스님 길상 등명
사단법인 이사장 선건
사무국장 이수홍 감사 장임순, 제효정
고문 김영준, 이재우

사단법인 봉화산정토원신도봉사회
회장 이장명
부회장 박영옥 이수홍, 총무 김지원
지도법사 황재연 조세균, 간사 김대진

메아리음악단 단장 김수복

신도일동

김해시 진영읍 장방로136-200
전화 055)342-2991~2
www.bonghwasan.org

2024년 1월 1일 월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생활

1465호 | C14 | 전면광고

술 먹고 남의 방에 들어가거나 도박과 광대놀이 좋아하면서 나쁜 벗 사귀고 게으른 이는 훌륭한 사람에게 칭찬 못 받네.

부처님 말씀 읽기 - 《선생자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건물 : 법당 60평, 외전각 3채
- 주변 : 시내산 및 주차가
- 매가 : 35억
- 경기분당포교원
- 8층 건물에 8층 • 128평에 전용80평
- 역세권, ev. 주차가, 옥상사용
- 매가 : 15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대형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6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백평, 임야 : 3천 6백평
- 건물 : 대웅전 55평, 공양실 35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9억

010-6764-0034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9500만원 (조정가능)
- 공기 맑고 아담한 절, 기도하기 좋은 절입니다. 많은 분 인연맺습니다.



010-4180-1788

사찰(급)안내

- 위치 : 창원시 소재
- 부지 : 약 50여평
- 법당 : 30 평
- 요사채 : 30 평(종무소1층)
- 가액 : 3억원(절충가능)
- 특징 : 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사찰로 포교지로 적지이며, 절 찾는 스님분들 와보시면 실망하지 않을것입니다.
- 법당 시설 완벽, 상태 최상

010-3190-811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삼량진읍 삼량리 155(자비정사)
- 대지 : 약 1,200평
- 법당 30평, 삼신각 3평, 요사채 30평(방3개, 화장실2개)
- 난방, 심야전기, 지하수
- 가액 : 7억 5천

010-8545-0245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 합포구 교방동
- 임대 : 보증금 500만원 / 월세 10만원

밀양으로 확장 관련 현 가람 임대 놓습니다. 암 말기 환자 치료한 기운이 있는 곳입니다.

010-3132-9666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 동구
- 다가구주택 6가구 포함. 3층 건물
- 법 당 : 부처님 삼존불
- 매매가 : 3억8천만원

몸만 오셔도 됩니다.

051-634-336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010-3741-3567

암 자 안 내

- 위치 : 익산시 삼기면 석기길 익산시내에서 10분거리
- 토지 : 160평
- 건물 : 법당30평외 2동
- 동불보살님 3분과 탱화 및 살림 포함
- 빈 몸으로 오셔도 바로 법회 가능합니다.
- 가격 : 1억1천만원 (다른곳 소임문제로 급매매)

010-3676-4788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회원구 회원동
- 임대 :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800만원
- 도심 번화가에 포교지로 적합

010-4438-88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포교원할 분

- 위치 : 서울 하곡동 시장역 2층
- 부지 : 30평 남향
- 가액 : 절충가능

결혼정보

결혼할분은
서울 명동결혼에서

010-5381-1419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좋은 인연을 찾습니다

추운날 따뜻하고 아늑한 절에 오셔서 잘 이끌어 갈 분을 찾습니다.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은 스님, 법사, 불자 상관없습니다.

- 나이 : 60~70대 • 위치 : 충남

010-3466-2470

GNN 손도사

책50권 저술출간함
세계1등 운명상담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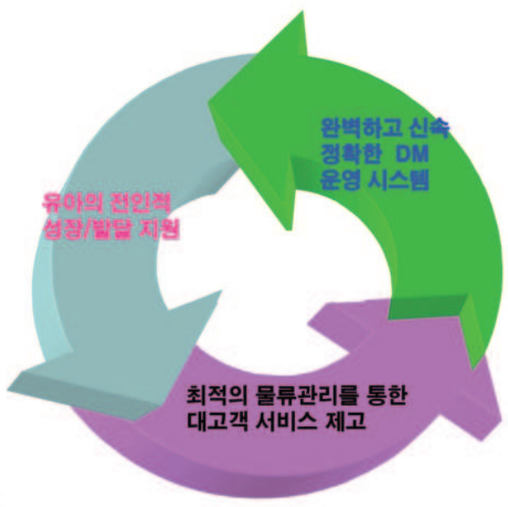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내 최초 DM 서비스 제공, 44년 경험의 전문 기업 덕성기획(주)

덕성기획㈜는 ㈜노벨과 개미의 교육사업 부문을 인수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DM 및 물류, 유아교육 사업을 고객의 입장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임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덕성기획(주)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219번길 87
TEL : (02)2615-0183(대) FAX : (02)2689-3139 www.duksungdm.co.kr
▶ DM사업본부 ▶ 물류사업본부 ▶ 유아교육사업본부(노벨과 개미)

유아교육사업본부 덕성기획(주) 노벨과 개미+

미래를 여는 (주)덕성C&B
직배사업부 :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직배서비스 운영
TEL : (02)2615-3296(대) FAX : (02)666-3139

스토리텔링 경전에세이 ❶ 노란 숲속 두 갈래 길



▶ **이미령 작가**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동국역경원에서 역경위원으로서 경전을 번역하고 경전으로 칼럼을 써 왔다. 사찰의 불교대학에서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불교와 일반 서적을 읽고 소개하는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일단 불교 경전을 읽어봅시다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고
하나의 길만 가야 하는 것이 아쉬워
깊은 숲속으로 굽어 사라지는 길 하나를
오랫동안 서서 멀리 바라보았지.(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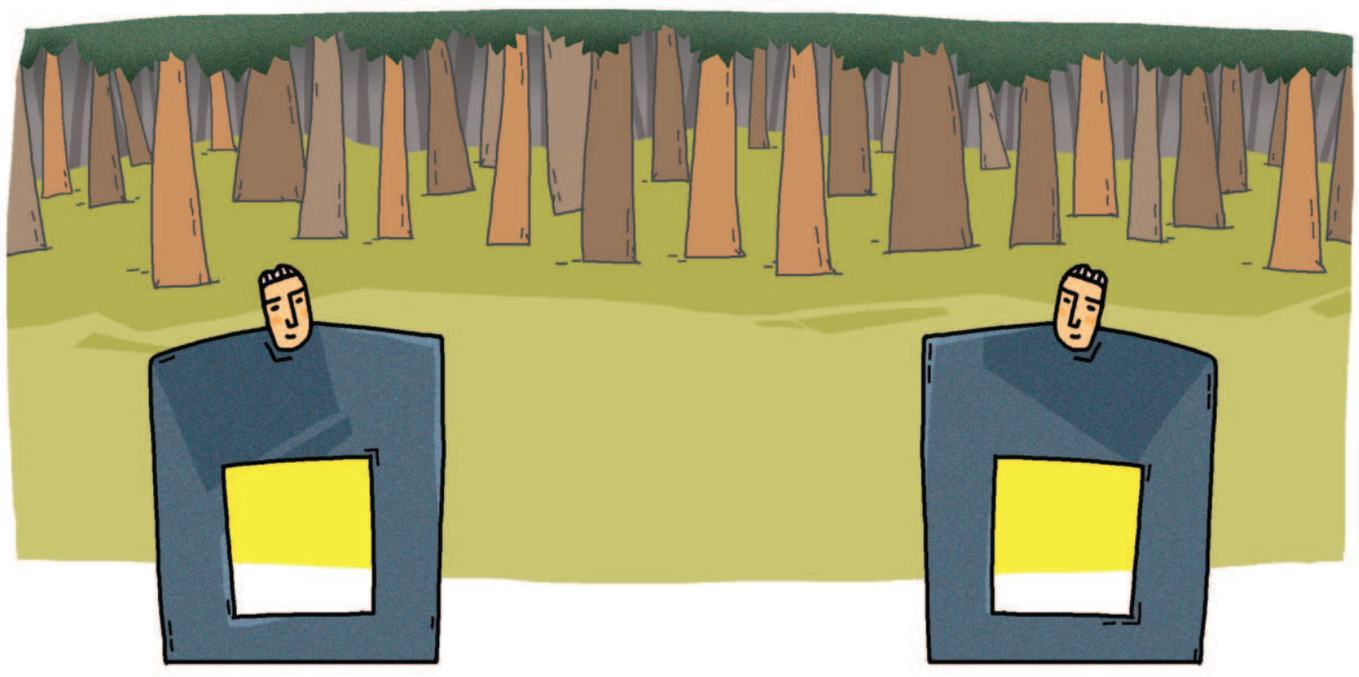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미국 시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에서는 두 갈래 길을 동시에 갈 수 없어서 마음속으로 길 하나를 선택한 뒤 가지 못하게 된 길을 아쉽게 바라보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그려집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두 길을 동시에 걸어가는 일을 내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할까, 하지 말까.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살까, 사지 말까.

선택지가 둘 뿐이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내 앞에서 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걸 선택했을 때의 결과는 온전히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인지라 나는 자주 선택장애, 결정장애를 겪습니다.

붓다의 말씀이 담긴 경전은 키 큰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서 있고, 이름을 알지도 못할 나무들이 서로서로 기대어 서 있는 아주 커다란 숲과도 같습니다. 그 숲에는 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경전을 나열해 볼까요?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유마경〉 〈무량수경〉 〈천수경〉 〈아함경〉 〈니까야〉, 〈법구경〉 〈밀린다왕문경〉 〈원각경〉 〈육조단경〉 〈열반경〉 〈지장경〉 〈숫타니파타〉 〈본생경〉 〈약찬게〉 〈법성게〉 〈불설소재길상다라니〉….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안 스님에 따르면, 해인사에 모셔져 있는 고려대장경에는 1514종류의 경전이 있고, 일본에서 편찬한 대정신수대장경에는 2236부의 경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경전으로 시작하는 불교〉 88쪽)

이 많은 경전들이 사람들에게 고루 읽히거나 연구된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전은 너무나 많이 읽혀서 수없이 많은 해설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은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선택받지 못한 채 대장경이란 창고 안에서 천년도 넘게 고독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경전들이 있다 보니 "불교 경전 한 권 읽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하나만 추천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으면 참으로 난감해집니다.

지친 현대인들에게 숲에서 산책하는 것보다 좋은 약은 없듯이 마음의 양식을 찾는 이에게 경전의 숲에서 산책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경전의 숲이 너무 깊어서 입구에서 어정거리며 기웃거리다가 "나중에…"라며 돌아섭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 초입에서 두 갈래 길을 먼저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 갈래는, 어려운 경전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그 속에 담긴 뜻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여 붓다의 경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자력문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씩 알아가고 그 속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실천법을 따라 해보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번뇌의 정체를 알아내고 없애는 길입니다. 내가 수행자가 되고 내가 아라한이 되고 내가 보살이 되고 그리고 내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능 좋은 세탁기를 새로 샀다고 해보지요. 당장 빨래를 해야 해서 세탁기를 설치하자마자 돌리려고 하는데 예전 것과 작동법이 달라서 문제입니다. 그럴 때 사용설명서를 펼쳐서 읽어봅니다. 사용설명서에서 ①, ②, ③…으로 숫자를 매겨서 친절하게 작동법을 일러주고 있으니, 그 설명대로 하나씩 따라 해보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일러주는 대로 하나씩 따라 해보니 뜻밖에 참으로 쉬운 것임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 쌓였던 빨랫감을 거뜬하게 세탁했습니다. 자력문이란 바로 이렇게 내 빨랫감을 내 손으로 깨끗하게 세탁해서 기분 좋게 입는 것입니다. 그걸 도와주는 사용설명서가 바로 경전입니다.

팔만대장경엔 1514종 경전 있어
경전의 숲 입구서 헤메는 그대여
깨달음 사용설명서 '자력문 경전'
불보살 가피 바라는 '타력문 경전'
두 갈래 길 중 무엇을 택하겠는가

또 다른 한 갈래는, 깨달음이니 수행이니 하는 것은 마냥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지며, 그저 불보살님의 가피로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하게, 무탈하게 한 생을 살아가도록 복을 빌며 기도하는 길입니다. 타력문이라고 부르는 길로, 타력 즉 불보살의 힘에 의지해서 고해와 같은 인생을 헤쳐 나가는 신앙모습입니다. '나는 중생이어서 그저 불보살님께 나를 맡깁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라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나의 배우자, 내 자식, 내 부모들에게 불보살님의 가피가 내려지기를 빕니다. 이렇게 나와 가족의 행복을 빌려고 절에 다니기 시작했거나 현재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절에 다니며 기도해서 불보살님의 보호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선택하는 신앙방식입니다. 때가 많이 묻은 빨랫감을 앞에 두고서 힘 좋은 사람, 가사도우미를 소리쳐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가 내 외침을 듣고 달려와서 나 대신 빨랫감을 말끔하게 세탁하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세탁할 수 있다면 내 힘으로 해결해야 옳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남의 손을 빌려야 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는 것이 바로 기도요, 이런 신앙방식을 타력문이라고 합니다.

불교에는 자력문의 경전도 있고 타력문의 경전도 있습니다. 불교교리가 이러저러한 내용들이니 꼼꼼하게 읽고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자기 마음속 번뇌를 하나씩 없애도록 안내하는 경전이 있는가 하면,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무조건 불보살님 이름을 부르기를 권하며 그러면 원하는 것을 이룬다고 일러주는 경전도 있다는 말입니다.

노란 숲에 두 갈래 길이 있어 나그네가 어느 길로 가야 좋을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프로스트의 시처럼 대장경이라는 거대한 숲의 초입에서 쉬이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렵니까? 자력문인가요, 아니면 타력문인가요? 강의 시간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수강생들은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나는 자력문을 택하겠습니다"라고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력문이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설명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고, 먹고 사느라 바빠서 경전을 꼼꼼하게 읽거나 법문이나 강의를 챙겨 들을 수 없고, 무엇보다도 깨달음이니 수행이니 하는 것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타력문의 불교를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려니 옆 사람에게 창피하고 민망해서 대답을 망설이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느 길을 택하셔도 좋습니다.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 인생인데요.

자력문과 타력문에 대표적인 경전을 하나씩 들자면 자력문의 경전으로 니까야(아함경)를, 타력문의 경전으로 관세음보살보문품을 들 수 있습니다. 길상소재다라니도, 지장경도 타력문의 경전으로 분류할 수 있지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력문의 경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경전 속 내용을 깊이 새기고 이해하고 사색하며 자기 마음에 담고 스스로를 경전 구절에 비추어 살펴야 하는 자력문의 경전들을 마치 타력문의 경전처럼 대하는 불자들도 많습니다. 가령, "〈금강경〉 읽으면 좋다던데…"라면서 아침저녁으로 〈금강경〉을 읽는 사람들, "〈법화경〉 사경하면 불보살님 가피를 입는다던데…", 혹은 〈약찬게〉나 〈법성게〉, 〈천수경〉을 몇 독씩 하면 좋다면서 기도의 일환으로 그 경전을 읽거나 사경하는 경우입니다. 좋다니까 하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니,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 이따금은 이런 의문도 듭니다. "대체 무엇이 좋아야 좋다고 하는 걸까, 어떻게 좋은 것이 좋다는 것일까?"

이렇게 되물으면 '따지지 말고 그냥 간절하게 읽어가라'는 매서운 질책도 많이 받습니다. 분별심을 내려놓고 열심히 읽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니, 이래저래 경전은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것이 좋은 듯 합니다. 자력으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겠노라 다짐하며 읽으면 내가 깨달음을 이루니 좋고, 이해하지 못해도 자꾸 읽으면 배우자와 자식과 부모님이 무탈하다고 하니 그것도 좋습니다. 경전을 읽읍시다.

〈경전이야기꾼, 불교강사〉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 한국불교선조계종

종 정 호림당 혜원 명예종정 법 경
원로의장 정 광 부 종 정 법 정

총 무 원 장 법 성 종 회 의 장 혜 관
감 사 원 장 보 덕 교 육 원 장 도 원
문 화 원 장 이 재 사 정 원 장 범 정
포 교 원 장 법 성 총 무 국 장 법 원
비 구 니 원 장 무 상 부 원 장 광 명

교(敎)는 배워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요.
선(禪)은 닦아서 육관을 통해 보는 것이니 제대로 된 참선을 배워야만 합니다.
선을 통해 같이 동행할 스님을 모집합니다.

62개 사.암 사찰 종도 일동

총무원 : 대구광역시 북구 작원길9 성불사 전화 053)322-0567, 010-6537-0567

대한불교조계종 연예인전법단
단장 우봉
– 임원·회원일동 –

■ 연예인전법단이 하는 일 : 종단행사 참여, 산사음악회 기획 및 재능기부, 후원사업, 승보공양사업, 불교행사기획, 포교사업, 예체능인재양성 발굴 및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화계사)
☎(02)902-2663 Fax (02)990-1885 / 010-3573-0108

불기 2568년 새해 온누리에 자비와 희망이

만생명을 존중하면 만생명으로 존중받게 되어 나온다

재행선사법어 상은 은청



재단이사장 **혜 수**

주 지 **혜 솔**

신도회장 **이동복**

사부대중 합장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길 31-1(상동)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10303 Burke Lake Rd. Fairfax Station, VA 22039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854 Riverwoods RD. Mettawa, IL 60045, USA
TEL:(1-224)632-0959 E-mail: hanmaumchicago@gmail.com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070-7554-1402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91169-5560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석수동) T) 031-470-3100 F) 031-470-3116